

2024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주관연구기관	(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연구진	이동석(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장애학과 교수) 이호선(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외래교수) 김나영(대구대학교 대학원 장애학과 박사 수료)		
참여의원(국회)	김예지(국민의힘), 최보운(국민의힘), 서미화(더불어민주당), 강경숙(조국혁신당)		
참여의원(광역)	이소라(서울시의원), 박진수(부산시의원), 황순자(대구시의원) 박판순(인천시의원), 서용규(광주시의원), 황경아(대전시의원) 방인섭(울산시의원), 최원석(세종시의원), 이해원(경기도의원) 김기홍(강원도의원), 유상용(충청북도의원), 정병인(충청남도의원) 이병철(전라북도의원), 김미경(전라남도의원), 박선하(경상북도의원) 전현숙(경상남도의원), 김경미(제주특별자치도의원)		
협력기관	(지방자치단체)	경기도	(중앙정부 및 기관)
	서울특별시	강원도	교육부
	부산광역시	충청북도	보건복지부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부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한국장애인개발원
	대전광역시	경상북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목 차

I. 서론	
1. 조사 배경과 목적	
1) 비교 조사의 수행 배경	
2) 수행 목적	
3) 조사 개요와 수행 방법	
2. 지표의 개발과 적용	
1) 2024년 조사 지표의 개발과정	
2) 2024년 조사 지표의 구성	
3) 장애인 복지·교육 지표의 개념과 정의	
4) 지표별 통계수치 표준화 및 점수산출	
5) 지표의 가중치 적용	
3. 결과 보고서의 작성과 활용	
II. 분야별 장애인 교육·복지 수준 분석 결과	
1. 교육 분야 종합 수준	
2. 복지 분야 종합 수준	
3. 교육 분야 지표별 세부 결과	
1) 교육 영역 지표	

- 4. 복지 분야 지표별 세부 결과
- 1)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 2)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
- 3)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 4) 이동(편의)· 문화 여가· 정보접근 영역
- 5)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Ⅲ. 시·도별 장애인 교육·복지 수준 분석 결과

- 1. 서울특별시
- 2. 부산광역시
- 3. 대구광역시
- 4. 인천광역시
- 5. 광주광역시
- 6. 대전광역시
- 7. 울산광역시
- 8. 세종특별자치시
- 9. 경기도
- 10. 강원특별자치도
- 11. 충청북도
- 12. 충청남도
- 13. 전북특별자치도
- 14. 전라남도
- 15. 경상북도
- 16. 경상남도
- 17. 제주특별자치도

Ⅳ. 재정자립도와 교육·복지 수준 분석

- 1. 재정자립도와 장애인교육 수준 비교 분석
- 2. 재정자립도와 장애인복지 수준 비교 분석

V. 결론 및 제언

- 1. 영역별 조사결과 및 제언
- 2. 시·도별 조사결과 및 제언

부록 1.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 영역 및 지표별 원점수

부록 2. 2024년 전국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 비교 지표 설명 자료

I. 서론

1. 조사 배경과 목적

- 1) 비교 조사의 수행 배경
- 2) 수행 목적
- 3) 조사 개요와 수행 방법

2. 지표의 개발과 적용

- 1) 2024년 조사 지표의 개발과정
- 2) 2024년 조사 지표의 구성
- 3) 장애인 복지·교육 지표의 개념과 정의
- 4) 지표별 통계수치 표준화 및 점수산출
- 5) 지표의 가중치 적용

3. 결과 보고서의 작성과 활용

1. 조사 배경과 목적

1) 비교 조사의 수행 배경

1995년도에 지방자치제도가 다시 실시되고 2005년도에 많은 복지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다. 지방자치제도는 지역 주민의 민의에 기반하여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운용하여 국가의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자치제도의 적용과 정착은 다양한 정책과 이해 관계자들에게 지역별로 매우 다른 수준의 생활수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2005년 분권교부제도의 도입 이후 시작된 사회복지 사업의 지방 이양은 이러한 현실을 더욱 가속화 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여 국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의 자율권을 늘리기 위해 재정을 지원한다는 취지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증가와 지역 간 격차 심화와 같은 부작용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간 격차를 줄이면서도 지역의 특색에 맞는 장애인복지를 개발 보급할 필요성이 존재하게 되었다. 이에 민간 장애인단체의 우산조직 역할을 하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각 시·도의 복지 및 교육 수준을 매년 비교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에 의해 각 시·도 간 격차를 확인하고 상향평준화의 길로 안내하기 위해 2005년부터 전국 시·도별 장애인복지 및 교육 수준 비교 조사를 시행해 왔다. 특히 이 조사는 시·도 간 장애인복지 수준 차이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조사 결과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는 격려하고 분발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는 독려하는 역할을 꾸준히 해 왔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제도의 순기능인 지역밀착형 장애인복지제도를 발전시킴과 더불어 역기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지역 간 격차를 줄임으로써 대한민국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

매년 모든 지표를 조사하는 데 따르는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 지난 제7기 지방자치단체장부터 임기 연차에 따라 조사 영역을 조절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통해 제8기 지방자치단체가 탄생함에 따라, 2023년도에는 교육 분야와 더불어 복지 분야의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만을 조사하였다. 2024년도는 임기 2년차인 2023년도에 시행했던 장애인복지 사업과 교육자치 제도의 수준을 비교하는 것으로 현 지방자치단체장의 중간 평가에 가깝다. 이에 따라 교육 분야와 복지 분야의 모든 영역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 간 격차를 확인하고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번 조사의 비교 결과는 장애 관련 정책 수준의 지역 간 비교를 토대로 각 지방이 가진 강점과 약점을 탐색하고, 올해 새로 시작한 지방정부가 보완과 개선을 위해 더욱 역점으로 추진할 과제를 발굴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 지자체장 임기별 복지 분야 조사 영역

구분	임기 1년	임기 2년	임기 3년	임기 4년
조사 방식	테마 분야 조사 (소득 및 이동 중심)	지표 전체 조사 (지자체장 중간평가)	테마 분야 조사 (보건 및 서비스 중심)	지표 전체 조사 (지자체장 평가)

2) 수행 목적

본 비교 조사의 수행 목적은 시도별 장애인복지 수준의 비교를 통해 광역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 수준과 교육 지원 수준을 파악·분석하고, 각 시·도별 강점과 취약점을 확인하고, 시·도 간 장애인복지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제시를 통해 지역 격차 해소와 균형 발전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3) 조사 개요와 수행 방법

본 비교 조사는 2024년 3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되었다. 조사가 다루고 있는 범위는 전국 17개 시·도의 장애인복지와 장애인 교육의 현황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기 직전 해인 2023년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시·도와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 등과 관련된 자료의 취합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국에서 담당하였고 자료 분석 및 집필은 공동 연구진 3인이 담당하였다. 자료 수집은 조사, 회신을 통한 방법과 자체 자료 수집 방법이 병행되었다. 조사, 회신을 통한 수집은 2024년 4월 24일부터 8월 10일까지 진행되었다. 17개 시·도,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중앙정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중앙정부 소속 공공기관에 조사 지표와 조사 양식(부록 2 참조)을 배부하고 회신받았다.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타 자료와의 대조, 지역 내 연차별 비교, 지역 간 비교를 통한 추가적인 설명과 수정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조정 작업이 진행되었다.

지자체 자료는 1차 취합 검토 후 재요청, 추가요청 등의 과정을 거쳤고, 공공기관은 기관별 자료 요청, 정보공개 등의 방법으로 취합하였다. 자체 자료 수집은 교육 분야의 경우 ‘2023년 특수교육 통계’와 ‘2023년 특수교육 연차 보고서’ 자료를 활용하였고 복지 분야는 보건복지부 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 현황(2023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회보장 통계 등을 활용하였다.

조사 지표와 조사 양식은 2022년도와 2023년도에 활용된 지표를 기본으로 일부 지표 명칭과 계산 방식을 현황에 맞게 수정하였다. 시·도별 조사 지표는 시·도별 담당자에게 사전 수렴 기간을 거쳐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을 거쳤다. 동일한 지표는 2023년과 비교하여 전년 대비 상승 또는 하락을 살펴보았는데, 이는 시·도가 이전 수준과 비교하여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함이다.

2. 지표의 개발과 적용

1) 2024년 조사 지표의 개발과정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는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현재까지 활용되었던 지표를 기초로 활용하였다. 특히 2012년부터 동일한 지표를 주 지표로 선정한 후, 최근의 장애인 관련 법률과 장애인복지사업안내, 그리고 장애인복지 관련 행정자료를 추가로 분석하여 지표를 완성하고 연속성 있게 활용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2024년 조사에서도 주 지표의 구성은 가급적 유사하게 유지하였다.

다만 일부 제도의 변경이나 기존 지표 중 측정이 모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던 지표에 대해 관련 전문가 논의를 통해 부분적인 수정과 보완을 시도하여 2024년 조사를 위한 지표의 초안을 작성하고, 2024년 2월에 17개 시·도 장애인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의견을 취합하였다. 이에 전라북도 등에서 의견을 보내주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개별지표의 정의와 내용을 일부 보완하여, 2024년의 최종 지표를 마련하였다.

2) 2024년 조사 지표의 구성

2024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복지·교육 수준 비교 조사에 활용된 최종 조사 지표는 대부분 기존과 동일하게 이루어졌고 대분류에서 교육 분야와 복지 분야로 구성되었다. 교육 분야는 ‘교육 영역 1개, 8개 지표로 구성되었고, 복지 분야는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과 같은 5개 영역, 35개 지표로 구성되었다. 분야 및 영역별 지표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024년 조사 지표의 구성

분야 및 영역			지표수	
1	교육	교육	8	
2	복지	1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8
		2	보건 및 자립 지원	7
		3	복지서비스 지원	8
		4	이동(편의)·문화여가·정보접근	5
		5	복지행정 및 예산	7

3) 장애인복지·교육 지표의 개념과 정의

조사 지표의 대분류는 교육 분야와 복지 분야로 구성되었고, 교육 분야는 ‘교육 영역’ 1개로 구성되고, 복지 분야는 5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1) 교육 분야(영역)

교육 영역은 전년 지표에서 활용된 8개 지표를 활용하였다. 최종 지표는 재정 관련 부분, 공급 관련 부분, 수요 관련 부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재정적인 부분에는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교육예산 지원 비율과 같은 2개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공급 측면에는 특수학급 설치율,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특수교육 보조 인력(실무사) 배치율과 같은 3개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수요 측면에는 통합교육 학생 비율, 학생 10명당 특수학급 수와 같은 2개 지표가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교육 영역에 장애인 교원이 참여하는 것을 장애인 교육 수준에 반영하였다. 이에 따라 2024년도 조사에서 사용한 교육 영역 지표 및 산정 방식은 다음 표와 같다.

〈표〉 교육 영역의 지표 및 산정 방식

지표	산정 방식
①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천원)	시·도 특수교육 예산 / 특수교육대상자 수
② 특수교육예산 지원 비율(%)	시·도 특수교육 예산 / 시·도 교육청 총 교육예산 × 100
③ 특수학급 설치율(%)	특수학급 수 / 일반학교 전체 학급 수 × 100
④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유치원 특수교육 담당교원 수 /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수(특수학교 학생 + 특수학급 학생 + 일반학급 장애학생 +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영아)] × 4 × 100 [초등 특수교육 담당교원 수 / 초등 특수교육대상자 수(특수학교 학생 + 특수학급 학생 + 일반학급 장애학생)] × 6 × 100 [중·고등학교 특수교육 담당교원 수 / 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수(특수학교 학생 + 특수학급 학생 + 일반학급 장애학생)] × 7 × 100
⑤ 특수교육 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	보조인력 수(유급과 무급 포함 전체) / 특수교육대상자 수(특수학교 학생 + 특수학급 학생 + 일반학급 장애학생) × 100 유급 보조인력 수 / 특수교육대상자 수(특수학교 학생 + 특수학급 학생 + 일반학급 장애학생) × 100
⑥ 통합교육 학생 비율(%)	(특수학급 학생 수 + 일반학급 장애학생 수) / 특수교육대상자 수 × 100
⑦ 학생 10명당 특수학급 수(개)	[(특수학급 수 + 특수학교 학급 수) / (특수학급 학생 수 + 특수학교 학생 수)] × 10
⑧ 장애인 교원 고용률(%)	시·도교육청 장애인 교원 고용률(2배수 고용제 적용)

(2) 복지 분야

복지 분야는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과 같은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은 각 사도의 장애인의 취업과 직업재활 등 경제활동 지원 여건과 장애인 연금, 각종 수당 등 소득 보전 제도의 운용 수준 등을 조사한다.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 8개 지표는 ① 민간 부문 장애인 고용률, ②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③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④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⑤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⑥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비율 ⑦ 직업재활시설 지원 예산액 ⑧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이용자 비율이다.

〈표〉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의 지표 및 산정 방식

지표	산정 방식
① 민간 부문 장애인 고용률(%)	민간 부문 고용 장애인(2배수 고용제 적용) 수 / 민간 부문(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 적용 대상 인원×100 ※ 2023년 12월 31일 기준
②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장애인 공무원(2배수 고용제 적용) 수 / 적용 대상 공무원(소방직 등은 제외) 수 ×100 ※ 2023년 12월 31일 기준
③ 지자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물품 구매액 / 지자체 물품 총구매액 ×100 ※ 2023년 12월 31일 집행액 기준
④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원)	장애아동수당 및 지자체 추가지급액 총액 / 장애아동수당 전체 지급자 수 ※ 2023년 12월 31일 집행액 기준, 지급자 수는 연인원
⑤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원)	장애수당 및 지자체 추가지급액 총액 / 장애수당 전체지급자 수 (가중치의 50% 적용) ※ 2023년 12월 31일 집행액 기준
⑥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비율(%)	장애인연금·부가급여(중증장애인) 지급총액 / 장애인연금 전체지급자 수 (가중치의 50% 적용) ※ 2023년 12월 31일 집행액 기준, 지급자 수는 연인원
⑦ 직업재활시설 지원 예산액(원)	장애인자립자금 대여건 수 / (국민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장애인 수 + 국민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장애인 수) × 100 ※ 2023년 12월 31일 기준
⑧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이용자 비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총액 / 근로 대상 연령층의 중증(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수(18세 이상 55세 미만) ※ 2023년 12월 31일 집행액 기준

⑧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이용자 비율(%)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이용자 수(직업재활교사 등 종사자 제외) / 근로대상 연령층의 중증(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수(18세 이상 55세 미만) × 100 ※ 2023년 12월 31일 기준
------------------------	---

②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은 각 시·도의 장애인에 대한 보건의료 인프라 확보 수준과 각종 의료비와 보조기기의 지원 수준, 활동지원과 자립생활 지원의 수준 등을 조사한다.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 7개 지표는 ①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② 보조기기 지원 수준, ③ 일반건강검진 수검 비율, ④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 지원 수준, ⑤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수준, ⑥ 장애인 1인당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⑦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이다.

<표>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의 지표 및 산정 방식

지표	산정 방식
① 장애인 1인당 장애인의료비 지원액(원)	장애인의료비 지원예산(국고+시·도 자체사업)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장애인 수 ※ 2023년 12월 31일 기준 * 시·도 자체사업은 의료급여 및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 예산 외에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약제비(비급여, 입원식대 등)를 지원하거나 지자체 자체사업(예, 저소득장애인 의료 지원 등), 지역재활병원(장애인·장애아동 전문병원) 건립·운영 예산총액,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인친화 건강검진기관, 의료 이용을 위한 교통비 지급(신장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지원(단, 중앙정부 지원 제외)을 폭 넓게 인정함(사업실적 및 예산 자료 제출 필요)
② 보조기기 지원 수준(%), 원	보조기기 구입비용 의료급여 지급 건수 + 보조기기 교부 건수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장애인 수 × 100 ※ 2023년 12월 31일 집행액 기준 보조기기 구입비용 의료급여 지급 총액 + 보조기기 교부 예산 총액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장애인 수 ※ 2023년 12월 31일 집행액 기준
③ 일반건강검진 수검 비율(%)	일반건강검진 수검인원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수 × 100 ※ 2023년 12월 31일 기준
④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 지원 수준(일, 원)	장애인 산모 도우미 파견 총 일수 / 2023년에 출산지원비 및 검진비를 지원 받은 실 인원수 ※ 삼태아 포함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 예산 총액 / 2023년에 출산지원비 및 검진비를 지원 받은 실 인원수 ※ 2023년 12월 31일 집행액 기준

⑤ 활동지원서비스 지원수준(% 원)	활동지원서비스(활동지원급여) 이용 실인원수 /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중증(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수 × 100 ※ 2023년 12월 31일 기준 (가중치의 40% 적용)
	만65세 이상 활동지원서비스(활동지원급여) 이용 실인원수 / 만65세 이상 중증(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수 × 100 ※ 2023년 12월 31일 기준 (가중치의 10% 적용)
	활동지원서비스(활동지원급여) 및 지자체 추가 지원사업 총급여액(원) /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중증(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수 ※ 2023년 12월 31일 집행액 기준 (가중치의 40% 적용)
	만65세 이상 활동지원서비스(활동지원급여) 및 지자체 추가 지원사업 총급여액(원) / 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수 ※ 2023년 12월 31일 집행액 기준 (가중치의 10% 적용)
⑥ 장애인 1인당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예산 · 자립생활정착금 지원 예산 · 체험홈 지원예산 / 18세 이상 65세 미만 중증(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수 ※ 2023년 12월 31일 집행액 기준
⑦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원)	광역자치단체 장애인 주거지원 제공사업(장애인 대상의 집수리, 주거환경 개선(주택수리 · 주택개조사업 등), 주거비 지원* 등) 예산액 /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수 * 장애인 주거비 지원은 ‘장애인 ·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및 관련 사업자에게 지원한 동법 ‘제12조 주거약자용 주택임대사업자 지원’, ‘제15조 주택개조비용 지원’ 예산과, ‘장애인 대상의 지원주택 관련 예산(임대보증금, 임대료, 주거유지지원서비스 등)’, ‘장애인 대상 전월세 대출보증료 및 이차지원’ 등 관련 사업 실적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폭넓게 인정 ※ 2023년 12월 31일 집행액 기준

③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각 시·도의 장애인에 대한 복지 시설 및 관련 인력의 확보수준을 통해 복지서비스 지원 인프라의 수준을 비교 조사한다.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의 하위 8개 지표로 구성된다. ①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②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③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④ 단기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⑤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⑥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⑦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⑧ 장애아 통합 및 전담어린이집 비율이 포함된다.

〈표〉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의 지표 및 산정 방식

지표	산정 방식
①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개소) (1만명 당 ○개소)	장애인복지관 수 / 등록장애인 수 × 10,000(장애인 1만명 당 장애인복지관 수) ※ 2023년 12월 31일 기준
②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개소) (5천명 당 ○개소)	직업재활시설 수 / 18세 이상 55세 미만 중증(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수 × 5,000(취업연령대 성인장애인 5천명 당 직업재활시설 수) ※ 2023년 12월 31일 기준

③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개소) (1만명 당 ○개소)	장애인복지관 외 법정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수련시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자도서 및 녹음서·출판시설, 장애인재활치료시설) 수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수 + 자립생활지원센터 수 + 기타 장애인이용기관(①,②,④)을 제외한 지자체 운영 장애인지원센터: 자립생활지원센터, 정신보건센터, 지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재활지원센터 등 기타 센터 . . . 지자체가 고정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독립사업에 한해 인정) 수 / 등록장애인 수 × 10,000(장애인 1만명 당 장애인복지관 외 법정 지역사회재활시설 수) ※ 2023년 12월 31일 기준
④ 단기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개소) (1만명 당 ○개소)	단기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 수 / 등록장애인 수 × 10,000 (장애인 1만명당 단기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수) ※ 2023년 12월 31일 기준
⑤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명) (1만명 당 ○개소)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①장애인복지관, ②장애인복지관 외 법정지역사회재활시설 및 기타 비법정지역사회재활시설)의 종사자 수 / 등록장애인 수 × 10,000(장애인 1만명 당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수) ※ 2023년 12월 31일 근무 종사자 현원 기준
⑥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명) (이용자 10명 당 ○명)	직업재활시설의 종사자 수 / 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수 × 10 (이용장애인 10명 당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수) ※ 2023년 12월 31일 근무 종사자 현원 기준
⑦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명) (이용자 10명 당 ○명)	장애인거주시설(유형별 거주시설 + 단기거주시설 + 공동생활가정)의 종사자 수 /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장애인 수 × 10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 10명 당 종사자수) ※ 2023년 12월 31일 근무 종사자 현원 기준
⑧ 장애아 통합 및 전담어린이집 비율(%)	장애아 통합 및 전담어린이집 수 / 전체 어린이집 수 × 100 ※ 2023년 12월 31일 기준

④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의 지표 및 산정방식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은 각 시·도에 구축된 장애인 이동권 및 접근권 인프라와 문화, 체육, 여가 활동, 정보 접근 지원 수준을 비교 조사한다.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의 하위 5개 지표는 ①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운영 수준, ② 저상버스 확보 수준, ③ 지자체 배리어 프리 인증시설 비율, ④ 장애인문화·여가 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⑤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이 해당된다.

<표 >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의 지표 및 산정방식

지표	산정 방식
①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운영 수준(%)	장애인콜택시, 임차택시(장애인만을 위한 전담 차량에 한해 인정 ^(주1)), 장애인심부름센터차량 수 /장애인콜택시 의무대수 × 100 ※ (주1) 일반 승객도 태울 수 있는 경우 전체 승객 중 장애인 비율을 파악하여 인정. 예를 들어 50대인데 이 중 장애인 비중이 20%라고 하면 10대로 인정. ※ 2023년 12월 31일 기준
② 저상버스 확보 수준(%)	저상버스 ^(주1) 보급대수 / 전체 등록 시내버스 대수 × 100 ※ (주1) 중형 저상버스 제외, 대형 저상버스만 해당 ※ 2023년 12월 31일 기준
③ 지자체 장애인편의 인증시설 비율(%)	지자체 장애인편의 인증받은 시설 수(누적 수) / 전체 지자체기관 수 ^(주1) × 100 ※ (주1) 지자체기관 수: 시·도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시·도/시·군·구가 직접 운영하는 기관(위탁 운영하는 복지서비스 기관 등은 제외) ※ 2023년 12월 31일 기준
④ 장애인문화·여가 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문화·여가 활동 바우처(문화바우처+스포츠(관람)바우처+여행바우처) 지원받은 장애인 수(연인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장애인 수 × 100 ※ 2023년 12월 31일 기준
⑤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원)	광역시자치단체 장애인 정보통신접근 관련 명목 ^(주1) 으로 지출된 예산총액 / 64세 이하 등록장애인 수 ※ (주1) 정보통신접근 관련 명목: 장애인의 정보 및 매체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예산으로 예를 들어 정보통신보조기기 지급, PC 보급 및 수리, 정보화 교육, 장애인 정보 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 점자소식지 발간, 독서보조기기 지원 등이 포함. 단, 통신요금, TV 수신료 등 공공요금 성격의 비용과 관련 기관 운영비 지원은 제외 ※ 2023년 12월 31일 집행액 기준, 광역예산만 해당

⑤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의 지표 및 산정방식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각 시·도가 장애인복지 행정 및 사업 수행을 위해 구축하여 운영 중인 조직과 인력 등의 인프라와 예산의 구성 수준을 비교 조사한다.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의 하위 7개 지표들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①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② 장애인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③ 기관별 장애인관련 조례 수, ④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 ⑤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 ⑥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 ⑦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이 포함된다.

지표	산정 방식
①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명) (1만명 당 ○명)	장애인복지 전담 공무원(주1) 수(광역시+기초(읍·면·동 제외), 자격증 소지(주2)시 가점 부여) / 등록장애인 수 × 10,000 ※ (주1)장애인복지 전담 공무원 : 장애인복지 업무만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 ※ (주2)자격증 소지 :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수어통역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보조공학사 등 장애인복지 관련 자격 또는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해당 공무원이 종사하는 전문분야 자격(편의시설 담당자의 건축사 자격 등)에 한함 ※ 2023년 12월 31일 기준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주1) 수(광역시+기초(읍·면·동 제외), 자격증 소지시 가점 부여) / 등록장애인 수 × 10,000 ※ (주1)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 장애인복지 외 업무와 함께 한 가지 이상의 장애인복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 ※ 2023년 12월 31일 기준
② 장애인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건, 명)	장애인관련 위원회 회의 총 개최횟수(건) ※ 2023년 12월 31일 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13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에 근거하여 조례에 의해 설치·구성된 위원회로 해당 지자체의 장애인복지 정책(계획) 또는 예산을 논의하는 위원회에 한함 장애인 관련 위원회 장애인 당사자 위원 수/장애인 관련 위원회 총 위원 수(명) ※ 2023년 12월 31일 기준
③ 기관별 장애인관련 조례 수(건)	장애인관련 조례 수(광역시+기초) ※ 기초단체의 경우 광역단체 조례의 영향을 받아 비슷한 내용으로 제정한 경우 조례 수에 편입하지 않음 ※ 2023년 12월 31일 기준
④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원, %)	2023년 지방자치단체(광역시) 장애인복지 예산총액 /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수 ※ 2023년 12월 31일 기준 [2023년 지방자치단체(광역시) 장애인복지 예산총액 / 2023년 지방자치단체(광역시) 예산총액] / (지방자치단체 65세 미만 등록장애인구 / 지방자치단체 전체 인구) × 100 ※ 2023년 12월 31일 기준
⑤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	2023 지방자치단체(광역시) 장애인복지 자체 예산(국비예산을 제외한 시·도비예산) / 2023 지방자치단체(광역시) 장애인복지 예산총액 × 100 ※ 2023년 12월 31일 기준 2023 지방자치단체(기초) 장애인복지 자체 예산(국비와 시·도비예산을 제외한 기초자치단체 시·군·구비 예산) / 2023 지방자치단체(기초) 장애인복지 예산총액 × 100 ※ 2023년 12월 31일 기준
⑥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원) (1인당 ○원)	지방자치단체(광역시)의 장애인단체 지원예산액(주1) / 광역자치단체의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수 ※ 예산지원이 된 장애인단체 모두 포함 ※ (주1)수탁(위탁)사업을 포함한 장애인단체 지원 ※ 2023년 12월 31일 기준 ⑥-2 지방자치단체(기초)의 순수 장애인단체 지원예산액(주1) 총액 / 광역자치단체의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수 ※ 예산지원이 된 장애인단체 모두 포함 ※ (주1) 수탁(위탁)사업을 포함한 장애인단체 지원 ※ 2023년 12월 31일 기준
⑦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원)	지방자치단체(광역시) 장애인여성 관련 지원예산액 / 광역자치단체의 65 미만 등록여성장애인 수

	※ 2023년 12월 31일 기준
	지방자치단체(기초) 장애인여성 관련 지원예산액 총액 / 광역자치단체의 65세 미만 등록여성장애인 수
	※ 2023년 12월 31일 기준

4) 지표별 통계수치 표준화 및 점수산출

지표별 수집 자료는 지표의 조작적 정의에 따라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지표값의 단위가 사람 수, 기관 수, 예산, 비율 등으로 상이하여 표준화(0~1점)하여 수준을 비교 가능하도록 하였다. 표준화는 해당 지표에서 최고 수준의 지자체 통계치를 기준 점수인 1점으로 정하고 각 지자체의 점수 수준을 기준 점수 1점에 대비하여 재 점수화하였다. 지표별 상대적 중요도를 반영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값에 지표별 가중치를 곱하여 점수를 지표별 점수를 산출하였다.

5) 지표의 가중치 적용

지표별 중요도를 나타내는 가중치는 기존 연구의 가중치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1) 영역별 가중치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는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교육은 단일 영역 100점으로 계산되며 복지는 5가지 하위영역의 합이 100점으로 계산된다. 복지 하위영역별 점수는 ① 소득 및 경제활동 21.242점, ② 보건 및 자립지원 20.184점, ③ 복지행정 및 예산 20.042점, ④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 19.618점, ⑤ 이동(편의)·문화여가정보접근 18.913점이다.

(2) 세부지표별 가중치

① 교육영역

교육영역 지표는 9개이다. 가중치가 반영된 지표별 점수는 학급당 특수교육대상자 수 11.364점, 통합교육 학생비율 11.236점,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11.192점,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률과 특수교육 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 장애성인교육 1인당 예산액이 각 11.150점, 특수교육예산 지원 비율 11.106점, 특수학급 설치율 10.892점, 장애인 교원 고용률 10.762점이다.

② 복지영역

가.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하위영역의 지표는 8개이다. 가중치가 반영된 지표별 점수는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 2.815점,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2.784점,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이용자 비율 2.753점,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2.701점,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2.649점,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비율 2.618점,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2.597점,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 2.327점이다.

나.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 지표는 7개이다. 가중치가 반영된 지표별 점수는 장애인 1인당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3.063점,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과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이 각 3.009점, 장애인 1인당 장애인의료비 지원액 2.845점,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 지원 수준 2.812점,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수준 2.779점, 일반건강검진 수검비율 2.699점이다.

다.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지표는 8개이다. 가중치가 반영된 지표별 점수는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2.570점,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2.521점,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2.512점,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2.463점,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2.444점,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2.405점, 장애아 통합 및 전담어린이집 비율 2.395점, 단기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2.308점이다.

라. 이동(편의)·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

이동(편의)·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 지표는 5개이다.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3.888점, 지자체 및 공공기관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 비율 3.827점, 저상버스 확보 수준 3.767점,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 3.722점, 장애인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3.707점이다.

마.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지표는 7개이다.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 3.042점,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 3.030점,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과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이 각 2.906점, 기관별 장애관련조례 수 2.783점,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 2.749점, 장애인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2.626점이다.

장애인 교육 분야와 복지 분야 지표들의 최종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표〉 지표별 가중치

영역1)	지표	점수(A) ²⁾	점수(B) ³⁾	점수(C) ⁴⁾ 최종가중치
교육 (100점)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5.585	-	11.192
	특수교육예산 지원비율	5.543	-	11.106
	특수학급 설치율	5.435	-	10.892
	특수교사 법정 정원 총원율	5.564	-	11.150
	특수교육 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	5.564	-	11.150
	통합교육 학생비율	5.607	-	11.236
	학급당 특수교육대상자 수	5.671	-	11.364
	장애성인교육 1인당 예산액	5.564	-	11.150
	장애인 교원 고용률	5.371	-	10.762
소득 및 경제활동 (21.242점)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5	12.714	2.701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4.808	12.225	2.597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비율	4.846	12.323	2.618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4.904	12.469	2.649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5.154	13.105	2.784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	4.308	10.954	2.327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	5.212	13.252	2.815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이용자 비율	5.096	12.958	2.753
	장애인 1인당 장애인의료비 지원액	5.694	14.092	2.845
보건 및 자립지원 (20.184점)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수준	5.563	13.766	2.779
	일반건강검진 수검비율	5.343	13.226	2.669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 지원 수준	5.628	13.929	2.812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6.022	14.904	3.009
	장애인 1인당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6.132	15.176	3.063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6.022	14.904	3.009
	장애인복지관 총층 수준	5.000	12.852	2.521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5.096	13.099	2.570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4.885	12.556	2.463
복지서비스 지원 (19.618점)	단기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4.577	11.765	2.308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4.846	12.457	2.444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4.981	12.803	2.512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4.769	12.259	2.405
	장애아 통합 및 전담어린이집 비율	4.750	12.210	2.395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총족율	7.032	20.677	3.888
	저상버스 확보 수준	6.815	20.041	3.767
	지자체 및 공공기관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 비율	6.923	20.359	3.827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18.913점)	장애인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6.707	19.724	3.707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	6.733	19.802	3.722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장애인 1만 명당 장애인복지담당공무원 수)	5.706	14.502	2.906
	장애인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5.155	13.102	2.626
복지행정 및 예산 (20.042점)	기관별 장애인관련조례 수	5.463	13.886	2.783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	5.971	15.173	3.042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	5.948	15.117	3.030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	5.706	14.502	2.906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	5.398	13.718	2.749

1) 영역별 우선순위 가중종합 점수

2) 지표별 우선순위 가중종합 점수

3) 지표별 우선순위 가중점수 값 대비 백분율 환산 점수

3. 결과 보고서의 작성과 활용

2022년 보고서에서도 2013년부터 적용한 인포메이션 그래픽을 적용하여 각 시·도별 장애인 복지와 교육 수준의 현황을 컬러와 이미지를 통해 주요 결과 값을 제시하였다. 4개 등급의 분류방식은 다음과 같다.

- 우수(green) : 지표별 전국 평균점수를 상회한 지방자치단체 중 최고점수와 평균점수의 중간 값 이상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 양호(blue) : 지표별 전국 평균점수를 상회한 지방자치단체 중 최고점수와 평균점수의 중간 값 미만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 보통(yellow) : 지표별 전국 평균점수에 미달한 지방자치단체 중 최하점수와 평균점수의 중간 값 이상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 분발(orange) : 지표별 전국 평균점수에 미달한 지방자치단체 중 최하점수와 평균점수의 중간 값 미만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최하·최하위 점수		전국평균 점수		최고·최상위 점수			
분발		보통		양호		우수	
지표별 전국 평균값과 최하 값의 중간 값 미만		지표별 전국 평균값과 최하 값의 중간 값 이상		지표별 최고 값과 전국 평균값의 중간 값 미만		지표별 최고 값과 전국 평균값의 중간 값 이상	

II장 분야별 장애인 교육·복지 수준 분석 결과는 다음 내용을 수록하였다. 먼저 종합 교육분야, 종합 복지분야, 교육분야 지표별 세부 결과와 복지분야 지표별 세부 결과를 제시하였다. 지표별로 4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해당 지자체를 표기하였다. 지자체명의 표기 순은 점수 순이 아니라 정부에서 사용하는 지자체 배치 순서이다. 다음으로, 지자체별 세부 지표 수준을 3년 치 또는 2년 치 자료를 비교하여 금년 등급에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노력 정도나 변화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III장 시·도별 장애인 교육·복지 수준 분석 결과는 다음 내용을 수록하였다. 먼저, 지자체별로 영역별 점수와 전국 평균을 그래프로 제시하여 해당 지자체가 전국 평균에 비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비교하기 용이하게 시각화하였다. 다음으로, 세부 지표별로 4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자체별로 전반적 수준, 강점, 취약점, 발전을 위한 우선 과제를 정리하여 정책수립과 반영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IV장에서는 주제별 분석을 추가하였다. 올해에는 시도별 재정자립도에 따라 시도간 격차가 발생

4) 지표별 우선순위 가중점수 값 대비 백분율 환산 점수 * 영역별 우선순위 가중중합 점수

할 수밖에 없다는 일부 시도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정자립도와 교육 수준, 재정자립도와 복지 수준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또 각 시도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V장 결론 및 제언은 주요 조사 결과를 요약하고 제언을 통해 시도별 장애인 교육·복지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II. 분야별 장애인 교육·복지 수준 분석 결과

1. 교육 분야 종합 수준

2. 복지 분야 종합 수준

3. 교육 분야 지표별 세부 결과

1) 교육 영역 지표

4. 복지 분야 지표별 세부 결과

1)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2)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

3)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4)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

5)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1. 교육 분야 종합 수준

최하 56.28점

평균 65.54점

최고 78.41점

분발	보통	양호	우수
인천, 경기, 전남, 경북	부산, 강원, 충북, 전북, 제주	서울, 대구, 광주, 울산, 충남, 경남	대전, 세종

<장애인 교육분야 종합 수준>

2024년 교육 분야 종합 수준의 평균 점수는 65.54점(최고 78.41점, 최하 56.28점)으로 나타났다. 우수는 대전, 세종 2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서울, 대구, 광주, 울산, 충남, 경남 6개 지역이며, 보통은 부산, 강원, 충북, 전북, 제주 5개 지역이고, 분발은 인천, 경기, 전남, 경북 4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세종이 78.41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장애인 교육 분야 종합 수준>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80.06	75.65	82.77	76.69	76.98	86.96	82.55	87.69	75.67	78.02	82.28	84.79	82.04	80.71	74.45	79.70	75.02	80.18
2023	74.96	70.80	68.42	69.43	71.67	86.30	77.32	86.90	65.94	70.81	73.46	76.94	74.80	68.08	67.81	73.63	66.46	73.16
2024	71.08	62.70	65.78	60.34	66.33	76.41	71.08	78.41	56.28	61.42	62.45	68.21	64.43	58.53	58.40	67.28	64.34	65.54
2023 대비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향상률	-5.46	-12.92	-4.01	-15.06	-8.05	-12.94	-8.78	-10.83	-17.16	-15.29	-17.63	-12.80	-16.09	-16.32	-16.11	-9.44	-3.29	-11.63
3년 연속 상승	-																	
3년 연속 하락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평균은 2022년 80.18점, 2023년 73.16점, 2024년 65.54점으로 2022년 대비 2023년에는 9.6% 하락하였고, 2023년 대비 2024년에는 전년 대비 11.63% 하락하였다. 3년 연속 장애인 교육분야의 종합 수준은 하락하였고 모든 지자체가 3년 연속 하락하였다. 최상위 지자체와 최하위 지자체의 점수 격차는 2022년에는 1.18배(87.69/74.45), 2023년에는 1.32배(86.90/65.94), 2024년에는 1.39배(78.41/56.28)로 지역간 격차가 커짐에 따라 ‘장애인 교육 분야’의 지역 간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대비 모든 지자체의 장애인 교육분야 종합 수준은 하락하였으며, 그 중 충북이 17.63%로

하락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연속 모든 지자체의 교육 종합 수준이 하락하고 있으므로 17개 시도 모두 장애인 교육 여건 향상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기와 경북은 3년 연속 분발 수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부산, 인천, 강원은 3년 연속 전국 평균값 이하이기 때문에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2. 복지 분야 종합 수준

최하 36.90점	평균 52.65점	최고 67.15점	
분발	보통	양호	우수
충북	대구,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부산, 광주, 울산, 세종, 경기	서울, 대전, 제주

<장애인 복지분야 종합 수준>

복지분야 종합 수준의 평균 점수는 52.65점(최고 67.15점, 최하 36.90점)으로 나타났다. 최상위와 최하위 간 격차는 1.82배(67.15점/36.90점)로 나타났고, 2022년 조사 시 격차 1.40배(67.07점/48.01점)에 비해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는 서울, 대전, 제주 3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부산, 광주, 울산, 세종, 경기 5개 지역이며, 보통은 대구,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8개 지역이고, 분발은 충북 1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대전이 67.1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 장애인 복지 분야 종합 수준>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56.48	50.61	54.07	48.01	55.27	62.48	57.36	55.20	51.81	51.63	49.60	50.74	48.05	49.36	48.73	56.39	67.07	53.7
2024	65.85	56.01	48.87	47.58	57.35	67.15	55.40	53.90	54.54	50.48	36.90	50.29	51.05	44.83	46.37	45.91	62.65	52.65
2022 대비	상승	상승	하락	하락	상승	상승	하락	하락	상승	하락	하락	하락	상승	하락	하락	하락	상승	하락
향상률	16.59	10.67	-9.62	-0.90	3.76	7.47	-3.42	-2.36	5.27	-2.23	-25.60	-0.89	6.24	-9.18	-4.84	-18.58	-6.59	-1.96

복지 분야의 경우 2023년도에는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만 조사하였기 때문에, 3년 동안의 경향을 볼 수는 없다. 이에 따라 2022년 조사와 2024년의 변화 경향을 분석하였다.

전국 평균은 2022년 53.70점에서 2024년 52.65점으로 1.96% 하락하였다. 하지만 그 폭이 크지 않아 2년 동안 큰 차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등급의 변화는 있었다. 대전과 제주는 2022년과 2024년 모두 우수 등급에 속하였고, 서울은 2022년 양호 등급에서 우수 등급으로 향상되었다. 광주, 울산, 세종은 2022년과 2024년 모두 양호 등급이었고, 부산은 2022년 분발 등급에서 2024년 양호 등급으로, 경기도는 2022년 보통 등급에서 2024년 양호 등급으로 향상되었다. 강원은 2022년과 2024년 모두 보통 등급이었고, 대구, 경남은 2022년 양호 등급에서 2024년 보

통 등급으로 하락하였다. 인천, 충남, 전북, 전남, 경북은 2022년 분발 등급에서 2024년 보통 등급으로 상향되었다. 충북은 2022년, 2024년 모두 분발 등급에 속하였다. 이에 따라 충북은 장애인복지 분야 향상을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2022년, 2024년 모두 평균 이하 등급에 속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도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3. 교육 분야 지표별 세부 결과

1) 교육 영역

교육 영역은 각 시·도의 장애인 교육의 재정, 공급, 수요 등의 수준을 조사하는 것이다. 교육 영역은 ①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② 특수교육예산 지원 비율, ③ 특수학급 설치율, ④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⑤ 특수학급 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 ⑥ 통합교육 학생 비율, ⑦ 학생 10명당 특수학급 수, ⑧ 장애인 교원 고용률과 같은 8개 지표를 활용하여 평가하였다.

(1)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최하 25,234천원	평균 35,238천원	최고 45,570천원	
분발	보통	양호	우수
부산, 인천, 경기	대구, 광주, 울산, 충북, 전남, 제주	서울, 대전, 경북, 경남	세종, 강원, 충남, 전북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수준>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평균은 35,238천원(최고 45,570천원, 최하 25,234천원)으로 나타났다. 우수는 세종, 강원, 충남, 전북 4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서울, 대전, 경북, 경남 4개 지역이며, 보통은 대구, 광주, 울산, 충북, 전남, 제주 6개 지역이고, 분발은 부산, 인천, 경기 3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강원이 45,570천원으로 가장 높고, 경기도가 25,234천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도별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수준>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32,681	29,224	42,323	27,012	30,294	34,684	20,099	59,439	26,513	39,615	34,450	36,306	42,222	35,580	27,134	33,525	24,815	34,424
2023	35,407	30,649	27,125	26,518	40,470	43,787	29,075	57,048	22,263	39,915	31,513	38,270	40,697	31,110	34,143	34,689	27,754	34,731
2024	38,914	30,227	30,606	25,839	33,861	36,197	32,918	43,636	25,234	45,570	30,629	43,770	43,643	30,587	35,383	40,017	32,020	35,238
2023 대비	상승	하락	상승	하락	하락	하락	상승	하락	상승	상승	하락	상승	상승	하락	상승	상승	상승	상승
향상률	9.01	-1.40	11.37	-2.62	-19.51	-20.97	11.67	-30.73	11.77	12.41	-2.88	12.56	6.75	-1.71	3.50	13.31	13.32	1.44
3년 연속 상승	서울, 울산, 강원, 충남, 경북, 경남, 제주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의 전국 평균은 2022년 34,424천원, 2023년 34,731천원, 2024년 35,238천원으로 2022년 대비 2023년에는 0.88% 상승하였고, 2023년 대비 2024년에는 대비 1.44% 상승하였다.

2023년 대비 상승한 지자체는 서울, 대구,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10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하락한 지자체는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세종, 충북, 전남 7개 지역으로 확인되었다. 향상률의 폭은 -20.97 ~ 13.32% 사이로 나타났으며 제주의 상승폭이 13.32%로 가장 크고, 세종이 30.73% 하락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연속 상승한 지자체는 서울, 울산, 강원, 충남, 경북, 경남, 제주 6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3년 연속 하락한 지자체는 인천, 세종, 충북, 전남 4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2024년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평균은 전년 대비 상승하였고, 강원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3년 연속 상승하는 지역 중 강원과 충남은 양호에서 우수 수준으로 1등급 상승하였고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향상률이 높은 편으로 장애인 교육 예산 증대를 위한 노력이 돋보였다. 대구와 제주는 분발 수준에서 보통 수준으로, 경북과 경남은 보통 수준에서 양호 수준으로, 강원, 충남, 전북은 양호 수준에서 우수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반면, 광주는 양호에서 보통으로 부산은 보통에서 분발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부산, 인천, 울산, 경기, 제주는 3년 연속 평균값 이하이기 때문에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세종의 경우 3년 연속 우수 수준인 반면 3년 연속 향상률이 하락하고 있어 장애인 교육 예산을 증대 또는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3년 연속 향상률이 하락하는 또 다른 지역인 인천은 3년 연속 분발 수준으로 향후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2)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최하 2.65%		평균 3.75%		최고 4.37%			
분발		보통		양호		우수	
경기, 전남		부산, 인천, 광주, 강원, 충북, 경북		대구, 울산, 전북		서울, 대전, 세종, 충남, 경남, 제주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수준>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평균은 3.75%(최고 4.37%, 최하 2.65%)로 나타났다. 우수는 서울, 대전,

세종, 충남, 경남, 제주 6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대구, 울산, 전북 3개 지역이며, 보통은 부산, 인천, 광주, 강원, 충북, 경북 6개 지역이고, 분발은 경기, 전남 2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충남이 4.37%로 가장 높고, 전남이 2.6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도별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수준〉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4.35	4.06	5.96	4.08	3.83	5.20	4.31	4.66	3.63	3.68	5.10	5.01	4.54	3.94	3.23	4.25	3.51	4.31
2023	4.45	4.24	3.51	3.87	5.02	5.90	3.85	5.99	2.79	3.29	4.45	4.49	4.07	2.99	3.68	4.21	3.75	4.15
2024	4.19	3.75	3.84	3.66	3.66	4.17	4.00	4.21	3.05	3.25	3.27	4.37	3.80	2.65	3.47	4.31	4.12	3.75
2023 대비	하락	하락	상승	하락	하락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상승	상승	하락
향상률	-6.20	-13.07	8.59	-5.74	-37.16	-41.49	3.75	-42.28	8.52	-1.23	-36.09	-2.75	-7.11	-12.83	-6.05	2.32	8.98	-10.67
3년 연속 상승	제주																	
3년 연속 하락	인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전국 평균은 2022년 4.31%, 2023년 4.15%, 2024년 3.75%로 2022년 대비 2023년은 3.86%, 2024년은 2023년 대비 10.67% 하락하였다.

2023년 대비 상승한 지자체는 대구, 울산, 경기, 경남, 제주 5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하락한 지자체는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12개 지역으로 확인되었다. 향상률의 폭은 -42.28 ~ 8.98% 사이로 나타났다.

3년 연속 상승한 지자체는 제주가 유일했으며, 3년 연속 하락한 지자체는 인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5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2024년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수준은 전년 대비 하락하였고,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이는 지역은 세종(-42.28%)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대전은 3년 연속 우수 수준이며 경기는 3년 연속 분발 수준으로 나타났다. 3년 연속 상승한 제주도는 전년도 대비 보통 수준에서 우수 수준으로 2단계 상승하였고, 서울, 충남, 경남은 양호에서 우수 수준, 대구, 울산, 전북은 보통에서 양호 수준으로 향상하였고, 강원도 분발에서 보통 수준으로 향상되어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을 더 높이 향상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산, 충북, 광주는 양호에서 보통 수준으로 하락하였고, 경기, 강원, 경북, 전남, 인천은 3년 연속 평균값 이하이므로 예산 비율의 확대를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3) 특수학급 설치율

최하 3.39%	평균 5.02%	최고 6.76%	
분발	보통	양호	우수
서울, 대구, 광주	부산, 대전, 세종, 강원, 전북, 제주	인천, 울산, 경기,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남

<특수학급 설치율 수준>

특수학급 설치율 수준 평균은 5.02%(최고 6.76%, 최하 3.39%)로 나타났다. 우수는 충북, 충남, 전남 3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인천, 울산, 경기, 경북, 경남 5개 지역이며, 보통은 부산, 대전, 세종, 강원, 전북, 제주 6개 지역이고, 분발은 서울, 대구, 광주 3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전남이 6.76%로 가장 높고, 서울이 3.3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도별 특수학급 설치율 수준>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3.55	3.77	3.59	4.63	3.32	4.31	4.56	4.26	4.57	4.37	5.51	5.86	4.04	5.55	4.50	4.60	3.87	4.40
2023	3.92	4.02	3.81	5.02	3.51	4.52	4.97	4.72	4.91	4.67	6.22	6.21	4.39	6.13	4.77	5.05	4.08	4.76
2024	3.39	4.21	3.87	5.22	3.76	4.72	5.39	4.70	5.29	4.88	6.71	6.59	4.70	6.76	5.12	5.49	4.50	5.02
2023 대비	하락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하락	상승									
향상률	-15.63	4.51	1.55	3.83	6.65	4.24	7.79	-0.42	7.18	4.30	7.30	5.76	6.59	9.32	6.83	8.01	9.33	5.18
3년 연속 상승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년 연속 하락	-																	

전국 평균은 2022년 4.40%, 2023년 4.76%, 2024년 5.02%로 3년 연속 상승하였다.

2023년 대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개 지자체가 상승하였으며, 서울과 세종 2개 지자체는 하락하였다. 향상률의 폭은 -15.63% ~ 9.33%로 나타났으며,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의 지자체가 3년 연속 상승하였다.

2024년 특수학급 설치율 수준은 전년 대비 상승하였고 3년 간 상승 추세이며 제주, 전남, 충북의 순서로 향상률이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부산과 제주를 분발 수준에서 보통 수준으로 1단계 상승하였으며 3년 연속 상승한 지역 중 충북, 충남, 전남은 우수 수준으로 특수학급 설치율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년 연속 분발 수준을 나타낸 지역

은 서울, 대구, 광주이며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세종, 강원, 전북, 제주 9개 지역은 3년 연속 평균 이하값을 나타내므로 특수학급 설치율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4)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최하 98.78%	평균 128.84%			최고 187.66%
분발	보통	양호	우수	
부산, 대구, 인천, 제주	광주, 울산, 전북, 경북	서울,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남	세종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수준〉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수준은 평균 128.84%(최고 187.66%, 최하 98.78%)로 나타났다. 우수 는 세종 1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서울,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남 8개 지역이 며, 보통은 광주, 울산, 전북, 경북 4개 지역, 분발은 부산, 대구, 인천, 제주 4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세종이 187.66%로 가장 높고, 부산이 98.7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도별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수준〉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138.03	105.37	116.95	117.93	131.07	133.00	123.59	144.33	139.90	134.64	135.76	135.98	131.31	145.89	111.84	127.41	105.23	128.13
2023	135.99	107.00	116.62	110.19	124.47	136.74	121.54	137.08	137.20	145.85	133.11	144.40	153.98	150.46	114.23	126.09	97.88	128.99
2024	134.28	98.78	113.27	107.53	127.33	131.28	124.85	187.66	133.41	133.98	131.19	139.46	122.51	158.24	117.15	129.46	99.90	128.84
2023 대비	하락	하락	하락	하락	상승	하락	상승	상승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상승	상승	상승	상승	하락
향상률	-1.27	-8.32	-2.96	-2.47	2.25	-4.16	2.65	26.95	-2.84	-8.86	-1.46	-3.54	-25.69	4.92	2.49	2.60	2.02	-0.12
3년 연속 상승	전남, 경북																	
3년 연속 하락	서울, 대구, 인천, 경기, 충북																	

전국 평균은 2022년 128.13%, 2023년 128.99%, 2024년 128.84%로 2022년 대비 2023년은 0.67% 상승하였고, 2024년에는 2023년 대비 0.12% 하락하였다.

2023년 대비 상승한 지자체는 광주, 울산, 세종, 전남, 경북, 경남, 제주 7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하락한 지자체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10개 지역으로 확인되었다. 향상률의 폭은 -25.69% ~ 26.95% 사이로 나타났다.

3년 연속 상승한 지자체는 서울, 대구, 인천, 경기, 충북 5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3년 연속 하락한 지자체는 전남, 경북 2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2024년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수준은 세종이 가장 높았으며, 전년도 대비 상승폭 또한 세종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세종이 양호 수준에서 우수 수준으로, 경남이 보통 수준에서 양호 수준으로 상승하였으며 이는 특수교사 법정 충원율 수준을 더 높이 향상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경우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이 가장 낮았으며, 대구는 보통 수준에서 분발 수준으로, 강원, 충남, 전남은 우수 수준에서 양호 수준으로 1단계 하락하였다. 특히 전북은 전년도 대비 충원율의 하락 폭이 가장 컸으며, 수준 또한 우수 수준에서 보통 수준으로 2단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산, 인천, 대구, 울산, 경북, 제주 6개 지역은 3년 연속 평균 이하값을 나타내므로 특수교사 법정 충원율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더욱 심도 깊은 노력이 필요하다.

(5) 특수교육 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

최하 4.17%	평균 24.20%	최고 37.71%
(전체 9.81%/유급 4.26%)	(전체 13.93%/유급 10.27%)	(전체 22.78%/유급 17.27%)
분발	보통	양호
경기, 충북	부산,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서울, 대구, 광주
		우수
		대전, 울산, 세종

〈특수교육 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 수준〉

특수교육 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 수준은 평균 24.20%(최고 37.71%, 최하 14.17%)로 나타났다. 우수는 대전, 울산, 세종 3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서울, 대구, 광주 3개 지역이며, 보통은 부산,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9개 지역이고, 분발은 경기, 충북 2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대전이 37.71%로 가장 높고, 경기가 14.1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도별 특수교육 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 수준〉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24.38	22.08	25.03	21.80	21.35	34.71	33.68	28.13	15.67	23.54	29.91	22.83	22.89	21.55	24.68	22.90	33.24	25.20
2023	25.07	21.81	25.06	21.74	21.63	34.89	34.83	34.22	15.81	22.84	20.37	23.04	21.87	19.82	24.22	20.33	23.89	25.65
2024	27.24	20.43	25.16	19.24	24.51	37.71	34.58	36.00	14.17	23.06	18.58	22.77	21.95	20.53	22.64	20.03	22.80	24.20

2023 대비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하락	상승	상승	하락	하락	하락	
향상률	7.97	-6.75	0.40	-12.99	11.75	7.48	-0.72	4.94	-11.57	0.95	-9.63	-1.19	0.36	3.46	-6.98	-1.50	-4.78	-5.99
3년 연속 상승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세종																	
3년 연속 하락	부산, 인천, 울산, 충북, 경북, 경남, 제주																	

전국 평균은 2022년 25.20%, 2023년 25.65%, 2024년은 24.20%로 2023년은 전년도 대비 1.75% 상승하였고, 2024년은 2023년 대비 5.99% 하락하였다.

2023년 대비 상승한 지자체는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전북, 전남 8개 지역이며, 부산, 인천, 울산,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제주 9개 지역은 전년도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가 가장 높은 향상률을 보였고, 경기는 향상률이 가장 낮았으며 향상률의 폭은 -12.99% ~ 11.75% 사이로 나타났다.

3년 연속 상승한 지자체는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세종 5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3년 연속 하락한 지자체는 부산, 인천, 울산, 충북, 경북, 경남, 제주 7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2024년 특수교육 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 수준은 전년 대비 하락하였고, 대전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은 대전, 울산, 세종 중 대전과 세종은 3년 연속 상승하는 지역으로 특수교육 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 수준을 더 높이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제주는 분발 수준에서 보통 수준으로, 광주는 보통 수준에서 양호 수준으로 1단계 향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는 3년 연속 분발 수준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배치율 수준으로 나타났고, 강원은 양호 수준에서 보통 수준으로 충북은 보통 수준에서 분발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또한, 부산, 인천, 광주, 경기, 충북, 충남, 경남, 제주 8개 지역은 3년 연속 평균값 이하이므로 특수교육 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6) 통합교육 학생 비율

최하 65.31%	평균 72.22%		최고 79.61%
분발	보통	양호	우수
서울, 대구, 광주, 대전	부산, 제주	인천, 울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세종, 경기, 충남

<통합교육 학생 비율 수준>

통합교육 학생 비율 수준은 평균 72.22%(최고 79.61%, 최하 65.31%)로 나타났다. 우수는 세종, 경기, 충남 3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인천, 울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8개 지역이며, 보통은 부산, 제주 2개 지역이고, 분발은 서울, 대구, 광주, 대전 4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경기도가 79.61%로 가장 높고, 대구가 65.3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도별 통합교육 학생 비율 수준〉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64.94	70.68	65.83	72.94	66.12	68.07	72.11	76.64	77.61	72.32	69.56	76.96	71.88	71.97	72.30	76.08	69.76	71.52
2023	66.07	71.30	65.39	73.62	66.13	68.33	73.36	79.65	78.49	72.48	70.21	75.71	72.19	71.80	73.41	75.85	70.03	72.00
2024	67.41	71.36	65.31	74.33	65.45	68.14	73.23	77.66	79.61	72.27	72.41	75.93	73.81	72.39	73.95	75.16	69.34	72.22
2023 대비	상승	상승	하락	상승	상승	하락	하락	하락	상승	하락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하락	하락	상승
향상률	1.99	0.08	-0.12	0.95	-1.04	-0.28	-0.18	-2.56	1.41	-0.29	3.04	0.29	2.19	0.81	0.73	-0.92	-0.99	0.30
3년 연속 상승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충북, 전북, 경북																	
3년 연속 하락	대구, 경남																	

전국 평균은 2022년 71.52%, 2023년 72%, 2024년 72.22%로 2023년은 전년도 대비 0.67%, 2024년은 전년도 대비 0.3% 상승하였다.

2023년 대비 상승한 지자체는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9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하락한 지자체는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경남, 제주 8개 지역으로 확인되었다. 충북이 가장 높은 향상률을 보였고, 세종이 가장 낮은 향상률을 보였으며 향상률의 폭은 -2.56% ~ 3.04% 사이로 나타났다.

3년 연속 상승한 지자체는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충북, 전북, 경북 7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3년 연속 하락한 지자체는 대구, 경남으로 나타났다.

2024년 통합교육 학생 비율 수준은 전년 대비 상승하였고, 3년간 상승 추세이며 경기도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3년 연속 상승하는 지역 중 경기도는 3년 연속 우수 수준이고, 충북은 전남과 함께 보통 수준에서 양호 수준으로, 충남은 양호 수준에서 우수 수준으로 향상되어 통합교육 학생 비율 수준을 더 높이 향상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은 3년 연속 우수 수준이지만 전년도 대비 향상률이 가장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통합교육의 학생 비율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반면, 경남은 3년 이상 평균값 이상의 수준이나 전년도 대비 우수 등급에서 양호 등급으로 하락하고 3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남과 함께 3년 연속 하락률을 보이는 대구는 3년 연속 분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3년 연속 분발 수준인

지역은 서울, 광주, 대전이며 이 3개 지역과 함께 부산, 제주는 3년 연속 평균값 이하이므로 통합 교육 학생 비율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7) 학급당 특수교육 대상자 수(학생 10명 당 특수학급 수)

최하 1.74개	평균 2.17개	최고 2.35개	
분발	보통	양호	우수
부산, 인천, 제주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서울,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세종, 강원, 전남

<학급당 특수교육 대상자 수 - 학생 10명 당 특수학급 수 수준>

학생 10명당 특수학급 수로 산출된 학급당 특수교육 대상자 수준은 평균 2.17개(최고 2.35개, 최하 1.74개)로 나타났다. 우수는 세종, 강원, 전남 3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서울, 충북, 충남, 전북, 경북, 전남 6개 지역이며, 보통은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5개 지역이고, 분발은 부산, 인천, 제주 3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전남이 2.35개로 가장 높고, 제주가 1.74개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도별 학급당 특수교육 대상자 수 - 학생 10명당 특수학급 수 수준>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2.15	2.02	2.02	2.00	2.04	2.02	2.04	2.49	2.07	2.26	2.19	2.18	2.22	2.20	2.20	2.14	1.94	2.13
2023	2.70	2.05	2.29	2.12	2.43	2.47	2.22	2.54	2.22	2.68	2.66	2.61	2.37	2.92	2.35	2.40	1.96	2.41
2024	2.10	1.90	1.95	1.90	2.00	1.93	2.05	2.26	2.00	2.28	2.19	2.17	2.16	2.35	2.11	2.19	1.74	2.07
2023 대비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향상률	-28.57	-7.89	-17.44	-11.58	-21.50	-27.98	-8.29	-12.39	-11.00	-17.54	-21.46	-20.28	-9.72	-24.26	-11.37	-9.59	-12.64	-16.43
3년 연속 상승	-																	
3년 연속 하락	-																	

전국 평균은 2022년 2.13개, 2023년 2.41개, 2024년 2.07개로 2023년은 전년도 대비 11.62% 상승하였고, 2024년은 2023년 대비 16.43% 하락하였다.

2023년 대비 모든 지자체가 학급당 특수교육 대상자 수 수준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 대전, 전남 순서로 하락의 폭이 가장 컸으며 부산의 하락 폭이 가장 낮았다. 향상률의 폭은 -28.57% ~ -7.89% 사이로 나타났다.

3년 연속 상승하거나 하락한 지자체는 없었으며, 2024년 학급당 특수교육 대상자 수 수준은 전년도 대비 하락하였고, 전년도와 동일하게 우수 수준을 기록한 전남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세종이 양호 수준에서 우수 수준으로, 전북, 경북, 경남 3개 지역은 보통 수준에서 양호 수준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산, 인천, 제주는 3년 연속 분발 수준이며, 서울은 우수 수준에서 양호 수준으로, 광주와 대전은 양호 수준에서 보통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 인천, 대구, 대전, 울산, 경기, 제주는 3년 연속 평균값 이하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급을 확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8) 장애인교원 고용률

최하 0.98%	평균 1.56%			최고 2.20%
분발	보통	양호	우수	
경기, 전남, 경북	인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제주	부산, 대구, 울산, 경남	서울, 광주, 대전, 세종	

<장애인교원 고용률 수준>

장애인교원 고용률 수준은 평균 1.56%(최고 2.20%, 최하 0.98%)로 나타났다. 우수는 서울, 광주, 대전, 세종 4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부산, 대구, 울산, 경남, 4개 지역이며, 보통은 인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제주 6개 지역이고, 분발은 경기, 전남, 경북 3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서울이 2.20%로 가장 높고, 경북이 0.9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도별 장애인교원 고용률 수준>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2.28	2.00	2.12	1.66	2.31	2.23	2.12	1.79	1.70	1.88	1.91	1.85	2.26	1.78	1.72	2.06	2.01	1.98
2023	2.36	1.84	2.02	1.54	1.82	2.42	2.08	1.80	1.45	1.26	1.68	1.44	1.77	1.12	1.14	1.82	1.73	1.72
2024	2.20	1.65	1.80	1.29	1.89	2.09	1.80	2.11	1.18	1.28	1.36	1.27	1.51	1.03	0.98	1.62	1.41	1.56
2023 대비	하락	하락	하락	하락	상승	하락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향상률	-7.27	-11.52	-12.22	-19.38	3.70	-15.79	-15.56	14.69	-22.88	1.56	-23.53	-13.39	-17.22	-8.74	-16.33	-12.35	-22.70	-10.26
3년 연속	세종																	

상승	
3년 연속 하락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평균은 2022년 1.98%, 2023년 1.72%, 2024년 1.56%로 2023년은 전년도 대비 15.12%, 2024년은 2023년 대비 10.26% 하락하였다.

광주, 세종, 강원 3개 지역은 2023년 대비 장애인교원 고용률이 상승하였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4개 지역은 하락하였으며 향상률의 폭은 -23.53% ~ 14.69% 사이로 나타났다.

3년 연속 상승한 지자체는 세종 1개 지역으로 전년도 대비 상승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3년 연속 하락한 지자체는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2개 지자체로 나타났다.

2024년 장애인교원 고용율은 전년 대비 하락하였고, 서울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3년 연속 상승한 세종은 향상률 또한 가장 높았다. 세부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서울은 대전과 함께 3년 연속 우수 수준이며, 광주와 세종이 양호 수준에서 우수 수준으로, 강원이 분발 수준에서 보통 수준으로 향상되는 등 장애인교원 고용률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연속 하락한 지역 중 전남과 경북은 3년 연속 분발 수준이며, 3년 연속 평균값 이하인 지역 중 인천, 경기, 전남, 경북, 충북, 충남은 3년 연속 장애인교원 고용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교원 고용률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4. 복지분야 지표별 세부 결과

1)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장애인의 취업과 직업재활 등 경제활동 지원 여건과 장애인 연금, 각종 수당 등 소득보전제도의 운용 수준 등을 조사하였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지자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1인당 장애아동 수당 지급액’,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비율’, ‘직업재활시설 지원 예산액’,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이용자 비율’과 같은 8개의 지표로 평가하였다.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의 등급별 지자체 현황>

최하 30.43점 ----- 전국 평균 42.07점 ----- 최고 52.23점

분발	보통	양호	우수
강원, 충북, 전남, 경북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전북, 경남	인천, 세종, 경기	서울, 광주, 충남, 제주

2024년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의 전국 평균 점수는 42.07점(최고 52.23점, 최하 30.43점)으로 나타났다. 2023년 53.71점(최고 73.78점, 최하 37.61점) 대비 19.39% 하락하고,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의 점수 격차는 2023년 1.96배(73.78/37.61) 대비 2024년에는 1.71배(52.23/30.43)로 작아짐에 따라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의 지역 간 격차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는 서울, 광주, 충남, 제주 4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인천, 세종, 경기 3개 지역이며, 보통은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전북, 경남 6개 지역이고, 분발은 강원, 충북, 전남, 경북 4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서울이 52.23점으로 가장 높고, 전남이 30.4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 연도별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수준

(단위: 점,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64.62	58.71	62.08	53.13	65.16	61.44	61.5	58.96	57.55	53.51	55.49	50.12	47.49	44.53	55.18	51.51	63.31	56.72
2023	68.23	51.00	53.80	56.12	53.27	58.55	49.17	53.64	68.37	44.83	44.74	58.15	47.47	37.61	47.58	46.77	73.78	53.71
2024	52.23	41.79	41.86	44.64	49.53	39.77	41.81	45.86	43.08	35.35	33.93	50.10	39.24	30.43	35.45	38.93	51.14	42.07
2023 대비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향상률	-23.45	-18.06	-22.19	-20.46	-7.02	-32.08	-14.97	-14.50	-36.99	-21.15	-24.16	-13.84	-17.34	-19.09	-25.49	-16.76	-30.69	-19.38
3년 연속 상승	-																	
3년 연속 하락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2023년 대비 모든 지역은 하락하였다. 광주의 하락 폭은 -7.02%로 가장 작았고, 경기 지역은 -36.99%로 하락 폭이 가장 컸다. 3년 연속 상승한 지역은 없었으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12개 지역은 3년 연속 하락하였다.

경북은 2023년 분발 등급에서 2024년 보통 등급으로, 광주는 보통 등급에서 우수 등급으로, 충남은 양호 등급에서 우수 등급으로 향상되었다. 서울과 제주는 2년 연속 우수 등급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경기도는 2023년 우수 등급에서 2024년 양호 등급으로 하락하였고, 대구, 대전은 양호 등급에서 보통 등급으로 하락하였다. 강원, 충북, 전남은 2년 연속 분발 등급에 포함되어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더욱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부산, 울산, 전북, 경북, 경남도 2년 연속 전국 평균값 이하이기 때문에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1)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지표의 등급별 지자체 현황>

최하 3.16% ----- 전국 평균 3.80% ----- 최고 4.75%

분발	보통	양호	우수
서울, 울산, 세종, 경기, 전남	대전, 충북, 충남, 경북, 경남	대구, 인천, 강원, 제주	부산, 광주, 전북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수준은 평균 3.80%(최고 4.75%, 최하 3.16%)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전북이 4.75%로 가장 높고, 서울이 3.1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년도 전국 평균 3.73% 대비 1.88%로 향상하였다. 또 2024년 조사 결과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 간 격차는 1.5배(4.75/3.16)로 2023년의 1.48배(4.55/3.07)와 비교해 지역간 격차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우수는 부산, 광주, 전북 3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대구, 인천, 강원, 제주 4개 지역이며,

보통은 대전, 충북, 충남, 경북, 경남 5개 지역이고, 분발은 서울, 울산, 세종, 경기, 전남 5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표> 연도별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수준

																			(단위: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3.32	4.77	4.41	4.20	4.60	3.82	3.59	3.82	3.56	4.65	3.85	3.78	4.82	3.98	4.09	3.87	4.42	4.09		
2023	3.07	4.25	3.88	3.97	4.53	3.56	3.32	3.29	3.24	4.00	3.50	3.46	4.55	3.43	3.75	3.62	4.02	3.73		
2024	3.16	4.29	3.94	3.98	4.52	3.65	3.32	3.28	3.36	4.21	3.62	3.55	4.75	3.46	3.77	3.73	3.97	3.80		
2023 대비	상승	상승	상승	상승	하락	상승	유지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향상률	2.93	0.94	1.55	0.25	-0.22	2.53	0.00	-0.30	3.70	5.25	3.43	2.60	4.40	0.87	0.53	3.04	-1.24	1.88		
3년 연속 상승	-																			
3년 연속 하락	광주, 세종, 제주																			

2023년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평균은 3.73%였다. 2024년 조사에서는 평균값이 3.80%로 조사되어, 2023년 대비 1.88% 상승하였다. 2023년 대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은 상승하였고, 광주, 세종, 제주는 하락하였다. 하락률이 가장 큰 지역은 제주로 2023년 대비 1.24% 하락하였고, 상승폭이 가장 큰 지역은 강원으로 5.25%가 상승하였다. 3년 연속 상승한 지역은 없으며, 광주, 세종, 제주는 3년 연속 하락하였다.

경북은 2023년 양호에서 2024년 보통으로 등급이 하락하였고, 전남은 보통에서 분발로 등급이 하락하였다. 반면 등급이 상향된 지역은 없었다. 서울, 울산, 세종, 경기는 2022년과 2023년 연속으로 분발 등급에 포함되었고, 대전, 충북, 충남, 전남, 경남은 2년 연속 전국 평균 이하이기 때문에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2)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지표의 등급별 지자체 현황>

최하 3.45% ----- 전국 평균 4.74% ----- 최고 8.12%

분발	보통	양호	우수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인천, 세종, 경기, 제주	부산, 광주, 대전, 울산, 경북	서울, 대구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수준은 평균 4.74%(최고 8.12%, 최하 3.45%)로 나타났다. 전년도 전국 평균 4.65% 대비 1.94%로 향상하였다. 또 2024년 조사 결과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 간 격차는 2.35

배(8.12/3.45)로 2023년의 8.22배(8.47/1.03)와 비교해 지역간 격차는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는 서울, 대구 2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부산, 광주, 대전, 울산, 경북 5개 지역이며, 보통은 인천, 세종, 경기, 제주 4개 지역이고, 분발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6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서울이 8.12%로 가장 높고, 전남이 3.4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연도별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수준

(단위: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6.64	4.83	5.84	3.60	5.12	3.92	4.29	3.40	4.00	2.72	4.04	3.55	3.87	3.45	3.42	4.17	3.33	4.13
2023	8.47	5.67	6.98	4.31	4.90	4.59	5.09	4.10	4.34	3.77	1.03	4.09	4.06	3.87	5.04	3.97	4.83	4.65
2024	8.12	5.17	7.17	4.31	4.82	4.77	4.77	4.55	4.10	4.03	3.96	3.83	4.00	3.45	5.12	3.91	4.55	4.74
2023 대비	하락	하락	상승	유지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상승	하락	하락	하락	상승	하락	하락	상승
향상률	-4.13	-8.82	2.72	0.00	-1.63	3.92	-6.29	10.98	-5.53	6.90	284.47	-6.36	-1.48	-10.85	1.59	-1.51	-5.80	1.94
3년 연속 상승	대구, 대전, 강원, 경북																	
3년 연속 하락	광주, 경남																	

2024년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평균은 4.74%로, 2023년 4.65%에 비해 1.94% 상승하였다. 2023년 대비 대구, 대전, 세종 강원, 충북, 경북이 상승하였고, 서울, 부산, 광주, 울산,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는 하락하였다. 하락률이 가장 큰 지역은 전남으로 2023년 대비 10.85% 하락하였고, 상승폭이 가장 큰 지역은 충북으로 284.47%나 상승하였다. 3년 연속 상승한 지역은 대구, 대전, 강원, 경북이었으며, 3년 연속 하락한 지역은 광주와 경남이었다.

제주는 2023년 조사에서 양호 등급이었으나 이번 조사에서 보통 등급으로 하락하였고,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은 2023년 보통 등급에서 2024년 분발 등급으로 하락하였다. 반면 대전은 2023년 보통 등급에서 2024년 양호 등급으로 상승하였다. 서울과 대구는 2023년에 이어 연속으로 우수 등급이었고, 부산, 광주, 울산, 경북도 2년 연속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양호 등급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2년 연속 전국 평균 이하인 충북, 인천,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은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3) 지자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지자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지표의 등급별 지자체 현황>

최하 0.42% ----- 전국 평균 0.87% ----- 최고 1.41%

분발	보통	양호	우수
부산, 대전, 세종, 강원, 전남, 경북, 경남	대구, 충북, 전북	제주	서울, 인천, 광주, 울산, 경기, 충남

지자체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수준은 평균 0.87%(최고 1.41%, 최하 0.42%)로 나타났다. 전년도 전국 평균 0.87% 대비하여 유지하였다. 또 2024년 조사 결과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 간 격차는 3.38배(1.41/0.42)로 2023년의 3.48배(1.43/0.41)와 비교해 지역간 격차는 조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는 서울, 인천, 광주, 울산, 경기, 충남 6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제주 1개 지역이며, 보통은 대구, 충북, 전북 3개 지역이고, 분발은 부산, 대전, 세종, 강원, 전남, 경북, 경남 7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충남이 1.41%로 가장 높고, 세종과 전남이 0.4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연도별 지자체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수준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1.40	1.52	1.11	1.42	1.54	1.21	0.79	0.82	0.98	0.81	0.99	1.29	0.66	0.66	1.34	0.96	1.55	1.12
2023	1.20	0.68	0.69	1.43	1.14	0.68	1.14	0.61	1.22	0.43	0.69	1.43	0.79	0.41	0.48	0.53	1.20	0.87
2024	1.35	0.60	0.69	1.36	1.36	0.56	1.20	0.42	1.20	0.49	0.71	1.41	0.76	0.42	0.46	0.59	1.13	0.87
2023 대비	상승	하락	유지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하락	상승	상승	하락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유지
향상률	12.50	-11.76	0.00	-4.90	19.30	-17.65	5.26	-31.15	-1.64	13.95	2.90	-1.40	-3.80	2.44	-4.17	11.32	-5.83	0
3년 연속 상승	울산																	
3년 연속 하락	부산, 대전, 세종, 경기, 경북, 제주																	

2024년 지자체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평균은 0.87%로, 2023년과 동일하였다. 2023년 대비 서울, 광주, 울산, 강원, 충북, 전남, 경남이 상승하였고, 부산, 인천, 대전, 세종, 경기, 충남, 전북, 경북, 제주는 하락하였다. 하락률이 가장 큰 지역은 세종으로 2023년 대비 31.15% 하락하였고, 상승폭이 가장 큰 지역은 광주로 19.30%가 상승하였다. 3년 연속 상승한 지역은 울산 1곳이었으며, 3년 연속 하락한 지역은 부산, 대전, 세종, 경기, 경북, 제주였다.

부산과 대전은 2023년 조사에서 보통 등급이었으나 이번 조사에서 분발 등급으로 하락하였다. 반면 광주와 울산은 양호 등급에서 우수 등급으로 상승하였다. 서울, 인천, 경기, 충남은 2023년에 이어 연속으로 우수 등급이었고, 광주, 울산도 2년 연속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양호 등급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부산, 대구,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은 작년과 더불어 올해에도 전국 평균 이하인 분발 등급과 보통 등급에 2년 연속 포함되었기 때문에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4)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지표의 등급별 지자체 현황>

최하 56,283원 ----- 전국 평균 149,979원 ----- 최고 448,061원

분발	보통	양호	우수
서울, 대구, 경북	부산,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인천, 울산, 세종, 충남, 경남	제주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수준은 평균 149,979원(최고 448,061원, 최하 56,283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전국 평균 152,999원 대비 -1.97% 하락하였다. 또 2024년 조사 결과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 간 격차는 7.96배(448,061/56,283)로 2023년의 5.48배(406,762/74,156)와 비교해 지역간 격차는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는 제주 1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인천, 울산, 세종, 충남, 경남 5개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보통은 부산,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8개 지역이고, 분발은 서울, 대구, 경북 3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제주가 448,061원으로 가장 높고, 대구가 56,283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 연도별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수준

(단위: 원,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130,816	106,154	119,945	135,914	128,296	131,962	231,546	109,163	171,923	129,112	115,898	141,091	115,491	162,747	153,107	162,802	131,030	139,823
2023	141,756	139,171	74,156	153,589	85,436	145,775	170,374	157,851	130,924	140,742	111,827	145,562	140,085	167,584	145,697	143,677	406,762	152,999
2024	74,712	130,400	56,283	161,019	140,648	134,708	166,264	151,535	104,476	141,162	107,734	201,433	141,809	138,148	75,071	176,178	448,061	149,979
2023 대비	하락	하락	하락	상승	상승	하락	하락	하락	하락	상승	하락	상승	상승	하락	하락	상승	상승	하락
향상률	-47.30	-6.30	-24.10	4.84	64.62	-7.59	-2.41	-4.00	-20.20	0.30	-3.66	38.38	1.22	-17.56	-48.47	22.62	10.15	-1.97
3년 연속 상승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제주																	
3년 연속 하락	대구, 울산, 경기, 충북, 경북																	

2023년 152,999원에서 2024년에는 1인당 장애아동수당 평균 지급액이 149,979원으로 -1.97% 하락하였다. 인천, 광주, 강원, 충남, 전남, 제주가 2023년에 비해 상승하였고, 이 지역 중 광주의 상승 폭이 64.62%로 가장 컸다. 3년 연속 상승한 지역은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제주였으며, 3년 연속 하락한 지역은 대구, 울산, 경기, 충북, 경북이었다.

광주, 충북은 2023년 분발 등급에서 2024년 보통 등급으로 상승하였고, 충남은 보통 등급에서 양호 등급으로 상승하였다. 반면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전남, 경북은 2023년에 비해 하락하였고, 경북의 하락 폭이 -48.47%로 가장 컸다. 특히 대구는 2년 연속 분발 등급에

속하면서도 3년 연속 하락하였기 때문에 1인당 장애아동수당을 대폭 늘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5)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지표의 등급별 지자체 현황>

최하 133,914원 ----- 전국 평균 333,935원 ----- 최고 442,737원

분발	보통	양호	우수
충북	서울,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전북, 전남	충남, 제주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수준은 평균 333,935원(최고 442,737원, 최하 133,914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전국 평균 314,878원 대비 16.95%로 향상하였다. 또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 간 격차는 3.30배(442,737/133,914)로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작년도 지역간 격차가 2.38배(418,278/175,069)임과 비교해 보면 지역간 격차는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는 충남과 제주 2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전북, 전남 10개 지역이며, 보통은 서울, 대구, 경북, 경남 4개 지역이고, 분발은 충북 1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제주가 442,737원으로 가장 높고, 충북이 133,914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연도별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수준

(단위: 원,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102,451	148,172	151,695	158,184	163,499	166,426	95,178	384,987	202,948	123,229	122,985	122,873	199,570	154,368	170,364	185,145	150,777	164,874	
2023	353,163	335,663	328,421	316,822	175,089	329,280	300,626	239,306	385,107	256,023	331,916	325,015	330,370	311,718	302,860	313,311	418,278	314,878	
2024	254,406	353,645	252,686	358,639	384,938	365,840	343,883	339,118	373,870	342,457	133,914	389,522	375,309	336,660	299,086	330,104	442,737	368,247	
2023 대비	하락	상승	하락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상승	상승	하락	상승	상승	상승	
향상률	-27.96	5.36	-23.06	13.20	119.91	11.11	14.39	41.71	-2.92	33.76	-59.65	19.85	13.60	8.00	1.24	5.36	5.85	16.95	
3년 연속 상승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3년 연속 하락	-																		

2023년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전국 평균은 314,878원이었다. 이에 비해 2024년에는 368,247원으로 16.95% 상승하였다. 2023년 대비하여 서울, 대구, 경기, 충북, 경북은 하락하였고, 부

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는 상승하였다. 특히 광주는 119.91%로 상승 폭이 가장 컸다. 3년 연속 상승한 지역은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였으며, 3년 연속 하락한 지역은 없었다.

이에 따라 충북은 2023년 양호 등급에서 2024년 분발 등급으로 크게 하락하였고, 광주와 세종은 분발 등급에서 양호 등급으로 크게 상승하였다. 경북과 경남은 2023년과 2024년 모두 평균값 이하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지급액 수준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6)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비율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비율 지표의 등급별 지자체 현황>

최하 0.0000% ----- 전국 평균 0.0052% ----- 최고 0.0161%

분발	보통	양호	우수
울산, 세종, 전북, 전남, 경북, 제주	대구, 인천, 대전, 강원, 충북	부산, 광주, 경기, 경남	서울, 충남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비율 수준은 평균 0.0052%(최고 0.0161%, 최하 0.0000%)로 나타났다. 전년도 전국 평균 0.0038% 대비 36.84배 향상하였다. 또 2024년 조사 결과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 간 격차는 0.0161배(0.0161/0.0000)로 2023년의 0.0123배(0.0123/0.0000)와 비교해 지역간 격차는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는 서울, 충남 2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부산, 광주, 경기, 경남 4개 지역이며, 보통은 대구, 인천, 대전, 강원, 충북 5개 지역이고, 분발은 울산, 세종, 전북, 전남, 경북, 제주 6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충남이 0.0161%로 가장 높고, 울산, 세종, 제주가 0.000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 연도별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수준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0.0120	0.0082	0.0117	0.0024	0.0045	0.0101	0.0201	0.0000	0.0050	0.0083	0.0087	0.0031	0.0000	0.0035	0.0042	0.0026	0.0000	0.0061
2023	0.0120	0.0037	0.0058	0.0047	0.0000	0.0123	0.0000	0.0000	0.0038	0.0000	0.0036	0.0103	0.0024	0.0000	0.0021	0.0041	0.0000	0.0038
2024	0.0131	0.0073	0.0052	0.0045	0.0088	0.0050	0.0000	0.0000	0.0063	0.0036	0.0034	0.0161	0.0024	0.0023	0.0021	0.0080	0.0000	0.0052
2023 대비	상승	상승	하락	하락	상승	하락	유지	유지	상승	상승	하락	상승	유지	상승	유지	상승	유지	상승
향상률	9.17	97.30	-10.34	-4.26	-	-59.35	-	-	65.79	-	-5.56	56.31	-	-	0	95.12	-	36.84
3년 연속 상승	충남, 경남																	
3년 연속 하락	대구, 충북																	

2024년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비율 평균은 0.0052%로, 2023년 0.0038%에 비해 36.84% 상승하였다. 2023년 대비 서울, 부산, 광주,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남은 상승하였고, 대구, 인천, 대전, 충북은 하락하였다. 부산이 97.30%의 상승 폭으로 가장 많이 상승하였고, 대전이 -59.35% 하락 폭으로 가장 많이 하락하였다. 3년 연속 상승한 지역은 충남, 경남이었으며, 3년 연속 하락한 지역은 대구, 충북이었다.

이에 따라 대전은 2023년 우수 등급에서 보통 등급으로 하락하였고, 광주는 2023년 분발 등급에서 2024년 양호 등급으로 상승하였다. 특히 울산, 세종, 전남, 제주는 2년 연속 분발 등급이고, 강원, 충북, 전북, 경북도 2년 연속 전국 평균값 이하이기 때문에 이들 지역은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수준을 높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7) 직업재활시설 지원 예산액

<직업재활시설 지원 예산액 지표의 등급별 지자체 현황>

최하 580,169원 ----- 전국 평균 1,143,304원 ----- 최고 3,080,229원

분발	보통	양호	우수
부산, 대구,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서울, 대전, 울산, 경남	광주, 경기, 충북, 경북	세종, 제주

직업재활시설 지원 예산 수준은 평균 1,143,304원(최고 3,080,229원, 최하 580,169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전국 평균 1,017,744원 대비 12.34%로 향상하였다. 또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 간 격차는 5.30배(3,080,229/580,169)로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작년에는 지역간 격차가 4.93배(2,208,895/447,164)임과 비교해 보면 지역간 격차는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는 세종, 제주 2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광주, 경기, 충북, 경북 4개 지역이며, 보통은 서울, 대전, 울산, 경남 4개 지역이고, 분발은 부산, 대구,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7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세종이 3,080,229원으로 가장 높고, 전남이 580,169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 연도별 직업재활시설 지원 예산 수준

(단위: 원,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881,464	605,309	679,405	674,346	1,177,977	702,840	796,528	914,706	940,496	892,746	958,521	733,944	542,243	431,102	787,818	619,620	1,629,948	821,707
2023	882,431	663,392	733,553	719,200	1,309,999	777,530	747,606	1,633,399	2,238,855	1,066,222	1,066,038	745,660	574,997	447,164	934,662	755,364	2,077,399	1,017,744
2024	994,419	688,799	834,661	730,665	1,219,007	883,238	1,001,165	3,000,229	1,229,751	706,551	1,204,440	791,774	671,663	500,169	1,182,493	905,663	2,882,008	1,143,304
2023 대비	상승	상승	상승	상승	하락	상승	상승	상승	하락	하락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향상률	15.30	6.95	13.78	1.61	-9.10	14.88	37.80	87.89	-44.33	-32.51	16.25	6.18	16.81	29.74	22.58	19.92	30.97	12.34
3년 연속 상승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년 연속 하락	-																	

2024년 전국 평균은 1,143,304원으로 2023년 1,017,744 대비 12.34% 상승하였다. 2023년 대비 상승한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4개 지역이 상승하였고, 하락한 지역은 광주, 경기, 강원 3곳으로 확인되었다. 향상률의 폭은 -44.33%(경기)에서 87.89%(세종) 사이로 나타났다. 3년 연속 상승한 지역은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로 12곳이었으며, 3년 연속 하락한 지역은 없었다.

세종과 제주는 2년 연속 우수 등급이고, 경북은 2023년 보통 등급에서 2024년 양호 등급으로 향상했다. 광주, 충북, 경기도 2년 연속 양호 등급을 유지하면서 전국 평균 이상의 수준으로 보였다. 하지만 부산, 인천, 전북, 전남은 2년 연속 분발 등급으로 측정되었다. 또 서울, 대구, 대전, 울산, 충남, 경남도 2년 연속 전국 평균 이하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이 지역들은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을 높이기 위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8)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이용자 비율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이용자 비율 지표의 등급별 지자체 현황>

최하 3.55% ----- 전국 평균 6.88% ----- 최고 19.31%

분발	보통	양호	우수
광주, 강원, 충남, 전북, 전남	부산, 인천, 경기, 경북, 경남	서울, 대구, 대전, 울산, 충북, 제주	세종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이용자 비율 수준은 평균 6.88%(최고 19.31%, 최하 3.55%)로 나타났다. 전년도 전국 평균 6.52% 대비 5.52%로 향상하였다. 또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 간 격차는 5.43배(19.31/3.55)로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작년에는 지역간 격차가 3.40배(11.38/3.34)임과 비교해 보면 지역간 격차는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는 세종 1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서울, 대구, 대전, 울산, 충북, 제주 6개 지역이며, 보통은 부산, 인천, 경기, 경북, 경남 5개 지역이고, 분발은 광주, 강원, 충남, 전북, 전남 5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세종이 19.31%로 가장 높고, 전남이 3.5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연도별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이용자 비율 수준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7.84	5.12	6.72	4.95	7.44	10.01	4.33	10.52	5.43	6.51	6.48	3.89	4.20	3.14	5.56	4.70	7.47	6.14	
2023	7.78	5.18	6.62	5.33	7.66	7.50	4.86	11.27	11.38	6.82	6.40	3.89	4.09	3.34	5.76	5.58	7.37	6.52	
2024	8.20	6.10	7.01	5.38	3.77	8.04	7.83	19.31	5.89	4.02	6.89	4.69	4.32	3.55	5.99	5.85	10.17	6.88	
2023 대비	상승	상승	상승	상승	하락	상승	상승	상승	하락	하락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향상률	5.40	17.76	5.89	0.94	-50.78	7.20	61.11	71.34	-48.24	-41.06	7.66	20.57	5.62	6.29	3.99	4.84	37.99	5.52	
3년 연속 상승	부산, 인천, 울산, 세종, 전남, 경북, 경남																		
3년 연속 하락	-																		

2024년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이용자 비율은 6.88%로, 2022년 6.52%에 비해 5.52% 상승하였다. 가장 하락 폭이 큰 지역은 광주로 -50.78% 하락하였다. 3년 연속 상승한 지역은 부산, 인천, 울산, 세종, 전남, 경북, 경남이었으며, 3년 연속 하락한 지역은 없었다.

이에 따라 광주 2023년 양호 등급에서 2024년 분발 등급으로 하락하였다. 반면 상승 폭이 가장 큰 지역은 세종으로 71.34% 상승하여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연속 우수 등급을 유지하였다. 충남, 전북, 전남은 2023년과 2024년 모두 분발 등급에 포함됨에 따라 이 세 지역은 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 이용자 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여야 한다. 또 부산, 인천, 충남, 경북, 경남도 2년 연속 전국 평균값 이하의 수준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들 지역도 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 이용자 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에서는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장애인에 대한 보건의료 인프라 확보 수준과 각종 의료비와 보조기구의 지원 수준, 활동지원과 자립생활 지원의 수준 등을 조사하였다. ‘장애인 1인당 장애인의료비 지원액’, ‘보조기기 지원 수준’, ‘일반건강검진 수검 비율’,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 지원 수준’,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수준’, ‘장애인 1인당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과 같은 7개의 지표로 평가하였다.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의 등급별 지자체 현황>

최하 30.27점 ----- 전국 평균 45.12점 ----- 최고 64.94점

분발	보통	양호	우수
울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인천, 경기, 제주	서울, 부산, 광주, 세종, 전남	대구, 대전, 전북

2024년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 전국 평균 점수는 45.12점이고, 최고점수는 64.94점, 최하점수는 30.27점으로 나타났다. 2024년 전국 평균은 2022년 46.29점(최고 64.68점, 최하 33.27점) 대비 1.86% 하락하였다.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의 점수 격차는 2022년 1.94배(64.68/33.27) 대비 2024년에는 2.14배(64.94/30.27)로 커짐에 따라 지역 간 격차가 다소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는 대구, 대전, 전북 3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서울, 부산, 광주, 세종, 전남 5개 지역이며, 보통은 인천, 경기, 제주 3개 지역이고, 분발은 울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6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대구가 64.94점으로 가장 높고, 강원이 30.2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도별 보건 및 자립 지원 수준>

(단위: 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53.94	38.08	51.00	46.58	47.73	64.68	42.64	54.61	46.29	33.27	36.63	54.84	39.29	42.56	35.86	51.90	47.11	46.29
2024	47.47	48.34	64.94	43.64	53.71	57.05	37.60	54.03	44.12	30.27	33.08	37.19	59.24	49.08	36.67	36.70	39.15	45.43
2022 대비	하락	상승	상승	하락	상승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상승	상승	상승	하락	하락	하락
향상률	-11.99	26.94	27.33	-6.31	12.53	-11.80	-11.82	-1.06	-4.69	-9.02	-9.69	-32.18	50.78	15.32	2.26	-29.29	-16.90	-1.86

2022년 대비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전남, 경북은 상승했으며, 서울,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남, 경주는 하락하였다. 대구가 27.33%로 상승 폭이 가장 컸고, 충남은 -32.18%로 하락 폭이 가장 컸다. 부산과 전북은 2022년 분발 등급에서 2024년 각각 양호와 우수

등급으로 향상되었으며, 전남은 보통 등급에서 양호 등급으로, 대구는 양호 등급에서 우수 등급으로 향상되었다. 대전은 2년 연속 우수 등급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인천과 제주는 2022년 양호 등급에서 2024년 보통 등급으로 하락하였고, 충남과 경남은 양호 등급에서 분발 등급으로 하락하였다. 울산은 보통 등급에서 분발 등급으로 하락하였다.

강원, 충북, 경북은 2년 연속 분발 등급에 포함되어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더욱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울산, 경기도 2년 연속 전국 평균값 이하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1) 장애인 1인당 장애인의료비 지원액

<장애인 1인당 장애인의료비 지원액 지표의 등급별 지자체 현황>

최하 48,712원 ----- 전국 평균 136,280원 ----- 최고 436,233원

분발	보통	양호	우수
서울,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남, 제주	대구, 세종, 경북	광주	대전, 전북, 전남

장애인 1인당 장애인의료비 지원액 수준은 평균 136,280원(최고 436,233원, 최하 48,712원)로 나타났다. 2022년도 전국 평균 383,658원 대비 -64.48%로 대폭 하락하였다. 또 2024년 조사 결과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 간 격차는 9.5배(436,233/48,712)로 2022년의 392.05배(3,183,845/8,121)와 비교해 지역간 격차는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하여 2022년도에는 재활병원 건립과 운영 관련하여 지역간 차이가 크게 벌어졌었다.

우수는 대전, 전북, 전남 3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광주 1개 지역이며, 보통은 대구, 세종, 경북 3개 지역이고, 분발은 서울,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남, 제주 10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대전이 436,233원으로 가장 높고, 충북이 48,712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 연도별 장애인 1인당 장애인의료비 지원액 수준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81,691	123,519	333,239	217,422	96,737	3,183,845	94,471	122,875	140,533	230,494	8,121	436,233	204,419	138,557	111,136	132,027	833,806	383,658
2024	51,791	70,180	128,247	87,511	188,550	436,233	91,343	106,709	59,775	49,033	48,712	66,084	343,916	338,913	114,639	78,772	91,343	136,280
2022 대비	하락	하락	하락	하락	상승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상승	하락	상승	상승	상승	하락	하락	하락
향상률	-36.60	-43.18	-64.70	-59.75	94.91	-86.30	-3.31	-13.16	-57.47	-78.73	499.83	-85.32	68.24	91.67	3.15	-40.34	-88.64	-64.48

2022년 장애인 1인당 장애인의료비 지원액 수준 평균은 383,658원이었다. 2024년 조사에서는 평균값이 136,280원으로 조사되어, 2022년 대비 64.48% 하락하였다. 2022년 대비 광주, 충북, 전북, 전남, 경북은 상승하였고, 그 외 12개 시·도는 하락하였다. 하락률이 가장 큰 지역은 제주로 2022년 대비 -88.64% 하락하였고, 상승폭이 가장 큰 지역은 충북으로 499.83%가 상승하였다.

충남과 제주는 2022년 양호에서 2024년 분발로 등급이 크게 하락하였고, 전남은 분발에서 우수로 등급이 크게 상향하였다. 서울, 부산, 울산, 충북, 경남은 2022년과 2024년 모두 분발 등급에 포함되었고, 대구, 인천, 세종, 경기, 강원, 경북은 2년 모두 전국 평균 이하이기 때문에 장애인 1인당 장애인의료비 지원액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2) 보조기기 지원 수준

<보조기기 지원 수준 지표의 등급별 지자체 현황>

최하 1.45점(1.15%, 6,564원) - 전국 평균 8.41점(5.99%, 42,516원) - 최고 13.52점(9.99%, 73,270원)

분발	보통	양호	우수
서울, 울산, 충남, 경남	세종, 강원, 충북	광주, 경기, 전북, 경북, 제주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전남

보조기기 지원 수준은 평균 8.41점(최고 13.52점, 최하 1.45점)으로 나타났다. 2022년도 전국 평균 7.63점에 비해 다소 높아졌다. 또 2024년 조사 결과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 간 격차는 9.32배(13.52/1.45)로 2022년의 2.59배(12.75/4.91)와 비교해 지역간 격차는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는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전남 5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광주, 경기, 전북, 경북, 제주 5개 지역이며, 보통은 세종, 강원, 충북 3개 지역이며, 분발은 서울, 울산, 충남, 경남 4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대구가 13.52점으로 가장 높고, 충남이 1.4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 연도별 보조기기 지원 수준

구분	(단위: %)																	평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22	8.55	6.15	8.82	6.17	5.62	9.92	5.52	5.17	8.05	9.96	4.91	9.74	8.60	5.09	5.08	12.75	9.54	7.63
2024	1.77	11.28	13.52	11.05	9.31	11.12	4.34	7.68	9.46	6.06	6.53	1.45	10.33	13.17	9.37	7.35	9.19	8.41
2022 대비	하락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하락	상승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상승	상승	하락	하락	상승
증감률	-79.30	83.41	53.29	79.09	65.66	12.10	-21.38	48.55	17.52	-39.16	32.99	-85.11	20.12	158.74	84.45	-42.35	-3.67	10.22

2024년 보조기기 지원 수준 평균은 8.41점으로, 2022년 7.63점에 비해 10.22% 상승하였다. 2022년 대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북이 상승하였고, 서울, 울산,

강원, 충남, 경남, 제주는 하락하였다. 하락률이 가장 큰 지역은 충남으로 2022년 대비 -85.11% 하락하였고, 상승폭이 가장 큰 지역은 경북으로 84.45% 상승하였다.

경남은 2022년 조사에서 우수 등급이었으나 이번 조사에서 분발 등급으로 크게 하락하였고, 서울, 충남은 2022년 양호 등급에서 2024년 분발 등급으로 하락하였다. 반면 부산과 인천은 2022년 분발 등급에서 2024년 우수 등급으로 상승하였다. 대구, 대전, 경기, 전북, 제주는 2022년과 2024년 모두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양호 등급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2022년과 2024년 모두 분발 등급인 울산은 비롯하여 2년 모두 전국 평균 이하인 충북은 보조기기 지원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3) 일반건강검진 수검 비율

<일반건강검진 수검 비율 지표의 등급별 지자체 현황>

최하 58.55% ----- 전국 평균 63.50% ----- 최고 68.42%

분발	보통	양호	우수
경북, 제주	서울, 부산, 대구, 강원, 충남, 경남	인천, 광주, 경기, 충북, 전북, 전남	대전, 울산, 세종

일반건강검진 수검 비율 수준은 평균 63.50%(최고 68.42%, 최하 58.55%)로 나타났다. 최상위와 최하위 지역 간 격차는 1.16배(68.42/58.55)로 나타났다.

우수는 대전, 울산, 세종 3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인천, 광주, 경기, 충북, 전북, 전남 6개 지역이며, 보통은 서울, 부산, 대구, 강원, 충남, 경남 6개 지역이고, 분발은 경북, 제주 2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세종이 68.42%로 가장 높고, 제주가 58.5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 연도별 일반건강검진 수검 비율 수준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	-	-	-	-	-	-	-	-	-	-	-	-	-	-	-	-	-
2024	61.12	61.14	61.33	65.20	64.48	66.75	67.29	68.42	64.09	62.59	64.40	62.66	64.51	63.72	60.46	62.89	58.55	63.50
2022 대비	-	-	-	-	-	-	-	-	-	-	-	-	-	-	-	-	-	-
증감률	-	-	-	-	-	-	-	-	-	-	-	-	-	-	-	-	-	-

2022년 일반건강검진 수검 비율 수준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자료를 집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2022년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이번 조사 결과와의 비교는 생략하였다.

(4)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 지원 수준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 지원 수준 지표의 등급별 지자체 현황>

최하 3.38점 ----- 전국 평균 5.79점 ----- 최고 8.72점
 (3.55일, 321,429원) ----- (8.24일, 994,938원) ----- (12.76일, 1,722,222원)

분발	보통	양호	우수
광주, 울산, 강원, 전북, 제주	충북, 전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경북, 경남	대전, 세종, 충남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 지원 수준은 평균 5.79점(최고 12.76일, 1,722,222원, 최하 3.55일, 321,429원)으로 나타났다. 최상위와 최하위 지역 간 격차는 2.57배(8.72/3.38)로 나타났다.

우수는 대전, 세종, 충남 3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경북, 경남 7개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보통은 충북, 전남 2개 지역이고, 분발은 광주, 울산, 강원, 전북, 제주 5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세종이 8.72점으로 가장 높고, 제주가 3.3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연도별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 지원 수준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4	6.23	6.42	5.86	6.88	3.96	7.33	3.68	8.72	6.55	4.45	4.74	8.26	4.47	4.60	6.92	5.99	3.38	5.79

(단위: 점)

2022년은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 예산(장애인 산모 도우미 파견 총 일수 자료 미제출)으로 분석하여 연도별 비교의 의미는 없으므로 생략하였다.

(5)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수준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수준 지표의 등급별 지자체 현황>

최하 4.53점 ----- 전국 평균 7.28점 ----- 최고 12.85점

분발	보통	양호	우수
울산, 세종, 강원, 충북, 경북	인천, 경기, 전북, 전남, 경남, 제주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충남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수준은 평균 7.28점(최고 12.85점, 최하 4.53점)으로 나타났다. 최상위와 최

하위 지자체 간 격차는 2.83배(12.85/4.53)로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2022년에는 지역 간 격차가 2.08배(11.92/5.73)임과 비교해 보면 지역간 격차는 다소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는 광주, 충남 2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4개 지역이며, 보통은 인천, 경기, 전북, 전남, 경남, 제주 6개 지역이고, 분발은 울산, 세종, 강원, 충북, 경북 5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광주가 12.85점으로 가장 높고, 강원이 4.5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연도별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수준

(단위: 원,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7.76	11.92	8.69	10.19	6.80	8.28	6.57	7.68	11.63	6.15	8.49	10.41	5.73	8.76	7.89	9.61	11.12	8.69
2024	9.64	7.87	8.56	6.97	12.85	8.10	4.77	5.56	6.71	4.53	5.72	10.36	6.74	6.80	4.71	6.65	7.28	7.28
2022 대비	상승	하락	하락	하락	상승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상승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향상률	24.23	-33.98	-1.50	-31.60	88.97	-2.17	-27.40	-27.60	-42.30	-26.34	-32.63	-0.48	17.63	-22.37	-40.30	-30.80	-34.53	-16.23

2022년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수준 전국 평균은 8.69점이었다. 이에 비해 2024년에는 7.28점으로 -16.23% 하락하였다. 서울, 광주, 전북은 상승하였고, 그 외 14개 지역은 하락하였다. 특히 경기도는 -42.30%로 하락 폭이 가장 컸으며, 광주는 88.97%로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이에 따라 경기와 제주는 2022년 우수 등급에서 2024년 보통 등급으로 크게 하락하였고, 광주는 분발 등급에서 우수 등급으로 크게 상승하였다. 한편 울산, 세종, 강원, 충북, 경북, 전북은 2022년과 2024년 모두 평균값 이하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수준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6) 장애인 1인당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장애인 1인당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지표의 등급별 지자체 현황>

최하 3,639원 ----- 전국 평균 76,118원 ----- 최고 209,173원

분발	보통	양호	우수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인천, 대전, 울산, 제주	부산, 대구, 광주	서울, 세종, 전북

장애인 1인당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수준은 평균 76,118원(최고 209,173원, 최하 3,639원)으로 나타났다. 2022년도 전국 평균 66,311원 대비 1.14배 향상하였다. 또 2024년 조사 결과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 간 격차는 57.48배(209,173/3,639)로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 게다가 2022년의 51.75배(229,864/4,441)와 비교해 지역간 격차는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는 서울, 세종, 전북 3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부산, 대구, 광주 3개 지역이며, 보통은 인천, 대전, 울산, 제주 4개 지역이고, 분발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7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세종이 209,173원으로 가장 높고, 경북이 3,639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연도별 장애인 1인당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수준

(단위: 원,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229,864	42,714	114,677	81,355	115,067	26,762	68,738	67,726	32,334	4,441	8,694	91,600	30,993	92,840	6,723	26,817	65,918	66,311
2024	208,077	118,259	84,013	43,307	114,138	46,194	49,908	209,173	32,837	18,505	24,961	33,930	189,462	24,668	3,639	27,238	63,640	76,118
2022 대비	하락	상승	하락	하락	하락	상승	하락	상승	상승	상승	상승	하락	상승	하락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향상률	-9.48	176.86	-26.74	-46.77	-0.79	80.08	-27.41	208.65	1.56	316.69	187.11	-62.96	511.31	-73.40	-6.87	1.57	-25.98	14.79

2024년 장애인 1인당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평균은 76,118원으로, 2022년 66,311원에 비해 14.79% 상승하였다. 2022년 대비 부산,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남은 상승하였고, 서울,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충남, 전남, 경북, 제주는 하락하였다. 전북이 511.31%의 상승 폭으로 가장 많이 상승하였고, 전남이 -73.40% 하락 폭으로 가장 많이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 울산, 제주는 2022년 양호 등급에서 보통 등급으로 하락하였고, 전북은 2022년 분발 등급에서 2024년 우수 등급으로 상승하였다.

특히 강원, 충북, 경북, 경남은 2022년과 2024년 모두 2년 분발 등급이고, 대전과 경기도 2년 모두 전국 평균값 이하이기 때문에 이들 지역은 장애인 1인당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수준을 높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7)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지표의 등급별 지자체 현황>

최하 315원 ----- 전국 평균 76,118원 ----- 최고 421,338원

분발	보통	양호	우수
부산,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서울, 광주	경기	대구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수준은 평균 76,118원(최고 421,338원, 최하 315원)으로 나타났다. 2022년도 전국 평균 115,356원에 비해 하락하였다. 또 2024년 조사 결과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 간 격차는 1,337.58배(421,338/315)로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2022년의 576.74배(879,532/1,525)와 비교해서 지역간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는 대구 1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경기 1개 지역이며, 보통은 서울, 광주 1개 지역이

고, 분발은 부산,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3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대구가 421,338원으로 가장 높고, 대전이 315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연도별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수준

(단위: 원,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14,920	2,406	145,682	7,636	7,324	427,715	3,708	879,532	125,706	1,525	6,786	283,544	9,908	12,280	6,313	19,036	7,050	115,356
2024	35,241	2,968	421,338	4,704	21,151	315	437	6,053	133,108	5,894	7,111	11,282	10,570	16,713	409	886	11,963	76,118
2022 대비	상승	상승	상승	하락	상승	하락	하락	하락	상승	상승	상승	하락	상승	상승	하락	하락	상승	하락
향상률	136.20	23.36	189.22	-38.40	188.79	-99.93	-88.21	-99.31	5.89	286.49	4.79	-96.03	6.68	36.32	-93.52	-95.30	69.69	-34.01

2024년 전국 평균은 76,118원으로 2022년 115,356원 대비 34.01% 하락하였다. 2022년 대비 상승한 지자체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제주 10개 지역이 상승하였고, 그 외 7개 지역은 하락하였다. 향상률의 폭은 -99.93%(대전)에서 286.49%(강원) 사이로 나타났다.

대구와 2022년 양호 등급에서 2024년 우수 등급으로 상승했다. 대구와 경기도는 2년 모두 전국 평균 이상의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부산, 인천, 울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는 2년 모두 분발 등급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서울과 광주도 2년 모두 전국 평균 이하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이 지역들은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수준을 높이기 위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3)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장애인에 대한 복지 시설 및 관련 인력의 확보수준을 통해 복지서비스 지원 인프라의 수준을 비교 조사하였다.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직업재활 시설 확충 수준’,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단기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서비스 확충 수준’,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어린이집 비율’과 같은 8개의 지표로 평가하였다.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의 등급별 지자체 현황>

최하 34.95점 ----- 전국 평균 49.87점 ----- 최고 81.06점

분발	보통	양호	우수
대구, 경기, 전북, 경북, 경남	인천,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남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제주

2024년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전국 평균 점수는 49.87점이고, 최고점수는 81.06점, 최저점수는 34.95점으로 나타났다. 우수는 제주 1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울산 5개 지역이며, 보통은 인천,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남 6개 지역이고, 분발은 대구, 경기, 전북, 경북, 경남 5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제주가 81.06점으로 가장 높고, 대구가 34.9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도별 복지서비스 지원 수준>

(단위: 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72.11	50.95	47.51	54.30	66.02	69.30	66.07	58.23	59.55	67.80	56.77	53.91	48.76	54.66	51.21	54.83	89.29	60.07
2024	61.48	54.52	34.95	42.81	60.53	58.72	56.66	45.98	41.83	48.62	46.14	45.47	42.23	44.42	40.26	42.15	81.06	49.87
2022 대비	하락	상승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향상률	-14.74	7.01	-26.44	-21.16	-8.32	-15.27	-14.24	-21.04	-29.76	-28.29	-18.72	-15.66	-13.39	-18.73	-21.38	-23.13	-9.22	-16.98

2024년 전국 평균은 49.87점(최고 81.06점, 최하 34.95점)으로 2022년 60.07점(최고 89.29점, 최하 47.51점) 대비 -16.98% 하락하고,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의 점수 격차는 2022년 1.87배(89.29/47.51) 대비 2024년에는 2.31배(81.06/34.95)로 커짐에 따라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의 지역 간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대비 부산만이 유일하게 상승했으며,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는 하락하였다. 부산의 상승 폭은 7.01%이고, 경기도는 -29.76%로 하락 폭이 가장 컸다. 부산은 2022년 분발 등급에서 2024년 양호 등급으로 향상되었다. 제주는 2년 연속 우수 등급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강원은 2022년 양호 등급에서 2024년 보통 등급으로 하락하였고, 경기와 경남은 보통 등급에서 분발 등급으로 하락하였다.

대구, 전북, 경북은 2년 연속 분발 등급에 포함되어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더욱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인천,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남도 2년 연속 전국 평균값 이하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1)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지표의 등급별 지자체 현황>

최하 0.46개소 ----- 전국 평균 1.09개소 ----- 최고 1.82개소

분발	보통	양호	우수
대구, 인천 세종, 경기	광주, 울산, 전북, 경남	서울,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부산, 제주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은 평균 1.09개소(최고 1.82개소, 최하 0.46개소)로 나타났다.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의 점수 격차는 3.95배(1.82/0.46)로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2022년의 2.89배(1.36/0.47)에 비해 격차가 더 발생하였다.

우수는 부산, 제주 2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서울,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7개 지역이며, 보통은 광주, 울산, 전북, 경남 4개 지역이고, 분발은 대구, 인천 세종, 경기 4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부산이 1.82개소로 가장 높고, 대구가 0.46개소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연도별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단위: 개소,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1.30	0.96	0.47	0.67	1.00	1.10	0.78	0.79	0.66	1.08	1.23	1.26	0.98	1.29	1.15	1.16	1.36	1.01
2024	1.30	1.82	0.46	0.66	1.01	1.12	0.97	0.77	0.67	1.09	1.24	1.27	1.08	1.32	1.18	0.95	1.63	1.09
2022 대비	유지	상승	하락	하락	하락	상승	하락	하락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하락	하락	상승
향상률	-	89.58	-97.87	-1.49	-101.00	1.82	-124.36	-2.53	-101.52	0.93	-100.81	0.79	-110.20	2.33	-102.61	-18.10	-119.65	7.92

2022년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평균은 1.01개소이었다. 2024년 조사에서는 평균값이 1.09개소로 조사되어, 2022년 대비 7.92% 상승하였다. 2022년 대비 부산, 대전, 강원, 충남, 전남은 상승하였고, 그 외 12개 시·도는 하락하였다. 하락률이 가장 큰 지역은 울산으로 2022년 대비 -124.36% 하락하였고, 상승폭이 가장 큰 지역은 부산으로 89.58%가 상승하였다.

서울, 충북, 충남, 전남은 2022년 우수에서 2024년 양호로 등급이 하락하였고, 부산은 보통에서 우수로 등급이 상향하였다. 대구, 인천, 경기는 2022년과 2024년 모두 분발 등급에 포함되었고, 세종, 광주, 울산, 전북은 2년 모두 전국 평균 이하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2)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지표의 등급별 지자체 현황>

최하 6.86개소 ----- 전국 평균 13.47개소 ----- 최고 37.31개소

분발	보통	양호	우수
인천, 충남, 전북, 전남	부산, 대구, 경기, 강원, 충북, 경북, 경남	서울, 광주, 대전, 울산, 제주	세종

직업재활시설 수준은 평균 13.47개소(최고 37.31개소, 최하 6.86개소)로 나타났다.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의 점수 격차는 5.43배(37.31/6.86)로 지역 간 격차가 나타났고, 특히 2022년의 2.87배(19.07/ 6.64)에 비해 격차가 더 발생하였다.

우수는 세종 1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서울, 광주, 대전, 울산, 제주 5개 지역이며, 보통은 부산, 대구, 경기, 강원, 충북, 경북, 경남 7개 지역이며, 분발은 인천, 충남, 전북, 전남 4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세종이 37.31개소로 가장 높고, 충남이 6.86개소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연도별 직업재활시설 수준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12.90	9.19	11.84	9.65	12.38	13.47	12.02	19.07	10.07	15.92	9.41	7.40	7.50	6.64	10.36	11.02	9.39	11.13
2024	13.72	10.87	12.03	10.03	14.63	15.83	20.47	37.31	11.74	10.27	10.33	6.86	9.29	7.12	11.12	13.43	13.98	13.47
2022 대비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향상률	6.36	18.28	1.60	3.94	18.17	17.52	70.30	95.65	16.58	-35.49	9.78	-7.30	23.87	7.23	7.34	21.87	48.88	21.02

2024년 직업재활시설 수준 평균은 13.47개소로, 2022년 11.13개소에 비해 21.02% 상승하였다. 2022년 대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가 상승하였고, 강원, 충남은 하락하였다. 하락률이 가장 큰 지역은 강원으로 2022년 대비 -35.49% 하락하였고, 상승폭이 가장 큰 지역은 세종으로 95.65% 상승하였다.

강원은 2022년 조사에서 우수 등급이었으나 이번 조사에서 보통 등급으로 하락하였고, 대구는 2022년 양호 등급에서 2024년 보통 등급으로 하락하였다. 반면 제주 2022년 보통 등급에서 2024년 양호 등급으로 상승하였다. 서울,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은 2022년과 2024년 모두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양호 등급에 포함되었다. 이와 달리 2022년과 2024년 모두 분발 등급인 충남, 전북, 전남을 비롯하여 2년 모두 전국 평균 이하인 인천, 부산, 경기, 충북, 경북, 경남은 직업재활시설 수준을 높이기 위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3)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지표의 등급별 지자체 현황>

최하 5.34개소 ----- 전국 평균 10.73개소 ----- 최고 20.05개소

분발	보통	양호	우수
서울, 대구, 인천, 세종, 경기, 경북, 경남	충북	부산, 광주, 대전, 강원, 전북, 전남	울산, 충남, 제주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은 평균 10.73개소(최고 20.05개소, 최하 5.34개소)로 나타났다.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의 점수 격차는 3.75배(20.05/5.34)로 지역 간 격차가 나타났고, 특히 2022년의 2.98배(19.29/ 6.46)에 비해 격차가 더 발생하였다.

우수는 울산, 충남, 제주 3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부산, 광주, 대전, 강원, 전북, 전남 6개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보통은 충북 1개 지역이고, 분발은 서울, 대구, 인천, 세종, 경기, 경북, 경남 7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울산이 20.05개소로 가장 높고, 경기도가 5.34개소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 연도별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단위: 개소,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9.41	6.46	12.88	8.21	9.60	11.45	19.29	11.03	8.21	17.79	6.64	8.39	8.63	10.80	6.96	7.86	16.81	10.61
2024	6.33	12.31	6.59	7.16	11.97	11.34	20.05	6.18	5.34	14.42	8.96	16.19	10.98	12.24	7.40	7.36	17.61	10.73
2022 대비	하락	상승	하락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하락	하락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하락	상승	상승
증감률	-32.73	90.56	-48.84	-12.79	24.69	-0.96	3.94	-43.97	-34.96	-18.94	34.94	92.97	27.23	13.33	6.32	-6.36	4.76	1.13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평균 수준은 2022년 10.61개소에서 2024년에는 10.73개소로 1.13% 상승하였다. 부산, 광주, 울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가 2022년에 비해 상승하였고, 이 지역 중 충남의 상승 폭이 92.97%로 가장 컸다. 충남은 2022년 분발 등급에서 2024년 우수 등급으로 크게 상승하였고, 부산은 분발 등급에서 양호 등급으로 상승하였다. 반면 서울, 대구, 인천, 대전, 세종, 경기, 강원, 경남은 2022년에 비해 하락하였고, 대구의 하락 폭이 -48.84%로 가장 컸다. 특히 인천, 경기, 경북, 경남은 2년 모두 분발 등급에 속하며, 서울, 충북은 2년 모두 전국 평균 이하이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서는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4) 단기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서비스 확충 수준

<단기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서비스 확충 수준 지표의 등급별 지자체 현황>

최하 1.49개소 ----- 전국 평균 3.73개소 ----- 최고 8.82개소

분발	보통	양호	우수
부산, 대구, 세종,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인천, 울산, 경기, 강원, 경남	서울, 충북	광주, 대전, 제주

단기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서비스 확충 수준은 평균 3.73개소(최고 8.82개소, 최하 1.49개소)로 나타났다.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의 점수 격차는 5.91배(8.82/1.49)로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2022년의 5.32배(7.88/1.48)에 비해 격차가 더 커졌다.

우수는 광주, 대전, 제주 3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서울, 충북 2개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보통은 인천, 울산, 경기, 강원, 경남 5개 지역이고, 분발은 부산, 대구, 세종, 충남, 전북, 전남, 경북 7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대전이 8.82개소로 가장 높고, 충남이 1.49개소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연도별 단기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서비스 확충 수준

(단위: 개소,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5.57	2.32	2.51	3.30	7.88	7.86	3.31	1.58	2.99	3.34	5.52	1.56	1.89	2.00	1.48	3.32	6.24	3.69
2024	5.21	2.11	2.45	3.09	7.93	8.82	3.31	1.55	3.04	3.38	5.35	1.49	1.77	1.83	1.68	3.39	7.04	3.73
2022 대비	하락	하락	하락	하락	상승	상승	하락	하락	상승	상승	하락	하락	하락	하락	상승	상승	상승	상승
향상률	-6.46	-9.05	-2.39	-6.36	0.63	12.21	-	-1.90	1.67	1.20	-3.08	-4.49	-6.35	-8.50	13.51	2.11	12.82	1.08

단기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서비스 확충 수준은 2022년 평균 3.69개소에서 2024년에는 3.73개소로 1.08% 상승하였다. 광주, 대전, 경기, 강원, 경북, 경남, 제주가 2022년에 비해 상승하였고, 이 지역 중 경북의 상승 폭이 13.51%로 가장 컸다. 반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전남은 2022년에 비해 하락하였고, 부산의 하락 폭이 -9.05%로 가장 컸다. 모든 지역이 2022년 등급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한편 부산, 대구, 세종, 충남, 전북, 전남, 경북은 2년 모두 분발 등급에 속하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경남은 2년 모두 전국 평균 이하이므로 이들 지역에서는 단기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서비스 확충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5)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지표의 등급별 지자체 현황>

최하 55.45명 ----- 전국 평균 117.61명 ----- 최고 299.34명

분발	보통	양호	우수
세종, 경기, 충남, 경북, 경남	부산, 대구, 인천,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광주, 대전, 울산	서울, 제주

장애인 1만명 당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은 평균 117.61명(최고 299.34명, 최하 55.45명)으로 나타났다.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의 점수 격차는 5.39배(299.34/55.45)로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작년의 3.28배(175.72/53.42)에 비해 격차가 더 발생하였다.

우수는 서울과 제주 2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광주, 대전, 울산 3개 지역이며, 보통은 부산, 대구, 인천, 강원, 충북, 전북, 전남 7개 지역이고, 분발은 세종, 경기, 충남, 경북, 경남 5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서울이 299.34명으로 가장 높고, 경남이 55.45명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 연도별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단위: 명,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123.75	70.39	53.42	88.80	93.24	145.68	112.80	89.04	128.47	116.40	73.59	74.95	74.89	78.07	61.80	56.01	175.72	95.12
2024	299.34	108.28	110.63	106.42	149.18	162.51	123.19	64.89	63.40	99.18	100.70	82.01	90.87	87.64	70.31	55.45	225.36	117.61
2022 대비	상승	하락	하락	하락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하락	상승	상승						
향상률	141.89	53.83	107.09	19.84	60.00	11.55	9.21	-27.12	-50.65	-14.79	36.84	9.42	21.34	12.26	13.77	-1.00	28.25	23.64

2022년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전국 평균은 95.12명이었다. 이에 비해 2024년에는 117.61명으로 23.64% 상승하였다. 세종, 경기, 강원, 경남은 하락하였고, 그 외 13개 지역은 상승하였다. 특히 서울은 141.89%로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이에 따라 경기는 2022년 양호 등급에서 2024년 분발 등급으로 크게 하락하였고, 서울은 양호 등급에서 우수 등급으로 상승하였다.

부산, 대구, 인천,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은 2022년과 2024년 모두 평균값 이하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을 높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6)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지표의 등급별 지자체 현황>

최하 1.79명 ----- 전국 평균 2.62명 ----- 최고 3.90명

분발	보통	양호	우수
부산, 대구	서울,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인천, 경기, 강원	광주, 제주

이용자 10명 당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은 평균 2.62명(최고 3.90명, 최하 1.79명)으로 나타났다.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의 점수 격차는 2.17배(3.90/1.79)로 지역 간 격차가 나타났고, 2022년의 1.94배(3.32/1.71)에 비해 격차가 더 발생하였다.

우수는 광주, 제주 2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인천, 경기, 강원 3개 지역이며, 보통은 서울,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10개 지역이고, 분발은 부산, 대구 2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제주가 3.90명으로 가장 높고, 대구가 1.79명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연도별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단위: 명,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2.34	1.95	1.72	2.27	2.65	1.71	2.48	2.22	3.15	2.42	2.71	2.76	2.04	2.30	2.21	2.40	3.32	2.39
2024	2.39	1.99	1.79	2.66	3.88	2.35	2.49	2.56	3.01	2.77	2.52	2.42	2.43	2.50	2.33	2.48	3.90	2.62
2022 대비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하락	상승	하락	하락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향상률	2.14	2.05	4.07	17.18	46.42	37.43	0.40	15.32	-4.44	14.46	-7.01	-12.32	19.12	8.70	5.43	3.33	17.47	9.62

2024년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평균은 2.62명으로, 2022년 2.39명에 비해 9.62% 상승하였다. 2022년 대비 경기, 충북, 충남은 하락하였고, 그 외 14개 지역은 상승하였다. 광주가 46.42%의 상승 폭으로 가장 많이 상승하였고, 충남이 -12.32% 하락 폭으로 가장 많이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는 2022년 우수 등급에서 2024년 양호 등급으로 하락하였고, 광주는 2022년 양호 등급에서 우수 등급으로 상승하였다. 특히 부산과 대구는 2년 모두 분발 등급이고, 서울, 대전, 세종, 전북, 전남, 경북도 2년 모두 전국 평균값 이하이기 때문에 이들 지역은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을 높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7)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지표의 등급별 지자체 현황>

최하 6.29명 ----- 전국 평균 7.59명 ----- 최고 10.61명

분발	보통	양호	우수
대구, 인천, 충북, 전남	세종, 경기, 강원, 충남, 경북, 경남	서울, 광주, 대전, 울산, 전북, 제주	부산

이용자 10명 당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은 평균 7.59명(최고 10.61명, 최하 6.29명)으로 나타났다.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의 점수 격차는 1.68배(10.61/6.29)로 지역 간 격차가 나타났고, 특히 2022년의 1.36배(8.01/5.86)에 비해 격차가 더 발생하였다.

우수는 부산 1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서울, 광주, 대전, 울산, 전북, 제주 6개 지역이며, 보통은 세종, 경기, 강원, 충남, 경북, 경남 6개 지역이고, 분발은 대구, 인천, 충북, 전남 4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부산이 10.61명으로 가장 높고, 충북이 6.29명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연도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단위: 명,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7.47	7.20	6.79	7.08	7.62	7.20	7.76	7.13	6.79	6.41	5.86	6.94	7.26	6.90	7.40	7.15	8.01	7.12
2024	8.03	10.61	6.75	6.80	8.16	7.59	7.93	7.21	7.40	7.04	6.29	7.17	7.66	6.74	7.55	7.56	8.54	7.59
2022 대비	상승	상승	하락	하락	상승	하락	상승	상승	상승	상승								
향상률	7.50	47.36	-0.59	-3.95	7.09	5.42	2.19	1.12	8.98	9.83	7.34	3.31	5.51	-2.32	2.03	5.73	6.62	6.60

2024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전국 평균은 7.59명으로 2022년 7.12명 대비 6.60% 상승하였다. 2022년 대비 상승한 지자체는 대구, 인천, 전남 3개 지역이 하락하였고, 그 외 14개 지역은 상승하였다. 향상률의 폭은 -3.95%(인천)에서 47.36%(부산) 사이로 나타났다.

부산은 2022년 양호 등급에서 2024년 우수 등급으로 상승했다. 서울, 대전, 울산, 전북, 제주는 2년 모두 전국 평균 이상의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충북은 2년 모두 분발 등급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대구, 인천, 강원, 경기, 충남, 전남도 2년 모두 전국 평균 이하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이 지역들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을 높이기 위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8) 장애아 통합 및 전담어린이집 비율

<장애아 통합 및 전담어린이집 비율 지표의 등급별 지자체 현황>

최하 1.85% ----- 전국 평균 4.87% ----- 최고 17.02%

분발	보통	양호	우수
대구, 광주,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대전, 울산, 전남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제주

장애아 통합 및 전담어린이집 비율 수준은 평균 4.87%(최고 17.02%, 최하 1.85%)로 나타났다.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의 점수 격차는 9.2배(17.02/1.85)로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2022년의 8.53배(13.66/1.60)에 비해 격차가 더 발생하였다.

우수는 제주 1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서울, 부산, 인천, 경기 4개 지역이며, 보통은 대전, 울산, 전남 3개 지역이고, 분발은 대구, 광주,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9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제주가 17.02%로 가장 높고, 충북이 1.8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연도별 장애아 통합 및 전담어린이집 비율 수준

(단위: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8.16	4.80	2.19	5.77	1.60	2.72	3.89	2.62	4.82	2.94	1.63	2.77	1.70	3.24	2.47	2.25	13.66	3.95
2024	9.73	5.60	2.50	7.02	2.51	4.37	4.41	2.87	6.36	3.31	1.85	3.24	2.12	3.99	2.60	3.31	17.02	4.87
2022 대비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증감률	19.24	16.67	14.16	21.66	56.88	60.66	13.37	9.54	31.95	12.59	13.50	16.97	24.71	23.15	5.26	47.11	24.60	23.29

2022년 장애아 통합 및 전담어린이집 비율은 4.87%로, 2022년 3.95%에 비해 23.29% 상승하였다. 모든 지역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전은 상승 폭이 가장 큰 지역으로 60.66% 상승하여 2022년 분발 등급에서 2024년 보통 등급으로 상승하였다. 그외 대부분 지역은 기존 등급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제주는 2022년에 이어 2024년에도 우수 등급을 유지하였다.

대구, 광주, 세종,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은 2022년과 2024년 모두 분발 등급에 포함되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 8개 지역은 장애아 통합 및 전담어린이집 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여야 한다. 또 대전, 울산, 강원, 전남도 2년 모두 전국 평균 값 이하의 수준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들 지역도 장애아 통합 및 전담어린이집 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4)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운영 수준’, ‘저상버스 확보 수준’,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시설 비율’, ‘장애인문화·여가 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 과 같이 5개의 지표를 활용하였다

최하 20.61점	평균 32.80점			최고 80.50점
분발	보통	양호	우수	
인천,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북, 제주	광주, 울산, 강원, 충남, 경남	부산, 대구, 대전, 세종	서울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수준>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의 평균 점수는 32.80점(최고 80.50점, 최하 20.61점)으로 나타났다.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의 점수 격차는 3.9배(80.50/20.61)로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작년의 2.5배(67.91/27.39)에 비해 격차가 더 발생하였다.

우수는 서울 1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부산, 대구, 대전, 세종 4개 지역이며, 보통은 광주, 울산, 강원, 충남, 경남 5개 지역이고, 분발은 인천,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북, 제주 7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서울이 80.50점으로 가장 높고, 전북이 20.6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도별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수준〉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69.67	69.53	67.93	62.83	63.09	73.16	56.51	67.04	59.35	57.86	64.58	52.14	54.48	57.43	57.04	62.33	75.14	62.97
2023	60.60	44.50	56.21	34.14	46.86	48.59	47.51	46.20	34.78	33.07	27.39	32.96	37.34	46.02	37.62	32.22	67.91	43.17
2024	80.50	42.18	40.70	25.74	32.68	40.97	29.74	34.32	23.73	30.39	24.31	30.02	20.61	22.96	23.78	29.11	25.95	32.80
2023 대비	상승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향상률	32.84	-5.21	-27.59	-24.60	-30.26	-15.68	-37.40	-25.71	-31.77	-8.10	-11.24	-8.92	-44.80	-50.11	-36.79	-9.65	-61.79	-24.02
3년 연속 상승	-																	
3년 연속 하락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24년 전국 평균은 32.80점(최하 20.61점, 최고 80.50점)으로 2023년 43.17점(최하 27.39점, 최고 37.91점) 대비 24.02% 하락하였다.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의 점수 격차는 2023년 2.5배(67.91/27.39)에서 2024년에는 3.9배(80.50/20.61)로 커짐에 따라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의 지역 간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대비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의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의 종합 수준은 하락하였으며, 그 중 제주가 61.79%로 하락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작년 우수 등급에 이어 올해도 우수 등급을 유지하였고, 강원, 충남, 경남은 분발에서 보통으로 상승하였다. 반면 대구는 작년 우수 등급에서 양호 등급으로, 제주는 우수 등급에서 분발 등급으로, 광주, 울산은 양호 등급에서 보통 등급으로, 전남은 양호 등급에서 분발 등급으로, 전북, 경북은 보통 등급에서 분발 등급으로 하락하였다. 특히 인천, 경기, 충북은 2년 연속 분발 등급에 포함되어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의 수준 향상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1)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수준>

최하 89.80%	평균 293.40%			최고 1,653.82%
분발	보통	양호	우수	
인천,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대구, 광주, 대전	부산, 울산, 제주	서울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운영 수준은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확보 의무 수준에 대비한 실제 특별운송수단 확보 수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그 결과 최하 89.80%(인천)이고, 최고 1,653.82%(서울)이며, 전국 평균은 293.40%로 나타났다. 전년도 전국 평균 219.15% 대비 33.88%로 대폭 향상하였다. 또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 간 격차는 18.4배(1,653.82/89.80)로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작년에는 지역간 격차가 6.9배(565.45/81.50)임과 비교해 보면 지역간 격차는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 등급에는 서울 1개 지역만 있었고, 양호 등급에는 부산, 울산, 제주 3개 지역이, 보통 등급에는 대구, 광주, 대전 3개 지역이, 분발 등급에는 인천,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10개 지역이 속하였다.

<연도별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수준>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147.92	320.06	209.22	190.91	172.87	362.11	164.44	142.86	157.71	115.43	127.04	98.70	97.41	135.27	112.17	132.27	169.12	167.97
2023	565.45	474.88	232.87	81.50	274.42	250.75	372.22	109.09	163.20	117.44	137.22	111.26	119.40	193.78	97.24	107.27	317.65	219.15
2024	1,653.82	579.62	242.66	89.80	263.59	267.91	385.22	145.45	163.20	141.03	118.44	107.20	112.00	112.86	99.32	119.48	366.18	293.40
2023 대비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	상승	하락	하락	하락	하락	상승	상승	상승	상승
향상률	192.48	22.06	4.20	10.18	3.34	6.84	3.49	33.33	0.00	20.09	-13.69	-3.65	-6.20	-41.76	2.14	11.38	15.28	33.88
3년 연속 상승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강원, 제주																	
3년 연속 하락	-																	

2024년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운영 수준은 293.40%로, 2023년 219.15%, 2022년 167.97%에 비해 3년 연속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2023년에 비해 전국 평균은 33.88% 상승하였으며, 서울은 192.48%의 상승 폭으로 가장 많이 향상되었으며, 전남은 -41.76% 하락 폭으로 가장 많이 하락하였다. 2023

년 대비 상승한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경북, 경남, 제주와 같은 12개 지역이었고, 하락한 지역은 충북, 충남, 전북, 전남 4개 지역이었다. 3년 연속 상승한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강원, 제주였으며, 3년 연속 하락한 지역은 없었다.

서울은 2년 연속 우수 등급이었고, 부산은 우수 등급에서 양호 등급으로, 대구, 광주, 대전은 양호 등급에서 보통 등급으로, 경기, 전남은 보통 등급에서 분발 등급으로 하락하였다. 인천,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은 2년 연속 분발 등급에 속하였다. 이에 따라 이 지역들은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운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

(2) 저상버스 확보 수준

〈저상버스 확보 수준〉

최하 13.85%	평균 31.80%	최고 65.78%	
분발	보통	양호	우수
인천, 울산, 충남, 전남, 경북, 제주	강원, 충북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세종, 경기, 전북, 경남	서울

저상버스 확보 수준은 지역 등록장애인 수에 대비한 저상버스 확보 수준의 비율을 의미한다. 그 결과 최하 13.85%(울산), 최고 65.78%(서울), 전국 평균 31.80%로 나타났다. 전년도 전국 평균 26.28% 대비 21.0%로 향상하였다. 또 2024년 조사 결과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 간 격차는 4.75배(65.78/13.85)로 2023년의 6.21배(63.39/10.20)와 비교해 지역간 격차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 등급에는 서울 1개 지역만 포함되었으며, 양호 등급에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세종, 경기, 전북, 경남 8개 지역이, 보통 등급에는 강원, 충북 2개의 지역이, 분발 등급에는 인천, 울산, 충남, 전남, 경북, 제주 6개 지역이 포함되었다.

〈연도별 저상버스 확보 수준〉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59.66	28.92	39.71	27.63	29.02	33.40	12.15	37.31	26.15	27.99	50.54	7.62	20.16	16.82	18.00	37.24	17.83	28.83
2023	63.39	31.03	38.98	15.97	32.53	37.73	11.34	37.40	24.67	23.75	20.24	10.20	19.88	18.64	16.82	25.37	18.82	26.28

2024	65.78	36.07	46.49	18.69	39.44	40.39	13.85	41.47	33.30	31.74	25.55	16.77	38.78	22.22	17.49	32.97	19.66	31.80
2023 대비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향상률	3.77	16.24	19.27	17.03	21.24	7.05	22.13	10.88	34.98	33.64	26.24	64.41	95.07	19.21	3.98	29.96	4.46	21.00
3년 연속 상승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세종, 충남, 전남, 제주																	
3년 연속 하락	-																	

2024년 저상버스 확보 수준은 31.80%로 2023년 26.28%에 비해 21.00% 상승하였다. 모든 지역이 2023년에 비해 상승하였고, 특히 전북의 상승 폭이 95.07%로 가장 컸다. 3년 연속 상승한 지역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세종, 충남, 전남, 제주였으며, 3년 연속 하락한 지역은 없었다. 즉 모든 지역별로 저상버스를 확보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2023년과 2024년 모두 우수 등급이었고,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세종은 2년 연속 양호 등급에 속하였다. 경기, 전북, 경남은 2023년 보통 등급에서 2024년 양호 등급으로 상승하였다. 전남, 제주는 보통 등급에서 분발 등급으로 하락하였고, 인천, 울산, 충남, 경북은 2년 연속 분발 등급에 속하였다. 이에 따라 올해 분발 등급에 속한 인천, 울산, 충남, 전남, 경북, 제주 지역은 작년에 비해 노력을 하기는 했지만 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시설 비율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시설 비율>

최하 18.94%	평균 85.06%			최고 100%
분발	보통	양호	우수	
세종, 전북	서울, 부산, 경기, 충북	충남, 경북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전남, 경남, 제주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시설 비율은 지방자치단체 내의 공공기관 건축물 중 배리어프리 본인증에 한하여 인증을 받은 누적 건축물의 비율을 의미한다. 올해 조사 결과, 지자체의 배리어프리 인증시설 전국 평균은 85.06%로 나타났으며, 최고 100%(대구, 인천, 광주, 울산, 강원, 전남, 경남, 제주)이며, 최하 18.94%(세종)로 나타났다. 전년도 전국 평균 24.10% 대비 2.5배 향상하였다. 또 2024

년 조사 결과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 간 격차는 5.28배(100/18.94)로 2023년의 110.75배(58.70/0.53)와 비교해 지역간 격차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 등급은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전남, 경남, 제주 9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 등급은 충남, 경북 2개 지역이며, 보통 등급은 서울, 부산, 경기, 충북 4개 지역이고, 분발 등급은 세종, 전북 2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시설 비율>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	-	-	-	-	-	-	-	-	-	-	-	-	-	-	-	-	-
2023	10.27	5.43	33.88	23.79	38.83	32.95	36.46	0.53	13.47	16.71	8.81	16.62	27.88	50.00	18.95	16.34	58.70	24.10
2024	78.15	82.59	100	100	100	94.24	100	18.94	71.26	100	76.84	91.51	45.83	100	86.61	100	100	85.06
2023 대비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향상률	660.95	1420.99	195.16	320.34	157.53	186.01	174.27	3473.58	429.03	498.44	772.19	450.60	64.38	100.00	357.04	512.00	70.36	252.95

2024년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시설 비율은 85.06%로 2023년 24.10%에 비해 대폭 상승하였다. 모든 지역이 2023년에 비해 상승하였고, 특히 부산의 상승 폭이 1,420%로 가장 컸다. 22년의 경우 지자체 제출 자료에 혼선이 발생하여 분석에서 제외함에 따라 3년 연속 상승, 하락과 관련된 분석은 할 수 없었다.

전남과 제주는 2023년과 2024년 모두 우수 등급이었고, 대구, 광주, 대전, 울산은 2023년 양호 등급에서 2024년 우수 등급으로 상승하였고, 인천, 강원, 경남은 보통 등급에서 우수 등급으로 상승하였다. 또 충남, 경북은 보통 등급에서 양호 등급으로 상승하였고, 서울, 부산, 충북은 분발 등급에서 보통 등급으로 상승하였다. 반면 전북은 양호 등급에서 분발 등급으로 하락하였고, 세종 지역은 2년 연속 분발 등급에 속하였다. 이에 따라 세종은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시설 비율을 높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최하 90.52%

평균 617.27%

최고 1,033.27%

분발	보통	양호	우수
전북, 제주	인천,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전남, 경북, 경남	울산, 충남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장애인문화·여가 활동 지원사업 이용률은 지방자치단체 내 저소득 등록장애인 인구 수에 대비한 장애인문화·여가 활동(문화·스포츠·여행·바우처) 지원 장애인 연인원을 조사하여 장애인문화·체육·여가 활동 지원사업 참여 비율을 파악하는 지표이다. 올해 조사 결과, 전국 평균은 617.27%로 나타났으며, 최고 1,033.27(대전)이며, 최하 90.52%(전북)로 나타났다. 전년도 전국 평균 447.02% 대비 38.1% 상승하였다. 또 2024년 조사 결과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 간 격차는 11.41배(1,033.27/90.52)로 2023년의 2.12배(718.79/338.18)와 비교해 지역간 격차는 상당히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 등급에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4개 지역이 속하였고, 양호 등급에는 울산, 충남 2개 지역이, 보통 등급에는 인천,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전남, 경북, 경남 9개 지역이, 분발 등급에는 전북, 제주 2개 지역이 속하였다.

<연도별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	-	-	-	-	-	-	-	-	-	-	-	-	-	-	-	-	-
2023	460.50	347.69	718.79	434.16	443.84	435.93	437.71	524.63	357.79	382.17	371.49	391.79	504.84	351.83	366.43	338.18	386.22	447.02
2024	912.79	922.03	902.04	499.70	433.53	1,033.27	619.38	575.14	393.28	582.07	425.91	634.79	90.52	360.96	388.97	564.14	115.26	617.27
2023 대비	상승	상승	상승	상승	하락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하락	상승	상승	상승	하락	상승
향상률	98.22	165.21	25.49	15.10	-2.32	137.03	41.50	9.63	9.92	52.31	14.65	62.02	-82.07	2.60	6.15	66.82	-70.16	38.09

2024년 장애인문화·여가 활동 지원사업 이용률은 617.27%로 2023년 447.02%에 비해 38.1% 상승하였다. 광주, 충남, 제주 지역만 2023년에 비해 하락하였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2023년에 비해 상승하였고, 특히 부산의 상승 폭이 165.21%로 가장 컸다. 22년의 경우 지자체 제출 자료에 혼선이 발생하여 분석에서 제외함에 따라 3년 연속 상승, 하락과 관련된 분석은 할 수 없었다.

대구는 2년 연속 우수 등급에 속하였고, 인천과 광주는 2년 연속 보통 등급이었고, 제주는 2년 연속 분발 등급에 속하였다. 서울은 2023년 양호 등급에서 2024년 우수 등급으로 상승하였고, 부산

은 분발 등급에서 우수 등급으로, 대전은 보통 등급에서 우수 등급으로 상승하였다. 전북은 2023년 양호 등급에서 2024년 분발 등급으로 하락하였다. 2년 연속 평균 이하인 보통 등급과 분발 등급에 속해 있는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는 장애인문화·여가 활동 지원사업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5)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 접근예산 지원액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 접근예산 지원액 수준〉

최하 3,394원	평균 13,743원	최고 47,551원	
분발 부산, 대구, 대전, 경기, 경남	보통 인천, 광주, 울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양호 세종, 충남, 경북, 제주	우수 서울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 접근예산 지원액 수준은 지방자치단체 내 등록장애인 인구수에 대비한 장애인 정보통신접근 관련 지원 예산총액을 조사하여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정보통신접근 지원 예산액의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다. 올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평균은 13,743원으로 전년도 7,982원에 비해 72.17% 향상되었다. 최고 수준은 47,551원(서울)이었고, 최저 수준은 3,394원(경기)로 나타났다. 또 2024년 조사 결과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 간 격차는 14.01배(47,551/3,394)로 2023년의 16.87배(22,441/1,330)와 비교해 지역간 격차는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 등급은 서울 1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 등급은 세종, 충남, 경북, 제주 4개 지역이며, 보통 등급은 인천, 광주, 울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7개 지역이고, 분발 등급은 부산, 대구, 대전, 경기, 경남 5개 지역이 나타났다.

〈연도별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 접근예산 지원액 수준〉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2,337	3,097	5,444	5,466	7,205	2,523	6,292	13,343	3,140	3,792	564	8,231	4,397	8,465	9,580	4,647	42,163	7,687
2023	4,585	6,993	4,801	6,968	1,330	4,974	6,736	18,225	7,628	5,873	3,273	10,604	3,840	7,161	13,993	6,263	22,441	7,982
2024	47,551	8,144	6,351	13,571	12,366	5,214	12,426	20,071	3,394	9,941	9,782	19,409	9,616	9,933	15,753	7,418	22,684	13,743
2023 대비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하락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향상률	937.10	16.46	32.28	94.76	829.77	4.83	84.47	10.13	-55.51	69.27	198.87	83.03	150.42	38.71	12.58	18.44	1.08	72.17
3년 연속 상승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3년 연속 하락	-																	

2024년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 접근예산 지원액 수준은 13,743원으로 2023년 7,982원에 비해 72.17% 상승하였다. 경기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2023년에 비해 상승하였고, 특히 서울의 상승 폭이 937.10%로 가장 컸다. 3년 연속 상승한 지역은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이었으며, 3년 연속 하락한 지역은 없었다. 즉 모든 지역별로 장애인 정보통신 접근 예산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2023년 분발 등급에서 2024년 우수 등급으로 크게 향상하였고, 세종과 제주는 2023년 우수 등급에서 2024년 양호 등급으로 하락하였다. 충남과 경북은 2년 연속 양호 등급에 속하였다. 광주, 충북, 전북은 2023년 분발 등급에서 2024년 보통 등급으로 약간 향상되었다. 하지만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남 12개 지역은 2년 연속 평균 이하 등급이기 때문에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 접근예산 지원액 수준 향상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5)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수준’,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기관별 장애 관련 조례 수’,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 ‘장애인 1인당 장애인단체 지원액’,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 과 같은 7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최하 28.97점	평균 39.65점		최고 60.00점
분발	보통	양호	우수
부산, 대구, 인천, 충남, 경남	광주, 울산, 세종, 충북, 전북, 전남	경기, 강원, 경북	서울, 대전, 제주

<복지행정 및 예산 수준>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의 평균 점수는 39.65점(최고 60.00점, 최하 28.97점)으로 나타났다.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의 점수 격차는 2.07배(60.00/28.97)로 지역 간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2022년 조사의 2.78배(49.19/17.68)에 비해 격차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는 서울, 대전, 제주 3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 등급에는 경기, 강원, 경북 3개 지역이, 보통 등급에는 광주, 울산, 세종, 충북, 전북, 전남 6개 지역이, 분발 등급에는 부산, 대구, 인천, 충남, 경남 5개 지역이 포함되었다. 17개 시도 중 서울이 60.00점으로 가장 높고, 인천이 28.9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도별 복지행정 및 예산 수준〉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20.44	24.99	31.76	17.68	31.87	39.03	49.19	31.67	26.96	32.44	27.32	30.97	39.00	36.11	37.71	35.05	40.44	32.51
2024	60.00	29.07	32.41	28.97	39.32	51.82	37.99	35.45	40.03	46.27	36.01	30.15	39.54	36.90	42.12	34.05	53.87	39.65
2022 대비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하락	상승	상승	상승	상승	하락	상승	상승	상승	하락	상승	상승
향상률	193.54	16.33	2.05	63.86	23.38	32.77	-22.77	11.94	48.48	42.63	31.81	-2.65	1.38	2.19	11.69	-2.85	33.21	21.96

2023년에는 이 영역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2022년과 비교하여 향상율을 분석하였고, 3년 동안의 경향 분석은 실시하지 않았다. 2024년 39.65점으로 2022년 32.51점에 비해 21.96% 상승하였다. 울산, 충남, 경남의 경우 2022년 대비 하락하였고, 나머지 지자체는 상승하였다.

서울은 2022년 분발 등급에서 2024년 우수 등급으로 크게 향상되었고, 대전, 제주는 양호 등급에서 우수 등급으로 향상되었다. 경기, 강원은 2022년 보통 등급에서 2024년 양호 등급으로 향상되었다.

울산은 2022년 우수 등급에서 2024년 보통 등급으로 하락하였고, 전북, 전남은 양호 등급에서 보통 등급으로, 경남은 양호 등급에서 분발 등급으로, 대구, 충남은 보통 등급에서 분발 등급으로 하락하였다. 부산, 인천은 2022년과 2024년 모두 분발 등급에 속하였다. 이에 따라 2022년과 2024년 모두 평균 이하인 보통 등급과 분발 등급에 속한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세종, 충북, 충남은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의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 장애인복지 담당공무원 확보 수준

최하 33.16명

평균 58.43명

최고 103.18명

분발	보통	양호	우수
대구, 울산, 세종, 경기, 제주	부산, 인천, 대전, 충북, 경남	서울, 광주, 충남, 전북	강원, 전남, 경북

<장애인복지 담당공무원 확보 수준>

장애인복지 담당공무원 확보 수준은 평균 58.43명으로 2022년의 55.07명에 비해 향상되었다. 최고 수준은 강원 103.18명, 최하 수준은 울산 33.16명이었다. 또 2024년 조사 결과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 간 격차는 3.11배(103.18/33.16)로 2022년의 35.50배(117.51/3.31)에 비교해 지역간 격차가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 등급에는 강원, 전남, 경북 3개 지역이 포함되었고, 양호 등급에는 서울, 광주, 충남, 전북 4개 지역, 보통 등급에는 부산, 인천, 대전, 충북, 경남 5개 지역, 분발 등급에는 대구, 울산, 세종, 경기, 제주 5개 지역이 포함되었다.

<연도별 장애인복지 담당공무원 확보 수준>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3.31	69.99	77.55	37.87	45.32	41.30	36.22	40.25	37.82	66.92	49.59	59.36	117.51	87.15	76.12	47.34	42.62	55.07
2024	62.38	56.16	44.06	48.83	61.37	51.78	33.16	44.16	42.14	103.18	50.85	59.11	64.61	85.72	89.52	58.38	37.82	58.43
2022 대비	상승	하락	하락	상승	상승	상승	하락	상승	상승	상승	상승	하락	하락	하락	상승	상승	하락	상승
향상률	1784.59	-19.76	-43.19	28.94	35.41	25.38	-8.45	9.71	11.42	54.18	2.54	-0.42	-45.02	-1.64	17.60	23.32	-11.26	6.10

2024년 평균 수준은 58.43명으로 2022년의 55.07명에 비해 6.10% 상승하였다. 2022년 대비 상승한 지자체는 서울,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경북, 경남 10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하락한 지자체는 부산, 대구, 울산, 충남, 전북, 전남, 제주 7개 지역으로 확인되었다. 향상률의 폭은 -43.1%에서 1,784.59% 사이로 나타났다.

전남은 2022년과 2024년 모두 우수 등급으로 나타났고, 강원과 경북은 2022년 양호 등급에서 우수 등급으로 향상되었다. 서울은 분발 등급에서 양호 등급으로 상승하였고, 광주는 보통 등급에서 양호 등급으로 상승하였고, 전북은 우수 등급에서 양호 등급으로, 부산은 양호 등급에서 보통 등급으로, 대구는 양호 등급에서 분발 등급으로, 울산, 세종, 경기, 제주는 보통 등급에서 분발 등급으로 하락하였다.

2022년과 2024년 모두 평균 이하인 보통 등급과 분발 등급에 속한 울산, 세종, 경기, 제주, 인천, 대전, 충북, 경남은 장애인복지 담당공무원 확보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장애인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최하 3.52점	평균 5.04점		최고 9.26점
분발	보통	양호	우수
대구, 인천, 충남, 전남, 제주	부산, 광주, 대전, 충북, 전북	서울, 울산, 세종, 강원, 경북, 경남	경기

〈장애인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수준〉

장애인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수준은 평균 5.04점(최고 9.26점, 최하 3.52점)으로 나타났고, 2022년의 5.32점에 비해 다소 하락하였다.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 간 격차는 2.63배(9.26/3.52)로 2022년의 6.00배(12.06/2.01)에 비교해 지역간 격차가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는 경기 1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서울, 울산, 세종, 강원, 경북, 경남 6개 지역이며, 보통은 부산, 광주, 대전, 충북, 전북 5개 지역이고, 분발은 대구, 인천, 충남, 전남, 제주 5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장애인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수준〉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7.12	3.51	4.41	3.28	4.38	5.86	6.33	2.01	5.88	6.03	7.38	6.26	5.62	6.38	4.99	12.06	4.80	5.67
2024	6.68	4.40	3.52	3.82	4.45	4.88	5.27	5.67	9.26	5.21	5.04	3.89	4.70	3.82	5.55	5.35	4.17	5.04
2022 대비	하락	상승	하락	상승	상승	하락	하락	상승	상승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상승	하락	하락	하락
향상률	-6.18	25.36	-20.18	16.46	1.60	-16.72	-16.75	182.09	57.48	-13.60	-31.71	-37.86	-16.37	-40.13	11.22	-55.64	-13.13	-11.11

2024년 전국 평균은 5.04점으로 2022년 5.67점에 비해 11.11% 하락하였다. 2022 대비 상승한 지자체는 부산, 인천, 광주, 세종, 경기, 경북 6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하락한 지자체는 서울,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11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향상률의 폭은 -55.64%에서 182.09% 사이로 나타났다.

경기는 2022년 양호 등급에서 2024년 우수 등급으로 향상되었고, 세종은 분발에서 양호로, 경북은 보통에서 양호로, 부산은 분발에서 보통으로 향상되었다. 반면 경남은 우수에서 양호로, 충남, 전남은 양호에서 분발로, 대전, 충북은 양호에서 보통으로, 대구, 제주는 보통에서 분발로 하락하였다.

2022년과 2024년 모두 평균 이하인 보통 등급과 분발 등급에 속한 대구, 인천, 제주, 부산, 광주, 전북은 장애인관련 위원회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3) 기관별 장애인관련 조례 수

최하 5.50개	평균 12.45개			최고 30.00개
분발	보통	양호	우수	
부산, 대구, 인천, 충남, 경북, 경남	강원, 충북, 전북, 전남	서울,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제주	

<기관별 장애인관련 조례 수 수준>

기관별 장애인관련 조례수 수준은 평균 12.45개(최고 30.00개, 최하 5.50개)로 나타나, 2022년의 9.19개(최고 19.67개, 최하 1.23개)에 비해 다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4년 조사 결과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 간 격차는 5.45배(30.00/5.50)로 2022년의 15.99배(19.67/1.23)와 비교해 지역간 격차가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는 제주 1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서울,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6개 지역이며, 보통은 강원, 충북, 전북, 전남 4개 지역이고, 분발은 부산, 대구, 인천, 충남, 경북, 경남 6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제주가 30.00개로 가장 높고, 대구가 5.50개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도별 장애인관련 조례 수 수준>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1.23	3.59	3.56	2.45	19.67	17.33	14.50	17.00	14.47	6.84	4.08	9.25	7.20	6.87	7.21	7.63	13.33	9.19
2024	17.27	5.71	5.50	7.82	19.33	18.17	12.50	20.00	14.06	9.16	9.58	6.38	10.87	10.57	7.61	7.05	30.00	12.45
2022 대비	상승	상승	상승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상승	하락	상승	상승	상승	하락	상승	상승
향상률	1,304.07	59.05	54.49	219.18	-1.73	4.85	-13.79	17.65	-2.83	33.92	134.80	-31.03	50.97	53.86	5.55	-7.60	125.06	35.47

2024년 전국 평균은 12.54개로 2022년 9.19개에 비해 35.47% 상승하였다. 2022년 대비 상승한 지자체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제주 12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하락한 지자체는 광주, 울산, 경기, 충남, 경남 5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하락 폭이 가장 큰 지

역은 충남으로 31.03% 하락하였고, 상승 폭이 가장 큰 지역은 서울로 1,304.07% 상승하였다.

제주는 2022년 양호 등급에서 2024년 우수 등급으로 향상되었고, 서울은 분발에서 양호로, 충북은 분발에서 보통으로 향상되었다. 반면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도는 우수에서 양호로, 충남은 양호에서 분발로, 경북, 경남은 보통에서 분발로 하락하였다.

2022년과 2024년 모두 평균 이하인 보통 등급과 분발 등급에 속한 부산, 대구, 인천,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9개 지역은 장애인복지 조례 제정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4)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

최하 5.39점	평균 8.67점		최고 14.75점
분발	보통	양호	우수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경남	서울, 광주, 세종, 전북, 제주	대구, 대전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

1인당 장애인복지 예산액과 장애인복지 예산 대비 기초자치단체의 자체예산 확보 비율로 산출한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은 평균 8.67점(최고 14.75점, 최하 5.39점)으로, 2022년 평균 4.55점(최고 9.25점, 최하 2.43점)에 비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4년 조사 결과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 간 격차는 2.74배(14.75/5.39)로 2022년의 2.74배(14.75/5.39)와 같아 지역간 격차는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 등급에는 대구, 대전 2개 지역이 포함되었고, 양호 등급에는 서울, 광주, 세종, 전북, 제주 5개 지역이, 보통 등급에는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경남 5개 지역이, 분발 등급에는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5개 지역이 포함되었다.

<연도별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3.97	5.13	7.52	3.16	4.69	5.52	4.09	3.80	2.43	2.67	2.45	2.93	5.66	2.49	2.45	9.25	9.08	4.55
2024	10.48	8.64	14.75	8.15	10.72	11.80	8.21	9.35	7.97	5.39	6.07	6.17	10.06	5.79	5.86	7.17	10.87	8.67
2022 대비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하락	상승	상승
향상률	163.98	68.42	96.14	157.91	128.57	113.77	100.73	146.05	227.98	101.87	147.76	110.58	77.74	132.53	139.18	-22.49	19.71	90.55

2024년 전국 평균은 8.67점으로 2022년 4.55점에 비해 90.55% 상승하였다. 2022년과 비교하면 경남만 22.49% 하락하였고, 다른 지역은 모두 상승하였고, 상승 폭이 가장 큰 지역은 경기로 227.98% 상승하였다.

대구는 2022년과 2024년 모두 우수 등급이었고, 대전은 양호 등급에서 우수 등급으로 향상되었다. 서울, 세종은 보통 등급에서 양호 등급으로, 인천, 경기도는 분발 등급에서 보통 등급으로 향상되었다. 반면 제주는 우수 등급에서 양호 등급으로, 경남은 우수 등급에서 보통 등급으로, 부산은 양호 등급에서 보통 등급으로 하락하였다.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은 2년 모두 분발 등급에 속해 있어 장애인복지 예산을 대폭 확대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5) 장애인복지 예산 지방비 비율

최하 11.81%	평균 27.45%		최고 42.69%
분발	보통	양호	우수
대구, 세종	인천, 광주,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부산,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서울, 전북, 제주

<장애인복지 예산 지방비 비율 수준>

장애인복지 예산의 광역 지방비 비율과 기초 지방비 비율의 평균으로 산출한 장애인복지 예산 지방비 비율 수준은 평균 27.45%(최고 42.69%, 최하 11.81%)로 나타나, 2022년의 평균 31.21%(최고 52.54%, 최하 12.20%)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4년 조사 결과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 간 격차는 3.61배(42.69/11.81)로 2022년의 4.31배(52.54/12.20)에 비교해 지역간 격차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는 서울, 전북, 제주 3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부산,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6개 지역이며, 보통은 인천, 광주, 충남, 전남, 경북, 경남 6개 지역이고, 분발은 대구, 세종 2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제주가 42.69%로 가장 높고, 세종이 11.8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도별 장애인복지 예산 지방비 비율 수준>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31.90	21.56	35.78	27.81	12.20	25.37	30.97	49.02	31.36	31.06	29.43	34.47	39.86	30.39	27.79	19.06	52.54	31.21
2024	41.93	24.00	17.59	27.27	25.00	25.18	28.19	11.81	33.40	29.46	27.74	21.16	36.00	23.23	25.93	26.13	42.69	27.45
2022 대비	상승	상승	하락	하락	상승	하락	하락	하락	상승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상승	하락	하락

향상률	31.44	11.32	-50.84	-1.94	104.92	-0.75	-8.98	-75.91	6.51	-5.15	-5.74	-38.61	-9.68	-23.56	-6.69	37.09	-18.75	-12.05
-----	-------	-------	--------	-------	--------	-------	-------	--------	------	-------	-------	--------	-------	--------	-------	-------	--------	--------

2024년 전국 평균은 27.45%로 2022년 31.21%에 비해 12.05% 하락하였다. 서울, 부산, 광주, 경기, 경남 5개 지역은 상승하였고,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12개 지역은 하락하였다. 최대 하락 폭은 75.91%(세종)였고, 최대 상승 폭은 104.92%(광주)였다.

제주는 2022년과 2024년 모두 우수 등급이었고, 서울, 전북은 양호 등급에서 우수 등급으로 향상되었다. 부산은 분발 등급에서 양호 등급으로, 대전, 울산, 강원, 충북은 보통 등급에서 양호 등급으로, 광주, 경남은 분발 등급에서 보통 등급으로 향상되었다. 반면 세종은 우수 등급에서 분발 등급으로, 충남은 양호 등급에서 보통 등급으로, 대구는 양호 등급에서 분발 등급으로 하락하였다. 2022년과 2024년 모두 평균 이하인 분발 등급과 보통 등급에 속한 인천, 광주, 전남, 경북, 경남은 장애인복지 지방비 예산을 대폭 확대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6)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

최하 0.16점	평균 3.47점		최고 8.59점
분발	보통	양호	우수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경기, 전북	세종, 충북, 충남, 전남, 경남	울산, 제주	서울, 대전, 강원, 경북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

2024년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은 평균 3.47점(최고 8.59점, 최하 0.16점)으로 나타나, 2022년 평균 2.74점(최고 11.08점, 최하 0.05점)에 비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4년 조사 결과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 간 격차는 53.68배(8.59/0.16)로 지역 간 격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22년의 221.60배(11.08/0.05)에 비교해 격차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는 서울, 대전, 강원, 경북 4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울산, 제주 2개 지역이며, 보통은 세종, 충북, 충남, 전남, 경남 5개 지역이고, 분발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경기, 전북 6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	----	----	----	----	----	----	----	----	----	----	----	----	----	----	----	----	----	----

2022	0.05	0.38	0.28	0.34	0.45	2.20	11.08	1.92	1.32	8.62	1.50	3.46	1.07	3.28	5.69	1.44	3.44	2.74
2024	8.07	0.54	0.75	0.16	0.56	7.84	4.93	2.81	1.42	8.59	2.03	2.85	1.35	2.56	7.44	2.01	5.12	3.47
2022 대비	상승	상승	상승	하락	상승	상승	하락	상승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상승	상승	상승
향상률	16,040.00	42.11	167.86	-52.94	24.44	256.36	-55.51	46.35	7.58	-0.35	35.33	-17.63	26.17	-21.95	30.76	39.58	48.84	26.64

2024년 전국 평균은 3.47점으로 2022년 2.74점에 비해 26.64% 상승하였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세종, 경기,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12개 지역은 상승하였고, 인천, 울산, 강원, 충남, 전남 5개 지역은 하락하였다. 최대 하락 폭은 55.51%(울산)였고, 최대 상승 폭은 16,040.00%(서울)였다.

강원은 2022년과 2024년 모두 우수 등급이었고, 서울은 분발 등급에서 우수 등급으로, 대전은 보통 등급에서 우수 등급으로, 경북은 양호 등급에서 우수 등급으로 향상되었다. 반면 울산은 우수 등급에서 양호 등급으로, 충남, 전남은 양호 등급에서 보통 등급으로 하락하였다. 2024년에 분발 등급에 속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경기, 전북은 2022년 조사에서도 분발 등급이었기 때문에 장애인단체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7)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

최하 0.29점	평균 2.73점		최고 8.81점
분발	보통	양호	우수
부산, 인천, 세종, 경기	대구, 광주, 강원, 충남, 전북, 경남	울산, 충북, 전남, 경북, 제주	서울, 대전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 수준>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 수준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지원액 가중값 환산 점수를 기준으로 평균 2.73점(최고 8.81점, 최하 0.29점)으로 나타났다. 또 2024년 조사 결과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 간 격차는 30.38배(8.81/0.29)로 2022년의 40.90배(8.59/0.21)에 비교해 지역간 격차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 간 격차는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 등급에는 서울, 대전 2개 지역이 포함되었고, 양호 등급에는 울산, 충북, 전남, 경북, 제주 5개 지역이, 보통 등급에는 대구, 광주, 강원, 충남, 전북, 전남 6개 지역이, 분발 등급에는 부산, 인천, 세종, 경기 4개 지역이 포함되었다. 17개 시도 중 서울이 8.81점으로 가장 높고, 경기가 0.2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도별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 수준〉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1.16	0.64	0.77	0.57	0.72	3.28	7.57	1.62	0.37	0.21	5.33	2.16	1.80	6.64	8.59	1.04	2.83	2.66
2024	8.81	0.53	1.76	0.64	1.76	6.88	3.11	0.61	0.29	1.57	4.49	1.81	1.60	4.08	2.83	2.16	3.50	2.73
2022 대비	상승	하락	상승	상승	상승	상승	하락	하락	하락	상승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상승	상승	상승
향상률	659.48	-17.19	128.57	12.28	144.44	109.76	-58.92	-62.35	-21.62	647.62	-15.76	-16.20	-11.11	-38.55	-67.05	107.69	23.67	2.63

2024년 전국 평균은 2.73점으로 2022년 2.66점에 비해 2.63% 상승하였다.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강원, 경남, 제주 8개 지역은 상승하였고, 부산,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9개 지역은 하락하였다. 최대 하락 폭은 67.05%(경북)였고, 최대 상승 폭은 659.48%(서울)였다.

서울은 분발 등급에서 우수 등급으로, 대전은 양호 등급에서 우수 등급으로 향상되었다. 또 대구, 광주, 강원, 경남은 분발 등급에서 보통 등급으로 향상되었다. 반면 울산, 전남, 경북은 우수 등급에서 양호 등급으로 하락하였고, 세종은 보통 등급에서 분발 등급으로 하락하였다.

2022년과 2024년 모두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북, 경남은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Ⅲ. 시·도별 장애인 교육·복지 수준 분석 결과

1. 서울특별시
2. 부산광역시
3. 대구광역시
4. 인천광역시
5. 광주광역시
6. 대전광역시
7. 울산광역시
8. 세종특별자치시
9. 경기도
10. 강원특별자치도
11. 충청북도
12. 충청남도
13. 전라북도
14. 전남특별자치도
15. 경상북도
16. 경상남도
17. 제주특별자치도

1. 서울특별시

구 분	장애인 교육	장애인 복지	장애인 복지 세부영역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보건 및 자립 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복지행정 및 예산
전국평균	65.54	52.65	42.07	45.12	49.87	32.80	39.65
서울 점수	71.08	65.85	52.23	47.31	61.48	80.50	60.00
서울 수준	양호	우수	우수	양호	양호	우수	우수



2024년 서울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71.08점으로 2023년과 동일한 양호 등급으로 나타났다. 2024년 장애인 복지 분야는 65.85로 우수 등급으로 나타나 2022년 우수 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분야 중에 우수 등급에 해당되는 영역은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52.23점), 이동(편의)·문화여가·정보 접근(80.50), 복지행정 및 예산(60.00%)이며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47.31점), 복지서비스 지원(61.48점)은 양호 등급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교육과 복지 모든 영역에서 전국 평균 이상의 등급으로 나타났다.

1) 교육 분야(영역) : 양호

(서울 71.08점/ 전국 평균 65.54점, 전국 최고 78.41점, 전국 최하 56.28점)

교육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서울	등급		
			2022	2023	2024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35,238 원	38,914 원	보통	양호	양호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3.75 %	4.19 %	양호	양호	우수
특수학급 설치율	5.02 %	3.39 %	분발	분발	분발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128.84 %	134.28 %	우수	양호	양호
특수교육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	전체보조인력 13.93 %	17.02 %	보통	양호	양호
	유급보조인력 10.23 %	10.23 %			
통합교육 학생비율	72.22 %	67.41 %	분발	분발	분발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 수	2.07 개	2.10 개	양호	우수	양호
장애인 교원 고용률	1.56 %	2.20 %	우수	양호	우수

2024년 서울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양호 등급(71.08점)으로 2023년 양호 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영역의 세부지표별을 살펴보면,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지표와 장애인 교원 고용률 지표가 우수 등급으로 나타났다.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특수교육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수로 나타났다. 보통 등급에 해당되는 지표는 없었으며, 특수학급 설치율과 통합교육 학생 비율은 3년 연속 분발 등급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수학급 설치율 지표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금년도 조사된 하위 8개 지표 중 6개 지표는 전국 평균 이상이며, 2개 지표는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와 비교해 상승한 지표는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과 장애인 교원 고용률이 양호 등급에서 우수 등급으로 상승하였으며,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수는 우수 등급이었던 전년도에 비해 양호 등급으로 하락하였다.

특수학급 설치율 지표와 통합교육 학생 비율 지표는 3년 연속 분발 등급에 속하였기 때문에 특수학급 설치를 확대하고 통합교육의 학생 비율을 늘리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2)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 우수

(서울 52.23점/ 전국 평균 42.07점, 전국 최고 52.23점, 전국 최하 30.43점)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서울	등급		
			2022	2023	2024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3.80 %	8.46 %	분발	분발	분발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4.74 %	12.22 %	우수	우수	우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0.87 %	11.83 %	우수	우수	우수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149,979 원	74,712 원	보통	보통	분발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333,935 원	127,203 원	분발	양호	분발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	0.005 %	0.013 %	양호	우수	우수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	1,143,304 원	994,419 원	양호	보통	보통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	6.88 %	8.20 %	양호	양호	양호

2024년 서울의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은 전국 최고 수준의 우수 등급(52.23점)으로, 2022년, 2023년 우수 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을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비율로 나타났다. 그 중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지표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은 3년 연속 우수 등급에 포함되었다. 양호 등급에는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 지표가 3년 연속 속하였고, 보통 등급에는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 지표가 속하였다. 분발 등급은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지표,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지표,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지표가 포함되었다. 이 중 민간부문 장애인고용률 지표는 3년 연속 분발 등급이다.

2023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없었으며 2023년에 비해 하락한 지표는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지표로 양호 등급에서 분발 등급으로 2등급 하락하였다.

전국 평균 이하의 수준으로 나타난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3년 연속 분발 등급인 민간부문 장애인고용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3)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 : 양호

(서울 47.31점/ 전국 평균 44.93점, 전국 최고 63.47점, 전국 최하 30.21점)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서울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136,280 원	51,791 원	분발	-	분발	
보조기기 지원 수준	보장구 의료급여 및 보조기구 교부 비율	5.99 %	1.29 %	양호	-	분발
	보장구 의료급여 및 보조기구 교부 예산	42,516 원	8,702 원			
일반건강검진 수검 비율	63.50 %	61.12 %	-	-	보통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여성장애인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비율	8.24 %	9.04 %	보통	-	양호
	여성장애인 1인당 출산 및 검진 지원비	994,938 원	1,000,000 원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활동지원서비스 실 인원 비율 6세 이상 65세 미만	21.73 %	3.77 %	보통	-	양호
	활동지원서비스 평균급여량 6세 이상 65세 미만	4,651,598 원	5,760,240 원			
	활동지원서비스 실 인원 비율 65세 이상	2.56 %	3.77 %			
	활동지원서비스 평균급여량 65세 이상	1,105,186.29 원	950,091 원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76,118 원	208,077 원	우수	-	우수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40,596 원	35,241 원	분발	-	보통	

2024년 서울의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양호 등급(47.31점)으로 나타났고, 2022년 양호 등급과 동일하다. 2023년에는 이 영역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지표이며,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은 양호 등급에 속하였다. 보통 등급은 일반건강검진 수검 비율과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으로 나타났다. 분발 등급에는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보조기기 지원수준이 포함되었다.

이처럼 금년도에 조사한 보건 및 자립지원영역의 7개 지표 중 3개 지표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4개 지표는 전국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지표는 2022년과 동일한 우수 등급이며, 2022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이다. 반면, 보조기기 지원 수준은 2등급 하락하였으며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은 2020년부터 분발 등급에 속하고 있어 개선의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다.

4)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 양호

(서울 61.48점/ 전국 평균 49.87점, 전국 최고 81.06점, 전국 최하 34.95점)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서울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1.09 개소	1.30 개	우수	-	양호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13.47 개소	13.72 개	양호	-	양호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10.73 개소	6.33 개	보통	-	분발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3.73 개소	5.21 개	양호	-	양호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117.61 명	299.34 명	양호	-	우수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2.62 명	2.39 명	보통	-	보통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7.59 명	8.03 명	양호	-	양호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4.87 %	9.73 %	양호	-	양호

2024년 서울의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양호 등급(61.48점)으로 2022년 양호 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는 이 영역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의 세부지표별을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이다. 양호 등급은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지표로 나타났다. 보통 등급에는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지표가 속하였고,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이 분발 등급에 속하였다. 8개 지표 중 6개 지표가 전국 평균보다 높고, 2개 지표는 전국 평균 이하 수준에 머물렀다.

2022년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이며, 하락한 지표는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이다. 특히,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은 2020년부터 전국 평균값 이하의 수준에 머무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요구된다.

5)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 : 우수

(서울 80.50점/ 전국 평균 32.80점, 전국 최고 80.50점, 전국 최하 20.61점)

이동(편의)·문화 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서울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293.40 %	1,653.82 %	보통	우수	우수
저상버스 확보수준	31.80 %	65.78 %	우수	우수	우수
지자체 barrier프리 인증 시설 비율	85.06 %	78.15 %	-	분발	보통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617.27 %	912.79 %	-	양호	우수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	13,743 원	47,551 원	분발	분발	우수

2024년 서울의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은 우수 등급(8.50점)으로 2023년 우수 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되는 지표는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저상버스 확보수준,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으로 나타났다. 양호 등급은 없었으며 지자체 barrier프리 인증시설 비율은 보통 등급에 속하였다. 분발 등급 또한 양호 등급과 마찬가지로 없었다.

전년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 접근예산 지원액이며 그 외 지표는 전년도와 동일한 등급에 속하였다.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지표, 저상버스 확보수준 지표,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 하락한 지표는 없었다.

서울시의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은 전국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노력을 지속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6)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 우수

(서울 60.00점/ 전국 평균 39.65점, 전국 최고 60.00점, 전국 최하 28.97점)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서울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장애인복지 전담 공무원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35.83 명	48.93 명	분발	-	양호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개최 횟수	장애위원 수	57.53 건	5 건	양호	-	양호
기관별 장애관련 조례 수			12.45 건	17.27 건	분발	-	양호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	1인당장애인복지예산	장애인복지예산 확보수준	6,825 천원	7,642 천원	보통	-	양호
장애인복지 예산 지방비 비율	광역 지방비 비율	기초 지방비 비율	33.43 %	64.67 %	양호	-	우수
	광역 예산	기초 예산	539,965 원	2,186,896 원			
장애인단체 수준	광역 예산	기초 예산	89,943 원	54,047 원	분발	-	우수
	광역 예산	기초 예산	27,063 원	35,928 원	분발	-	우수
여성장애인 사업 예산	광역 예산	기초 예산	16,160 원	87,811 원			

2024년 서울의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우수 등급(60.00점)으로 2022년 분발 등급에 비하여 월등히 상승하였다. 2023년은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복지 예산 지방비 비율, 장애인단체수준, 여성장애인 사업 예산으로 나타났다. 양호 등급에는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기관별 장애관련 조례수,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이 속하였다.

서울시의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전 영역 모두 전국 평균값을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 중 광역 지방비 비율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2022년 대비 지표 전체의 등급이 상승하였으며, 특히 장애인단체 수준과 여성장애인 사업예산은 분발 등급에서 우수 등급으로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현재와 같은 노력을 지속한다면,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7) 제언

■ 전반적 평가

- 2024년 서울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양호 등급이었고, 2023년 양호 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4년 장애인복지 분야는 우수 등급으로 2022년 우수 등급과 동일함
- 복지 분야 하위 영역 중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우수 등급에 속하였고, 보 ‘보건 및 자립지원’, ‘복지서비스 지원’은 양호 등급에 속하였음

■ 서울의 강점 분야

- 서울의 장애인 복지 분야는 타 시도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 복지 분야 중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전국 최고 수준임
- 교육 영역 중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과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우수함
-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은 타 시도에 비해 우수한 수준이고, 이 영역 중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은 우수함
-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 중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이 우수함
-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중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이 우수함
-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저상버스 확보수준’,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이 우수함
-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장애인복지 예산 지방비 비율’, ‘장애인단체 수준’, ‘여성장애인 사업 예산’이 우수함

■ 서울의 취약 분야

- 서울의 교육 분야는 ‘특수학급 설치율’, ‘통합교육 학생비율’이 3년 연속 분발 수준으로 타 시도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 중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지표’,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지표’,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지표는 취약한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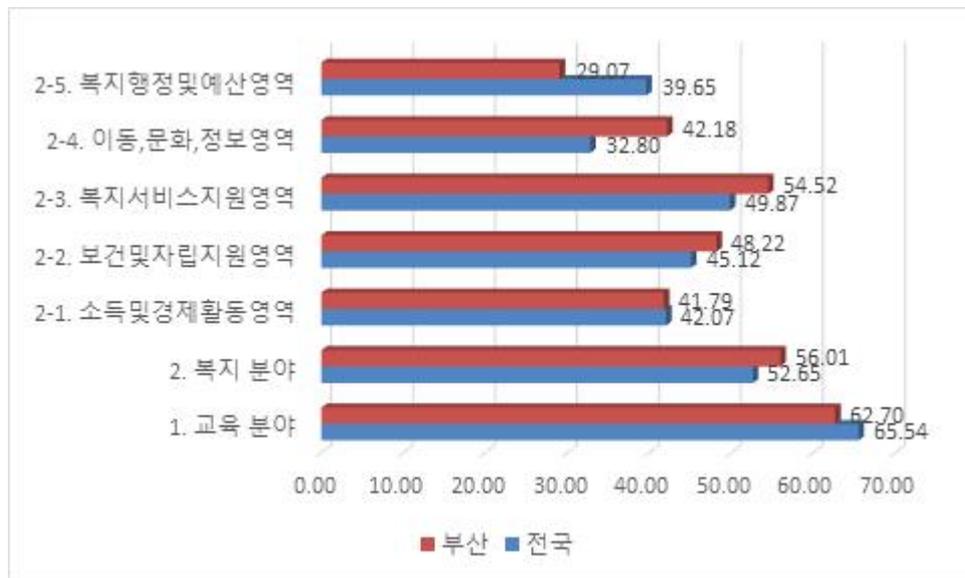
-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보조기기 지원수준’ 수준은 상당히 열악함
-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이 취약한 수준임
-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 중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 비율이 보통 등급으로 전국 평균 이하 수준임

■ 향후 장애인 복지·교육 분야 발전을 위한 서울의 우선 과제

- 서울시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양호 등급이고, 장애인 복지 분야는 우수 등급이므로 전반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이를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 방안과 노력이 요구됨
-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은 우수한 수준이나, 이 영역 중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지표는 3년 연속 분발 등급에 속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중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수준은 2022년과 2024년에 연속으로 분발 등급에 속하고 있어 개선이 상당히 필요함
-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중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은 2022년과 2024년 연속으로 전국 평균값 이하이므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함
-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은 2023년에 이어 연속으로 분발 등급의 취약한 수준으로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함. 특히 이 영역 중 ‘저상버스 확보수준’,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2. 부산광역시

구 분	장애인 교육	장애인 복지	장애인 복지 세부영역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보건 및 자립 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복지행정 및 예산
전국평균	65.54	52.65	42.07	45.12	49.87	32.80	39.65
부산 점수	62.70	56.01	41.79	48.22	54.52	42.18	29.07
부산 수준	보통	양호	보통	양호	양호	양호	분발



2024년 부산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62.70점으로 2023년과 동일한 보통 등급으로 나타났다. 2024년 장애인 복지 분야는 56.01로 양호 등급으로 2022년 분발 등급보다 2단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분야 중에 우수 등급에 해당되는 영역은 없으며, 보건 및 자립지원(45.12점), 복지서비스 지원(54.52점),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42.18점)이 평균 이상의 양호 등급으로 나타났다.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41.79점)은 보통 등급, 복지행정 및 예산(29.07점)은 분발 등급으로 평균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

1) 교육 분야(영역) : 보통

(부산 62.70점/ 전국 평균 65.54점, 전국 최고 78.41점, 전국 최하 56.28점)

교육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부산	등급		
			2022	2023	2024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35,238 원	30,227 원	분발	보통	분발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3.75 %	3.75 %	보통	양호	보통
특수학급 설치율	5.02 %	4.21 %	분발	분발	보통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128.84 %	98.78 %	분발	분발	분발
특수교육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	전체보조인력 13.93 %	11.35 %	보통	보통	보통
	유급보조인력 10.23 %	9.08 %			
통합교육 학생비율	72.22 %	71.36 %	보통	보통	보통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 수	2.07 개	1.90 개	분발	분발	분발
장애인 교원 고용률	1.56 %	1.65 %	양호	양호	양호

2024년 부산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보통 등급(62.70점)으로 2023년과 동일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교육 영역의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우수 등급은 없으며, 장애인 교원 고용률이 양호 등급에 속한다.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특수학급 설치율, 특수교육보조인력 배치율, 통합교육 학생비율이다. 분발 등급은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사 법정 정원 충원율,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 수로 나타났다. 8개 지표 중 1개 지표만 전국 평균을 넘었고, 7개 지표는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특수학급 설치율이었으며,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하락하였다.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수 지표는 3년 연속 분발 등급에 속하였기 때문에 특수교사 법정 정원을 충원하고,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학급을 확보하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2)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 보통

(부산 41.79점/ 전국 평균 42.07점, 전국 최고 52.23점, 전국 최하 30.43점)

소득 및 경제활동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부산	등급		
			2022	2023	2024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3.80 %	4.29 %	우수	우수	우수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4.74 %	5.17 %	양호	양호	양호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0.87 %	0.60 %	우수	보통	분발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149,979 원	130,400 원	분발	보통	보통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333,935 원	353,645 원	보통	양호	양호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	0.005 %	0.007 %	양호	보통	양호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	1,143,304 원	698,799 원	분발	분발	분발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	6.88 %	6.10 %	보통	보통	보통

2024년 부산의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은 보통 등급(41.79점)으로, 2023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로 3년 연속 우수 등급이다.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이다.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이며,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지표와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 지표는 분발 등급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 비해 향상된 지표는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이며 2023년에 비해 하락한 지표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로 나타났다.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은 3년 연속 분발 등급에 속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 : 양호

(부산 48.22점/ 전국 평균 44.93점, 전국 최고 63.47점, 전국 최하 30.21점)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부산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136,280 원	70,180 원	분발	-	분발	
보조기기 지원 수준	보장구 의료급여 및 보조기구 교부 비율	5.99 %	8.18 %	분발	-	우수
	보장구 의료급여 및 보조기구 교부 예산	42,516 원	56,042 원			
일반건강검진 수검 비율	63.50 %	61.14 %	-	-	보통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여성장애인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비율	8.24 %	9.33 %	분발	-	양호
	여성장애인 1인당 출산 및 검진 지원비	994,938 원	1,020,833 원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활동지원서비스 실 인원 비율 6세 이상 65세 미만	21.73 %	24.27 %	우수	-	양호
	활동지원서비스 평균급여량 6세 이상 65세 미만	4,651,598 원	5,686,126 원			
	활동지원서비스 실 인원 비율 65세 이상	2.56 %	2.68 %			
	활동지원서비스 평균급여량 65세 이상	1,105,186.29 원	676,239 원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76,118 원	118,258 원	보통	-	양호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40,596 원	2,968 원	분발	-	분발	

2024년 부산의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양호 등급(48.22점)으로 나타났고, 2022년의 분발 등급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는 이 영역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보조기기 지원수준이다. 양호 등급에는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이 포함되었다. 보통수준은 일반건강검진 수검 비율 지표로 나타났다. 분발수준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과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보조기기 지원수준,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으로 나타났다. 2022년도 대비 하락한 지표는 없으나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은 2022년과 2024년 연속 분발 등급이므로 장애인의 의료비 지원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부산시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

4)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 양호

(부산 54.52점/ 전국 평균 49.87점, 전국 최고 81.06점, 전국 최하 34.95점)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부산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1.09 개소	1.82 개	보통	-	우수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13.47 개소	10.87 개	보통	-	보통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10.73 개소	12.31 개	분발	-	양호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3.73 개소	2.11 개	분발	-	분발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117.61 명	108.28 명	분발	-	보통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2.62 명	1.99 명	분발	-	분발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7.59 명	10.61 명	양호	-	우수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4.87 %	5.60 %	양호	-	양호

2024년 부산의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양호 등급(54.52점)으로 나타났다. 2022년 분발 등급에서 2단계 상승하였다. 2023년에는 이 영역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으로 나타났다. 양호 등급에 해당되는 지표는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이다. 보통 등급은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지표,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지표이며, 분발 등급은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2년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이며, 하락한 지표는 없었다.

단기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과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이 2022년과 2024년 연속으로 분발 등급에 해당되므로 부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5)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 : 양호

(부산 42.18점/ 전국 평균 32.80점, 전국 최고 80.50점, 전국 최하 20.61점)

이동(편의)·문화 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부산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293.40 %	579.62 %	우수	우수	양호
저상버스 확보수준	31.80 %	36.07 %	양호	양호	양호
지자체 barrier프리 인증 시설 비율	85.06 %	82.59 %	-	분발	보통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617.27 %	922.03 %	-	분발	우수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	13,743 원	8,144 원	분발	보통	분발

2024년 부산의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은 양호 등급(42.18점)으로 나타나, 2023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는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지표가 포함되었으며, 양호 등급은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저상버스 확보 수준이 포함되었다. 보통 등급은 지자체 barrier프리 인증 시설 비율이,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이 분발 등급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 비해 지자체 barrier프리 인증 시설 비율과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이 상승하였으며,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과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barrier프로 인증 시설 비율과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이 전국 평균에 못 미쳤기 때문에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6)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 분발

(부산 29.07점/ 전국 평균 39.65점, 전국 최고 60.00점, 전국 최하 28.97점)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부산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장애인복지 전담 공무원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35.83 명	41.91 명	양호	-	보통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개최 횟수	장애위원 수	57.53 건	76 건	분발	-	보통
기관별 장애인 관련 조례 수			12.45 건	5.71 건	분발	-	분발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	1인당장애인복지예산	장애인복지예산 확보수준	6,825 천원	7,385 천원	양호	-	보통
장애인복지 예산 지방비 비율	광역 지방비 비율	기초 지방비 비율	33.43 %	43.80 %	분발	-	보통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	광역 예산	기초 예산	539,965 원	8,335 원	분발	-	분발
여성장애인 사업 예산	광역 예산	기초 예산	27,063 원	6,225 원	분발	-	분발
			16,160 원	2,422 원			

2024년 부산의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분발 등급(29.07점)으로 2022년 분발 등급과 동일하였다. 2023년에는 이 영역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과 양호 등급에 해당되는 지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현황,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 지표가 보통 등급에 포함되었고, 기관별 장애인 관련 조례수,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은 2022년에 이어 2024년 연속으로 분발 등급으로 나타났다. 분발 등급으로 나타났다.

2022년 대비 상승한 지표는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이며, 하락한 지표는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의 지표 7개 모두 전국 평균 이하이므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각고의 노력의 요구된다.

7) 제언

■ 전반적 평가

- 2024년 부산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보통 등급으로 2023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음
- 2024년 장애인 복지 분야는 양호 등급으로 2022년 분발 등급보다 향상되었음
- 복지 분야 하위 영역 중 ‘보건 및 자립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 이 양호 등급에 속하였고,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은 보통 등급, ‘복지행정 및 예산’ 은 분발 등급에 속하였음

■ 부산의 강점 분야

- 교육 분야는 전년도에 비하여 ‘특수학급 설치율’ 의 등급이 상승하였으나 우수한 지표는 없음
- 복지 분야의 세부영역 중 우수한 지표 없음
- 교육 영역 중 ‘장애인 교원 고용률’ 은 우수함
-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 중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은 우수함
-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 중 ‘보조기기 지원 수준’ 이 우수함
-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에서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지표가 우수함
-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 중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이 우수함
-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중 우수한 지표 없음

■ 부산의 취약 분야

- 부산 교육 분야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함. 특히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 수’ 는 분발 수준으로 타시도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복지 분야의 세부영역 중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복지행정 및 예산’ 이 취약한 수준임
-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이 영역의 지표 중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 은 상당히 열악한 수준임

-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 중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수준이 취약함
-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에서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과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 중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 이 취약한 수준임
-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분발 등급으로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함. 그 중 ‘기관별 장애 관련 조례 수’,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 의 수준이 열악함

■ 향후 장애인 복지·교육 분야 발전을 위한 부산의 우선 과제

- 부산의 교육 분야는 지속적으로 전국 평균 이하 수준이기 때문에 지속적 관리가 필요함. 특히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수’ 는 3년 연속 분발 수준이기 때문에 획기적인 노력이 필요함
-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은 전국 평균 이하의 수준이며,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 은 3년 연속 분발 수준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 중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이 2022년과 2024년에 연속적으로 분발 등급에 속하고 있어 개선을 위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함
-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중 ‘단기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이 2022년과 2024년 연속으로 분발 등급에 해당되므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 중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 비율’,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 이 2022년부터 전국 평균 이하의 수준에 속하므로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모든 지표 수준이 전국 평균 이하이며 ‘기관별 장애 관련 조례수’, ‘장애인단체 지원수준’, ‘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 은 2022년에 이어 2024년 연속 분발수준으로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3. 대구광역시

구 분	장애인 교육	장애인 복지	장애인 복지 세부영역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보건 및 자립 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복지행정 및 예산
전국평균	65.54	52.65	42.07	45.12	49.87	32.80	39.65
대구 점수	65.78	48.87	41.86	63.47	34.95	40.70	32.41
대구 수준	양호	보통	보통	우수	분발	양호	분발



2024년 대구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65.78점으로 양호 등급으로 나타나 분발 등급을 받은 2023년 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장애인 복지 분야는 48.87로 보통 등급으로 나타나 2022년 양호 등급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분야 중에 우수 등급에 해당되는 영역은 보건 및 자립지원(63.47점)이며,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40.70점)은 양호 등급으로 나타났다.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41.86점)으로 보통 등급, 복지서비스 지원(34.95점), 복지행정 및 예산(32.41점)은 분발 등급으로 나타났다.

1) 교육 분야(영역) : 양호

(대구 65.78점/ 전국 평균 65.54점, 전국 최고 78.41점, 전국 최하 56.28점)

교육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대구	등급		
			2022	2023	2024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35,238 원	30,606 원	양호	분발	보통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3.75 %	3.84 %	우수	보통	양호
특수학급 설치율	5.02 %	3.87 %	분발	분발	분발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128.84 %	113.27 %	보통	보통	분발
특수교육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	전체보조인력 13.93 %	14.97 %	양호	양호	양호
	유급보조인력 10.23 %	10.20 %			
통합교육 학생비율	72.22 %	65.31 %	분발	분발	분발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 수	2.07 개	1.95 개	분발	보통	양호
장애인 교원 고용률	1.56 %	1.80 %	양호	양호	양호

2024년 대구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양호 등급(65.78점)으로 2023년의 분발 등급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영역의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우수 등급은 없으며, 양호 등급은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특수교육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 수, 장애인 교원 고용률로 나타났다. 보통 등급에 해당되는 지표는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이며, 특수학급 설치율,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통합교육 학생비율이 분발 등급에 포함되었다.

전년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 수이며,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은 전년도에 비해 하락하였다.

특수학급 설치율, 통합교육 학생비율은 3년 연속 분발 등급에 속하였으므로 특수학급 설치를 확대하여 통합교육에 진입하는 학생의 비율이 증가될 수 있도록 대구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 보통

(대구 41.86점/ 전국 평균 42.07점, 전국 최고 52.23점, 전국 최하 30.43점)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대구	등급		
			2022	2023	2024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3.80 %	3.94 %	양호	양호	양호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4.74 %	7.17 %	우수	우수	우수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비율	0.87 %	0.69 %	보통	보통	보통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149,979 원	56,283 원	분발	분발	분발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333,935 원	252,686 원	보통	양호	보통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	0.005 %	0.005 %	양호	양호	보통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	1,143,304 원	834,651 원	보통	보통	분발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	6.88 %	7.01 %	양호	양호	양호

2024년 대구의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은 보통 등급(41.86점)으로 2022년 우수 등급, 2023년 양호 등급으로 3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공무원 고용률이며 3년 연속 우수 등급에 포함되었다. 양호 등급에 해당되는 지표는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로 나타났다. 보통 등급에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비율,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이 포함되었으며,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이 분발 등급으로 나타났다.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의 8개 지표 중 5개 지표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다.

2023년에 비해 향상된 지표는 없으며, 2023년에 비해 하락한 지표는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과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로 나타났다.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이 3년 연속 분발 등급에 속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 : 우수

(대구 63.47점/ 전국 평균 44.93점, 전국 최고 63.47점, 전국 최하 30.21점)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대구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136,280 원	128,247 원	보통	-	보통	
보조기기 지원 수준	보장구 의료급여 및 보조기구 교부 비율	5.99 %	9.99 %	양호	-	우수
	보장구 의료급여 및 보조기구 교부 예산	42,516 원	65,865 원			
일반건강검진 수검 비율	63.50 %	61.33 %	-	-	보통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여성장애인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비율	8.24 %	8.36 %	보통	-	양호
	여성장애인 1인당 출산 및 검진 지원비	994,938 원	1,000,000 원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활동지원서비스 실 인원 비율 6세 이상 65세 미만	21.73 %	20.28 %	양호	-	보통
	활동지원서비스 평균급여량 6세 이상 65세 미만	4,651,598 원	4,780,093 원			
	활동지원서비스 실 인원 비율 65세 이상	2.56 %	2.69 %			
	활동지원서비스 평균급여량 65세 이상	1,105,186.29 원	8,495,835 원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76,118 원	84,013 원	양호	-	양호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40,596 원	421,338 원	양호	-	우수	

2024년 대구의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우수 등급(63.47점)으로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고, 2022년의 양호 등급에서 상승하였다. 2023년에는 이 영역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구의 경우 교육 및 복지 분야 전체에서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이 유일하게 우수 등급에 포함되었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보조기기 지원 수준과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으로 나타났다. 양호 등급의 지표는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과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예산으로 나타났다.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이다. 분발 등급의 지표는 없었다.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의 7개 지표 중 4개 지표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고, 3개 지표는 전국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일반건강검진 수검비율,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지표가 속하였다. 이처럼 금년도에 조사한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의 7개 지표 중 2개 지표만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고, 5개 지표는 전국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2022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보조기기 지원수준,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이었으며,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은 전년도에 비해 하락하였다.

4)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 분발

(대구 34.95점/ 전국 평균 49.87점, 전국 최고 81.06점, 전국 최하 34.95점)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대구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1.09 개소	0.46 개	분발	-	분발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13.47 개소	12.03 개	양호	-	보통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10.73 개소	6.59 개	양호	-	분발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3.73 개소	2.45 개	분발	-	분발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117.61 명	110.63 명	분발	-	보통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2.62 명	1.79 명	분발	-	분발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7.59 명	6.75 명	보통	-	분발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4.87 %	2.50 %	분발	-	분발

2024년 대구의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분발 등급(34.95점)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2년 또한 전국 최하위 수준의 분발 등급이었으며 2023년에는 이 영역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과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없으며, 보통 등급에 해당되는 지표는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으로 나타났다. 분발 등급에 해당되는 지표는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로 나타났다. 이처럼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의 전체 지표가 전국 평균 이하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과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은 2022년과 2024년 연속으로 분발 등급으로 나타났다.

2022년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지역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이며, 하락한 지표는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구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 : 양호

(대구 40.70점/ 전국 평균 32.80점, 전국 최고 80.50점, 전국 최하 20.61점)

이동(편의)·문화 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대구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293.40 %	242.66 %	양호	양호	보통
저상버스 확보수준	31.80 %	46.49 %	양호	양호	양호
지자체 barrier프리 인증 시설 비율	85.06 %	100.00 %	-	양호	우수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617.27 %	902.04 %	-	우수	우수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	13,743 원	6,351 원	보통	보통	분발

2024년 대구도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은 양호 등급(40.70점)으로 나타났으며, 2023년 우수 등급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는 지자체 barrier프리 인증 시설 비율 지표와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지표가 속하였다. 양호 등급에는 저상버스 확보 수준이 포함되었으며, 보통 등급은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로 나타났다. 반면,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은 분발 등급으로 나타났다.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의 5개 지표 중 3개 지표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2개 지표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비해 지자체 barrier프리 인증 시설 비율 수준은 상승하였고,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은 우수 등급을 유지하였다. 반면,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과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은 전년도보다 하락하였다.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 수준은 3년 연속 전국 평균에 못 미쳤기 때문에 개선의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다.

6)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 분발

(대구 32.41점/ 전국 평균 39.65점, 전국 최고 60.00점, 전국 최하 28.97점)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대구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복지 담당 장애인복지 전담 공무원 공무원 확보 수준	35.83 명	24.03 명	양호	-	분발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개최 횟수 30.43 명	38 건 21.74 명	보통	-	분발
기관별 장애인관련 조례 수	12.45 건	5.50 건	분발	-	분발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	1인당장애인복지예산 149.48 %	11,228 천원 262.51 %	우수	-	우수
장애인복지 예산 지방비 비율	광역 지방비 비율 21.48 %	33.43 % 1.86 %	양호	-	분발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	광역 예산 89,943 원	151,016 원 13,879 원	분발	-	분발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	광역 예산 16,160 원	23,336 원 6,280 원	분발	-	보통

2024년 대구도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분발 등급(32.41점)의 하위 수준으로 2022년 보통 등급에서 하락하였다. 2023년에는 이 영역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로 나타났다. 양호 등급은 없으며 보통 등급에 해당되는 지표는 여성장애인 사업예산으로 나타났다. 분발 등급에 포함되는 지표는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수준, 기관별 장애인관련 조례 수,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의 7개 지표 중 1개 지표만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고, 나머지 6개 지표는 전국 평균 이하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예산이고, 하락한 지표는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로 나타났다.

대구시의 경우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이 전국 하위 수준이며 지표 7개 중 5개의 지표가 분발 등급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구시의 집중적인 예산 확보 및 투자가 필요하다.

7) 제언

■ 전반적 평가

- 2024년 대구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양호 등급이었고, 2023년 분발 등급에서 상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4년 장애인 복지 분야는 보통 등급으로, 2022년 양호 등급보다 하락함
- 복지 분야 하위 영역 중 ‘보건 및 자립지원’ 이 우수 등급에 속하였고, ‘이동(편의)·문화여가·정보 접근’ 이 양호 등급,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이 보통 등급, ‘복지서비스 지원’,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분발 등급에 속하였음

■ 대구의 강점 분야

- 복지 분야 중 ‘보건 및 자립 지원’ 은 우수함
- 교육 영역 중 우수한 지표는 없음
-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 중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은 우수함
-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전국 최고 수준이며 이 중 ‘보조기기 지원 수준’,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이 우수함
-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우수한 지표 없음
-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 중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 비율’,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이 우수함
-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중 ‘장애인복지예산 확보 수준’ 은 우수함

■ 대구의 취약 분야

- 대구도 교육 분야는 세부지표에 우수 등급이 없으며, ‘특수학급 설치율’,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통합교육 학생비율’ 이 분발 등급으로 특히, ‘특수학급 설치율’, ‘통합교육 학생 비율’ 이 3년 연속 분발 등급으로 나타나 상당히 취약한 수준임
-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 중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 의 수준이 취약함
-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이 영역 중 전국 평균 이하의 수준인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일반건강검진 수검 비율’,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이 타 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함

-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세부지표 모두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등 매우 취약한 수준임
-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 중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 이 열악한 수준임
-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분발 수준으로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기관별 장애인관련 조례 수’,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 은 매우 취약한 수준임

■ 향후 장애인 복지·교육 분야 발전을 위한 대구의 우선 과제

- 대구의 교육 분야는 전년도 대비 등급이 상승하였으나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학급 설치율’,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통합교육 학생비율’ 이 2023년에 이어 전국 평균 이하 수준이므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특히, ‘특수학급 설치율’, ‘통합교육 학생비율’ 은 3년 연속 분발 수준이기 때문에 획기적인 노력이 필요함
-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 중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지표는 3년 연속 분발 등급에 속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전국 최고 수준이나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일반건강검진 수검 비율’,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함
-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전체 세부 지표가 전국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함. 특히, ‘장애인복지관 총족 수준’,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은 2022년과 2024년 연속 분발 수준이므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함
-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은 2023년에 이어 연속으로 분발 등급의 취약한 수준으로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함. 특히 이 영역 중 ‘저상버스 확보수준’,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중 전국 평균 이하의 수준인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 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4. 인천광역시

구 분	장애인 교육	장애인 복지	장애인 복지 세부영역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보건 및 자립 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복지행정 및 예산
전국평균	65.54	52.65	42.07	45.12	49.87	32.80	39.65
인천 점수	60.34	47.58	44.64	43.50	42.81	25.74	28.97
인천 수준	분발	보통	양호	보통	보통	분발	분발



2024년 인천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60.34점으로 2022년, 2023년과 동일한 분발 등급으로 나타났다. 2024년 장애인 복지 분야는 47.58점의 보통 등급으로 2022년 분발 등급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분야 중에 우수 등급에 해당되는 영역은 없으며,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44.64점)은 양호 등급으로 나타났다. 보건 및 자립 지원(43.50점), 복지서비스 지원(42.81점)은 보통 등급으로,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25.74점), 복지행정 및 예산(28.97점)으로 분발 등급으로 나타났다.

인천은 교육과 복지 모든 영역에서 전국 평균 이하의 등급으로 나타났다.

1) 교육 분야(영역) : 분발

(인천 60.34점/ 전국 평균 65.54점, 전국 최고 78.41점, 전국 최하 56.28점)

교육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인천	등급		
			2022	2023	2024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35,238 원	25,839 원	분발	분발	분발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3.75 %	3.66 %	보통	보통	보통
특수학급 설치율	5.02 %	5.22 %	양호	양호	양호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128.84 %	107.53 %	보통	분발	분발
특수교육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	전체보조인력 13.93 %	9.91 %	보통	보통	보통
	유급보조인력 10.23 %	9.33 %			
통합교육 학생비율	72.22 %	74.33 %	양호	양호	양호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 수	2.07 개	1.90 개	분발	분발	분발
장애인 교원 고용률	1.56 %	1.29 %	분발	보통	보통

2024년 인천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분발 등급(60.34점)으로 2022년과 2023년 연속 분발 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영역의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우수 등급은 없으며, 양호 등급에 해당되는 지표는 특수학급 설치율, 통합교육 학생비율로 나타났다. 보통 등급에 해당되는 지표는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특수교육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 장애인 교원 고용률로 나타났다. 분발 등급으로는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지표,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지표,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 수 지표가 포함되었다. 교육 분야의 세부 지표 8개 중 2개 지표가 전국 평균 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6개 지표는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없으며, 하락한 지표도 없다. 하지만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 수의 경우 3년 연속 분발 등급이므로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예산과 학급을 확보하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2)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 양호

(인천 44.64점/ 전국 평균 42.07점, 전국 최고 52.23점, 전국 최하 30.43점)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인천	등급		
			2022	2023	2024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3.80 %	3.98 %	양호	양호	양호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4.74 %	4.31 %	보통	보통	보통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비율	0.87 %	1.36 %	우수	우수	우수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149,979 원	161,019 원	보통	양호	양호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333,935 원	358,639 원	보통	양호	양호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	0.005 %	0.004 %	분발	양호	보통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	1,143,304 원	730,865 원	보통	분발	분발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	6.88 %	5.38 %	보통	보통	보통

2024년 인천의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은 양호 등급(44.64점)으로 2022년, 2023년 연속 양호 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생산물 우선 구매 비율로 나타났다.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공무원 고용률과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은 보통 등급으로 나타났다. 분발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이다.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비율은 3년 연속 우수 등급이며,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은 2023년 이후 2년간 분발 등급이다. 전년도 대비 상승하거나 하락한 지표는 없었다.

장애인공무원 고용률과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은 3년 연속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은 2년 연속 분발 등급이므로 인천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3)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 : 보통

(인천 43.50점/ 전국 평균 44.93점, 전국 최고 63.47점, 전국 최하 30.21점)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인천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136,280 원	원	보통	-	분발
보조기기 지원 수준	보장구 의료급여 및 보조기구 교부 비율	5.99 %	%	분발	- 우수
	보장구 의료급여 및 보조기구 교부 예산	42,516 원	원		
일반건강검진 수검 비율	63.50 %	%	-	-	양호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여성장애인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비율	8.24 %	%	양호	- 양호
	여성장애인 1인당 출산 및 검진 지원비	994,938 원	원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활동지원서비스 실 인원 비율 6세 이상 65세 미만	21.73 %	%	양호	- 보통
	활동지원서비스 평균급여량 6세 이상 65세 미만	4,651,598 원	원		
	활동지원서비스 실 인원 비율 65세 이상	2.56 %	%		
	활동지원서비스 평균급여량 65세 이상	1,105,186.29 원	원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76,118 원	원	양호	-	보통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40,596 원	원	분발	-	분발

2024년 인천의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보통 등급(43.50점)으로 나타났고, 2022년의 양호 등급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는 이 영역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되는 지표는 보조기기 지원 수준이며, 양호 등급에 해당되는 지표는 일반건강검진 수검 비율,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통수준에 해당되는 지표는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과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은 분발 등급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보조기기 지원 수준인 반면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은 하락하였다.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은 2022년과 2024년에 연속으로 분발 등급에 속하고 있어 개선이 상당히 필요하다.

4)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 보통

(인천 42.81점/ 전국 평균 49.87점, 전국 최고 81.06점, 전국 최하 34.95점)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인천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1.09 개소	0.66 개	분발	-	분발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13.47 개소	10.03 개	보통	-	분발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10.73 개소	7.16 개	분발	-	분발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3.73 개소	3.09 개	보통	-	보통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117.61 명	106.42 명	보통	-	보통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2.62 명	2.66 명	보통	-	양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7.59 명	6.80 명	보통	-	분발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4.87 %	7.02 %	양호	-	양호

2024년 인천의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보통 등급(42.81점)으로 2022년 보통 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는 이 영역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없으며,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로 나타났다.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으로 나타났다. 분발 등급에 속하는 지표는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이었다.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의 8개 지표 중 6개 지표는 전국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2022년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이며, 하락한 지표는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이다.

인천시의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전국 평균 이하의 수준이며 세부 지표 중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은 2022년과 2024년 연속으로 분발 등급이므로 지자체의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 : 분발

(인천 25.74점/ 전국 평균 32.80점, 전국 최고 80.50점, 전국 최하 20.61점)

이동(편의)-문화 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인천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293.40 %	89.80 %	양호	분발	분발
저상버스 확보수준	31.80 %	18.69 %	보통	분발	분발
지자체 barrier프리 인증 시설 비율	85.06 %	100.00 %	-	보통	우수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617.27 %	499.70 %	-	보통	보통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	13,743 원	13,571 원	보통	보통	보통

2024년 인천의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은 전국 평균 하위 수준의 분발 등급(28.74 점)으로 2023년 분발 등급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는 지자체 barrier프리 인증 시설 비율 지표가 속하였다. 양호 등급은 없었으며, 보통 등급에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 접근예산 지원액 지표가 속하였다. 반면,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저상버스 확보 수준은 분발 등급으로 나타났다.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의 5개 지표 중 4개 지표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다.

2023년에 비해 지자체 barrier프리 인증시설 비율만 상승하였으며 그 외 세부 지표의 수준 변화는 없었다.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과 저상버스 확보 수준이 2년 연속 분발 등급에 속하고 있어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운송수단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6)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 분발

(인천 28.97점/ 전국 평균 39.65점, 전국 최고 60.00점, 전국 최하 28.97점)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인천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복지 담당 장애인복지 전담 공무원	35.83 명	29.30 명	보통	-	보통
공무원 확보 수준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81.02 명	68.36 명	보통	-	보통
장애인 관련 위원회 개최 횟수	57.53 건	36 건	분발	-	분발
운영 현황 장애위원 수	30.43 명	24.63 명	분발	-	분발
기관별 장애인관련 조례 수	12.45 건	7.82 건	분발	-	분발
장애인복지 예산 1인당장애인복지예산	6,825 천원	5,431 천원	분발	-	보통
확보 수준 장애인복지예산 확보수준	149.48 %	162.10 %	분발	-	보통
장애인복지예산 광역 지방비 비율	33.43 %	38.32 %	보통	-	보통
지방비 비율 기초 지방비 비율	21.48 %	16.22 %	보통	-	보통
장애인단체 지원 광역 예산	539,965 원	16,558 원	분발	-	분발
수준 기초 예산	89,943 원	5,368 원	분발	-	분발
여성장애인 관련 광역 예산	27,063 원	10,572 원	분발	-	분발
사업 예산 기초 예산	16,160 원	875 원	분발	-	분발

2024년 인천의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전국 최하위 수준의 분발 등급(28.97점)으로 2022년 분발 등급과 동일하였다. 2023년에는 이 영역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과 양호 등급에 해당되는 지표는 없었다.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장애인복지예산 확보 수준,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로 나타났다. 분발 등급에는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7개 지표 모두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2022년에 비해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이 향상되었고, 그 외 지표는 2022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기관별 장애인관련 조례 수,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이 2022년과 2024년 연속으로 분발 등급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의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세부 지표 모두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므로 인천시의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7) 제언

■ 전반적 평가

- 2024년 인천의 장애인 교육분야는 분발 등급으로 2023년과 동일함
- 2024년 장애인 복지 분야는 보통 등급으로, 2022년 분발 등급보다 상승함
- 복지 분야 하위 영역 중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은 양호 등급에 속하였고, ‘보건 및 자립 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은 보통 등급에,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분발 등급에 속하였음

■ 인천의 강점 분야

- 교육 영역 중 우수 등급에 속하는 지표는 없었음
-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 중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지표는 우수함
-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 중 ‘보조기기 지원 수준’ 은 우수함
-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중 우수 등급에 속하는 지표는 없었으나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 집 비율’ 은 2022년과 2024년 연속으로 양호 등급임
-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 중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 비율’ 지표는 우수함
-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중 우수 등급에 속하는 지표는 없었음

■ 인천의 취약 분야

- 인천의 교육 분야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함. 특히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 수’ 는 3년 연속 분발 수준으로 타 시도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인천의 복지 분야는 전국 평균 이하의 수준으로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함.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은 2022년과 2024년에 분발 수준으로 타 시도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 중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 지표는 취약한 수준임
-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이 영역 중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수준은 상당히 열악함
-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은 2022년과 2024년 연속 분발 등급으로 취약한 수준임

-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은 전국 평균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분발 수준으로 취약함. 특히 이 영역 중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저상버스 확보수준’ 등 이동 수준이 열악함
-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세부 지표 모두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함

■ 향후 장애인 복지·교육 분야 발전을 위한 인천의 우선 과제

- 인천의 교육 분야는 지속적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기 때문에 지속적 관리가 필요함.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 수’는 3년 연속 분발 수준이기 때문에 획기적인 노력이 필요함
- 인천의 복지 분야는 전국 평균 이하의 수준이므로 지속적인 개선의 노력이 필요함. 특히, 복지 분야 중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2022년과 2024년에 분발 수준이므로 개선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함
-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은 양호한 수준이나, 이 영역 중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은 2년 연속 분발 등급에 속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은 2022년과 2024년에 연속으로 분발 등급에 속하고 있어 개선이 상당히 필요함
-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세부 지표 중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은 2022년과 2024년 연속으로 분발 등급이므로 지자체의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함
-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은 2023년에 이어 연속으로 분발 등급의 취약한 수준으로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함. 특히 이 영역 중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과 ‘저상버스 확보 수준’이 2년 연속 분발 등급에 속하고 있어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운송수단의 확대가 필요함
-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세부 지표 모두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므로 인천시의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함

5. 광주광역시

구 분	장애인 교육	장애인 복지	장애인 복지 세부영역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보건 및 자립 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복지행정 및 예산
전국평균	65.54	52.65	42.07	45.12	49.87	32.80	39.65
광주 점수	66.33	57.35	49.53	53.54	60.53	32.68	39.32
광주 수준	양호	양호	우수	양호	양호	보통	보통



2024년 광주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65.33점의 양호 등급으로 2023년 보통 등급보다 상승하였으며 3년간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장애인 복지 분야는 57.35점의 양호 등급으로 나타나 2022년 양호 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분야 중에 우수 등급에 해당되는 영역은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49.53점)이며 보건 및 자립 지원(53.54점), 복지서비스 지원(60.53점)은 양호 등급으로 나타났다.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32.68점), 복지행정 및 예산(39.32점)은 보통 등급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교육과 복지 모든 영역에서 전국 평균 이상의 등급으로 나타났다.

1) 교육 분야(영역) : 양호

(광주 66.33점/ 전국 평균 65.54점, 전국 최고 78.41점, 전국 최하 56.28점)

교육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광주	등급		
			2022	2023	2024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35,238 원	33,861 원	분발	양호	보통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3.75 %	3.66 %	보통	양호	보통
특수학급 설치율	5.02 %	3.76 %	분발	분발	분발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128.84 %	127.33 %	양호	보통	보통
특수교육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	전체보조인력 13.93 %	12.79 %	보통	보통	양호
	유급보조인력 10.23 %	11.72 %			
통합교육 학생비율	72.22 %	65.45 %	분발	분발	분발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 수	2.07 개	2.00 개	보통	양호	보통
장애인 교원 고용률	1.56 %	1.89 %	우수	양호	우수

2024년 광주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양호 등급(66.33점)으로 2023년 보통 등급보다 상승하였으며 3년간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영역의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장애인 교원 고용률이 속하였고, 양호 등급은 특수교육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이 포함되었다. 보통 등급에 해당되는 지표는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 수로 나타났다. 분발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특수학급 설치율, 통합교육 학생 비율로 나타났다. 교육 분야의 8개 지표 중 2개 지표는 전국 평균 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났고, 6개 지표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다.

전년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특수교육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 장애인 교원 고용률이었고,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 수는 전년도에 비해 하락하였다.

특수학급 설치율, 통합교육 학생비율은 3년 연속 분발 등급에 속하였기 때문에 특수학급 설치 및 통합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2)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 우수

(광주 49.53점/ 전국 평균 42.07점, 전국 최고 52.23점, 전국 최하 30.43점)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광주	등급		
			2022	2023	2024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3.80 %	4.52 %	우수	우수	우수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4.74 %	4.82 %	양호	양호	양호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0.87 %	1.36 %	우수	양호	우수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149,979 원	140,648 원	보통	분발	보통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333,935 원	384,998 원	보통	분발	양호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	0.005 %	0.009 %	보통	분발	양호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	1,143,304 원	1,219,007 원	양호	양호	양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	6.88 %	3.77 %	양호	양호	분발

2024년 광주의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은 우수 등급(49.53점)으로, 2023년 보통 등급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로 나타났다.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이며 분발 등급으로는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로 나타났다.

광주의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3년 연속 우수 등급으로 나타났으며,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의 8개 지표 중 6개 지표가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고, 2개 지표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2023년에 비해 향상된 지표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로 나타났으며,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은 전년도 대비 하락하였다.

광주의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은 전년도 대비 향상되었으나 전국 평균 이하 수준인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 : 양호

(광주 53.54점/ 전국 평균 44.93점, 전국 최고 63.47점, 전국 최하 30.21점)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광주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136,280 원	188,550 원	분발	-	양호	
보조기기 지원 수준	보장구 의료급여 및 보조기구 교부 비율	5.99 %	8.40 %	분발	-	양호
	보장구 의료급여 및 보조기구 교부 예산	42,516 원	48,663 원			
일반건강검진 수검 비율	63.50 %	64.48 %	-	-	양호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여성장애인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비율	8.24 %	4.88 %	우수	-	분발
	여성장애인 1인당 출산 및 검진 지원비	994,938 원	1,000,000 원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활동지원서비스 실 인원 비율 6세 이상 65세 미만	21.73 %	42.67 %	분발	-	우수
	활동지원서비스 평균급여량 6세 이상 65세 미만	4,651,598 원	10,116,286 원			
	활동지원서비스 실 인원 비율 65세 이상	2.56 %	3.98 %			
	활동지원서비스 평균급여량 65세 이상	1,105,186.29 원	958,023 원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76,118 원	114,158 원	양호	-	양호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40,596 원	21,151 원	분발	-	보통	

2024년 광주의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양호 등급(53.54점)으로 나타났고, 2022년의 양호 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는 이 영역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으로 나타났다. 양호 등급은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보조기기 지원 수준, 일반건강검진 수검 비율,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이하에 해당하는 보통 등급에는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지표가 속하였고, 분발 등급에는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지표가 속하였다. 이처럼 2024년에 조사한 보건 및 자립지원영역의 7개 지표 중 5개 지표가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고, 2개 지표는 전국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2022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보조기기 지원 수준,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으로 나타났고,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은 전년도 대비 하락하였다. 특히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은 2022년 대비 하락의 폭이 크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4)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 양호

(광주 60.53점/ 전국 평균 49.87점, 전국 최고 81.06점, 전국 최하 34.95점)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광주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1.09 개소	1.01 개	보통	-	보통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13.47 개소	14.63 개	양호	-	양호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10.73 개소	11.97 개	보통	-	양호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3.73 개소	7.93 개	우수	-	우수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117.61 명	149.18 명	보통	-	양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2.62 명	3.88 명	양호	-	우수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7.59 명	8.16 명	우수	-	양호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4.87 %	2.51 %	분발	-	분발

2024년 광주의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양호 등급(60.53점)으로 2022년 양호 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는 이 영역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으로 나타났다.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이었다. 보통 등급으로는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이 포함되었고, 분발 등급에 해당되는 지표는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로 나타났다.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의 지표 8개 중 6개의 지표가 전국 평균에 비해 우수한 수준을 보였고, 2개 지표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은 2022년과 2024년 연속으로 우수 등급으로 나타났다.

2022년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이었으며, 하락한 지표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이었다.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은 2022년과 2024년 연속으로 분발 등급으로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5)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 : 보통

(광주 32.68점/ 전국 평균 32.80점, 전국 최고 80.50점, 전국 최하 20.61점)

이동(편의)-문화 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광주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293.40 %	283.59 %	양호	양호	보통
저상버스 확보수준	31.80 %	39.44 %	양호	양호	양호
지자체 barrier프리 인증 시설 비율	85.06 %	100.00 %	-	양호	우수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617.27 %	433.53 %	-	보통	보통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	13,743 원	12,366 원	보통	분발	보통

2024년 광주의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은 전국 평균 이하의 보통 등급(32.68점)으로 2022년과 2023년의 양호 등급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는 지자체 barrier프리 인증 시설 비율 지표가 속하였다. 양호 등급에는 저상버스 확보수준 지표가 속하였다.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이 보통 등급으로 나타났다. 분발 등급은 나타나지 않았다.

2023년에 비해 저상버스 확보수준, 지자체 barrier프리 인증 시설 비율,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 접근예산 지원액의 수준이 향상되었고,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수준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 중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 수준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6)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 보통

(광주 39.32점/ 전국 평균 39.65점, 전국 최고 60.00점, 전국 최하 28.97점)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광주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장애인복지 전담 공무원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35.83 명	36.93 명	보통	-	양호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개최 횟수	장애위원 수	57.53 건	16 건	보통	-	보통
기관별 장애관련 조례 수			12.45 건	19.33 건	우수	-	양호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	1인당장애인복지예산	장애인복지예산 확보수준	6,825 천원	8,822 천원	양호	-	양호
장애인복지 예산 지방비 비율	광역 지방비 비율	기초 지방비 비율	33.43 %	46.78 %	분발	-	보통
	기초 지방비 비율		21.48 %	3.22 %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	광역 예산	기초 예산	539,965 원	26,204 원	분발	-	분발
	기초 예산		89,943 원	24,427 원			
여성장애인 사업 예산	광역 예산	기초 예산	27,063 원	28,449 원	분발	-	보통
	기초 예산		16,160 원	2,811 원			

2024년 광주의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전국 평균 이하인 보통 등급(39.32점)으로 2022년 보통 등급과 동일하였다. 2023년에는 이 영역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은 없으며,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기관별 장애관련 조례 수,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으로 나타났다. 전국 최하위 수준인 분발 등급에는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이 포함되었다.

2022년에 비해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이 향상되었고, 기관별 장애관련 조례수 수준은 하락하였다.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이 2022년과 2024년 연속 분발 등급이며 세부 지표 7개 중 4개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므로 지표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이 노력이 요구된다.

7) 제언

■ 전반적 평가

- 2024년 광주의 장애인 교육분야는 양호 등급으로 2023년 보통 등급보다 상승함
- 2024년 장애인 복지 분야는 양호 등급으로, 2022년과 동일함
- 복지 분야 하위 영역 중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은 우수 등급에 속하였고, ‘보건 및 자립 지원’, ‘복지서비스 지원’은 양호 등급에,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보통 등급에 속하였음

■ 광주의 강점 분야

- 교육 영역 중 우수 등급에 속하는 지표는 ‘장애인 교원 고용률’임
-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 중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지표는 우수함
-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 중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은 우수함
-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중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은 우수함
-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 중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 비율’ 지표는 우수함
-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중 우수 등급에 속하는 지표는 없었음

■ 광주의 취약 분야

- 광주의 교육 분야 중 ‘특수학급 설치율’, ‘통합교육 학생비율’은 3년 연속 분발 등급에 속하는 등 취약한 수준임
- 광주의 복지 분야 중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이 전국 평균 이하의 수준으로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함.
 -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 중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 지표는 취약한 수준임
-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 중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지표는 2022년 대비 하락의 폭이 큼
-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중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은 2022년과 2024년 연속 분발 등급으로 취약한 수준임

-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은 중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장애인 문화·여가 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 수준이 열악함
-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전국 평균 이하의 수준이며,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이 2022년과 2024년 연속 분발 등급으로 취약한 수준임

■ 향후 장애인 복지·교육 분야 발전을 위한 인천의 우선 과제

- 광주의 교육 분야는 양호 등급이나 세부 지표 대부분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므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함. ‘특수학급 설치율’, ‘통합교육 학생비율’은 3년 연속 분발 등급에 속하였기 때문에 특수학급 설치 및 통합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함
-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은 우수한 수준이나, 이 영역 중 전국 평균 이하 수준인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 중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은 2022년 대비 하락의 폭이 크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중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은 2022년과 2024년 연속으로 분발 등급으로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은 전국 평균 이하의 수준으로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함. 특히 이 영역 중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 수준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므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함
-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전국 평균 이하의 수준이며,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이 2022년과 2024년 연속 분발 등급이며 세부 지표 7개 중 4개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므로 지표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으로 노력이 요구됨

6. 대전광역시

구 분	장애인 교육	장애인 복지	장애인 복지 세부영역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보건 및 자립 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복지행정 및 예산
전국평균	65.54	52.65	42.07	45.12	49.87	32.80	39.65
대전 점수	76.41	67.15	39.77	56.93	58.72	40.97	51.82
대전 수준	우수	우수	보통	우수	양호	양호	우수



2024년 대전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73.41점으로 2022년, 2023년과 동일한 우수 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장애인 복지 분야는 67.15점으로 2022년 우수 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 분야 중에 우수 등급에 해당되는 영역은 보건 및 자립 지원(56.93점), 복지행정 및 예산(51.82점)이며, 복지서비스 지원(58.72점),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40.97점)은 양호 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39.77점)은 보통 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은 교육과 복지 모든 영역이 우수 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1) 교육 분야(영역) : 우수

(대전 76.41점/ 전국 평균 65.54점, 전국 최고 78.41점, 전국 최하 56.28점)

교육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대전	등급		
			2022	2023	2024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35,238 원	38,914 원	양호	양호	양호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3.75 %	4.19 %	우수	우수	우수
특수학급 설치율	5.02 %	3.39 %	보통	보통	분발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128.84 %	134.28 %	양호	양호	양호
특수교육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	전체보조인력 13.93 %	17.02 %	우수	우수	양호
	유급보조인력 10.23 %	10.23 %			
통합교육 학생비율	72.22 %	6.41 %	분발	보통	분발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 수	2.07 개	2.10 개	분발	양호	양호
장애인 교원 고용률	1.56 %	2.20 %	우수	우수	우수

2024년 대전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전국 최고 수준의 우수 등급(76.41점)으로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3년 연속 우수 등급으로 나타났다.

교육 영역의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장애인 교원 고용률 지표가 속하였고,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특수교육보조인력(실무사)배치율,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 수로 나타났다.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없었으며, 특수학급 설치율, 통합교육 학생비율이 분발 등급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이 3년 연속 우수 등급에 포함되며, 8개 지표중 6개 지표가 전국 평균을 넘었고 2개 지표는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없었으며, 특수학급 설치율, 특수교육보조인력(실무사)배치율, 통합교육 학생비율 지표가 하락하였다.

특수학급 설치율과 통합교육 학생비율은 3년 연속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이므로 전국 평균 이상의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2)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 보통

(대전 39.77점/ 전국 평균 42.07점, 전국 최고 52.23점, 전국 최하 30.43점)

소득 및 경제활동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대전	등급		
			2022	2023	2024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3.80 %	3.665 %	보통	보통	보통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4.74 %	4.77 %	보통	보통	양호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0.87 %	0.56 %	양호	보통	분발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149,979 원	134,708 원	보통	보통	보통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333,935 원	365,840 원	양호	양호	양호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	0.005 %	0.005 %	양호	우수	보통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	1,143,304 원	893,258 원	보통	보통	보통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	6.88 %	8.04 %	우수	양호	양호

2024년 대전의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은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보통 등급(39.77점)으로 3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은 없으며,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로 나타났다.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분발 등급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로 나타났다.

2023년에 비해 향상된 지표는 장애인공무원 고용률이며, 하락한 지표는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로 나타났다.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은 3년 연속 수준이 하락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의 전체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3)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 : 우수

(대전 56.93점/ 전국 평균 44.93점, 전국 최고 63.47점, 전국 최하 30.21점)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대전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136,280 원	436,233 원	우수	-	우수	
보조기기 지원 수준	보장구 의료급여 및 보조기구 교부 비율	5.99 %	7.77 %	양호	-	우수
	보장구 의료급여 및 보조기구 교부 예산	42,516 원	27,291 원			
일반건강검진 수검 비율	63.50 %	66.75 %	-	-	우수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여성장애인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비율	8.24 %	11.05 %	양호	-	우수
	여성장애인 1인당 출산 및 검진 지원비	994,938 원	1,000,000 원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활동지원서비스 실 인원 비율 6세 이상 65세 미만	21.73 %	23.92 %	보통	-	양호
	활동지원서비스 평균급여량 6세 이상 65세 미만	4,651,598 원	5,593,350 원			
	활동지원서비스 실 인원 비율 65세 이상	2.56 %	2.90 %			
	활동지원서비스 평균급여량 65세 이상	1,105,186.29 원	684,714 원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76,118 원	48,194 원	분발	-	보통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40,596 원	315 원	양호	-	분발	

2024년 대전의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전국 평균 이상의 우수 등급(59.93점)으로 나타났고 2022년 우수 등급과 동일하였다. 2023년에는 이 영역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보조기기 지원 수준, 일반건강검진 수검 비율,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양호 등급에 해당되는 지표는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통 등급으로는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지표, 분발 등급으로는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금년도에 조사한 보건 및 자립지원영역의 7개 지표 중 5개 지표가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다.

2022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보조기기 지원 수준,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은 2022년에 비해 2단계의 수준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의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현재와 같은 노력과 함께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수준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4)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 양호

(대전 58.72점/ 전국 평균 49.87점, 전국 최고 81.06점, 전국 최하 34.95점)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대전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1.09 개소	1.12 개	양호	-	양호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13.47 개소	15.83 개	양호	-	양호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10.73 개소	11.34 개	양호	-	양호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3.73 개소	8.82 개	우수	-	우수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117.61 명	162.51 명	우수	-	양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2.62 명	2.35 명	분발	-	보통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7.59 명	7.59 명	양호	-	양호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4.87 %	4.37 %	분발	-	보통

2024년 대전의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양호 등급(58.72점)으로 2022년 양호 등급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2023년에는 이 영역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으로 나타났다.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통 등급에는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이 포함되었으며, 분발 등급은 없었다.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의 8개 지표 중 6개 지표가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다.

2022년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이었고, 하락한 지표는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이었다.

대전도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현재와 같은 노력을 하며 수준을 향상 시킬 필요가 있으며 2022년과 2024년 연속으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5)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 : 양호

(대전 40.97점/ 전국 평균 32.80점, 전국 최고 80.50점, 전국 최하 20.61점)

이동(편의)-문화 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대전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293.40 %	267.91 %	우수	양호	보통
저상버스 확보수준	31.80 %	40.39 %	양호	양호	양호
지자체 barrier프리 인증 시설 비율	85.06 %	94.24 %	-	양호	우수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617.27 %	1,033.27 %	-	보통	우수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	13,743 원	5,214 원	분발	보통	분발

2024년 대전의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은 양호 등급(40.97점)으로 2023년의 양호 등급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는 지자체 barrier프리 인증 시설 비율, 장애인 문화·여가 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지표가 속하였다. 양호 등급에는 저상버스 확보수준 지표가 속하였다. 반면, 보통 등급에 해당되는 지표는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로 나타났으며,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 접근예산 지원액은 분발 등급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 비해 지자체 barrier프리 인증시설 비율과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은 향상하였으나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 수준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 수준은 3년 연속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므로 수준 향상을 위하여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6)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 우수

(대전 51.82점/ 전국 평균 39.65점, 전국 최고 60.00점, 전국 최하 28.97점)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대전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복지 담당	장애인복지 전담 공무원	공무원 확보 수준	35.83 명	39.21 명	보통	-	보통
장애인 관련 위원회	개최 횟수	운영 현황	57.53 건	77 건	양호	-	보통
기관별 장애인 관련 조례 수	장애위원 수		30.43 명	25.22 명	우수	-	양호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	1인당장애인복지예산	장애인복지예산 확보수준	6,825 천원	9,255 천원	양호	-	우수
장애인복지 예산 지방비 비율	광역 지방비 비율		33.43 %	48.30 %	보통	-	보통
장애인복지 예산 지방비 비율	기초 지방비 비율		21.48 %	2.07 %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	광역 예산	기초 예산	539,965 원	2,255,687 원	보통	-	우수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	광역 예산	기초 예산	27,063 원	126,412 원	양호	-	우수
			16,160 원	248 원			

2024년 대전의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최고 수준인 우수 등급(51.82점)으로 2021년 양호 등급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는 이 영역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으로 나타났다. 양호 등급에는 기관별 장애인 관련 조례 수가 포함되었다. 보통 등급에는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이 속하였다. 전국 하위 수준인 분발 등급은 없었다.

2022년에 비해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은 모두 우수 등급으로 향상되었고,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기관별 장애인 관련 조례 수는 하락하였다.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과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은 2022년과 2024년 연속으로 전국 평균에 못미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대전의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지속적으로 우수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7) 제언

■ 전반적 평가

- 2024년 대전의 장애인 교육분야는 우수 등급으로 3년 연속 우수 등급으로 나타남
- 2024년 장애인 복지 분야는 우수 등급으로, 2022년과 동일함
- 복지 분야 하위 영역 중 ‘보건 및 자립 지원’, ‘복지행정 및 예산’은 우수 등급에 속하였고, ‘복지서비스 지원’,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은 양호 등급에,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은 보통 등급에 속하였음

■ 대전의 강점 분야

- 교육 분야가 3년 연속 우수 등급이며, 세부 지표 중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장애인 교원 고용률’ 또한 3년 연속 우수 등급임.
-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 중 우수 등급에 속하는 지표는 없었음
-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우수 등급으로 세부 지표 중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보조기기 지원 수준’, ‘일반건강검진 수검 비율’,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은 우수함
-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중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은 우수함
-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 중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 비율’,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지표는 우수함
-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우수 등급으로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 ‘여성장애인 사업 예산’ 지표는 우수함

■ 대전의 취약 분야

- 대전의 교육 분야 중 ‘특수학급 설치율’, ‘통합교육 학생비율’은 3년 연속 분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분발 수준임
 -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 중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비율’이 3년 연속 수준이 하락하는 분발 수준임
-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 중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수준’이 취약함
-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중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 집 비율 수준’은 2022년과 2024년 연속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므로 취약한 수준임

-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은 중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 수준이 열악함
-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중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과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 은 2022년과 2024년 연속으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향후 장애인 복지·교육 분야 발전을 위한 대전의 우선 과제

- 대전의 교육 분야는 우수 등급이나 ‘특수학급 설치율’ 과 ‘통합교육 학생비율’ 은 3년 연속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이므로 전국 평균 이상의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요구됨
-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 중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비율’ 은 3년 연속 수준이 하락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의 전체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함
-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우수하나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 을 위한 지원 예산 수준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중 2022년과 2024년 연속으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수준’ 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 중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 수준이 3년 연속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므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함
-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우수 등급이나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과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 은 2022년과 2024년 연속으로 전국 평균에 못미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7. 울산광역시

구 분	장애인 교육	장애인 복지	장애인 복지 세부영역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보건 및 자립 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복지행정 및 예산
전국평균	65.54	52.65	42.07	45.12	49.87	32.80	39.65
울산 점수	71.80	55.40	41.81	32.32	56.66	29.74	37.99
울산 수준	양호	양호	보통	분발	양호	보통	보통



2024년 울산광역시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71.80점으로 양호 등급으로서,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3년 동안 연속하여 양호 등급으로 나타났다. 2024년 장애인 복지 분야는 55.40점으로 양호 등급으로서 2022년 양호 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분야 중에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영역은 없었으며,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56.66점으로 양호 등급이었다.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영역은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41.81점),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29.74점), 복지행정 및 예산(37.99점)으로 나타났다.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은 32.32점으로 분발 등급으로 나타났다.

1) 교육 분야(영역) : 양호

(울산 71.80점/ 전국 평균 65.54점, 전국 최고 78.41점, 전국 최하 56.28점)

교육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울산	등급		
			2022	2023	2024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35,238 원	32,918 원	분발	보통	보통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3.75 %	4.00 %	보통	보통	양호
특수학급 설치율	5.02 %	5.39 %	양호	양호	양호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128.84 %	124.85 %	보통	보통	보통
특수교육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	전체보조인력 13.93 %	22.78 %	우수	우수	우수
	유급보조인력 10.23 %	11.80 %			
통합교육 학생비율	72.22 %	73.23 %	양호	양호	양호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 수	2.07 개	2.05 개	보통	보통	보통
장애인 교원 고용률	1.56 %	1.80 %	양호	우수	양호

2024년 울산시 장애인 교육 분야는 양호 등급(71.80점)으로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양호 등급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특수교육보조인력 배치율 지표가 속하였고,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특수학급 설치율, 통합교육 학생비율, 장애인 교원 고용률로 나타났다.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 수로 나타났다. 분발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없었다. 금년도 조사된 8개 지표 중 5개 지표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전년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이었고,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전년도에 비해 하락하였다.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 수 지표는 3년 연속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 보통

(울산 41.81점/ 전국 평균 42.07점, 전국 최고 52.23점, 전국 최하 30.43점)

소득 및 경제활동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울산	등급		
			2022	2023	2024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3.80 %	3.32 %	분발	분발	분발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4.74 %	4.77 %	양호	양호	양호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0.87 %	1.20 %	분발	양호	우수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149,979 원	166,264 원	우수	양호	양호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333,935 원	343,893 원	분발	보통	양호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	0.005 %	0 %	우수	분발	분발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	1,143,304 원	1,030,165 원	보통	보통	보통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	6.88 %	7.83 %	분발	분발	양호

2024년 울산시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은 보통 등급(41.81점)으로서, 2022년 우수 등급이었으며 2023년 보통 등급으로 하락한 이후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지표가 속하였고,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로 나타났다. 보통 등급에는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 지표가 속하였고, 분발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 향상된 지표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로 나타났다. 이 중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은 분발에서 양호로 두 단계 상승하였다. 전년도에 비해 하락한 지표는 없었다. 한편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3년 연속으로 분발 등급에 속하고,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은 전년도에 이어 분발 등급에 속하기 때문에 상당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3)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 : 분발

(울산 32.32점/ 전국 평균 44.93점, 전국 최고 63.47점, 전국 최하 30.21점)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울산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136,280 원	91,343 원	분발	-	분발	
보조기기 지원 수준	보장구 의료급여 및 보조기구 교부 비율	5.99 %	5.10 %	분발	-	분발
	보장구 의료급여 및 보조기구 교부 예산	42,516 원	8,137 원			
일반건강검진 수검 비율	63.50 %	67.29 %	-	-	우수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여성장애인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비율	8.24 %	3.55 %	우수	-	분발
	여성장애인 1인당 출산 및 검진 지원비	994,938 원	1,341,667 원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활동지원서비스 실 인원 비율 6세 이상 65세 미만	21.73 %	15.99 %	분발	-	분발
	활동지원서비스 평균급여량 6세 이상 65세 미만	4,651,598 원	2,927,971 원			
	활동지원서비스 실 인원 비율 65세 이상	2.56 %	1.56 %			
	활동지원서비스 평균급여량 65세 이상	1,105,186.29 원	337,932 원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76,118 원	49,907 원	양호	-	보통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40,596 원	437 원	분발	-	분발	

2024년 울산시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분발 등급(32.32점)으로 2022년 양호 등급에서 두 단계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일반건강검진 수검 비율이 속하였고,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없었다.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으로 나타났다. 분발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보조기기지원 수준,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조사한 7개 지표 중 1개 지표 외에는 전국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2022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없고, 2022년에 비해 하락한 지표는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으로 나타났다. 이 중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은 우수 등급에서 분발 등급으로 세 단계나 하락하였다.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보조기기 지원 수준,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은 2022년에 비하여 향상 없이 분발 등급으로 나타나 개선이 상당히 필요하다.

4)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 양호

(울산 56.66점/ 전국 평균 49.87점, 전국 최고 81.06점, 전국 최하 34.95점)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울산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1.09 개소	0.97 개	보통	-	보통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13.47 개소	20.47 개	양호	-	양호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10.73 개소	20.05 개	우수	-	우수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3.73 개소	3.31 개	보통	-	보통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117.61 명	123.19 명	양호	-	양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2.62 명	2.49 명	양호	-	보통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7.59 명	7.93 명	우수	-	양호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4.87 %	4.41 %	보통	-	보통

2024년 울산시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양호 등급(56.66점)으로 2022년 양호 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이었고,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로 나타났다. 분발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없었고, 2022년에 비해 하락한 지표는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은 2022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우수 등급에 속하여 지원이 잘 유지되고 있으나,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은 2022년도와 2024년도 모두 보통 등급에 속하여 개선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5)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 : 보통

(울산 29.74점/ 전국 평균 32.80점, 전국 최고 80.50점, 전국 최하 20.61점)

이동(편의)·문화 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울산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293.40 %	385.22 %	보통	양호	양호
저상버스 확보수준	31.80 %	13.85 %	분발	분발	분발
지자체 barrier프리 인증 시설 비율	85.06 %	100.00 %	-	양호	우수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617.27 %	619.38 %	-	보통	양호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	13,743 원	12,426 원	보통	보통	보통

2024년 울산시 이동(편의)·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은 보통 등급(29.74점)으로서, 2022년 분발 등급이었으며 2023년 양호 등급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지자체 barrier프리 인증 시설 비율이었고,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로 나타났다.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 지표는 보통 등급에 속하였고, 저상버스 확보수준 지표는 분발 등급에 해당하였다.

전년도에 비해 향상된 지표는 지자체 barrier프리 인증 시설 비율,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로 나타났고, 전년도에 비해 하락한 지표는 없었다. 특히 저상버스 확보 수준은 3년 연속 분발 등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선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6)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 보통

(울산 37.99점/ 전국 평균 39.65점, 전국 최고 60.00점, 전국 최하 28.97점)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울산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복지 담당 장애인복지 전담 공무원 공무원 확보 수준	35.83 명	23.00 명	보통	-	분발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개최 횟수 30.43 명	3 건 43.86 명	양호	-	양호
기관별 장애인관련 조례 수	12.45 건	12.50 건	우수	-	양호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	1인당장애인복지예산 6,825 천원	6,171 천원	보통	-	보통
장애인복지 예산 지방비 비율	광역 지방비 비율 33.43 %	50.11 %	보통	-	보통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	기초 지방비 비율 21.48 %	6.26 %	우수	-	양호
여성장애인 사업 예산	광역 예산 539,965 원	1,402,204 원	우수	-	양호
	기초 예산 89,943 원	21,782 원	우수	-	양호
	광역 예산 27,063 원	38,359.08 원	우수	-	양호
	기초 예산 16,160 원	13,198 원			

2024년 울산시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보통 등급(37.99점)으로 2022년 우수 등급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없었고,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기관별 장애인관련 조례 수,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으로 나타났다.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로 나타났다. 분발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이었다.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의 하위 7개 지표 중 4개 지표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2022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없었으며, 2022년에 비해 하락한 지표는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기관별 장애인관련 조례 수,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발 등급에 속하는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은 2022년 보통 등급에 비하여 하락한 것이므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7) 제언

■ 전반적 평가

- 2024년 울산시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양호 등급이었고, 3년 동안 연속하여 양호 등급으로 나타났음
- 2024년 장애인 복지 분야는 양호 등급으로, 2022년 양호 등급과 동일함
- 복지 분야 하위 영역 중 우수 등급은 없었고,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양호 등급에 속하였음.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복지행정 및 예산’,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 영역은 전국 평균 이하인 보통 등급에,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분발 등급에 속하였음

■ 울산시의 강점 분야

- 울산시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타 시도에 비해 연속 3년 동안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 교육 영역 중 ‘특수교육보조인력 배치율’은 우수함
- 장애인 복지 분야는 금년도와 전년도 모두 양호 등급에 해당함
-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 중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은 우수함
-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 중 ‘일반건강검진 수검 비율’은 우수함
-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양호한 수준이고, 이 영역 중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 이용기관 확충 수준’ 지표는 우수함
-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 중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시설 비율’ 지표는 우수함
-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중 우수 등급에 속하는 지표는 없음

■ 울산시의 취약 분야

- 울산시 교육 분야 중 분발 등급에 속하는 지표는 없으며,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 수’는 3년 연속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 수준으로 타 시도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은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 보통 수준으로, 이 영역 중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 지표는 매우 취약한 수준임
-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중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은

열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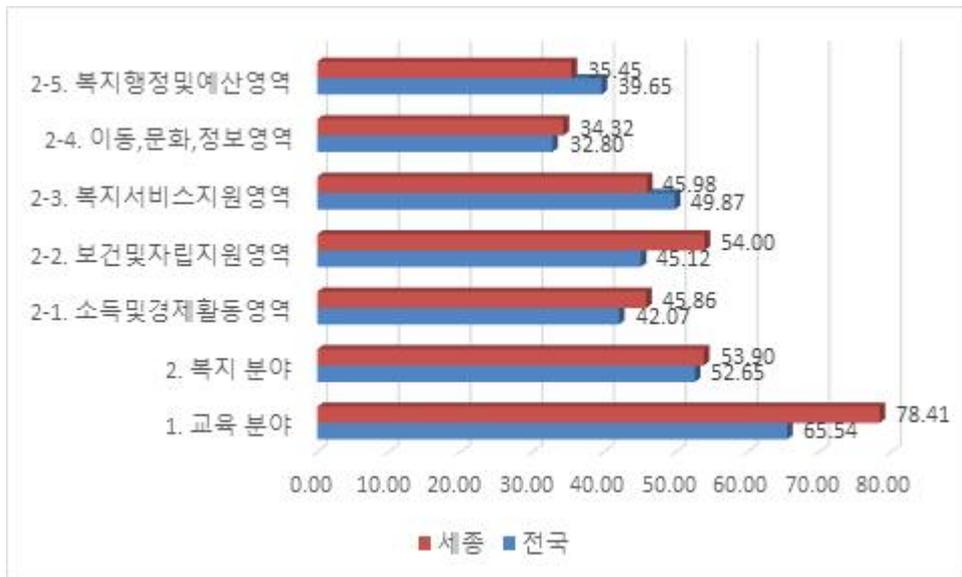
-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전국 평균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분발 수준으로 취약하고, 이 영역 중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보조기기지원 수준’,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수준은 상당히 열악함
-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보통 수준으로 취약하고, 특히 이 영역 중 ‘저상버스 확보수준’ 이 매우 취약함
-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보통 수준으로 열악하고, 특히 ‘장애인 복지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은 매우 열악한 수준임

■ 향후 장애인 복지·교육 분야 발전을 위한 울산시 우선 과제

- 울산시의 장애인 교육과 복지 분야는 지속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므로 유지와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울산시의 교육 영역 중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 수’ 는 3년 연속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 수준이므로 개선에 노력이 필요함
-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전반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 지표는 계속 분발 등급에 속하고 있어 개선에 노력이 필요함
-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전국 평균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보조기기지원 수준’,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수준은 2022년과 2024년에 연속으로 분발 등급에 속하고 있어 상당한 개선 노력이 필요함
-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2022년도에 이어 양호한 수준이나, 이 영역 중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은 2022년도와 2024년도 연속 보통 등급에 속하여 개선 노력이 요구됨
-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특히 ‘저상버스 확보수준’ 은 3년 연속 분발 등급에 해당하여 각고의 개선 노력이 필요함
-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보통 수준으로, 특히 ‘장애인복지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을 향상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상당히 필요함

8. 세종특별자치시

구 분	장애인 교육	장애인 복지	장애인 복지 세부영역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보건 및 자립 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복지행정 및 예산
전국평균	65.54	52.65	42.07	45.12	49.87	32.80	39.65
세종 점수	78.41	53.90	45.86	54.00	45.98	34.32	35.45
세종 수준	우수	양호	양호	양호	보통	양호	보통



2024년 세종시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78.41점으로 우수 등급으로 나타나 2022년, 2023년의 우수 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장애인 복지 분야는 53.90점으로 양호 등급으로 나타나 2022년 양호 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분야 중에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영역은 없었으며,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영역은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45.86점), 보건 및 자립지원(54.00점),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34.32점)으로 나타났다. 복지서비스 지원(45.98점), 복지행정 및 예산(35.45점)으로 평균 이하인 보통 등급이었고, 분발 등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 교육 분야(영역) : 우수

(세종 78.41점/ 전국 평균 65.54점, 전국 최고 78.41점, 전국 최하 56.28점)

교육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세종	등급		
			2022	2023	2024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35,238 원	43,636 원	우수	우수	우수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3.75 %	4.21 %	양호	우수	우수
특수학급 설치율	5.02 %	4.70 %	보통	보통	보통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128.84 %	187.66 %	우수	양호	우수
특수교육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	전체보조인력 13.93 %	18.73 %	우수	우수	우수
	유급보조인력 10.23 %	17.27 %			
통합교육 학생비율	72.22 %	77.66 %	우수	우수	우수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 수	2.07 개	2.26 개	우수	양호	분발
장애인 교원 고용률	1.56 %	2.11 %	분발	양호	우수

2024년 세종시 장애인 교육 분야는 우수 등급(78.41점)으로 2022년과 2023년 우수 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영역의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특수교육보조인력 배치율, 통합교육 학생비율, 장애인 교원 고용률로 나타났다.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없었고, 특수학급 설치율 지표는 보통 등급에 해당하였다. 분발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 수로 나타났다. 금년도 조사된 8개 지표 중 6개 지표가 우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장애인 교원 고용률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 하락한 지표는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 수로 나타났다.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교육보조인력 배치율, 통합교육 학생비율은 모두 3년 연속 우수 등급으로 잘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 수는 2022년 우수 등급, 2023년 양호 등급, 금년도에는 분발 등급으로 해마다 등급이 하락되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 양호

(세종 45.86점/ 전국 평균 42.07점, 전국 최고 52.23점, 전국 최하 30.43점)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세종	등급		
			2022	2023	2024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3.80 %	3.28 %	보통	분발	분발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4.74 %	4.55 %	분발	보통	보통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0.87 %	0.42 %	분발	분발	분발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149,979 원	151,535 원	분발	양호	양호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333,935 원	339,118 원	우수	분발	양호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	0.005 %	0 %	분발	분발	분발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	1,143,304 원	3,080,229 원	양호	우수	우수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	6.88 %	19.31 %	우수	우수	우수

2024년 세종시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은 양호 등급(45.86점)으로서, 2022년 양호 등급이었으며 2023년 보통 등급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향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로 나타났다.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으로 나타났다.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공무원 고용률로 나타났다. 분발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 향상된 지표는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으로 분발 등급에서 양호 등급으로 두 단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 하락한 지표는 없었다.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은 3년 연속 우수 등급으로 잘 관리되고 있었다. 반면, 분발 등급에 해당하는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 지표는 2년 또는 3년 동안 연속 분발 등급에 속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 : 양호

(세종 54.00점/ 전국 평균 44.93점, 전국 최고 63.47점, 전국 최하 30.21점)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세종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136,280 원	106,709 원	분발	-	보통	
보조기기 지원 수준	보장구 의료급여 및 보조기구 교부 비율	5.99 %	5.33 %	분발	-	우수
	보장구 의료급여 및 보조기구 교부 예산	42,516 원	39,797 원			
일반건강검진 수검 비율	63.50 %	68.42 %	-	-	우수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여성장애인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비율	8.24 %	11.89 %	보통	-	우수
	여성장애인 1인당 출산 및 검진 지원비	994,938 원	1,722,222 원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활동지원서비스 실 인원 비율 6세 이상 65세 미만	21.73 %	26.03 %	보통	-	분발
	활동지원서비스 평균급여량 6세 이상 65세 미만	4,651,598 원	4,197,274 원			
	활동지원서비스 실 인원 비율 65세 이상	2.56 %	0.97 %			
	활동지원서비스 평균급여량 65세 이상	1,105,186.29 원	175,591 원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76,118 원	209,172 원	양호	-	우수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40,596 원	6,053 원	우수	-	분발	

2024년 세종시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양호 등급(54.00점)으로 2022년 양호 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보조기기 지원 수준, 일반건강검진 수검 비율,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으로 나타났다.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지표는 보통 등급으로 나타났고, 분발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으로 나타났다. 7개 지표 중 총 4개 지표가 우수 등급에 해당하였으나, 3개 지표는 전국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2022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보조기기 지원 수준,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조기기 지원 수준은 분발 등급에서 우수 등급으로 매우 상승하였다. 2022년에 비해 하락한 지표는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은 2022년에는 우수 등급이었으나 금년도 분발 등급으로 매우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상당한 관심이 요구된다.

4)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 보통

(세종 45.98점/ 전국 평균 49.87점, 전국 최고 81.06점, 전국 최하 34.95점)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세종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1.09 개소	0.77 개	보통	-	분발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13.47 개소	37.31 개	우수	-	우수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10.73 개소	6.18 개	양호	-	분발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3.73 개소	1.55 개	분발	-	분발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117.61 명	64.89 명	보통	-	분발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2.62 명	2.56 명	보통	-	보통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7.59 명	7.21 명	양호	-	보통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4.87 %	2.87 %	분발	-	분발

2024년 세종시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보통 등급(45.98점)으로 2022년 보통 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이었고,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으로 나타났다. 분발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로 나타났다. 8개 지표 중 총 7개 하위 지표가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을 보였다.

2022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없었으며, 2022년에 비해 하락한 지표는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으로 나타났다.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은 2022년, 2024년 모두 우수 등급으로 잘 관리되었다. 반면 분발 등급에 속하는 지표가 5개에 해당하여 적극적인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지표는 2022년도에 이어 계속 분발 등급에 속하여 변화를 꾀하기 위한 큰 노력이 요구된다.

5)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 : 양호

(세종 34.32점/ 전국 평균 32.80점, 전국 최고 80.50점, 전국 최하 20.61점)

이동(편의)·문화 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세종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293.40 %	145.45 %	보통	분발	분발
저상버스 확보수준	31.80 %	41.47 %	양호	양호	양호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시설 비율	85.06 %	18.94 %	-	분발	분발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617.27 %	575.14 %	-	양호	보통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	13,743 원	20,071 원	양호	우수	양호

2024년 세종시 이동(편의)·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은 양호 등급(34.32점)으로 2022년과 2023년의 양호 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없었으며,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저상버스 확보수준,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으로 나타났다.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로 나타났다. 분발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 비율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 향상된 지표는 없었으며, 전년도에 비해 하락한 지표는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으로 나타났다.

분발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시설 비율은 2023년도에도 분발 등급에 속하였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세종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6)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 보통

(세종 35.45점/ 전국 평균 39.65점, 전국 최고 60.00점, 전국 최하 28.97점)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세종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복지 담당 장애인복지 전담 공무원 공무원 확보 수준	35.83 명 81.02 명	25.51 명 60.82 명	보통	-	분발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개최 횟수 장애위원 수	1 건 47.62 명	분발	-	양호	
기관별 장애인관련 조례 수	12.45 건	20.00 건	우수	-	양호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	1인당장애인복지예산 장애인복지예산 확보수준	6,825 천원 149.48 %	6,935 천원 170.48 %	보통	-	양호
장애인복지 예산 지방비 비율	광역 지방비 비율 기초 지방비 비율	33.43 % 21.48 %	23.62 % -	우수	-	분발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	광역 예산 기초 예산	539,965 원 89,943 원	874,760 원 0 원	보통	-	보통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	광역 예산 기초 예산	27,063 원 16,160 원	11,219 원 0 원	보통	-	분발

2024년 세종시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보통 등급(35.45점)으로 2022년 보통 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없었고,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기관별 장애인관련 조례 수,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분발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으로 나타났다. 7개 지표 중 4개 지표가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 비해 하락한 지표는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기관별 장애인관련 조례 수,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은 우수 등급에서 분발 등급으로 하락 폭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금년도 분발 등급에 속하는 지표 중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은 2022년에 보통 등급에서 하락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7) 제언

■ 전반적 평가

- 2024년 세종특별자치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우수 등급이었고, 2022년과 2023년의 우수 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24년 장애인 복지 분야는 양호 등급으로, 2022년 양호 등급과 동일함
- 복지 분야 하위 영역 중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보건 및 자립지원’,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 영역은 양호 등급에 속하였고, ‘복지서비스 지원’,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전국 평균 이하인 보통 등급에 속하였음

■ 세종시의 강점 분야

- 세종시 장애인 교육 분야는 타 시도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 교육 영역 중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특수교육보조인력 배치율’, ‘통합교육 학생비율’,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우수함
- 세종시 장애인 복지 분야는 타 시도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은 타 시도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고, 이 영역 중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은 우수함
-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타 시도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고, 이 영역 중 우수 등급에 속하는 지표는 ‘보조기기 지원 수준’, ‘일반건강검진 수검 비율’,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으로 나타남
-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중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지표는 우수함
-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은 타 시도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고, 이 영역 중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없었음
-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중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없었음

■ 세종시의 취약 분야

- 세종시의 교육 분야 중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 수’는 분발 등급으로 타 시도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 중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 지표는 취약한 수준임

-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 중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수준은 상당히 열악함
-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이 영역 중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지표는 취약한 수준임
-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 중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 비율’ 이 취약함
-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이 영역 중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 은 매우 취약한 수준임

■ 향후 장애인 복지·교육 분야 발전을 위한 세종시 우선 과제

- 세종시 교육 분야는 우수한 수준이나, 이 영역 중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 수’ 는 해마다 수준이 하락하여 분발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은 양호한 수준이나, 이 영역 중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 지표는 2년 또는 3년 연속 분발 등급에 속하고 있어 개선의 노력이 필요함
-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양호한 수준이나, 이 영역 중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은 2022년에는 우수 등급이었으나 금년도 분발 등급으로 크게 하락되어 적극적인 회복 노력이 필요함
-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특히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은 2022년도에 이어 계속 분발 수준이어서 큰 개선 노력이 요구됨
-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은 양호한 수준이나, 이 영역 중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시설 비율’ 은 2년 연속 분발 수준이어서 개선을 위한 지자체의 큰 노력이 필요함
-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양호한 수준이나, 이 영역 중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 은 2022년에 이어 금년도에도 전국 평균에 못미쳤기 때문에 상당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함

9. 경기도

구 분	장애인 교육	장애인 복지	장애인 복지 세부영역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보건 및 자립 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복지행정 및 예산
전국평균	65.54	52.65	42.07	45.12	49.87	32.80	39.65
경기 점수	56.28	54.54	43.08	44.04	41.83	23.73	40.03
경기 수준	분발	양호	양호	보통	분발	분발	양호



2024년 경기도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56.28점으로 분발 등급으로 나타나 2022년과 2023년의 분발 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장애인 복지 분야는 54.54점으로 양호 등급으로 나타나 2022년 보통 등급에서 상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분야 중에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영역은 없었으며, 양호 등급은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43.08점), 복지행정 및 예산(40.03점)으로 나타났다.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44.04점으로 평균 이하인 보통 등급이었고, 복지서비스 지원(41.83점),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23.73점)은 분발 등급으로 나타났다.

1) 교육 분야(영역) : 분발

(경기 56.28점/ 전국 평균 65.54점, 전국 최고 78.41점, 전국 최하 56.28점)

교육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경기	등급		
			2022	2023	2024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35,238 원	25,234 원	분발	분발	분발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3.75 %	3.05 %	분발	분발	분발
특수학급 설치율	5.02 %	5.29 %	양호	양호	양호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128.84 %	133.41 %	우수	양호	양호
특수교육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	전체보조인력 13.93 %	9.92 %	분발	분발	분발
유급보조인력	10.23 %	4.26 %			
통합교육 학생비율	72.22 %	79.61 %	우수	우수	우수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 수	2.07 개	2.00 개	보통	보통	보통
장애인 교원 고용률	1.56 %	1.18 %	분발	보통	분발

2024년 경기 장애인 교육 분야는 분발 등급(56.28점)으로 2022년, 2023년의 분발 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통합교육 학생비율로 나타났다.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특수학급 설치율,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로 나타났다.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 수로 나타났다. 분발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특수교육보조인력 배치율, 장애인 교원 고용률로 나타났다. 조사된 8개 지표 중 5개 지표가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도에 비해 하락한 지표는 장애인 교원 고용률로 나타났다. 분발 등급에 속하는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특수교육보조인력 배치율,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3년 연속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개선의 노력이 요구된다.

2)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 양호

(경기 43.08점/ 전국 평균 42.07점, 전국 최고 52.23점, 전국 최하 30.43점)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경기	등급		
			2022	2023	2024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3.80 %	3.36 %	분발	분발	분발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4.74 %	4.10 %	보통	보통	보통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0.87 %	1.20 %	보통	우수	우수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149,979 원	104,476 원	양호	보통	보통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333,935 원	373,870 원	양호	우수	양호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	0.005 %	0.006 %	보통	양호	양호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	1,143,304 원	1,229,751 원	양호	우수	양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	6.88 %	5.89 %	보통	우수	보통

2024년 경기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은 양호 등급(43.08점)으로서, 2022년 양호 등급에서 2023년 우수 등급으로 상향하였으나 다시 양호 등급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로 나타났다.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 직업재활 시설 지원예산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로 나타났으며,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분발 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 향상된 지표는 없었으며, 전년도에 비해 하락한 지표는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로 나타났다. 특히 직업재활 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은 우수 등급에서 보통 등급으로 두 단계나 하락했다.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은 전년도에 이어 우수 등급으로 잘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연속 3년 동안 분발 등급에 속하고 있어 지자체의 상당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3)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 : 보통

(경기 44.04점/ 전국 평균 44.93점, 전국 최고 63.47점, 전국 최하 30.21점)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경기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136,280 원	59,775 원	분발	-	분발	
보조기기 지원 수준	보장구 의료급여 및 보조기구 교부 비율	5.99 %	6.28 %	양호	-	양호
	보장구 의료급여 및 보조기구 교부 예산	42,516 원	50,877 원			
일반건강검진 수검 비율	63.50 %	64.09 %	-	-	양호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여성장애인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비율	8.24 %	9.28 %	보통	-	양호
	여성장애인 1인당 출산 및 검진 지원비	994,938 원	1,142,222 원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활동지원서비스 실 인원 비율 6세 이상 65세 미만	21.73 %	21.72 %	우수	-	보통
	활동지원서비스 평균급여량 6세 이상 65세 미만	4,651,598 원	4,440,020 원			
	활동지원서비스 실 인원 비율 65세 이상	2.56 %	2.23 %			
	활동지원서비스 평균급여량 65세 이상	1,105,186.29 원	477,615 원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76,118 원	32,836 원	분발	-	분발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40,596 원	133,108 원	양호	-	양호	

2024년 경기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보통 등급(44.04점)으로 2022년 보통 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없었으며,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보조기기 지원 수준, 일반건강검진 수검 비율,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으로 나타났다.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으로 나타났다. 분발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으로 나타났다. 조사된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의 7개 지표 중 총 3개 지표가 전국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2022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 비해 하락한 지표는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분발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은 2022년도에 이어 분발등급으로 나타나 예산 확보를 위한 큰 노력이 필요하다.

4)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 분발

(경기 41.83점/ 전국 평균 49.87점, 전국 최고 81.06점, 전국 최하 34.95점)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경기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1.09 개소	0.67 개	분발	-	분발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13.47 개소	11.74 개	보통	-	보통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10.73 개소	5.34 개	분발	-	분발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3.73 개소	3.04 개	보통	-	보통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117.61 명	63.40 명	양호	-	분발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2.62 명	3.01 명	우수	-	양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7.59 명	7.40 명	보통	-	보통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4.87 %	6.36 %	양호	-	양호

2024년 경기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분발 등급(41.83점)으로 2022년 보통 등급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없었으며,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로 나타났다.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으로 나타났다. 분발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으로 나타났다. 금년도 조사된 8개 지표 중 총 6개 하위 지표가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을 보였다.

2022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2022년에 비해 하락한 지표는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으로 나타났다. 분발 등급 지표 중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은 2022년도에 이어 분발 등급에 속하였기 때문에 해당 기관의 수를 확충하는 데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5)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 : 분발

(경기 23.73점/ 전국 평균 32.80점, 전국 최고 80.50점, 전국 최하 20.61점)

이동(편의)·문화 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경기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293.40 %	163.20 %	보통	보통	분발
저상버스 확보수준	31.80 %	33.30 %	보통	보통	양호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 비율	85.06 %	71.26 %	-	보통	보통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617.27 %	393.28 %	-	분발	보통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	13,743 원	3,394 원	분발	보통	분발

2024년 경기 이동(편의)·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은 분발 등급(23.73점)으로서, 2023년 분발 등급과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저상버스 확보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 비율,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로 나타났다. 분발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 향상된 지표는 저상버스 확보수준,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 하락한 지표는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으로 나타났다. 분발 등급에 속하는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 접근예산 지원액은 3년 연속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6)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 양호

(경기 40.03점/ 전국 평균 39.65점, 전국 최고 60.00점, 전국 최하 28.97점)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경기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복지 담당 장애인복지 전담 공무원 공무원 확보 수준	35.83 명 81.02 명	23.02 명 61.25 명	보통	-	분발
장애인 관련 위원회 개최 횟수 운영 현황	57.53 건 30.43 명	263 건 22.86 명	양호	-	우수
기관별 장애인관련 조례 수	12.45 건	14.06 건	우수	-	양호
장애인복지 예산 장애인복지예산 확보 수준	6,825 천원 149.48 %	4,416 천원 178.25 %	분발	-	보통
장애인복지 예산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	33.43 % 21.48 %	20.11 % 46.70 %	양호	-	우수
장애인단체 지원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	539,965 원 89,943 원	21,800 원 69,913 원	분발	-	분발
여성장애인 관련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	27,063 원 16,160 원	4,266 원 704 원	분발	-	분발

2024년 경기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양호 등급(40.03점)으로 2022년 보통 등급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로 나타났다.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기관별 장애인관련 조례 수로 나타났다.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으로 나타났다. 분발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으로 나타났다. 금년도 조사된 7개 지표 중 4개 지표가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로 나타났다. 2022년에 비해 하락한 지표는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기관별 장애인관련 조례 수로 나타났다.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기관별 장애인관련 조례 수,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은 지속적으로 양호, 우수 등급으로 잘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발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은 2022년에도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7) 제언

■ 전반적 평가

- 2024년 경기도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분발 등급이었고, 2022년과 2023년의 분발 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24년 장애인 복지 분야는 양호 등급으로, 2022년 보통 등급에서 상향됨
- 복지 분야 하위 영역 중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양호 등급에 속하였고,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전국 평균 이하인 보통 등급에 속하였음, ‘복지서비스 지원’,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 영역은 분발 등급에 속하였음

■ 경기도의 강점 분야

- 경기도 장애인 교육 분야는 타 시도에 비해 분발 수준으로 평가됨
- 교육 영역 중 ‘특수학급 설치율’,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은 타 시도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고, 이 영역 중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없었음
- 경기도 장애인 복지 분야는 타 시도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은 타 시도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고, 이 영역 중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비율’은 우수함
-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 중 우수 등급에 속하는 지표는 없었음
-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중 우수 등급에 속하는 지표는 없었음
-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 중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없었음
-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타 시도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고, 이 영역 중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은 우수함

■ 경기도의 취약 분야

- 경기도의 교육 분야는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 수준이고, 이 영역 중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특수교육보조인력 배치율’,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분발 등급으로 타 시도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 중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지표는 취약한 수준임
-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 수준이고, 이 영역 중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수준은 매우 열악함

-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전국 평균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분발 수준이고, 이 영역 중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지표는 취약한 수준임
-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은 전국 평균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분발 수준이고, 이 영역 중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 이 매우 열악함
-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중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 은 매우 열악한 수준임

■ 향후 장애인 복지·교육 분야 발전을 위한 경기도 우선 과제

- 경기도 교육 분야는 분발 수준으로서, 이 영역 중 분발 등급에 속하는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특수교육보조인력 배치율’, ‘장애인 교원 고용률’ 은 3년 연속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개선의 노력이 요구됨
-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은 양호한 수준이나, 이 영역 중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은 3년 연속 분발 등급에 속하고 있어 개선의 노력이 필요함
-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특히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은 2022년도에 이어 계속 분발 등급이므로 개선이 필요함
-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전국 평균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특히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은 2022년도에 이어 계속 분발 수준이어서 큰 개선 노력이 요구됨
-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은 전국 평균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특히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 은 3년 연속 분발 수준이어서 개선을 위한 큰 노력이 필요함
-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양호한 수준이나, 이 영역 중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은 2022년에 이어 금년도에도 전국 평균에 못미쳤기 때문에 상당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함

10. 강원특별자치도

구 분	장애인 교육	장애인 복지	장애인 복지 세부영역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보건 및 자립 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복지행정 및 예산
전국평균	65.54	52.65	42.07	45.12	49.87	32.80	39.65
강원 점수	61.42	50.48	35.35	30.21	48.62	30.39	46.27
강원 수준	보통	보통	분발	분발	보통	보통	양호



2024년 강원도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61.42점으로 보통 등급으로 나타나 2022년, 2023년의 보통 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장애인복지 분야는 50.48점으로 보통 등급으로 나타나 2022년 보통 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분야 중에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영역은 없었고,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영역은 복지행정 및 예산(46.27점)으로 나타났다. 복지서비스 지원(48.62점),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 영역은 30.39점으로 평균 이하인 보통 등급으로 나타났으며,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35.35점),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30.21점으로 분발 등급으로 나타났다.

1) 교육 분야(영역) : 보통

(강원 61.42점/ 전국 평균 65.54점, 전국 최고 78.41점, 전국 최하 56.28점)

교육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강원	등급		
			2022	2023	2024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35,238 원	45,570 원	양호	양호	우수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3.75 %	3.25 %	분발	분발	보통
특수학급 설치율	5.02 %	4.88 %	보통	보통	보통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128.84 %	133.98 %	양호	우수	양호
특수교육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	전체보조인력 13.93 %	12.74 %	보통	양호	보통
	유급보조인력 10.23 %	10.32 %			
통합교육 학생비율	72.22 %	72.27 %	양호	양호	양호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 수	2.07 개	2.28 개	양호	우수	우수
장애인 교원 고용률	1.56 %	1.28 %	보통	분발	보통

2024년 강원도 장애인 교육 분야는 보통 등급(61.42점)으로 2022년 보통 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 수로 나타났다.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통합교육 학생비율로 나타났다.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특수학급 설치율, 특수교육보조인력 배치율, 장애인 교원 고용률로 나타났다. 분발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장애인 교원 고용률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 하락한 지표는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특수교육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로 나타났다. 한편 보통 등급 중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특수학급 설치율,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3년 연속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2)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 분발

(강원 35.35점/ 전국 평균 42.07점, 전국 최고 52.23점, 전국 최하 30.43점)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강원	등급		
			2022	2023	2024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3.80 %	4.21 %	우수	양호	양호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4.74 %	4.03 %	분발	보통	분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0.87 %	0.49 %	분발	분발	분발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149,979 원	141,162 원	보통	보통	보통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333,935 원	59,311 원	분발	보통	보통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	0.005 %	0.004 %	양호	분발	보통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	1,143,304 원	706,551 원	양호	양호	분발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	6.88 %	4.02 %	양호	양호	분발

2024년 강원도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은 분발 등급(35.35점)으로서, 2022년 보통 등급이었으며 2023년 분발 등급과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로 나타났다.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비율로 나타났다. 분발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 향상된 지표는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 하락한 지표는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로 나타났다. 한편 분발 등급 지표 중 특히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은 3년 연속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각고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3)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 : 분발

(강원 30.21점/ 전국 평균 44.93점, 전국 최고 63.47점, 전국 최하 30.21점)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강원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136,280 원	49,033 원	보통	-	분발	
보조기기 지원 수준	보장구 의료급여 및 보조기구 교부 비율	5.99 %	4.04 %	양호	-	보통
	보장구 의료급여 및 보조기구 교부 예산	42,516 원	32,487 원			
일반건강검진 수검 비율	63.50 %	62.59 %	-	-	보통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여성장애인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비율	8.24 %	5.78 %	분발	-	분발
	여성장애인 1인당 출산 및 검진 지원비	994,938 원	1,000,000 원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활동지원서비스 실 인원 비율 6세 이상 65세 미만	21.73 %	13.62 %	분발	-	분발
	활동지원서비스 평균급여량 6세 이상 65세 미만	4,651,598 원	2,807,230 원			
	활동지원서비스 실 인원 비율 65세 이상	2.56 %	1.64 %			
	활동지원서비스 평균급여량 65세 이상	1,105,186.29 원	363,627 원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76,118 원	18,504 원	분발	-	분발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40,596 원	5,894 원	분발	-	분발	

2024년 강원도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분발 등급(30.21점)으로 2022년 분발 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과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보조기기 지원 수준, 일반건강검진 수검 비율로 나타났다. 분발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수준,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으로 나타났다. 금년도에 조사된 하위 7개 지표 모두가 전국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2022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 비해 하락한 지표는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보조기기 지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금년도 분발 등급에 속하는 지표인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은 2022년도에도 보통, 분발 등급이었기 때문에 개선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 보통

(강원 48.62점/ 전국 평균 49.87점, 전국 최고 81.06점, 전국 최하 34.95점)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강원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1.09 개소	1.09 개	양호	-	양호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13.47 개소	10.27 개	우수	-	보통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10.73 개소	14.42 개	우수	-	양호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3.73 개소	3.38 개	보통	-	보통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117.61 명	99.18 명	양호	-	보통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2.62 명	2.77 명	양호	-	양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7.59 명	7.04 명	분발	-	보통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4.87 %	3.31 %	보통	-	분발

2024년 강원도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전국 평균 이하인 보통 등급(48.62점)으로 2022년 양호 등급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으로 나타났다. 분발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로 나타났다. 하위 8개 지표 중 총 3개 하위 지표가 전국 평균에 비해 우수한 수준을 보였다.

2022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 비해 하락한 지표는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로 나타났다. 이 중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은 우수 등급에서 보통 등급으로 2단계나 하락하였다. 한편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은 분발 수준으로 2022년도 전국 평균 수준 이하인 보통 등급에서 더욱 하락하였기 때문에 각고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5)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 : 보통

(강원 30.39점/ 전국 평균 32.80점, 전국 최고 80.50점, 전국 최하 20.61점)

이동(편의)·문화 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강원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293.40 %	141.03 %	분발	분발	분발
저상버스 확보수준	31.80 %	31.74 %	보통	보통	보통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 비율	85.06 %	100 %	-	보통	우수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617.27 %	582.07 %	-	분발	보통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	13,743 원	9,941 원	분발	보통	보통

2024년 강원도 이동(편의)·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은 보통 등급(30.39점)으로서, 2022년 보통 등급이었으며 2023년 분발 등급에 비하여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 비율로 나타났다.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저상버스 확보수준,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으로 나타났다. 분발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 향상된 지표는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 비율,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로 나타났다. 이 중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 비율은 보통 등급에서 우수 등급으로 두 단계나 상승한 것이다. 전년도에 비해 하락한 지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은 전국 평균에 상당히 못미치는 분발 등급에 3년 동안 속하였기 때문에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6)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 양호

(강원 46.27점/ 전국 평균 39.65점, 전국 최고 60.00점, 전국 최하 28.97점)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강원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복지 담당 장애인복지 전담 공무원 공무원 확보 수준	35.83 명	97.46 명	양호	-	우수
장애인 관련 위원회 개최 횟수 운영 현황	57.53 건	64 건	양호	-	양호
장애위원 수	30.43 명	30.49 명			
기관별 장애인관련 조례 수	12.45 건	9.16 건	보통	-	보통
장애인복지 예산 1인당장애인복지예산	6,825 천원	4,402 천원	분발	-	분발
확보 수준 장애인복지예산 확보수준	149.48 %	89.39 %			
장애인복지예산 광역 지방비 비율	33.43 %	17.41 %			
지방비 비율 기초 지방비 비율	21.48 %	41.52 %	보통	-	양호
장애인단체 지원 광역 예산	539,965 원	979,946 원	우수	-	우수
수준 기초 예산	89,943 원	281,618 원			
여성장애인 관련 광역 예산	27,063 원	22,354 원	분발	-	보통
사업 예산 기초 예산	16,160 원	4,560 원			

2024년 강원도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양호 등급(46.27점)으로 2022년 보통 등급에서 상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로 나타났다.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기관별 장애인관련 조례 수,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으로 나타났다. 분발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으로 나타났다.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의 하위 7개 지표 중 4개 지표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2022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 비해 하락한 지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은 2022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분발 등급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위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7) 제언

■ 전반적 평가

- 2024년 강원도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보통 등급이었고, 2022년, 2023년 보통 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24년 장애인 복지 분야는 보통 등급으로, 2022년 보통 등급과 동일함
- 복지 분야 하위 영역 중 복지 분야 중에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영역은 없었고,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양호 등급에 속하였음. ‘복지서비스 지원’,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 영역은 전국 평균 이하인 보통 등급에 속하였음.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분발 등급에 속하였음

■ 강원도의 강점 분야

- 강원도 교육 영역 중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 수’ 는 우수함
-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 중 우수 등급에 속하는 지표는 없었음
-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 중 우수 등급에 속하는 지표는 없었음
-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중 우수 등급에 속하는 지표는 없었음
-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 중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시설 비율’ 은 우수함
-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타 시도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고, 이 영역 중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 은 우수함

■ 강원도의 취약 분야

- 강원도의 교육 분야는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 수준이고, 이 영역 중 분발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없었음
-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은 전국 평균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분발 수준이고, 이 영역 중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비율’,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 지표는 취약한 수준임
-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전국 평균에 상당히 못미치는 분발 수준이고, 이 영역 중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

한 지원 예산' 수준은 매우 열악함

-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이 영역 중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지표는 취약한 수준임
-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이 영역 중 '장애인 특별한송수단 충족율' 이 매우 취약함
-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중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 은 매우 취약한 수준임

■ 향후 장애인 복지·교육 분야 발전을 위한 강원도 우선 과제

- 강원도 교육 분야는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 수준으로서, 이 영역 중 분발 등급에 속하는 지표는 없으나 보통 등급 중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특수학급 설치율,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3년 연속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개선의 노력이 필요함
-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은 전국 평균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분발 수준이고, 특히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은 분발 지표 중에서도 3년 연속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함
-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특히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은 2022년도에 이어 분발 등급이므로 개선이 필요함
-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특히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은 분발 수준으로 2022년도 보통 수준에서 하락하였기 때문에 큰 개선 노력이 요구됨
-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특히 '장애인 특별한송수단 충족율' 은 분발 등급에 3년 동안 속하였기 때문에 개선의 노력이 필요함
-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양호한 수준이나, 이 영역 중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 은 2022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분발 등급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함

11. 충청북도

구 분	장애인 교육	장애인 복지	장애인 복지 세부영역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보건 및 자립 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복지행정 및 예산
전국평균	65.54	52.65	42.07	45.12	49.87	32.80	39.65
충북 점수	62.45	36.90	33.93	33.00	46.14	24.31	36.01
충북 수준	보통	분발	분발	분발	보통	분발	보통



2024년 충북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62.45점으로 보통 등급으로 나타나 2022년과 2023년의 양호 등급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장애인 복지 분야는 36.90점으로 분발 등급으로 나타나 2022년 분발 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분야 중에 우수 등급과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영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복지서비스 지원(46.14점), 복지행정 및 예산(36.01점) 영역은 평균 이하인 보통 등급이었다.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33.93점), 보건 및 자립지원(33.00점),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24.31점) 영역은 분발 등급으로 나타났다.

1) 교육 분야(영역) : 보통

(충북 62.45점/ 전국 평균 65.54점, 전국 최고 78.41점, 전국 최하 56.28점)

교육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충북	등급		
			2022	2023	2024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35,238 원	30,629 원	양호	보통	보통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3.75 %	3.27 %	양호	양호	보통
특수학급 설치율	5.02 %	6.71 %	우수	우수	우수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128.84 %	131.19 %	양호	양호	양호
특수교육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	전체보조인력 13.93 %	9.81 %	보통	보통	분발
	유급보조인력 10.23 %	8.77 %			
통합교육 학생비율	72.22 %	72.41 %	보통	보통	양호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 수	2.07 개	2.19 개	양호	양호	양호
장애인 교원 고용률	1.56 %	1.36 %	보통	보통	보통

2024년 충북 장애인 교육 분야는 보통 등급(62.45점)으로 2022년과 2023년의 양호 등급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특수학급 설치율로 나타났다.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통합교육 학생비율,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수로 나타났다.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장애인 교원 고용률로 나타났다. 분발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특수교육보조인력 배치율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통합교육 학생비율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 하락한 지표는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특수교육보조인력 배치율로 나타났다. 한편 분발 등급인 특수교육보조인력 배치율은 3년 동안 계속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나 상당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2)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 분발

(총복 33.93점/ 전국 평균 42.07점, 전국 최고 52.23점, 전국 최하 30.43점)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총복	등급		
			2022	2023	2024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3.80 %	3.62 %	보통	보통	보통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4.74 %	3.96 %	보통	분발	분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0.87 %	0.71 %	양호	보통	보통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149,979 원	107,734 원	분발	분발	보통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333,935 원	133,914 원	분발	양호	분발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	0.005 %	0.003 %	양호	보통	보통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	1,143,304 원	1,204,440 원	양호	양호	양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	6.88 %	6.89 %	양호	보통	양호

2024년 총복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은 분발 등급(33.93점)으로서, 2022년 보통 등급이었으며 2023년 분발 등급과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없었고,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로 나타났다.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로 나타났다. 분발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 향상된 지표는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 하락한 지표는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으로서 양호 등급에서 분발 등급으로 2단계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분발 등급 중 특히 장애인공무원 고용률은 3년 동안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 수준에 속하여 개선에의 큰 노력이 필요하다.

3)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 : 분발

(총복 33.00점/ 전국 평균 44.93점, 전국 최고 63.47점, 전국 최하 30.21점)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총복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136,280 원	48,712 원	분발	-	분발	
보조기기 지원 수준	보장구 의료급여 및 보조기구 교부 비율	5.99 %	4.63 %	분발	-	보통
	보장구 의료급여 및 보조기구 교부 예산	42,516 원	33,198 원			
일반건강검진 수검 비율	63.50 %	64.40 %	-	-	양호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여성장애인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비율	8.24 %	7.93 %	양호	-	보통
	여성장애인 1인당 출산 및 검진 지원비	994,938 원	321,429 원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활동지원서비스 실 인원 비율 6세 이상 65세 미만	21.73 %	15.68 %	보통	-	분발
	활동지원서비스 평균급여량 6세 이상 65세 미만	4,651,598 원	3,801,318 원			
	활동지원서비스 실 인원 비율 65세 이상	2.56 %	2.20 %			
	활동지원서비스 평균급여량 65세 이상	1,105,186.29 원	438,580 원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76,118 원	24,961 원	분발	-	분발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40,596 원	7,111 원	분발	-	분발	

2024년 총복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분발 등급(33.00점)으로 2022년 분발 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없었으며,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일반건강검진 수검 비율로 나타났다.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보조기기 지원 수준,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분발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으로 나타났다. 금년도에 조사된 보건 및 자립지원영역의 하위 7개 지표 중 총 6개 지표가 전국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2022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보조기기 지원수준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 비해 하락한 지표는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으로 나타났다. 분발 등급에 속하는 지표인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은 2022년도에도 보통, 분발 등급에 속했었기 때문에 개선을 위한 큰 노력이 필요하다.

4)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 보통

(충북 46.14점/ 전국 평균 49.87점, 전국 최고 81.06점, 전국 최하 34.95점)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충북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1.09 개소	1.24 개	우수	-	양호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13.47 개소	10.33 개	보통	-	보통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10.73 개소	8.96 개	분발	-	보통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3.73 개소	5.35 개	양호	-	양호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117.61 명	100.70 명	분발	-	보통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2.62 명	2.52 명	양호	-	보통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7.59 명	6.29 명	분발	-	분발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4.87 %	1.85 %	분발	-	분발

2024년 충북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보통 등급(46.14점)으로 2022년 보통 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없었으며,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으로 나타났다. 분발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로 나타났다. 금년도 조사된 8개 지표 중 총 6개 하위 지표가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 수준을 보였다.

2022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 비해 하락한 지표는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지표는 2022년과 2024년 모두 분발 수준으로 나타나 개선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5)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 : 분발

(총북 24.31점/ 전국 평균 32.80점, 전국 최고 80.50점, 전국 최하 20.61점)

이동(편의)·문화 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총북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293.40 %	118.44 %	분발	분발	분발
저상버스 확보수준	31.80 %	25.55 %	우수	보통	보통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 비율	85.06 %	76.84 %	-	분발	보통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617.27 %	425.91 %	-	분발	보통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	13,743 원	9,782 원	분발	분발	보통

2024년 총북 이동(편의)·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은 분발 등급(24.31점)으로서, 2022년 양호 등급이었으며 2023년 분발 등급과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과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없었으며,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저상버스 확보수준,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 비율,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으로 나타났다. 분발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 향상된 지표는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 비율,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 하락한 지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지표는 3년 연속 분발 등급에 속하고 있어 개선을 위한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

6)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 보통

(총복 36.01점/ 전국 평균 39.65점, 전국 최고 60.00점, 전국 최하 28.97점)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총복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복지 담당 장애인복지 전담 공무원	35.83 명	29.06 명	보통	-	보통
공무원 확보 수준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81.02 명	72.65 명	보통	-	보통
장애인 관련 위원회 개최 횟수	57.53 건	69 건	양호	-	보통
운영 현황 장애위원 수	30.43 명	28.00 명	보통	-	보통
기관별 장애관련 조례 수	12.45 건	9.58 건	분발	-	보통
장애인복지 예산 1인당장애인복지예산	6,825 천원	4,565 천원	분발	-	분발
확보 수준 장애인복지예산 확보수준	149.48 %	109.26 %	분발	-	분발
장애인복지예산 광역 지방비 비율	33.43 %	15.66 %	보통	-	양호
지방비 비율 기초 지방비 비율	21.48 %	39.82 %	보통	-	양호
장애인단체 지원 광역 예산	539,965 원	28,706 원	보통	-	보통
수준 기초 예산	89,943 원	100,457 원	보통	-	보통
여성장애인 관련 광역 예산	27,063 원	9,368 원	양호	-	양호
사업 예산 기초 예산	16,160 원	50,916 원	양호	-	양호

2024년 총복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보통 등급(36.01점)으로 2022년 보통 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없었고,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으로 나타났다.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기관별 장애관련 조례 수,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분발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으로 나타났다.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의 하위 7개 지표 중 5개 지표가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 수준이었다.

2022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기관별 장애관련 조례 수,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로 나타났다. 2022년에 비해 하락한 지표는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나타났다. 분발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은 2022년도에도 분발 수준이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를 위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7) 제언

■ 전반적 평가

- 2024년 충청북도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보통 등급이었고, 2022년과 2023년의 양호 등급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24년 장애인 복지 분야는 분발 등급으로, 2022년 분발 등급과 동일함
- 복지 분야 하위 영역 중 복지 분야 중에 우수와 양호 등급에 해당되는 영역은 없었고, ‘복지 서비스 지원’,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전국 평균 이하인 보통 등급에 속하였음.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보건 및 자립지원’,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 영역은 분발 등급에 속하였음

■ 충북의 강점 분야

- 충북 교육 영역 중 ‘특수학급 설치율’은 우수함
-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 중 우수 등급에 속하는 지표는 없었음
-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 중 우수 등급에 속하는 지표는 없었음
-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중 우수 등급에 속하는 지표는 없었음
-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 중 우수 등급과 양호 등급에 속하는 지표는 없었음
-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중 우수 등급에 속하는 지표는 없었음

■ 충북의 취약 분야

- 충북의 교육 분야는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 수준이고, 이 영역 중 ‘특수교육보조인력 배치율’ 지표는 취약한 수준임
-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은 전국 평균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분발 수준이고, 이 영역 중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지표는 취약한 수준임
-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전국 평균에 상당히 못미치는 분발 수준이고, 이 영역 중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수준은 매우 열악함
-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이 영역 중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지표는 취약한 수준임

-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은 전국 평균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분발 수준이고, 이 영역 중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이 매우 취약함
-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 수준이고, 이 영역 중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 은 매우 취약한 수준임

■ 향후 장애인 복지·교육 분야 발전을 위한 충청북도 우선 과제

- 충북 교육 분야는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 수준으로서, 특히 분발 등급에 속하는 ‘특수교육보조인력 배치율’ 은 3년 동안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 수준으로 상당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함
-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은 전국 평균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분발 수준이고, 분발 등급 중 특히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은 3년 동안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 수준에 속하여 개선에의 큰 노력이 필요함
-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전국 평균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분발 수준이고, 특히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은 2022년도에 이어 보통·분발 등급이므로 개선이 필요함
-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특히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지표는 2022년과 2024년 모두 분발 수준이어서 개선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함
-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은 전국 평균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분발 수준이고, 특히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은 3년 동안 분발 등급에 속하기 때문에 개선 노력이 필요함
-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특히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 은 2022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분발 수준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위한 큰 노력이 필요함

12. 충청남도

구 분	장애인 교육	장애인 복지	장애인 복지 세부영역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보건 및 자립 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복지행정 및 예산
전국평균	65.54	52.65	42.07	45.12	49.87	32.80	39.65
충남 점수	68.21	50.29	50.10	37.06	45.47	30.02	30.15
충남 수준	양호	보통	우수	분발	보통	보통	분발



2024년 충남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68.21점으로 양호 등급으로서, 2022년 우수 등급이었으며 2023년 양호 등급과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장애인 복지 분야는 50.29점으로 보통 등급으로 나타나 2022년 분발 등급에서 상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분야 중에 우수 등급에 해당되는 영역은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50.10점)으로 나타났으며, 양호 등급에 속하는 영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서비스 지원(45.47점),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30.02점)은 평균 이하인 보통 등급이었고, 보건 및 자립지원(37.06점), 복지행정 및 예산(30.15점)은 분발 등급으로 나타났다.

1) 교육 분야(영역) : 양호

(충남 68.21점/ 전국 평균 65.54점, 전국 최고 78.41점, 전국 최하 56.28점)

교육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충남	등급		
			2022	2023	2024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35,238 원	43,770 원	양호	양호	우수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3.75 %	4.37 %	양호	양호	우수
특수학급 설치율	5.02 %	6.59 %	우수	우수	우수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128.84 %	139.46 %	양호	우수	양호
특수교육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	전체보조인력 13.93 %	12.13 %	보통	보통	보통
	유급보조인력 10.23 %	10.64 %			
통합교육 학생비율	72.22 %	75.93 %	우수	양호	우수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 수	2.07 개	2.17 개	양호	양호	양호
장애인 교원 고용률	1.56 %	1.27 %	보통	보통	보통

2024년 충남 장애인 교육 분야는 양호 등급(68.21점)으로서, 2022년 우수 등급이었으며 2023년 양호 등급과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특수학급 설치율, 통합교육 학생비율로 나타났다.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 수로 나타났다.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특수교육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로 나타났다. 분발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도 조사된 하위 8개 지표 중 6개 지표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전년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통합교육 학생 비율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 하락한 지표는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로 나타났다.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특수학급 설치율, 통합교육 학생 비율은 3년 동안 양호와 우수 등급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특수교육보조인력 배치율과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3년 연속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 보통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 우수

(충남 50.10점/ 전국 평균 42.07점, 전국 최고 52.23점, 전국 최하 30.43점)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충남	등급		
			2022	2023	2024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3.80 %	3.55 %	보통	보통	보통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4.74 %	3.83 %	보통	보통	분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0.87 %	1.41 %	양호	우수	우수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149,979 원	201,433 원	양호	보통	양호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333,935 원	389,522 원	분발	양호	우수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	0.005 %	0.016 %	보통	우수	우수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	1,143,304 원	791,774 원	보통	보통	분발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	6.88 %	4.69 %	분발	분발	분발

2024년 충남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은 우수 등급(50.10점)으로서, 2022년 분발 등급에서 2023년 양호 등급으로 해마다 상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로 나타났다.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으로 나타났다.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로 나타났다. 분발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 향상된 지표는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 하락한 지표는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으로 나타났다. 분발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은 3년 동안 계속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 수준에 속하였기 때문에 개선에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3)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 : 분발

(충남 37.06점/ 전국 평균 44.93점, 전국 최고 63.47점, 전국 최하 30.21점)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충남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136,280 원	66,084 원	양호	-	분발	
보조기기 지원 수준	보장구 의료급여 및 보조기구 교부 비율	5.99 %	1.15 %	양호	-	분발
	보장구 의료급여 및 보조기구 교부 예산	42,516 원	6,564 원			
일반건강검진 수검 비율	63.50 %	62.66 %	-	-	보통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여성장애인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비율	8.24 %	12.76 %	보통	-	우수
	여성장애인 1인당 출산 및 검진 지원비	994,938 원	1,000,000 원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활동지원서비스 실 인원 비율 6세 이상 65세 미만	21.73 %	26.29 %	우수	-	우수
	활동지원서비스 평균급여량 6세 이상 65세 미만	4,651,598 원	4,081,847 원			
	활동지원서비스 실 인원 비율 65세 이상	2.56 %	4.54 %			
	활동지원서비스 평균급여량 65세 이상	1,105,186.29 원	705,393 원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76,118 원	33,930 원	양호	-	분발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40,596 원	11,262 원	양호	-	분발	

2024년 충남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분발 등급(37.06점)으로 2022년 양호 등급에서 2등급이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으로 나타났다.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일반건강검진 수검 비율로 나타났다. 분발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보조기기 지원 수준,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으로 나타났다. 금년도에 조사된 7개 지표 중 총 5개 지표가 전국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2022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 비해 하락한 지표는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보조기기 지원 수준,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으로 나타났다. 후자에 속하는 하락 지표들은 모두 양호 등급에서 분발 등급으로 하락한 것이므로 수준 회복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4)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 보통

(충남 45.47점/ 전국 평균 49.87점, 전국 최고 81.06점, 전국 최하 34.95점)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충남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1.09 개소	1.27 개	우수	-	양호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13.47 개소	6.86 개	분발	-	분발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10.73 개소	16.19 개	분발	-	우수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3.73 개소	1.49 개	분발	-	분발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117.61 명	82.01 명	보통	-	분발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2.62 명	2.42 명	양호	-	보통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7.59 명	7.17 명	보통	-	보통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4.87 %	3.24 %	분발	-	분발

2024년 충남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보통 등급(45.47점)으로 2022년 보통 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으로 나타났다.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으로 나타났다. 분발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로 나타났다.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의 하위 8개 지표 중 총 6개 하위 지표가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 수준을 보였다.

2022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으로 분발 등급에서 우수 등급으로 획기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 비해 하락한 지표는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으로 나타났다.

분발 등급에 속한 지표인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은 2022년에도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5)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 : 보통

(충남 30.02점/ 전국 평균 32.80점, 전국 최고 80.50점, 전국 최하 20.61점)

이동(편의)·문화 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충남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293.40 %	107.20 %	분발	분발	분발
저상버스 확보수준	31.80 %	16.77 %	분발	분발	분발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 비율	85.06 %	91.51 %	-	보통	양호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617.27 %	634.79 %	-	분발	양호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	13,743 원	19,409 원	양호	양호	양호

2024년 충남의 이동(편의)·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은 보통 등급(30.02점)으로 2022년과 2023년 분발 등급에서 상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 비율,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으로 나타났다.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없었으며, 분발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저상버스 확보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 향상된 지표는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 비율,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 하락한 지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발 등급에 속하는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저상버스 확보 수준은 3년 연속 분발 수준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상당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6)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 분발

(충남 30.15점/ 전국 평균 39.65점, 전국 최고 60.00점, 전국 최하 28.97점)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충남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복지 담당 장애인복지 전담 공무원 공무원 확보 수준	35.83 명	31.97 명	양호	-	보통
장애인 관련 위원회 개최 횟수 운영 현황	57.53 건	35 건	양호	-	분발
장애위원 수	30.43 명	25.49 명	양호	-	분발
기관별 장애관련 조례 수	12.45 건	6.38 건	양호	-	분발
장애인복지 예산 1인당장애인복지예산 확보 수준	6,825 천원	4,445 천원	분발	-	분발
장애인복지 예산 광역 지방비 비율 지방비 비율	33.43 %	20.53 %	양호	-	보통
장애인복지 예산 기초 지방비 비율	21.48 %	21.79 %	양호	-	보통
장애인단체 지원 광역 예산 수준	539,965 원	22,009 원	양호	-	보통
장애인단체 지원 기초 예산	89,943 원	143,927 원	양호	-	보통
여성장애인 관련 광역 예산 사업 예산	27,063 원	28,625 원	보통	-	보통
여성장애인 관련 기초 예산	16,160 원	3,236 원	보통	-	보통

2024년 충남의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분발 등급(30.15점)으로 2022년 보통 등급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과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으로 나타났다. 분발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기관별 장애관련 조례 수,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으로 나타났다.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의 하위 7개 지표 모두가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 수준을 보였다.

2022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 비해 하락한 지표는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기관별 장애관련 조례 수,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분발 등급에 속하는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기관별 장애관련 조례 수,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은 2022년도에도 분발 수준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7) 제언

■ 전반적 평가

- 2024년 충청남도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양호 등급이었고, 2022년 우수 등급이었으며 2023년 양호 등급과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남
- 2024년 장애인 복지 분야는 보통 등급으로, 2022년 분발 등급에서 상향한 것으로 나타남
- 복지 분야 하위 영역 중 복지 분야 중에 우수에 해당되는 영역은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이었으며, 양호 등급에 속하는 영역은 없었음. ‘복지서비스 지원’,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 영역은 전국 평균 이하인 보통 등급에 속하였음. ‘보건 및 자립지원’,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분발 등급에 속하였음

■ 충남의 강점 분야

- 충북 교육 영역은 타시도에 비해 양호한 수준으로, 이 영역 중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특수학급 설치율’, ‘통합교육 학생비율’은 우수함
-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은 최고 수준이며, 이 영역 중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비율’,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은 우수함
-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 중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은 우수함
-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중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은 우수함
-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 중 우수 등급에 속하는 지표는 없었음
-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중 우수 등급과 양호 등급에 속하는 지표는 없었음

■ 충남의 취약 분야

- 충남의 교육 분야는 양호한 수준이며, 이 영역 중 분발 등급 지표는 없었음
-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은 전국 최고의 수준이나, 이 영역 중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 지표는 취약한 수준임
-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전국 평균에 상당히 못미치는 분발 수준이고, 이 영역 중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보조기기 지원 수준’,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

원 예산’,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수준은 매우 열악함

-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이 영역 중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지표는 취약한 수준임
-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이 영역 중 ‘장애인 특별한송수단 충족율’ 이 매우 취약함
-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 수준이고, 이 영역 중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은 매우 취약한 수준임

■ 향후 장애인 복지·교육 분야 발전을 위한 충청남도 우선 과제

- 충남 교육 분야는 양호한 수준으로서, 분발 등급은 없으므로 보통 등급에 속하는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율’ 은 3년 동안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 수준으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함
-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은 전국 최고 수준이나, 특히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직업재활 시설 지원예산 수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 은 3년 동안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 수준에 속하여 개선에의 큰 노력이 필요함
-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전국 평균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분발 수준이고, 특히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보조기기 지원 수준,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은 2022년도 양호 등급에서 분발 등급으로 하락한 것이므로 회복을 위한 큰 노력이 필요함
-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특히 분발 등급인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지표는 2022년에도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개선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함
-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특히 ‘장애인 특별한송수단 충족율’, ‘저상버스 확보 수준’ 은 3년 동안 분발 등급에 속하였기 때문에 개선의 노력이 필요함
-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전국 평균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분발 수준이고, 특히 분발 등급 중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 은 2022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분발 수준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위한 큰 노력이 요구됨

13. 전북특별자치도

구 분	장애인 교육	장애인 복지	장애인 복지 세부영역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보건 및 자립 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복지행정 및 예산
전국평균	65.54	52.65	42.07	45.12	49.87	32.80	39.65
전북 점수	64.43	51.05	39.24	59.15	42.23	20.61	39.54
전북 수준	보통	보통	보통	우수	분발	분발	보통



2024년 전북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64.43점으로 보통 등급으로 나타났다. 2022년과 2023년에는 양호 등급이었는데, 이에 비해 하락한 것이다. 2024년 장애인복지 분야는 51.05점으로 보통 등급으로 나타나 2022년 분발 등급에 비해 상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분야 중에 우수 등급에는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59.15점)이 포함되었고, 양호 등급에 속하는 영역은 없었다. 반면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39.24점),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39.54점)은 보통 등급,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42.23점),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 영역(21.61점)은 분발 등급으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1) 교육 분야(영역) : 보통

(전북 64.43점/ 전국 평균 65.54점, 전국 최고 78.41점, 전국 최하 56.28점)

교육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전북	등급		
			2022	2023	2024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35,238 원	43,643 원	양호	양호	우수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3.75 %	3.80 %	양호	보통	양호
특수학급 설치율	5.02 %	4.70 %	보통	보통	보통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128.84 %	122.51 %	양호	우수	보통
특수교육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	전체보조인력 13.93 %	12.26 %	보통	보통	보통
	유급보조인력 10.23 %	9.69 %			
통합교육 학생비율	72.22 %	73.81 %	양호	양호	양호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 수	2.07 개	2.16 개	양호	보통	양호
장애인 교원 고용률	1.56 %	1.51 %	우수	양호	보통

2024년 전북 장애인 교육 분야는 보통 등급(64.34점)으로 2022년과 2023년의 양호 등급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영역의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지표가 속하였고, 양호등급에는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통합교육 학생비율,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수 지표가 포함되었다. 반면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특수학급 설치율,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율, 장애인 교원 고용률로 나타났다. 분발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없었다. 8개 지표 중 4개 지표는 전국 평균을 넘었고, 4개 지표는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교육 예산지원 비율,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수였고,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은 전년도에 비해 하락하였다.

특수학급 설치율,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율은 3년 연속 전국 평균 이하인 보통 등급에 속하였기 때문에 이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 보통

(전북 39.24점/ 전국 평균 42.07점, 전국 최고 52.23점, 전국 최하 30.43점)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전북	등급		
			2022	2023	2024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3.80 %	4.75 %	우수	우수	우수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4.74 %	4.00 %	보통	보통	분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0.87 %	0.76 %	분발	보통	보통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149,979 원	141,809 원	보통	보통	보통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333,935 원	375,309 원	양호	양호	양호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	0.005 %	0.002 %	분발	보통	분발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	1,143,304 원	671,653 원	분발	분발	분발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	6.88 %	4.32 %	분발	분발	분발

2024년 전북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은 보통 등급(39.24점)으로, 2022년 분발 등급에 비해서는 상향하였고, 2023년 보통 등급과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이었고, 양호 등급에는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지표가 속하였다. 반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지표는 보통 등급에 속하였고,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은 분발 등급에 속하였다. 즉 8개 지표 중 2개 지표만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고, 6개 지표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다.

2023년에 비해 향상된 지표는 없었으며,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은 3년 연속 분발등급에 속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 : 우수

(전북 59.15점/ 전국 평균 44.93점, 전국 최고 63.47점, 전국 최하 30.21점)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전북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136,280 원	343,916 원	보통	-	우수	
보조기기 지원 수준	보장구 의료급여 및 보조기구 교부 비율	5.99 %	6.84 %	양호	-	양호
	보장구 의료급여 및 보조기구 교부 예산	42,516 원	55,775 원			
일반건강검진 수검 비율	63.50 %	64.51 %	-	-	양호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여성장애인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비율	8.24 %	5.22 %	보통	-	분발
	여성장애인 1인당 출산 및 검진 지원비	994,938 원	1,224,444 원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활동지원서비스 실 인원 비율 6세 이상 65세 미만	21.73 %	18.37 %	분발	-	보통
	활동지원서비스 평균급여량 6세 이상 65세 미만	4,651,598 원	4,896,790 원			
	활동지원서비스 실 인원 비율 65세 이상	2.56 %	2.56 %			
	활동지원서비스 평균급여량 65세 이상	1,105,186.29 원	552,300 원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76,118 원	189,462 원	분발	-	우수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40,596 원	10,570 원	분발	-	분발	

2024년 전북의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우수 등급(45.12점)으로 나타났고, 2022년의 분발 등급에서 상당히 상승하였다. 2023년에는 이 영역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예산 지표가 속하였고, 양호 등급에 보조기기 지원수준, 일반건강검진 수검비율 지표가 속하였다. 반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보통 등급에는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지표가 속하였고, 분발 등급에는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지표가 속하였다. 이처럼 금년도에 조사한 보건 및 자립지원영역의 7개 지표 중 4개 지표만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고, 3개 지표는 전국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2022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이다. 반면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은 하락하였다. 지표 중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은 2022년과 2024년에 연속으로 분발 등급에 속하고 있어 개선이 상당히 필요하다.

4)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 분발

(전북 42.23점/ 전국 평균 49.87점, 전국 최고 81.06점, 전국 최하 34.95점)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전북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1.09 개소	1.08 개	보통	-	보통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13.47 개소	9.29 개	분발	-	분발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10.73 개소	10.98 개	보통	-	양호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3.73 개소	1.77 개	분발	-	분발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117.61 명	90.87 명	보통	-	보통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2.62 명	2.43 명	분발	-	보통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7.59 명	7.66 명	양호	-	양호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4.87 %	2.12 %	분발	-	분발

2024년 전북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분발 등급(42.23점)으로 나타났다. 2022년 분발 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2020년에도 분발 등급이어서 지속적으로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는 이 영역에 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없고, 양호 등급에는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이 속하였다. 반면 보통 등급에는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지표가 속하였고, 분발 등급에는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이 속하였다. 즉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의 8개 지표 중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지표는 2개, 전국 평균 이하인 지표는 6개가 속하여 매우 열악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2022년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이었고, 하락한 지표는 없었다. 다만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은 2022년에 이어 2024년에도 분발 등급에 속하여 상당한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하위 수준이기 때문에 개선을 위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5)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 : 분발

(전북 20.61점/ 전국 평균 32.80점, 전국 최고 80.50점, 전국 최하 20.61점)

이동(편의)·문화 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전북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293.40 %	112.00 %	분발	분발	분발
저상버스 확보수준	31.80 %	38.78 %	보통	보통	양호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 비율	85.06 %	45.83 %	-	양호	분발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617.27 %	90.52 %	-	양호	분발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	13,743 원	9,616 원	보통	분발	보통

2024년 전북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은 분발 등급(20.61점)으로 나타나, 2023년 보통 등급에서 하락하였다. 2022년에는 분발 등급이었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등급에 속하는 지표는 없었고, 양호 등급에는 저상버스 확보수준만 속하였다. 반면 평균 이하 등급인 보통 등급에는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 지표가 속하였고, 최하위 등급인 분발 등급에는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 비율,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지표가 속하였다. 이처럼 전국 평균 이상인 지표는 1개 지표뿐이었고, 나머지 4개 지표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다.

2023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저상버스 확보수준,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 수준 이었고, 하락한 지표는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 비율,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이었다. 특히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은 2022년, 2023년에 이어 연속으로 분발 등급에 속하고 있어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6)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 보통

(전북 39.54점/ 전국 평균 39.65점, 전국 최고 60.00점, 전국 최하 28.97점)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전북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복지 담당 장애인복지 전담 공무원 공무원 확보 수준	35.83 명	27.88 명	우수	-	양호
장애인 관련 위원회 개최 횟수 운영 현황	57.53 건	86 건	보통	-	보통
장애위원 수	30.43 명	21.58 명	보통	-	보통
기관별 장애관련 조례 수	12.45 건	10.87 건	보통	-	보통
장애인복지 예산 1인당장애인복지예산 확보 수준	6,825 천원	7,835 천원	양호	-	양호
장애인복지 예산 장애인복지예산 확보수준	149.48 %	175.27 %	양호	-	양호
장애인복지 예산 광역 지방비 비율 지방비 비율	33.43 %	40.90 %	양호	-	우수
장애인복지 예산 기초 지방비 비율	21.48 %	31.10 %	양호	-	우수
장애인단체 지원 광역 예산 수준	539,965 원	5,538 원	분발	-	분발
장애인단체 지원 기초 예산	89,943 원	69,138 원	분발	-	분발
여성장애인 관련 광역 예산 사업 예산	27,063 원	12,470 원	보통	-	보통
여성장애인 관련 기초 예산	16,160 원	11,874 원	보통	-	보통

2024년 전북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보통 등급(39.54점)으로 2022년 양호 등급에 비해 하락하였다. 2023년에는 이 영역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이었고, 양호 등급에는 장애인복지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 지표가 속하였다. 반면 보통 등급에는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현황, 기관별 장애관련 조례 수,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 지표가 속하였고, 분발 등급에는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이 속하였다.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의 7개 지표 중 3개 지표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고, 4개 지표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다. 특히 장애인 1인당 장애인단체 광역 단위 예산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다.

2022년에 비해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은 향상되었고,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은 하락하였다.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은 2022년과 2024년 모두 분발 등급으로 나타나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7) 제언

■ 전반적 평가

- 2024년 전북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보통 등급이었고, 2022년과 2023년의 양호 등급에 비해 하락하였음
- 2024년 장애인복지 분야는 보통 등급으로, 2022년 분발 등급에 비해 상향하였음
- 복지 분야 중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우수 등급에 속하였으나,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보통 등급에, ‘복지서비스 지원’,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 영역은 분발 등급에 속하여, 4개 영역은 전국 평균 이하 수준이었음

■ 전북의 강점 분야

- 교육 영역 중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은 우수함
- 복지 분야 중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타 시도에 비해 강점을 보임
-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 중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우수함
-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 중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 센터 등 지원예산’의 수준은 우수함
-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및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의 우수한 지표는 없음
-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중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은 우수함

■ 전북의 취약 분야

- 전북 교육 분야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보통 등급 수준으로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함.
-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 중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장애인자립자급 대여비율’,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 지표는 취약한 수준임.
-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 중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은 취약함.
-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분발 수준으로 취약하고, 특히 이 영역 중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은 취약한 수준임.
-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은 전국 평균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분발 수준으로 취

약하고, 특히 이 영역 중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 비율’,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이 상당히 취약함.

-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중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 은 매우 취약하고 2022년과 2024년 모두 분발 등급으로 나타나 취약함. 특히 광역 단위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은 전국 최하위임

■ 향후 장애인 복지교육 분야 발전을 위한 전북 우선 과제

- 전북 교육 분야는 전국 평균 이하 수준이기 때문에 노력이 필요함. 특히 특수학습 설치율,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율은 3년 연속 전국 평균 이하인 보통 등급에 속하였기 때문에 이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 중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 은 3년 연속 분발등급에 속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우수 등급이나,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은 2022년과 2024년에 연속으로 분발 등급에 속하고 있어 개선이 상당히 필요함
-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분발 수준으로 취약하고, 특히 이 영역 중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은 2022년에 이어 2024년에도 분발 등급에 속하여 상당한 개선 노력이 필요함
-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은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이 영역 중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 비율’,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특히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은 2022년, 2023년에 이어 연속으로 분발 등급에 속하고 있어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함
-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중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 은 2022년과 2024년 모두 분발 등급으로 나타나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함. 특히 광역 단위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은 전국 최하위이기 때문에 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

14. 전라남도

구 분	장애인 교육	장애인 복지	장애인 복지 세부영역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보건 및 자립 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복지행정 및 예산
전국평균	65.54	52.65	42.07	45.12	49.87	32.80	39.65
전남 점수	58.53	44.83	30.43	49.00	44.42	22.96	36.90
전남 수준	분발	보통	분발	양호	보통	분발	보통



2024년 전남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58.53점으로 분발 등급으로 나타났고, 이는 2023년과 동일하나, 2022년 양호 등급에 비해서는 하락하였다. 2024년 장애인복지 분야는 44.83점으로 보통 등급으로 나타나 2022년 분발 등급에 비해 상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분야 중 우수 등급에 속하는 영역은 없었고, 양호 등급에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49.00점)이 포함되었다. 반면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44.42점),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36.90점)은 보통 등급에 속하였고,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30.43점),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 영역(22.96점)은 분발 등급으로 나타나, 복지 분야 중 4영역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다.

1) 교육 분야(영역) : 분발

(전남 58.53점/ 전국 평균 65.54점, 전국 최고 78.41점, 전국 최하 56.28점)

교육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전남	등급		
			2022	2023	2024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35,238 원	30,587 원	양호	보통	보통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3.75 %	2.65 %	보통	분발	분발
특수학급 설치율	5.02 %	6.76 %	우수	우수	우수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128.84 %	158.24 %	우수	우수	양호
특수교육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	전체보조인력 13.93 %	12.78 %	보통	보통	보통
	유급보조인력 10.23 %	7.75 %			
통합교육 학생비율	72.22 %	72.39 %	양호	보통	보통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 수	2.07 개	2.35 개	양호	우수	우수
장애인 교원 고용률	1.56 %	1.03 %	분발	분발	분발

2024년 전북 장애인 교육 분야는 분발 등급(64.34점)으로 2023년의 분발 등급과 동일하다. 2022년에는 양호 등급이었기 때문에 2022년에 비하면 하락한 것이다.

교육 영역의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특수학급 설치율,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 수 지표가 포함되었고, 양호 등급에는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이 속하였다. 반면 보통 등급에는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율, 통합교육 학생비율이 포함되었고, 분발 등급에는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장애인 교원 고용률 지표가 속하였다. 즉 8개 지표 중 3개 지표는 전국 평균을 넘었고, 5개 지표는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없었고,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은 우수 등급에서 양호 등급으로 하락하였다.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은 2년 연속 분발 등급에 속하였고,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3년 연속 분발 등급에 속하였기 때문에 이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 분발

(전남 30.43점/ 전국 평균 42.07점, 전국 최고 52.23점, 전국 최하 30.43점)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전남	등급		
			2022	2023	2024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3.80 %	3.46 %	보통	보통	분발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4.74 %	3.45 %	보통	보통	분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0.87 %	0.42 %	분발	분발	분발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149,979 원	138,148 원	양호	양호	보통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333,935 원	336,660 원	보통	보통	양호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	0.005 %	0.002 %	보통	분발	분발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	1,143,304 원	580,169 원	분발	분발	분발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	6.88 %	3.55 %	분발	분발	분발

2024년 전남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은 분발 등급(30.43점)으로, 2022년, 2023년 분발 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3년 연속 분발 등급에 속하였고, 특히 올해는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없었고, 양호 등급에는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지표가 속하였다. 반면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지표는 보통 등급에,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은 분발 등급에 속하였다. 즉 8개 지표 중 1개 지표만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고, 7개 지표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다.

2023년에 비해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지표만 향상되었고,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지표는 하락하였다. 특히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은 3년 연속 분발등급에 속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 : 양호

(전남 49.00점/ 전국 평균 44.93점, 전국 최고 63.47점, 전국 최하 30.21점)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전남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136,280 원	303,913 원	분발	-	우수	
보조기기 지원 수준	보장구 의료급여 및 보조기구 교부 비율	5.99 %	8.40 %	분발	-	우수
	보장구 의료급여 및 보조기구 교부 예산	42,516 원	73,270 원			
일반건강검진 수검 비율	63.50 %	63.72 %	-	-	양호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여성장애인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비율	8.24 %	6.39 %	보통	-	보통
	여성장애인 1인당 출산 및 검진 지원비	994,938 원	853,659 원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활동지원서비스 실 인원 비율 6세 이상 65세 미만	21.73 %	21.27 %	양호	-	보통
	활동지원서비스 평균급여량 6세 이상 65세 미만	4,651,598 원	3,984,351 원			
	활동지원서비스 실 인원 비율 65세 이상	2.56 %	2.41 %			
	활동지원서비스 평균급여량 65세 이상	1,105,186.29 원	464,076 원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76,118 원	24,698 원	양호	-	분발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40,596 원	16,713 원	분발	-	분발	

2024년 전남의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양호 등급(49.00점)으로 나타났고, 2022년의 보통 등급에서 상승하였다. 2023년에는 이 영역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보조기기 지원수준이 속하였고, 양호 등급에는 일반건강검진 수검비율 지표가 속하였다. 보통 등급에는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지표가 속하였고, 분발 등급에는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예산,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지표가 속하였다. 이처럼 금년도에 조사한 보건 및 자립지원영역의 7개 지표 중 3개 지표만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고, 4개 지표는 전국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2022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보조기기 지원수준이었고, 하락한 지표는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이었다.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은 2022년과 2024년에 연속으로 분발 등급에 속하고 있어 개선이 상당히 필요하다.

4)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 보통

(전남 44.42점/ 전국 평균 49.87점, 전국 최고 81.06점, 전국 최하 34.95점)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전남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1.09 개소	1.32 개	우수	-	양호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13.47 개소	7.12 개	분발	-	분발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10.73 개소	12.24 개	양호	-	양호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3.73 개소	1.83 개	분발	-	분발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117.61 명	87.64 명	보통	-	보통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2.62 명	2.50 명	보통	-	보통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7.59 명	6.74 명	보통	-	분발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4.87 %	3.99 %	보통	-	보통

2024년 전남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보통 등급(44.42점)으로 나타났다. 2022년 보통 등급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다. 2023년에는 이 영역에 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없고, 양호 등급에는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지표가 속하였다. 반면 보통 등급에는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이 속하였고, 분발 등급에는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이 속하였다. 즉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의 8개 지표 중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지표는 2개 뿐이었고, 전국 평균 이하인 지표는 6개가 속하여 열악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2022년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없었으며,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은 하락하였다.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은 2022년과 2024년에 연속으로 분발 등급에 속하기 때문에 이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5)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 : 분발

(전남 22.96점/ 전국 평균 32.80점, 전국 최고 80.50점, 전국 최하 20.61점)

이동(편의)·문화 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전남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293.40 %	112.86 %	보통	보통	분발
저상버스 확보수준	31.80 %	22.22 %	분발	보통	분발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 비율	85.06 %	100.00 %	-	우수	우수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617.27 %	360.96 %	-	분발	보통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	13,743 원	9,933 원	양호	보통	보통

2024년 전남의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은 분발 등급(22.96점)으로 나타나, 2023년 양호 등급에서 상당한 수준 하락하였다. 2022년에는 분발 등급이었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는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 비율 지표가 속하였고, 양호 등급에 속하는 지표는 없었다. 반면 평균 이하 등급인 보통 등급에는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 지표가 속하였고, 최하위 등급인 분발 등급에는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저상버스 확보수준 지표가 속하였다. 이처럼 5개 지표 중 전국 평균 이상인 지표는 1개 지표뿐이었고, 나머지 4개 지표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다.

2023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이었고,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저상버스 확보수준은 하락하였다.

6)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 보통

(전남 36.90점/ 전국 평균 39.65점, 전국 최고 60.00점, 전국 최하 28.97점)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전남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복지 담당 장애인복지 전담 공무원 공무원 확보 수준	35.83 명	34.11 명	우수	-	양호
장애인 관련 위원회 개최 횟수 운영 현황	57.53 건	1 건	양호	-	분발
장애위원 수	30.43 명	32.00 명			
기관별 장애관련 조례 수	12.45 건	10.57 건	보통	-	양호
장애인복지 예산 1인당장애인복지예산 확보 수준	6,825 천원	5,066 천원	분발	-	분발
장애인복지 예산 장애인복지예산 확보수준	149.48 %	88.42 %			
장애인복지 예산 광역 지방비 비율	33.43 %	20.73 %			
장애인복지 예산 기초 지방비 비율	21.48 %	25.73 %	보통	-	보통
장애인단체 지원 광역 예산 수준	539,965 원	68,103 원	양호	-	보통
장애인단체 지원 기초 예산	89,943 원	121,408 원			
여성장애인 관련 광역 예산 사업 예산	27,063 원	26,150 원	우수	-	양호
여성장애인 관련 기초 예산	16,160 원	34,052 원			

2024년 전남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보통 등급(36.90점)으로 2022년 양호 등급에 비해 하락하였다. 2023년에는 이 영역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없었고, 양호 등급에는 장애인복지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기관별 장애관련 조례 수,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 지표가 속하였다. 반면 보통 등급에는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이 속하였고, 분발 등급에는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현황,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 지표가 속하였다. 즉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의 7개 지표 중 3개 지표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고, 4개 지표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다. 특히 장애인 관련 위원회 개최 횟수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다.

2022년에 비해 기관별 장애관련 조례 수는 향상되었고, 장애인복지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현황,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 수준은 하락하였다.

특히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은 2022년과 2024년 모두 분발 등급으로 나타나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7) 제언

■ 전반적 평가

- 2024년 전남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2023년에 이어 연속적으로 분발 등급으로 나타났음
- 장애인복지 분야는 보통 등급으로, 2022년 분발 등급에 비해 상향하였음
- 복지 분야 중 우수 등급에 속하는 영역은 없었고, 양호 등급에 보건의료 및 자립지원 영역이 포함되었음. 반면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 영역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음. 특히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음

■ 전남의 강점 분야

- 교육 영역 중 ‘특수학습 설치율’,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수’는 우수함
-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 중 우수한 지표는 없음
-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 중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보조기기 지원수준’은 우수함
-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중 우수한 지표는 없음
-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 중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 비율’은 우수함
-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중 우수한 지표는 없음

■ 전남의 취약 분야

- 전남 교육 분야는 전국 평균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분발 등급 수준으로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함. 특히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상당히 취약함
- 전남 복지 분야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보통 등급 수준으로 취약함
-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은 분발 등급이고, 이 영역 중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은 취약한 수준임
-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 중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예산’,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은 취약함.
-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중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

충 수준',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은 취약한 수준임.

-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은 전국 평균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분발 수준으로 취약하고, 특히 이 영역 중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저상버스 확보수준' 이 상당히 취약함.
-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중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현황',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 은 취약함

■ 향후 장애인 복지·교육 분야 발전을 위한 전남 우선 과제

- 전남 교육 분야는 전국 평균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분발 등급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함. 특히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은 2년 연속 분발 등급에 속하였고, '장애인 교원 고용률' 은 3년 연속 분발 등급에 속하였기 때문에 이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 중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장애인자립자급 대여비율',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 은 3년 연속 분발등급에 속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양호 등급이나,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은 2022년과 2024년에 연속으로 분발 등급에 속하고 있어 상당한 개선이 필요함
-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중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은 2022년과 2024년에 연속으로 분발 등급에 속하기 때문에 이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 중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중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 은 2022년과 2024년 모두 분발 등급으로 나타나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함

15. 경상북도

구 분	장애인 교육	장애인 복지	장애인 복지 세부영역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보건 및 자립 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복지행정 및 예산
전국평균	65.54	52.65	42.07	45.12	49.87	32.80	39.65
경북 점수	58.40	46.37	35.45	36.38	40.26	23.78	42.12
경북 수준	분발	보통	분발	분발	분발	분발	양호



2024년 경북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58.40점으로 분발 등급으로 나타났다. 2022년과 2023년의 분발 등급과 동일하다. 2024년 장애인복지 분야는 46.37점으로 보통 등급으로 나타나 2022년 분발 등급에 비해 상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분야 중에 우수 등급에 속하는 영역은 없었고, 양호 등급에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42.12점)이 속하였다. 반면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35.45점),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36.38점),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40.26점),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 영역(23.78점)은 모두 분발 등급에 속하였다. 즉 5개 복지 영역 중 4개 영역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1) 교육 분야(영역) : 분발

(경북 58.40점/ 전국 평균 65.54점, 전국 최고 78.41점, 전국 최하 56.28점)

교육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경북	등급		
			2022	2023	2024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35,238 원	35,383 원	분발	보통	양호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3.75 %	3.47 %	분발	보통	보통
특수학급 설치율	5.02 %	5.12 %	양호	양호	양호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128.84 %	117.15 %	분발	보통	보통
특수교육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	전체보조인력 13.93 %	14.02 %	양호	보통	보통
	유급보조인력 10.23 %	8.62 %			
통합교육 학생비율	72.22 %	73.95 %	양호	양호	양호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 수	2.07 개	2.11 개	양호	보통	양호
장애인 교원 고용률	1.56 %	0.98 %	분발	분발	분발

2024년 경북 장애인 교육 분야는 분발 등급(58.40점)으로 2022년과 2023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교육 영역의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속하는 지표는 없고, 양호 등급에는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학급 설치율, 통합교육 학생비율,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 수 지표가 포함되었다. 반면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율이었고, 분발 등급에는 장애인 교원 고용률이 속하였다. 즉 8개 지표 중 4개 지표는 전국 평균을 넘었고, 4개 지표는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수였고, 하락한 지표는 없었다.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3년 연속 분발 등급에 속하였고, 특히 2024년 조사에서는 전국 최하위였기 때문에 이의 개선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2)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 분발

(경북 35.45점/ 전국 평균 42.07점, 전국 최고 52.23점, 전국 최하 30.43점)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경북	등급		
			2022	2023	2024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3.80 %	3.77 %	보통	양호	보통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4.74 %	5.12 %	분발	양호	양호
장애인생산물품 우선구매 비율	0.87 %	0.46 %	우수	분발	분발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149,979 원	75,071 원	양호	보통	분발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333,935 원	299,096 원	양호	보통	보통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	0.005 %	0.002 %	보통	보통	분발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	1,143,304 원	1,182,493 원	보통	보통	양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	6.88 %	5.99 %	보통	보통	보통

2024년 경북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은 분발 등급(35.45점)으로, 2022년과 2023년의 보통 등급에 비해 하락하였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없고, 양호 등급에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이 속하였다. 반면 전국 평균 이하인 보통 등급에는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이 포함되었고, 분발 등급에는 장애인생산물품 우선구매 비율,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이 속하였다. 즉 8개 지표 중 2개 지표만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고, 6개 지표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다.

2023년에 비해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은 향상되었고,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생산물품 우선구매 비율은 2년 연속 분발 등급에 포함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 : 분발

(경북 36.38점/ 전국 평균 44.93점, 전국 최고 63.47점, 전국 최하 30.21점)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경북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136,280 원	114,639 원	분발	-	보통	
보조기기 지원 수준	보장구 의료급여 및 보조기구 교부 비율	5.99 %	6.92 %	분발	-	양호
	보장구 의료급여 및 보조기구 교부 예산	42,516 원	45,672 원			
일반건강검진 수검 비율	63.50 %	60.46 %	-	-	분발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여성장애인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비율	8.24 %	10.90 %	보통	-	양호
	여성장애인 1인당 출산 및 검진 지원비	994,938 원	747,059 원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활동지원서비스 실 인원 비율 6세 이상 65세 미만	21.73 %	13.70 %	보통	-	분발
	활동지원서비스 평균급여량 6세 이상 65세 미만	4,651,598 원	2,945,795 원			
	활동지원서비스 실 인원 비율 65세 이상	2.56 %	1.58 %			
	활동지원서비스 평균급여량 65세 이상	1,105,186.29 원	1,666,267 원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76,118 원	3,639 원	분발	-	분발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40,596 원	409 원	분발	-	분발	

2024년 경북의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2022년에 이어 연속으로 분발 등급(36.38점)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는 이 영역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속하는 지표는 없고, 양호 등급에 보조기기 지원 수준,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지표가 포함되었다. 반면 보통 등급에는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이 포함되었고, 분발 등급에는 일반건강검진 수검 비율,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예산,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지표가 속하였다. 이처럼 금년도에 조사한 보건 및 자립지원영역의 7개 지표 중 2개 지표만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고, 5개 지표는 전국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4개 지표가 분발 등급에 포함되었다.

2022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보조기기 지원 수준,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이었고,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은 하락하였다.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은 2022년과 2024년에 연속으로 분발 등급에 속하고 있어 개선이 상당히 필요하다.

4)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 분발

(경북 40.26점/ 전국 평균 49.87점, 전국 최고 81.06점, 전국 최하 34.95점)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경북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1.09 개소	1.18 개	양호	-	양호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13.47 개소	11.12 개	보통	-	보통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10.73 개소	7.40 개	분발	-	분발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3.73 개소	1.68 개	분발	-	분발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117.61 명	70.31 명	분발	-	분발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2.62 명	2.33 명	보통	-	보통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7.59 명	7.55 명	양호	-	보통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4.87 %	2.60 %	분발	-	분발

2024년 전북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분발 등급(40.26점)으로 나타났다. 2022년 분발 등급과 동일하다. 2023년에는 이 영역에 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없고, 양호 등급에는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지표가 속하였다. 반면 보통 등급에는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이 속하였고, 분발 등급에는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지역사회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이 속하였다. 즉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의 8개 지표 중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지표는 1개 뿐이고, 전국 평균 이하인 지표가 7개로, 특히 분발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가 4개로 매우 열악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2022년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없었고,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지표는 양호 등급에서 보통 등급으로 하락하였다.

분발 등급에 속한 4개 지표, 즉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지역사회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지표는 모두 2022년에 이어 2024년에도 분발 등급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의 개선을 위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 : 분발

(경북 23.78점/ 전국 평균 32.80점, 전국 최고 80.50점, 전국 최하 20.61점)

이동(편의)·문화 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경북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293.40 %	99.32 %	분발	분발	분발
저상버스 확보수준	31.80 %	17.49 %	분발	분발	분발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 비율	85.06 %	86.61 %	-	보통	양호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617.27 %	388.97 %	-	분발	보통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	13,743 원	15,753 원	양호	양호	양호

2024년 경북의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은 분발 등급(23.78점)으로 나타나, 2023년 보통 등급에서 하락하였다. 2022년에는 분발 등급이었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등급에 속하는 지표는 없었고, 양호 등급에는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 비율,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 지표가 속하였다. 반면 평균 이하 등급인 보통 등급에는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지표가 속하였고, 최하위 등급인 분발 등급에는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저상버스 확보수준 지표가 포함되었다. 이처럼 전국 평균 이상인 지표는 2개 지표이고, 나머지 3개 지표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다.

2023년에 비해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 비율,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은 향상되었고, 하락한 지표는 없다.

특히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저상버스 확보수준은 2022년, 2023년에 이어 3년 연속으로 분발 등급에 속하고 있어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6)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 양호

(경북 42.12점/ 전국 평균 39.65점, 전국 최고 60.00점, 전국 최하 28.97점)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경북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복지 담당 장애인복지 전담 공무원 공무원 확보 수준	35.83 명 81.02 명	29.07 명 149.97 명	양호	-	양호
장애인 관련 위원회 개최 횟수 운영 현황	57.53 건 30.43 명	127 건 20.15 명	보통	-	양호
기관별 장애인관련 조례 수	12.45 건	7.61 건	보통	-	분발
장애인복지 예산 1인당장애인복지예산 확보 수준	6,825 천원 149.48 %	4,790 천원 97.05 %	분발	-	분발
장애인복지예산 광역 지방비 비율 지방비 비율	33.43 % 21.48 %	19.88 % 31.98 %	보통	-	양호
장애인단체 지원 광역 예산 수준	539,965 원 89,943 원	59,637 원 375,272 원	양호	-	우수
여성장애인 관련 광역 예산 사업 예산	27,063 원 16,160 원	9,141 원 29,882 원	우수	-	양호

2024년 경북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양호 등급(42.12점)으로 2022년 양호 등급과 동일하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는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 지표가 속하였다. 특히 장애인단체 지원 중 기초단체 예산액은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 양호 등급에는 장애인복지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현황,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이 포함되었다. 반면 하위 등급인 분발 등급에는 기관별 장애인관련 조례 수,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 지표가 포함되었다.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의 7개 지표 중 5개 지표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고, 2개 지표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다. 특히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중 장애위원 수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다.

2022년에 비해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현황,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은 향상되었고, 기관별 장애인관련 조례 수,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 수준은 하락하였다.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은 2022년과 2024년 모두 분발 등급으로 나타나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7) 제언

■ 전반적 평가

- 2024년 경북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분발 등급이었고, 2022년과 2023년의 분발 등급과 동일함
- 2024년 장애인복지 분야는 보통 등급으로, 2022년 분발 등급에 비해 상향하였음
- 복지 분야 중 우수 등급에 속하는 영역은 없었고, 양호 등급에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이 속함. 반면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 영역은 모두 분발 등급에 속함

■ 경북의 강점 분야

- 교육 영역 중 우수한 지표는 없음
- 복지 분야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 중 우수한 지표는 없음
-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중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은 우수함. 특히 기초단체의 지원 예산액은 전국 최고 수준임

■ 경북의 취약 분야

- 경북 교육 분야는 전국 평균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분발 등급으로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함
- 교육 영역 중 장애인 교원 고용률이 취약함
- 복지 분야도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보통 등급임. 복지 행정 및 예산 영역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여 보통 등급이 되었으나, 나머지 4 영역은 모두 분발 등급으로 상당히 취약함
-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은 분발 수준으로 취약하고, 특히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 지표는 취약한 수준임
-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분발 수준이고, 이 영역 중 ‘일반건강검진 수검 비율’,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예산’,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수준은 상당히 취약함
-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분발 수준으로 취약하고, 특히 이 영역 중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 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지역 사회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은 취약한 수준임

-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은 전국 평균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분발 수준으로 취약하고, 특히 이 영역 중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저상버스 확보수준’ 이 상당히 취약함
-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중 ‘기관별 장애인 관련 조례 수’,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 은 취약한 수준이고, 특히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중 장애위원 수는 전국 최하위 수준임

■ 향후 장애인 복지·교육 분야 발전을 위한 경북 우선 과제

- 경북 교육 분야는 전국 평균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분발 등급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함. 특히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3년 연속 분발 등급에 속하였고, 특히 2024년 조사에서는 전국 최하위였기 때문에 이의 개선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함
-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 중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은 2년 연속 분발 등급에 포함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보건의료 및 자립지원 영역 중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은 2022년과 2024년에 연속으로 분발 등급에 속하고 있어 개선이 상당히 필요함
-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분발 수준으로 취약하고, 특히 분발 등급에 속한 4개 지표, 즉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지역사회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지표는 모두 2022년에 이어 2024년에도 분발 등급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의 개선을 위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함
-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은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이 영역 중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저상버스 확보수준’ 은 2022년, 2023년에 이어 3년 연속으로 분발 등급에 속하고 있어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함
-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중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은 2022년과 2024년 모두 분발 등급으로 나타나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함

16. 경상남도

구 분	장애인 교육	장애인 복지	장애인 복지 세부영역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보건 및 자립 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복지행정 및 예산
전국평균	65.54	52.65	42.07	45.12	49.87	32.80	39.65
경남 점수	67.28	45.91	38.93	36.63	42.15	29.11	34.05
경남 수준	양호	보통	보통	분발	분발	보통	분발



2024년 경남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67.28점으로 양호 등급으로 나타났다. 2023년의 양호 등급과 동일하고 2022년의 보통 등급에 비해서는 향상되었다. 장애인복지 분야는 45.91점으로 보통 등급으로 나타나 2022년 양호 등급에 비해 하락하였다.

복지 분야 중 우수 등급과 양호 등급에 포함된 영역은 없었고,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38.93점),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 영역(29.11점)은 보통 등급에 속하였고,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36.63점),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42.15점),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34.05점)은 분발 등급에 속하여, 복지 분야의 5개 영역은 모두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 교육 분야(영역) : 양호

(경남 67.28점/ 전국 평균 65.54점, 전국 최고 78.41점, 전국 최하 56.28점)

교육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경남	등급		
			2022	2023	2024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35,238 원	40,017 원	보통	보통	양호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3.75 %	4.31 %	보통	양호	우수
특수학급 설치율	5.02 %	5.49 %	양호	양호	양호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128.84 %	129.46 %	보통	보통	양호
특수교육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	전체보조인력 13.93 %	11.89 %	분발	보통	보통
	유급보조인력 10.23 %	8.14 %			
통합교육 학생비율	72.22 %	75.16 %	우수	우수	양호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 수	2.07 개	2.19 개	양호	보통	양호
장애인 교원 고용률	1.56 %	1.62 %	양호	양호	양호

2024년 경남 장애인 교육 분야는 양호 등급(67.28점)으로 2023년 양호 등급과 동일하다.

교육 영역의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지표가 속하였고, 양호 등급에는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학급 설치율,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통합교육 학생비율,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수, 장애인 교원 고용률 지표가 포함되었다. 반면 보통 등급에는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율 지표가 속하였고, 분발 등급에 속하는 지표는 없었다. 8개 지표 중 7개 지표는 전국 평균을 넘었고, 1개 지표만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고, 특히 최하위 등급인 분발 등급에 속하는 지표가 없었다.

2023년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교육 예산지원 비율,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수였고, 통합교육 학생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하락하였다.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율 지표는 2023년에 이어 연속적으로 전국 평균 이하인 보통 등급에 속하기 때문에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2)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 보통

(경남 38.93점/ 전국 평균 42.07점, 전국 최고 52.23점, 전국 최하 30.43점)

소득 및 경제활동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경남	등급		
			2022	2023	2024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3.80 %	3.73 %	보통	보통	보통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4.74 %	3.91 %	양호	보통	분발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비율	0.87 %	0.59 %	보통	분발	분발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149,979 원	176,178 원	양호	보통	양호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333,935 원	330,104 원	양호	보통	보통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	0.005 %	0.008 %	분발	양호	양호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	1,143,304 원	905,853 원	분발	보통	보통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	6.88 %	5.85 %	보통	보통	보통

2024년 경북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은 보통 등급(38.93점)으로, 2022년과 2023년의 보통 등급과 동일한 수준이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없고, 양호 등급에는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 지표가 포함되었다. 반면 보통 등급에는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 지표가 속하였고, 분발 등급에는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비율 지표가 속하였다. 8개 지표 중 2개 지표만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고, 6개 지표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다.

2023년에 비해 향상된 지표는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이었고, 하락한 지표는 장애인공무원 고용률이었다.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비율은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분발 등급에 속하기 때문에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3)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 : 분발

(경남 36.63점/ 전국 평균 44.93점, 전국 최고 63.47점, 전국 최하 30.21점)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경남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136,280 원	78,772 원	분발	-	분발	
보조기기 지원 수준	보장구 의료급여 및 보조기구 교부 비율	5.99 %	4.99 %	우수	-	보통
	보장구 의료급여 및 보조기구 교부 예산	42,516 원	38,759 원			
일반건강검진 수검 비율	63.50 %	62.89 %	-	-	보통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여성장애인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비율	8.24 %	8.55 %	우수	-	양호
	여성장애인 1인당 출산 및 검진 지원비	994,938 원	1,020,408 원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활동지원서비스 실 인원 비율 6세 이상 65세 미만	21.73 %	22.14 %	양호	-	보통
	활동지원서비스 평균급여량 6세 이상 65세 미만	4,651,598 원	4,163,292 원			
	활동지원서비스 실 인원 비율 65세 이상	2.56 %	2.19 %			
	활동지원서비스 평균급여량 65세 이상	1,105,186.29 원	411,513 원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76,118 원	27,238 원	분발	-	분발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40,596 원	895 원	분발	-	분발	

2024년 경남의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분발 등급(36.63점)으로 나타났고, 2022년의 양호 등급에서 상당히 하락하였다. 2021년의 분발 등급으로 다시 되돌아간 것이다. 2023년에는 이 영역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속하는 지표는 없고, 양호 등급에는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지표가 포함되었다. 반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보통 등급에는 보조기기 지원수준, 일반건강검진 수검비율,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지표가 속하였고, 하위 수준인 분발 등급에는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예산,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지표가 속하였다. 이처럼 금년도에 조사한 보건 및 자립지원영역의 7개 지표 중 1개 지표만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고, 나머지 6개 지표는 전국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2022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없고, 보조기기 지원수준,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은 하락하였다.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예산,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지표는 2022년과 2024년 모두 분발 등급이기 때문에 적극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4)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 분발

(경남 42.15점/ 전국 평균 49.87점, 전국 최고 81.06점, 전국 최하 34.95점)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경남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1.09 개소	0.95 개	양호	-	보통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13.47 개소	13.43 개	보통	-	보통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10.73 개소	7.36 개	분발	-	분발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3.73 개소	3.39 개	보통	-	보통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117.61 명	55.45 명	분발	-	분발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2.62 명	2.48 명	양호	-	보통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7.59 명	7.56 명	양호	-	보통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4.87 %	3.31 %	분발	-	분발

2024년 경남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분발 등급(42.15점)으로 나타났다. 2022년 보통 등급에 비해 하락한 수준이다. 2023년에는 이 영역에 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우수 등급과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없다. 반면 보통 등급에는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이 속하였다. 분발 등급에는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이 속하였다.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의 8개 지표 중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지표는 하나도 없었고, 8개 지표는 모두 전국 평균 이하 수준으로 매우 열악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2022년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없었고,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은 하락하였다.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은 2022년에 이어 2024년에도 분발 등급에 속하여 상당한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은 전국 최하위이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5)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 : 보통

(경남 29.11점/ 전국 평균 32.80점, 전국 최고 80.50점, 전국 최하 20.61점)

이동(편의)·문화 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경남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293.40 %	119.48 %	분발	분발	분발
저상버스 확보수준	31.80 %	32.97 %	양호	보통	양호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 비율	85.06 %	100.00 %	-	보통	우수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617.27 %	564.14 %	-	분발	보통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	13,743 원	7,418 원	보통	보통	분발

2024년 경남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은 보통 등급(29.11점)으로 나타나, 2023년 보분발 등급에 비해 향상되었다. 2022년에는 양호 등급이었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는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 비율 지표가 속하였고, 양호 등급에는 저상버스 확보수준이 속하였다. 반면 평균 이하 등급인 보통 등급에는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지표가 속하였고, 최하위 등급인 분발 등급에는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 지표가 속하였다. 이처럼 전국 평균 이상인 지표는 2개였고, 나머지 3개 지표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다.

2023년에 비해 저상버스 확보수준,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 비율,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지표는 등급이 상승하였고,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 수준은 하락하였다.

특히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은 2022년, 2023년에 이어 연속으로 분발 등급에 속하고 있어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6)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 분발

(경남 34.05점/ 전국 평균 39.65점, 전국 최고 60.00점, 전국 최하 28.97점)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경남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복지 담당	장애인복지 전담 공무원	공무원 확보 수준	35.83 명	31.51 명	보통	-	보통
장애인 관련 위원회	개최 횟수	운영 현황	57.53 건	79 건	우수	-	양호
기관별 장애인 관련 조례 수	장애위원 수		30.43 명	28.52 명	보통	-	분발
장애인복지 예산	1인당장애인복지예산	확보 수준	6,825 천원	4,740 천원	우수	-	보통
장애인복지 예산	광역 지방비 비율	지방비 비율	149.48 %	143.56 %	분발	-	양호
장애인단체 지원	광역 예산	수준	33.43 %	18.54 %	보통	-	보통
여성장애인 관련	광역 예산	사업 예산	89,943 원	95,105 원	분발	-	보통
	기초 예산		27,063 원	20,565 원			
	기초 예산		16,160 원	13,414 원			

2024년 경남의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분발 등급(34.05점)으로 2022년 양호 등급에 비해 상당히 하락하였다. 2023년에는 이 영역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없고, 양호 등급에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현황,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이 포함되었다. 반면 보통 등급에는 장애인복지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 지표가 속하였고, 분발 등급에는 기관별 장애인 관련 조례 수 지표가 속하였다.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의 7개 지표 중 2개 지표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고, 5개 지표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다.

2022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 지표였고, 하락한 지표는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현황, 기관별 장애인 관련 조례 수,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이었다.

기관별 장애인 관련 조례수는 2022년에도 전국 평균 이하인 보통 등급이었으나, 2024년 조사에서는 분발 등급으로 하락하였기 때문에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7) 제언

■ 전반적 평가

- 2024년 경남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양호 등급으로 2023년의 양호 등급과 동일함
- 2024년 장애인복지 분야는 보통 등급으로, 2022년 양호 등급에 비해 하락하였음
- 복지 분야 중 우수 등급과 양호 등급에 포함된 영역은 없었고,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 영역은 보통 등급에 속하였고,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분발 등급에 속하여, 복지 분야의 5개 영역은 모두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음

■ 경남의 강점 분야

- 경남 교육 분야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이고, 교육 영역 중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은 우수함
- 복지 분야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중 우수한 지표는 없음
-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 중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 비율’은 우수함

■ 경남의 취약 분야

- 경남 교육 영역 중 분발 등급에 속하는 지표는 없음
-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 중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지표는 취약함
-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분발 수준으로 취약하고, 특히 이 영역 중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예산’,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지표는 상당히 취약함
-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분발 수준으로 취약하고, 특히 이 영역 중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 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은 취약한 수준임
-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 중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 수준은 취약함
-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분발 수준으로 취약하고, 특히 이 영역 중 ‘기관별 장애관련 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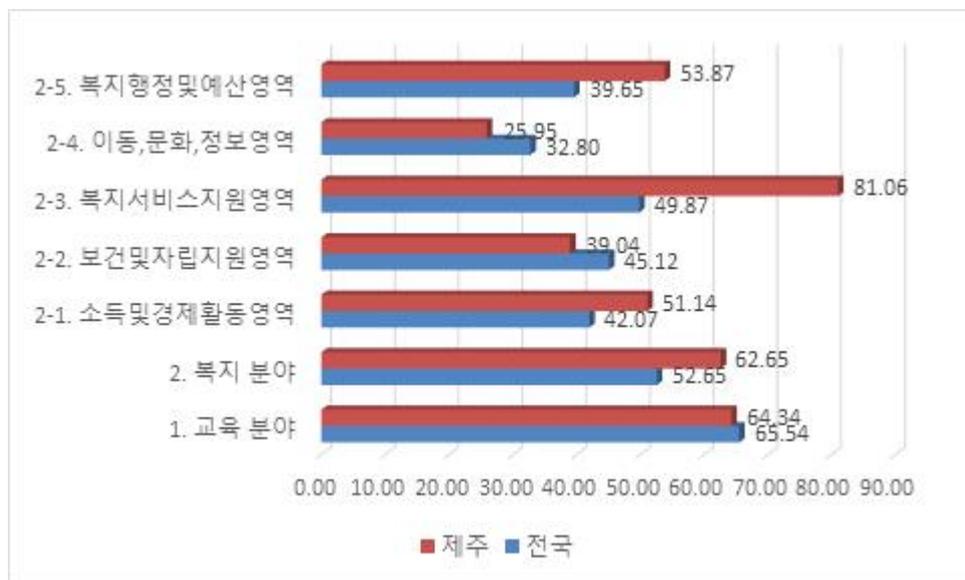
수' 수준은 취약함

■ 향후 장애인 복지·교육 분야 발전을 위한 경남 우선 과제

- 경남 교육 분야는 전국 평균 이상이기는 하지만 지속적 노력이 필요함. 특히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율 지표는 2023년에 이어 연속적으로 전국 평균 이하인 보통 등급에 속하기 때문에 개선 노력이 필요함
-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 중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은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분발 등급에 속하기 때문에 개선 노력이 필요함
-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분발 등급으로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이 영역 중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예산',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지표는 2022년과 2024년 모두 분발 등급이기 때문에 적극적 개선 노력이 필요함
-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이 영역 중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은 2022년에 이어 2024년에도 분발 등급에 속하여 상당한 개선 노력이 필요함. 특히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은 전국 최하위이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
-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 중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은 2022년, 2023년에 이어 연속으로 분발 등급에 속하고 있어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함
-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특히 '기관별 장애관련 조례수' 는 2022년에도 전국 평균 이하인 보통 등급이었으나, 2024년 조사에서는 분발 등급으로 하락하였기 때문에 개선 노력이 필요함

17. 제주특별자치도

구 분	장애인 교육	장애인 복지	장애인 복지 세부영역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보건 및 자립 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복지행정 및 예산
전국평균	65.54	52.65	42.07	45.12	49.87	32.80	39.65
제주 점수	64.34	62.65	51.14	39.04	81.06	25.95	53.87
제주 수준	보통	우수	우수	보통	우수	분발	우수



2024년 제주도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64.34점으로 보통 등급으로 나타나 2022년과 2023년의 분발 등급에서 상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장애인 복지 분야는 62.65점으로 우수 등급으로 나타나 2022년 우수 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분야 중에 우수 등급에 해당되는 영역은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51.14점), 복지서비스 지원(81.06점), 복지행정 및 예산(53.87점)으로 나타났다.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39.04점으로 평균 이하인 보통 등급이었고,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 영역은 25.95점으로 분발 등급으로 나타났다.

1) 교육 분야(영역) : 보통

(제주 64.34점/ 전국 평균 65.54점, 전국 최고 78.41점, 전국 최하 56.28점)

교육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제주	등급		
			2022	2023	2024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35,238 원	32,020 원	분발	분발	보통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3.75 %	4.12 %	분발	보통	우수
특수학급 설치율	5.02 %	4.50 %	보통	분발	보통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128.84 %	99.90 %	분발	분발	분발
특수교육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	전체보조인력 13.93 %	12.41 %	보통	분발	보통
	유급보조인력 10.23 %	10.39 %			
통합교육 학생비율	72.22 %	69.34 %	보통	보통	보통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 수	2.07 개	1.74 개	분발	분발	분발
장애인 교원 고용률	1.56 %	1.41 %	양호	양호	보통

2024년 제주도 장애인 교육 분야는 보통등급(64.34점)으로 2022년과 2023년의 분발등급에서 상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영역의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우수등급에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지표가 속하였고,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없었다. 보통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학급 설치율,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율, 통합교육 학생비율, 장애인 교원 고용률로 나타났다. 분발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수로 나타났다. 8개 지표 중 1개 지표만 전국 평균을 넘었고, 7개 지표는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특수학급 설치율,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율이었고, 장애인 교원 고용율은 전년도에 비해 하락하였다.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수 지표는 3년 연속 분발등급에 속하였기 때문에 특수교사 법정 정원을 충원하고,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학급을 확보하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2)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 우수

(제주 51.14점/ 전국 평균 42.07점, 전국 최고 52.23점, 전국 최하 30.43점)

소득 및 경제활동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제주	등급		
			2022	2023	2024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3.80 %	3.97 %	양호	양호	양호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4.74 %	4.55 %	분발	양호	보통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비율	0.87 %	1.13 %	우수	분발	양호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149,979 원	448,061 원	보통	우수	우수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333,935 원	442,737 원	보통	우수	우수
장애인자립자급 대여비율	0.005 %	0 %	분발	분발	분발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	1,143,304 원	2,682,088 원	우수	우수	우수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	6.88 %	10.17 %	양호	양호	양호

2024년 제주도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은 우수등급(51.14점)으로, 2022년, 2023년 우수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으로 나타났다. 양호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비율,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로 나타났다. 보통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공무원 고용률로 나타났다. 분발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자립자급 대여비율로 나타났다.

2023년에 비해 향상된 지표는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비율로 나타났다. 2023년에 비해 하락한 지표는 장애인공무원 고용률로 나타났다.

장애인자립자급 대여비율은 3년 연속 분발등급에 속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 : 보통

(제주 39.04점/ 전국 평균 44.93점, 전국 최고 63.47점, 전국 최하 30.21점)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제주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136,280 원	91,343 원	양호	-	분발	
보조기기 지원 수준	보장구 의료급여 및 보조기구 교부 비율	5.99 %	6.78 %	양호	-	양호
	보장구 의료급여 및 보조기구 교부 예산	42,516 원	44,829 원			
일반건강검진 수검 비율	63.50 %	58.55 %	-	-	분발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여성장애인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비율	8.24 %	5.00 %	분발	-	분발
	여성장애인 1인당 출산 및 검진 지원비	994,938 원	500,000 원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활동지원서비스 실 인원 비율 6세 이상 65세 미만	21.73 %	19.07 %	우수	-	양호
	활동지원서비스 평균급여량 6세 이상 65세 미만	4,651,598 원	3,792,124 원			
	활동지원서비스 실 인원 비율 65세 이상	2.56 %	3.00 %			
	활동지원서비스 평균급여량 65세 이상	1,105,186.29 원	626,458 원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76,118 원	63,640 원	양호	-	보통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40,596 원	11,963 원	분발	-	분발	

2024년 제주도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보통등급(39.04점)으로 나타났고, 2022년의 양호등급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는 이 영역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없고, 양호등급에는 보조기기 지원 수준,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지표가 속하였다. 전국 평균 이하에 해당하는 보통등급에는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지표가 속하였고, 분발등급에는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일반건강검진 수검비율,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지표가 속하였다. 이처럼 금년도에 조사한 보건 및 자립지원영역의 7개 지표 중 2개 지표만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고, 5개 지표는 전국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2022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없고,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하락하였다. 특히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은 2022년과 2024년에 연속으로 분발 등급에 속하고 있어 개선이 상당히 필요하다.

4)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 우수

(제주 81.06점/ 전국 평균 49.87점, 전국 최고 81.06점, 전국 최하 34.95점)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제주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1.09 개소	1.63 개	우수	-	우수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13.47 개소	13.98 개	보통	-	양호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10.73 개소	17.61 개	우수	-	양호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3.73 개소	7.04 개	우수	-	우수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117.61 명	225.36 명	우수	-	우수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2.62 명	3.90 명	우수	-	우수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7.59 명	8.54 명	우수	-	양호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4.87 %	17.02 %	우수	-	우수

2024년 제주도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전국 최고 수준인 우수등급(81.06점)으로 나타났다. 2022년 우수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는 이 영역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로 나타났다. 양호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이었다. 전국 평균 이하인 보통등급과 분발등급에 속하는 지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의 8개 지표 모두에서 전국 평균에 비해 우수한 수준을 보였다.

2022년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이었고, 하락한 지표는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이었다.

제주도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전국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노력을 계속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5)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 : 분발

(제주 25.95점/ 전국 평균 32.80점, 전국 최고 80.50점, 전국 최하 20.61점)

이동(편의)·문화 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제주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293.40 %	366.18 %	양호	양호	양호
저상버스 확보수준	31.80 %	19.66 %	분발	보통	분발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 비율	85.06 %	100.00 %	-	우수	우수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617.27 %	115.26 %	-	분발	분발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	13,743 원	22,684 원	우수	우수	양호

2024년 제주도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은 분발등급(25.95점)으로 나타나, 2022년과 2023년의 우수등급에 비해 상당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등급에는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 비율 지표가 속하였다. 양호 등급에는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 지표가 속하였다. 반면 저상버스 확보수준,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은 분발등급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 비해 저상버스 확보수준,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 수준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은 2023년에 이어 연속으로 분발등급에 속하고 있어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6)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 양호

(제주 53.87점/ 전국 평균 39.65점, 전국 최고 60.00점, 전국 최하 28.97점)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제주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장애인복지 전담 공무원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35.83 명	34.23 명	보통	-	분발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개최 횟수	장애위원 수	57.53 건	2 건	보통	-	분발
기관별 장애인 관련 조례 수			12.45 건	30.00 건	양호	-	우수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	1인당장애인복지예산	장애인복지예산 확보수준	6,825 천원	11,893 천원	우수	-	양호
장애인복지 예산 지방비 비율	광역 지방비 비율	기초 지방비 비율	33.43 %	45.59 %	우수	-	우수
	기초 지방비 비율		21.48 %	39.79 %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	광역 예산	기초 예산	539,965 원	1,017,658 원	양호	-	양호
	기초 예산		89,943 원	95,634 원			
여성장애인 사업 예산	광역 예산	기초 예산	27,063 원	46,621.91 원	양호	-	양호
	기초 예산		16,160 원	12,437 원			

2024년 제주도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양호등급(53.87점)으로 2022년 양호등급과 동일하였다. 2023년에는 이 영역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기관별 장애인 관련 조례 수,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이었다. 양호등급에는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 지표가 속하였다. 전국 하위 수준인 분발 등급에는 장애인복지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현황이 속하였다.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의 7개 지표 중 5개 지표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2022년에 비해 기관별 장애인 관련 조례 수는 향상되었고, 장애인복지 담당공무원 확보 수준,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현황,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은 하락하였다.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은 2022년과 2024년 모두 우수 등급으로 잘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제언

■ 전반적 평가

- 2024년 제주도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보통 등급이었고, 2022년과 2023년의 분발 등급에서 상향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24년 장애인 복지 분야는 우수 등급으로, 2022년 우수 등급과 동일함
- 복지 분야 하위 영역 중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우수 등급에 속하였고,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전국 평균 이하인 보통 등급에,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 영역은 분발 등급에 속하였음

■ 제주도의 강점 분야

- 제주도 장애인 복지 분야는 타 시도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 복지 분야 중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타 시도에 비해 강점을 보임. 특히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전국 최고 수준임
- 교육 영역 중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은 우수함
-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은 타 시도에 비해 우수한 수준이고, 이 영역 중 ‘1인당 장애아동 수당 지급액’,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은 우수함
-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 중 우수 등급에 속하는 지표는 없음
-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전국 최고 수준이고, 이 영역 중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지표는 우수함
-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 중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 비율’ 지표는 우수함
-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중 ‘기관별 장애관련 조례 수’,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은 우수함

■ 제주도의 취약 분야

- 제주도 교육 분야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함. 특히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수’는 3년 연속 분발

수준으로 타 시도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 중 ‘장애인자립자급 대여비율’ 지표는 취약한 수준임
-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이 영역 중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일반건강검진 수검비율’,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수준은 상당히 열악함
-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은 전국 평균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분발 수준으로 취약하고, 특히 이 영역 중 ‘저상버스 확보수준’,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이 취약함
-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중 ‘장애인복지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은 매우 취약한 수준임

■ 향후 장애인 복지·교육 분야 발전을 위한 제주도 우선 과제

- 제주도 교육 분야는 지속적으로 전국 평균 이하 수준이기 때문에 지속적 관리가 필요함. 특히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수’ 는 3년 연속 분발 수준이기 때문에 획기적인 노력이 필요함
-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은 우수한 수준이나, 이 영역 중 ‘장애인자립자급 대여비율’ 지표는 3년 연속 분발등급에 속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은 2022년과 2024년에 연속으로 분발 등급에 속하고 있어 개선이 상당히 필요함
-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은 2022년과 2023년의 우수 등급에 비해 상당히 하락한 분발 등급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함. 특히 이 영역 중 ‘저상버스 확보수준’,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중 ‘장애인복지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IV. 재정자립도와

교육·복지 수준 분석

1. 재정자립도와 장애인 교육 수준 비교 분석
2. 재정자립도와 장애인 복지 수준 비교 분석

우리나라에서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1995년 7월 1일부터 시작하였다. 이후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 의해 지방 재정의 절대적 규모가 증가하였으나, 지역 간 격차 및 지방 재정의 불안정성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박종훈, 2023).

지방 재정의 취약성은 복지 등 지자체 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에 따라 이번 연구에서 나타났듯 장애인 복지와 교육 수준의 시도별 격차는 상당히 발생하고 있다. 또 일부 시도에서는 지방 재정의 취약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장애인 복지 수준을 향상시킬 수 없다는 푸념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장에서는 지방 재정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인 재정자립도와 이번 조사결과 도출된 장애인 교육 수준 및 복지 수준 간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1. 재정자립도와 장애인 교육 수준 비교 분석

1) 재정자립도

지방자치단체 체제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재정 운용의 자율성이 필요하다(박종훈, 2023). 지방재정 구조는 중앙정부와 동일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3가지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일반회계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활용되는 예산으로 자체수입(지방세, 세외수입 등)과 이전수입(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그 외 지방채로 구성된다(지방재정 365).

안정적인 재정 확보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가 재정자립도이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체 세입 중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지자체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 능력을 의미한다(이현정, 2022).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재정 운영의 자립 능력이 우수함을 의미한다(지방재정365).

2023년도 기준 재정자립도 자료는 정부 공식 홈페이지인 지방재정365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세입 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개편 후 세입 항목에 따라 재정자립도를 측정하였고, 일반회계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산정공식은 ‘(자체수입÷자치단체 예산규모)×100(%)’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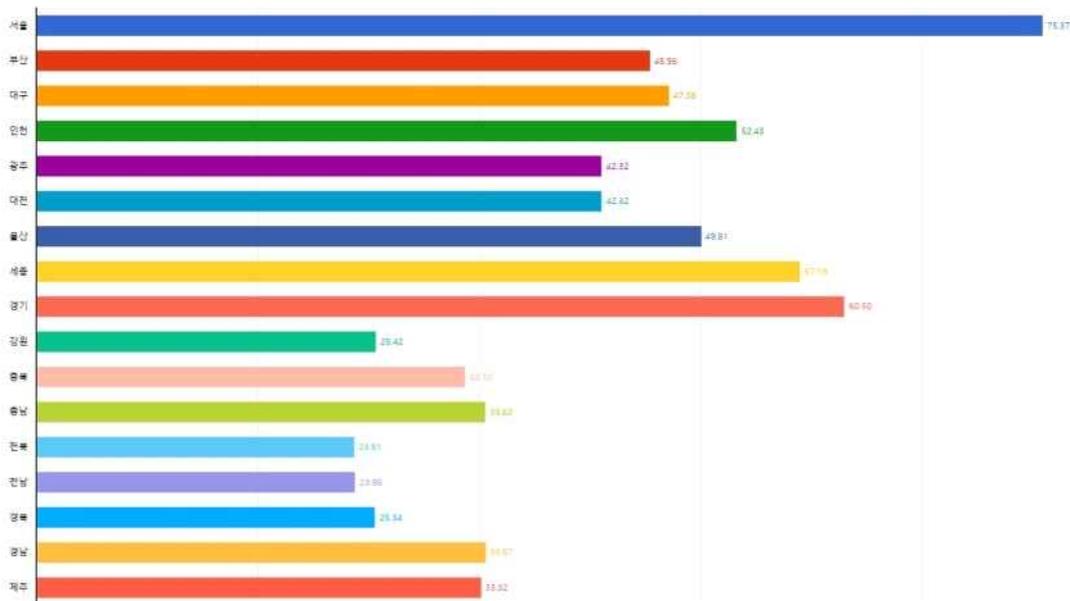
2023년 기준 재정자립도를 보면 서울이 75.37%로 가장 높고, 전북이 23.81%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국 평균은 41.44%였다. 각 시도별 재정자립도는 다음 표 및 그림과 같다.

<표 IV-1> 시도별 2023년도 재정자립도

(단위: 백만 원, %)

지자체명	자체수입	자치단체 예산규모	재정자립도[당초]
	(A)	(B)	(A/Bx100)
서울	28,109,042	37,295,807	75.37
부산	6,428,474	13,986,964	45.96
대구	4,652,562	9,819,280	47.38
인천	6,293,888	12,004,354	52.43
광주	2,701,468	6,384,170	42.32
대전	2,581,849	6,100,662	42.32
울산	2,441,307	4,900,924	49.81
세종	883,224	1,544,390	57.19
경기	29,532,058	48,815,410	60.5
강원	3,508,253	13,800,589	25.42
충북	3,501,249	10,908,665	32.1
충남	5,091,913	15,144,521	33.62
전북	3,557,095	14,937,227	23.81
전남	4,353,120	18,241,581	23.86
경북	5,609,136	22,134,769	25.34
경남	6,897,482	20,487,951	33.67
제주	1,906,733	5,723,047	33.32

출처: 지방재정365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그림 IV-1] 시도별 2023년도 재정자립도

출처: 지방재정365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2) 시도별 장애인 교육 수준(2024년 조사, 앞 2장 참조)

2023년 말 기준으로 측정한 장애인 교육 분야 종합 수준의 평균 점수는 65.54점이었고, 세종이 78.41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경기가 56.28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최고 수준과 최하 수준과의 격차 수준(78.41점/56.28점)이 1.39배로 지역 간 격차는 크지 않았다.

지역 간 격차를 구분하기 위해 점수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였다. 전국 평균과 최고 수준과의 1/2 지점을 기점으로 하여 1/2 이상을 우수 등급으로 1/2 이하를 양호 등급으로 구분하였다. 또 전국 평균과 최하 수준과의 1/2 지점을 기점으로 하여 1/2 이상을 보통 등급으로 1/2 이하를 분발 등급으로 구분하였다. 즉 수준에 따라 4개 등급으로 구분하였다. 측정 결과 우수 등급에는 대전, 세종 2개 지역이 포함되었고, 양호 등급에는 서울, 대구, 광주, 울산, 충남, 경남 6개 지역이, 보통 등급에는 부산, 강원, 충북, 전북, 제주 5개 지역이, 분발 등급에는 인천, 경기, 전남, 경북 4개 지역이 포함되었다.

<표 IV-2> 2023년 기준 시도별 장애인 교육 수준 점수

(단위: 점)

지자체명	2024년 조사결과 2023년 기준 장애인 교육 수준	등급
서울	71.08	양호
부산	62.70	보통
대구	65.78	양호
인천	60.34	분발
광주	66.33	양호
대전	76.41	우수
울산	71.80	양호
세종	78.41	우수
경기	56.28	분발
강원	61.42	보통
충북	62.45	보통
충남	68.21	양호
전북	64.43	보통
전남	58.53	분발
경북	58.40	분발
경남	67.28	양호
제주	64.34	보통

출처: 보고서 2장

3) 상관관계 분석

재정자립도와 시도별 장애인 교육 수준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피어슨 상관계수는 0.370으로 나왔고, 유의 확률은 0.144였다. 재정자립도와 시도별 장애인 교육 수준 간에는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도별 장애인 교육 수준은 재정자립도와 상관없이 다른 요인에 의해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유형 비교

(1) 연구 방법 - 퍼지셋 이상형 분석(Fuzzy-set Ideal Type Analysis)

재정자립도와 시도별 장애인 교육 수준 간 상관성이 낮기 때문에 재정자립도와 시도별 장애인 교육 수준을 지표로 하여 유형 분석을 함으로써 각 시도의 현재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시도별 비교를 위한 17개 사례 수와 같이, 한정된 사례에 대하여 다양성과 변화를 보고자 하는 경우 퍼지셋 이상형 분석이 적절하다(이동석, 2018). 또 이 분석 방법의 특징 중 하나인 부분적인 소속 점수를 활용하면, 한 사례가 속하는 이상형과 그 정도를 파악할 수 있고, 동시에 다른 이상형에 속하는 정도도 파악할 수 있음에 따라 사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최영준, 2009). 이에 따라 시도별 재정자립도와 장애인 교육 수준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사용하였다.

(2) 이론적 모형

퍼지셋 이상형 분석의 첫 단계로 이론적이며 실질적인 지식을 사용하여 특성 공간의 구축을 위한 이념형의 속성들을 밝혀야 한다(남궁은, 2019; Kvist, 2007). 이 연구에서는 시도별 재정자립도와 장애인 교육 수준을 비교 분석할 목적이기 때문에, 재정자립도와 장애인 교육 수준과 같은 2개의 지표를 사용하고, 4개의 이념형을 도출하였다.

재정비례 교육 증진형은 재정자립도가 평균 이상이면서 장애인 교육 수준도 높은 유형이다. 교육 추구형은 재정자립도는 낮지만 장애인 교육 수준이 높은 유형이다. 교육 축소형은 재정자립도는 높지만 장애인 교육 수준은 낮은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재정의존 교육 감퇴형은 재정자립도가 낮으면서 장애인 교육 수준도 낮은 유형이다.

〈표 IV-3〉 재정자립도와 장애인 교육 수준에 관한 이론적 모형

구분	유형
재정자립도가 높고, 장애인 교육 수준이 높음	재정비례 교육 증진형
재정자립도가 높고, 장애인 교육 수준이 낮음	교육 축소형
재정자립도가 낮고, 장애인 교육 수준이 높음	교육 추구형
재정자립도가 낮고, 장애인 교육 수준이 낮음	재정의존 교육 감퇴형

(3) 분석 결과

앞선 이상형 구축을 위한 지표 설정 이후, 퍼지셋 이상형 분석 절차(최영준, 2009; Kvist, 2007)에 따라, 지표의 실증점수를 측정하고, 각 사례들의 특성 공간에 대한 퍼지소속점수를 계산(calibration)하고, 각 사례들이 각 이상형에서 가지는 소속 점수를 계산하였다. 이후 대표유형을 결정하고, 유형별 차이점 및 유형 내에서의 차이점 등 다양한 해석을 하였다(최영준, 2009).

우선 2개 지표의 실증점수는 〈표 IV-1〉과 〈표 IV-2〉를 활용하였다. 이를 퍼지소속점수로 계산(calibration)하였다. 그 결과는 〈표 IV-4〉와 같다.

〈표 IV-4〉 2개 지표의 실증점수와 퍼지소속점수

지자체명	실증점수		퍼지소속점수	
	재정자립도	장애인 교육 수준	재정자립도	장애인 교육 수준
서울	75.37	71.08	0.95	0.78
부산	45.96	62.70	0.60	0.28
대구	47.38	65.78	0.63	0.51
인천	52.43	60.34	0.73	0.16
광주	42.32	66.33	0.52	0.55
대전	42.32	76.41	0.52	0.93
울산	49.81	71.80	0.68	0.81
세종	57.19	78.41	0.80	0.95
경기	60.5	56.28	0.84	0.05
강원	25.42	61.42	0.06	0.21
충북	32.1	62.45	0.17	0.27
충남	33.62	68.21	0.21	0.65
전북	23.81	64.43	0.05	0.41
전남	23.86	58.53	0.05	0.09
경북	25.34	58.40	0.06	0.09
경남	33.67	67.28	0.21	0.60
제주	33.32	64.34	0.20	0.40

영역별 퍼지소속점수를 바탕으로 퍼지 교집합기능과 부정의 원리를 사용하여(이동석, 2018), 시도별로 각 유형에 속하는 퍼지소속점수를 계산하였다. 이 중 최대값을 갖는 유형이 실제를 가장 잘 반영하는 대표유형(kind)이고, 최대값의 퍼지소속점수는 그 유형에 속하는 정도(degree)가 된다(이동석, 2018). 이에 따라 시·도별 대표유형과 소속 정도를 파악하게 되었다.

<표 IV-5> 시·도의 유형별 소속 점수 및 대표유형

	재정비례 교육 증진형	교육 축소형	교육 추구형	재정의존 교육 감퇴형	대표유형
서울	0.78	0.22	0.05	0.05	재정비례 교육 증진형
부산	0.28	0.60	0.28	0.40	교육 축소형
대구	0.51	0.49	0.47	0.47	재정비례 교육 증진형
인천	0.16	0.73	0.16	0.27	교육 축소형
광주	0.52	0.45	0.48	0.45	재정비례 교육 증진형
대전	0.52	0.07	0.48	0.07	재정비례 교육 증진형
울산	0.68	0.19	0.32	0.19	재정비례 교육 증진형
세종	0.80	0.05	0.20	0.05	재정비례 교육 증진형
경기	0.05	0.84	0.05	0.16	교육 축소형
강원	0.06	0.06	0.21	0.79	재정의존 교육 감퇴형
충북	0.17	0.17	0.27	0.73	재정의존 교육 감퇴형
충남	0.21	0.21	0.65	0.35	교육 추구형
전북	0.05	0.05	0.41	0.59	재정의존 교육 감퇴형
전남	0.05	0.05	0.09	0.91	재정의존 교육 감퇴형
경북	0.06	0.06	0.09	0.91	재정의존 교육 감퇴형
경남	0.21	0.21	0.60	0.40	교육 추구형
제주	0.20	0.20	0.40	0.60	재정의존 교육 감퇴형

첫째, 재정자립도가 높고 장애인 교육 수준도 높은 재정비례 교육 증진형에는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과 같은 6개 시도가 포함되었다. 모두 광역시라는 특징이 있다. 같은 유형임에도 시도별 차이가 존재한다. 서울과 세종은 재정비례 교육 증진형에 속하는 정도가 각각 0.78과 0.80으로 높은 수준이다. 즉 전형적인 재정비례 교육 증진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대구와 광주는 재정자립도가 높아 장애인 교육 수준이 높은 재정비례 교육 증진형에 속하기는 했지만 속하는 정도가 각각 0.51과 0.52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오히려 다른 세 영역에 속하는 정도도 비슷하다. 즉 4유형에 속하는 정도가 비슷한 것으로, 재정자립도와 장애인 교육 수준 모두 전국 평균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재정자립도에 맞춰 장애인 교육 수준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구와 광주는 재정자립도 또는 장애인 교육 수준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다른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장애인 교육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전,

울산은 재정자립도가 높고 장애인 교육 수준이 높으면서도 교육 추구형, 즉 재정자립도에 비해 장애인 교육 수준을 더 높인 유형에 속하는 정도도 높았다. 대전, 울산은 재정자립도에 비해 지자체에서 장애인 교육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재정자립도가 높지만 장애인 교육 수준은 전국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교육 축소형에는 부산, 인천, 경기와 같은 3개 지역이 속하였다. 인천과 경기는 교육 축소형에 속하는 정도가 높아 재정자립도에 비해 장애인 교육을 위한 노력이 현저히 적은 유형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경우 대표유형은 교육 축소형(0.60)이지만 재정의존 교육 감퇴형에 속하는 정도(0.40)도 높아 재정자립도가 조금 더 나빠지면 재정의존 교육 감퇴형에 속할 가능성도 높다. 이에 따라 부산은 재정자립도를 높이면서 장애인 교육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여야 하고, 인천과 경기는 현재 재정자립도에도 못 따라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장애인 교육 수준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재정자립도는 낮지만 장애인 교육 수준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교육 추구형에는 충남과 경남 2개 지역이 속하였다. 충남, 경남 모두 대표유형은 교육 추구형이었지만 장애인 교육 수준이 조금 더 떨어질 경우 재정의존 교육 감퇴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재정자립도를 높이면서 장애인 교육 수준을 더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재정자립도가 낮아 장애인 교육 수준도 낮은 재정의존 교육 감퇴형에는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제주와 같은 6개 지역이 속하였다. 모두 도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강원(0.79), 충북(0.73), 전남(0.91), 경북(0.91)은 전형적으로 재정자립도도 낮으면서 장애인 교육 수준도 낮은 지역이다. 반면 전북과 제주는 재정의존 교육 감퇴형에 속하는 정도가 각각 0.59와 0.60이면서 교육 추구형에 속하는 정도가 각각 0.41과 0.40으로, 재정자립도에 비해 장애인 교육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재정자립도 증가와 장애인 교육 수준 증진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4유형을 다시 재유형화하면 6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서울과 세종은 재정자립도가 높으면서 이에 맞춰 장애인 교육 수준이 높은 유형이다. 둘째, 대구와 광주를 재정자립도가 중간 수준이면서 이에 맞춰 장애인 교육 수준도 중간 정도인 유형으로 재정자립도에 맞춰 장애인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한 유형이다. 셋째, 부산은 재정자립도는 높지만 장애인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유형이다. 넷째, 인천, 경기도 재정자립도는 높지만 장애인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유형이기는 하지만 재정자립도에 비해 교육 수준이 현격히 낮기 때문에 높은 재정자립도에 비해 장애인 교육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현저히 부족한 유형으로 재구분할 수 있다. 다섯째, 대전, 울산, 충남, 경남, 전북, 제주는 재정자립도에 비해 장애인 교육 수준을 높이고자 더 노력한 유형이다. 이 유형은 재정자립도가 그리 높지 않더라도 장애인 교육 수준을 높이고자 많은 노력을 한 유형이다. 여섯째, 강원, 충북, 전남, 경북은 재정자립도가 낮으면서 장애인 교육 수준도 현저히 낮은 유형이다.

〈표 IV-6〉 대표유형 재유형화

구분	시도
높은 재정자립도에 비례하여 장애인 교육 수준이 높은 유형	서울, 세종
중간 정도의 재정자립도에 비례하여 장애인 교육 수준이 중간인 유형	대구, 광주
높은 재정자립도에 비해 장애인 교육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한 유형	부산
높은 재정자립도에 비해 장애인 교육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현저히 부족한 유형	인천, 경기
재정자립도에 비해 장애인 교육 수준을 높이고자 더 노력한 유형	대전, 울산, 충남, 경남, 전북, 제주
재정자립도가 낮으면서 장애인 교육 수준이 현저히 낮은 유형	강원, 충북, 전남, 경북

5) 제언

장애인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에 재정자립도가 중요하다 또는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분석을 하였고, 이에 따라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 세종, 대전, 울산, 충남, 경남, 전북, 제주, 대구, 광주는 현재 장애인 교육 수준과는 별개로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은 현재와 같은 수준 유지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여력이 될 경우 더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부산, 인천, 경기는 재정자립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교육 수준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은 장애인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지자체장과 교육감의 의지가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강원, 충북, 전남, 경북은 낮은 재정자립도 때문에 장애인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한 재원이 부족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럼에도 예산의 효율성 사용 등을 통해 장애인 교육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2. 재정자립도와 장애인 복지 수준 비교 분석

1) 시도별 장애인 복지 수준(2024년 조사, 앞 2장 참조)

2023년 말 기준으로 측정한 장애인 복지 분야 종합 수준의 평균 점수는 52.65점이었고, 대전이 67.15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충북이 36.90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최상위와 최하위 간 격차는 1.82배(67.15점/36.90점)로 나타났고, 2022년 조사 시 격차 1.40배(67.07점/48.01점)에 비해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는 서울, 대전, 제주 3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부산, 광주, 울산, 세종, 경기 5개 지역이며, 보통은 대구,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8개 지역이고, 분발은 충북 1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표 IV-7〉 2023년 기준 시도별 장애인 복지 수준 점수

(단위: 점)

지자체명	2024년 조사결과 2023년 기준 장애인 복지 수준	등급
서울	65.85	우수
부산	56.01	양호
대구	48.87	보통
인천	47.58	보통
광주	57.35	양호
대전	67.15	우수
울산	55.40	양호
세종	53.90	양호
경기	54.54	양호
강원	50.48	보통
충북	36.90	분발
충남	50.29	보통
전북	51.05	보통
전남	44.83	보통
경북	46.37	보통
경남	45.91	보통
제주	62.65	우수

출처: 보고서 2장

2) 상관관계 분석

재정자립도⁵⁾와 시도별 장애인 복지 수준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피어슨 상관계수는 0.502로 나왔고, 유의 확률은 0.040였다. 재정자립도와 시도별 장애인 복지 수준 간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하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0.7 이상)으로 볼 수는 없다. 즉 시도별 장애인 복지 수준은 재정자립도가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치지만 다른 요인에 의해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유형 비교

(1) 연구 방법 - 퍼지셋 이상형 분석(Fuzzy-set Ideal Type Analysis)

재정자립도와 시도별 장애인 교육 수준 간 상관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1절과 마찬가지로 재정자립도와 시도별 장애인 복지 수준을 지표로 하여 유형 분석을 함으로써 각 시도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시도별 재정자립도와 장애인 복지 수준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사용하였다.

(2) 이론적 모형

시도별 재정자립도와 장애인 복지수준을 비교 분석할 목적이기 때문에, 재정자립도와 장애인 복지 수준과 같은 2개의 지표를 사용하고, 4개의 이념형을 도출하였다.

재정비례 복지 증진형은 재정자립도가 평균 이상이면서 장애인 복지 수준도 높은 유형이다. 복지 추구형은 재정자립도는 낮지만 장애인 복지 수준이 높은 유형이다. 복지 축소형은 재정자립도는 높지만 장애인 복지 수준은 낮은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재정 의존 복지 감퇴형은 재정자립도가 낮으면서 장애인 복지 수준도 낮은 유형이다.

〈표 IV-8〉 재정자립도와 장애인 복지 수준에 관한 이론적 모형

구분	유형
재정자립도가 높고, 장애인 복지 수준이 높음	재정비례 복지 증진형
재정자립도가 높고, 장애인 복지 수준이 낮음	복지 축소형
재정자립도가 낮고, 장애인 복지 수준이 높음	복지 추구형
재정자립도가 낮고, 장애인 복지 수준이 낮음	재정 의존 복지 감퇴형

5) 재정자립도와 관련한 자료는 앞 1절의 내용과 동일하다.

(3) 분석 결과

1절과 마찬가지로 지표의 실증점수를 측정하고, 각 사례들의 특성 공간에 대한 퍼지소속점수를 계산(calibration)하고, 각 사례들이 각 이상형에서 가지는 소속 점수를 계산하였다. 이후 대표유형을 결정하고, 유형별 차이점 및 유형 내에서의 차이점 등 다양한 해석을 하였다.

우선 2개 지표의 실증점수는 <표 IV-1>과 <표 IV-7>을 활용하였다. 이를 퍼지소속점수로 계산(calibration)하였다. 그 결과는 <표 IV-9>와 같다.

<표 IV-9> 2개 지표의 실증점수와 퍼지소속점수

지자체명	실증점수		퍼지소속점수	
	재정자립도	장애인 복지 수준	재정자립도	장애인 복지 수준
서울	75.37	65.85	0.95	0.94
부산	45.96	56.01	0.60	0.67
대구	47.38	48.87	0.63	0.33
인천	52.43	47.58	0.73	0.28
광주	42.32	57.35	0.52	0.73
대전	42.32	67.15	0.52	0.95
울산	49.81	55.40	0.68	0.64
세종	57.19	53.90	0.80	0.56
경기	60.5	54.54	0.84	0.60
강원	25.42	50.48	0.06	0.40
충북	32.1	36.90	0.17	0.05
충남	33.62	50.29	0.21	0.39
전북	23.81	51.05	0.05	0.42
전남	23.86	44.83	0.05	0.18
경북	25.34	46.37	0.06	0.23
경남	33.67	45.91	0.21	0.22
제주	33.32	62.65	0.20	0.89

영역별 퍼지소속점수를 바탕으로 퍼지 교집합기능과 부정의 원리를 사용하여(이동석, 2018), 시도별로 각 유형에 속하는 퍼지소속점수를 계산하였다. 이 중 최대값을 갖는 유형이 실제를 가장 잘 반영하는 대표유형(kind)이고, 최대값의 퍼지소속점수는 그 유형에 속하는 정도(degree)가 된다(이동석, 2018). 이에 따라 시·도별 대표유형과 소속 정도를 파악하게 되었다.

〈표 IV-10〉 시·도의 유형별 소속 점수 및 대표유형

	재정비례 복지 증진형	복지 축소형	복지 추구형	재정의존 복지 감퇴형	대표유형
서울	0.94	0.06	0.05	0.05	재정비례 복지 증진형
부산	0.60	0.33	0.40	0.33	재정비례 복지 증진형
대구	0.33	0.63	0.33	0.37	복지 축소형
인천	0.28	0.72	0.27	0.27	복지 축소형
광주	0.52	0.27	0.48	0.27	재정비례 복지 증진형
대전	0.52	0.05	0.48	0.05	재정비례 복지 증진형
울산	0.64	0.36	0.34	0.34	재정비례 복지 증진형
세종	0.56	0.44	0.20	0.20	재정비례 복지 증진형
경기	0.60	0.40	0.16	0.16	재정비례 복지 증진형
강원	0.06	0.06	0.40	0.60	재정의존 복지 감퇴형
충북	0.05	0.17	0.05	0.83	재정의존 복지 감퇴형
충남	0.21	0.21	0.39	0.61	재정의존 복지 감퇴형
전북	0.05	0.05	0.42	0.58	재정의존 복지 감퇴형
전남	0.05	0.05	0.18	0.82	재정의존 복지 감퇴형
경북	0.06	0.06	0.23	0.77	재정의존 복지 감퇴형
경남	0.21	0.21	0.22	0.78	재정의존 복지 감퇴형
제주	0.20	0.11	0.80	0.11	복지 추구형

첫째, 재정자립도가 높고 장애인 복지 수준도 높은 재정비례 복지 증진형에는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와 같은 7개 시도가 포함되었다. 같은 유형임에도 시도별 차이가 존재한다. 우선 서울은 재정비례 복지 증진형에 속하는 정도가 0.94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전형적인 재정비례 복지 증진형이다. 다음으로 부산, 광주, 대전은 재정자립도가 높고 장애인 복지 수준이 높은 재정비례 복지 증진형에 속하기는 했지만, 대표유형에 속하는 정도는 각각 0.60, 0.52, 0.52로 낮은 수준이다. 이와 더불어 복지 추구형에 속하는 정도가 각각 0.40, 0.48, 0.48로 높은 편이다. 결국 재정비례 복지 증진형과 복지 추구형에 함께 속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재정자립도에 비해 장애인 복지 수준을 더 높인 유형에 속하는 정도도 높았다. 이에 따라 부산, 광주, 대전은 재정자립도에 비해 지자체에서 장애인 복지 수준을 높이하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울산, 세종, 경기는 재정자립도가 높고 장애인 복지 수준이 높은 재정비례 복지 증진형에 속하기는 했지만, 대표유형에 속하는 정도는 각각 0.64, 0.56, 0.60으로 낮은 수준이고, 복지 축소형에 속하는 정도도 각각 0.36, 0.44, 0.40으로 높은 편이다. 결국 재정비례 복지 증진형과 복지 축소형에 함께 속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재정자립도에 비해 장애인 복지 수준이 다소 낮아 장애인 복지 수준이 낮아지면 언제든지 복지 축소형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울산, 세종, 경기는 장애인 복지 수준을 조금 더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재정자립도가 높지만 장애인 복지 수준은 전국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복지 축소형에는 대구, 인천과 같은 2개 지역이 속하였다. 인천은 복지 축소형에 속하는 정도가 0.72로 높아 전형적인 복지 축소형이고, 재정자립도에 비해 장애인 복지를 위한 노력이 현저히 적은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천은 현재 재정자립도에도 못 따라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대구의 경우 대표유형은 복지 축소형(0.63)이지만 재정의존 복지 감퇴형에 속하는 정도(0.37)도 어느 정도 있어 재정자립도가 조금 더 나빠지면 재정의존 복지 감퇴형에 속할 가능성도 높다. 이에 따라 대구는 재정자립도를 높이면서 장애인 복지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 재정자립도는 낮지만 장애인 복지 수준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복지 추구형에는 제주 1개 지역이 속하였다. 또 대표유형에 속하는 정도가 0.80이라 대표적인 복지 추구형으로 볼 수 있다. 재정자립도는 낮지만 장애인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넷째, 재정자립도가 낮아 장애인 복지 수준도 낮은 재정의존 복지 감퇴형에는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과 같은 7개 지역이 속하였다. 모두 도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충북(0.83), 전남(0.82), 경북(0.77), 경남(0.78)은 전형적으로 재정자립도도 낮으면서 장애인 복지 수준도 낮은 유형이다. 이에 따라 이 네 지역은 전체적인 재정자립도 향상과 더불어 장애인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강원, 충남, 전북은 대표 유형에 속하는 정도가 각각 0.60, 0.61, 0.58로 비교적 낮고, 모두 복지추구형에 속하는 정도가 각각 0.40, 0.39, 0.42로 어느 정도 이 유형에 속하는 정도도 상대적으로 높다. 이에 따라 강원, 충남, 전북은 재정의존 복지 감퇴형이 대표유형이지만, 복지 추구형의 속성도 상당히 갖고 있다. 즉 이 세 지역은 재정자립도는 낮지만 장애인 복지 수준의 향상을 위해 많이 노력하였고, 조금 더 장애인 복지 수준을 높이면 대표유형도 복지 추구형으로 바뀔 수 있다. 이에 따라 재정자립도 향상과 더불어 장애인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4유형을 다시 재유형화하면 5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서울은 재정자립도가 높으면서 이에 맞춰 장애인 복지 수준이 높은 유형이다. 둘째, 울산, 세종, 경기도는 재정자립도는 높지만 장애인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유형이다. 셋째, 대구, 인천은 재정자립도는 높지만 장애인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이 현저히 부족한 유형이다. 넷째, 부산, 광주, 대전, 제주, 강원, 충남, 전북은 재정자립도에 비해 장애인 복지 수준을 높이려고 더 노력한 유형이다. 이 유형은 재정자립도가 그리 높지 않더라도 장애인 복지 수준을 높이려고 많은 노력을 한 유형이다. 다섯째, 충북, 전남, 경북, 경남은 재정자립도가 낮으면서 장애인 복지 수준도 현저히 낮은 유형이다.

〈표 IV-11〉 대표유형 재유형화

구분	시도
높은 재정자립도에 비례하여 장애인 복지 수준이 높은 유형	서울
높은 재정자립도에 비해 장애인 복지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한 유형	울산, 세종, 경기
높은 재정자립도에 비해 장애인 복지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현저히 부족한 유형	대구, 인천
재정자립도에 비해 장애인 복지 수준을 높이고자 더 노력한 유형	부산, 광주, 대전 제주, 강원, 충남, 전북
재정자립도가 낮으면서 장애인 복지 수준이 현저히 낮은 유형	충북, 전남, 경북, 경남

4) 제언

장애인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에 재정자립도가 중요하다 또는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분석하였고, 이에 따라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 부산, 광주, 대전, 강원, 충남, 전북, 제주는 현재 장애인 복지 수준과는 별개로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은 현재와 같은 수준 유지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여력이 될 경우 더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대구, 인천은 재정자립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복지 수준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은 장애인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지자체장의 의지가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울산, 세종, 경기도는 재정자립도가 높음에도 장애인 복지 수준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충북, 전남, 경북, 경남은 낮은 재정자립도 때문에 장애인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재원이 부족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럼에도 추가적인 노력을 통해 장애인 복지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제주의 경우 장애인 복지 수준은 전국 3위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보면 재정자립도 때문에 장애인 복지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말은 핑계에 불과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1. 영역별 조사결과 및 제언
2. 시·도별 조사결과 및 제언

1. 영역별 조사결과 및 제언

분야별 장애인 교육·복지 수준 분석의 주요 결과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4년 교육 분야 종합 수준의 평균 점수는 65.54점이었고, 세종이 78.41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경기가 56.28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최고 수준과 최하 수준의 격차 수준(78.41점/56.28점)이 1.39배로 지역 간 격차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2022년에는 최상위 지자체와 최하위 지자체의 점수 격차가 1.18배(87.69/74.45), 2023년에는 1.32배(86.90/65.94)였던 것과 비교하면 장애인 교육 분야의 지역 간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경기와 경북은 3년 연속 분발 수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노력이 더 많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부산, 인천, 강원은 3년 연속 전국 평균값 이하이기 때문에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복지 분야 종합 수준의 평균 점수는 52.65점(최고 67.15점, 최하 36.90점)으로 나타났다. 최상위와 최하위 간 격차는 1.82배(67.15점/36.90점)로 나타났고, 2022년 조사 시 격차 1.40배(67.07점/48.01점)에 비해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복지 분야도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하위 등급에 속한 지자체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특히 2022년, 2024년 모두 분발 등급에 속한 충북은 장애인복지 분야 향상을 위한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2022년, 2024년 모두 평균 이하 등급에 속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도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2024년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의 전국 평균 점수는 42.07점(최고 52.23점, 최하 30.43점)으로 나타났다. 2023년 53.71점(최고 73.78점, 최하 37.61점) 대비 19.39% 하락하고,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의 점수 격차는 2023년 1.96배(73.78/37.61) 대비 2024년에는 1.71배(52.23/30.43)로 작아짐에 따라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의 지역 간 격차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 충북, 전남은 2년 연속 분발 등급에 포함되어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더욱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부산, 울산, 전북, 경북, 경남도 2년 연속 전국 평균값 이하이기 때문에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2024년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 전국 평균 점수는 45.12점이고, 최고점수는 64.94점, 최하점수는 30.27점으로 나타났다. 2024년 전국 평균은 2022년 46.29점(최고 64.68점, 최하 33.27점) 대비 1.86% 하락하였다.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의 점수 격차는 2022년 1.94배(64.68/33.27) 대비 2024년에는 2.14배(64.94/30.27)로 커짐에 따라 지역 간 격차가 다소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 충북, 경북은 2년 연속 분발 등급에 포함되어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더욱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울산, 경기도 2년 연속 전국 평균값 이하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2024년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전국 평균 점수는 49.87점이고, 최고점수는 81.06점,

최하점수는 34.95점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은 49.87점(최고 81.06점, 최하 34.95점)으로 2022년 60.07점(최고 89.29점, 최하 47.51점) 대비 -16.98% 하락하고,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의 점수 격차는 2022년 1.87배(89.29/47.51) 대비 2024년에는 2.31배(81.06/34.95)로 커짐에 따라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의 지역 간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전북, 경북은 2년 연속 분발 등급에 포함되어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더욱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인천,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남도 2년 연속 전국 평균값 이하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여섯째,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의 평균 점수는 32.80점(최고 80.50점, 최하 20.61점)으로 나타났다.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의 점수 격차는 3.9배(80.50/20.61)로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작년의 2.5배(67.91/27.39)에 비해 격차가 더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하위 등급에 속한 지자체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특히 인천, 경기, 충북은 2년 연속 분발 등급에 포함되어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의 수준 향상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일곱째,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의 평균 점수는 39.65점(최고 60.00점, 최하 28.97점)으로 나타났다.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의 점수 격차는 2.07배(60.00/28.97)로 지역 간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2022년 조사의 2.78배(49.19/17.68)에 비해 격차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과 2024년 모두 분발 등급에 속한 부산, 인천은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고, 2022년과 2024년 모두 평균 이하인 등급에 속한 대구, 광주, 세종, 충북, 충청남도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의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 시·도별 조사결과 및 제언

다음으로, 시도별 장애인 교육·복지 수준 분석의 주요 결과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4년 서울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71.08점으로 2023년과 동일한 양호 등급으로 나타났다. 2024년 장애인 복지 분야는 65.85로 우수 등급으로 나타나 2022년 우수 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분야 중에 우수 등급에 해당되는 영역은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52.23점),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80.50), 복지행정 및 예산(60.00%)이며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47.31점), 복지서비스 지원(61.48점)은 양호 등급으로 나타났다. 결국 서울은 교육과 복지 모든 영역에서 전국 평균 이상의 등급으로 전반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이를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 방안과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부산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62.70점으로 2023년과 동일한 보통 등급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으로 전국 평균 이하 수준이기 때문에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

을’,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수’는 3년 연속 분발 수준이기 때문에 획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024년 장애인 복지 분야는 56.01로 양호 등급으로 2022년 분발 등급보다 2단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분야 중에 우수 등급에 해당되는 영역은 없으며, 보건 및 자립지원(45.12점), 복지서비스 지원(54.52점),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42.18점)이 평균 이상의 양호 등급으로 나타났다.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41.79점)은 보통 등급, 복지행정 및 예산(29.07점)은 분발 등급으로 평균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복지행정 및 예산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대구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65.78점으로 양호 등급으로 나타나 분발 등급을 받은 2023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장애인 복지 분야는 48.87로 보통 등급으로 나타나 2022년 양호 등급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분야 중에 우수 등급에 해당되는 영역은 보건 및 자립지원(63.47점)이며,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40.70점)은 양호 등급으로 나타났다.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41.86점)으로 보통 등급, 복지서비스 지원(34.95점), 복지행정 및 예산(32.41점)은 분발 등급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복지행정 및 예산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인천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60.34점으로 2022년, 2023년과 동일한 분발 등급으로 나타났다. 2024년 장애인 복지 분야는 47.58점의 보통 등급으로 2022년 분발 등급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분야 중에 우수 등급에 해당되는 영역은 없으며,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44.64점)은 양호 등급으로 나타났다. 보건 및 자립 지원(43.50점), 복지서비스 지원(42.81점)은 보통 등급으로,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25.74점), 복지행정 및 예산(28.97점)으로 분발 등급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교육 분야는 지속적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기 때문에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고, 복지 분야도 전국 평균 이하의 수준이므로 지속적인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광주에 장애인 교육 분야는 65.33점의 양호 등급으로 2023년 보통 등급보다 상승하였으며 3년간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장애인 복지 분야는 57.35점의 양호 등급으로 나타나 2022년 양호 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분야 중에 우수 등급에 해당되는 영역은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49.53점)이며 보건 및 자립지원(53.54점), 복지서비스 지원(60.53점)은 양호 등급으로 나타났다.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32.68점), 복지행정 및 예산(39.32점)은 보통 등급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교육과 복지 모든 영역에서 전국 평균 이상의 등급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지표별로 보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지표들이 많다. 개별 지표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특수학급 설치율’, ‘통합교육 학생비율’은 3년 연속 분발 등급에 속하였기 때문에 특수학급 설치 및 통합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여섯째, 대전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73.41점으로 2022년, 2023년과 동일한 우수 등급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복지 분야는 67.15점으로 2022년 우수 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분야 중에 우수 등급에 해당되는 영역은 보건 및 자립 지원(56.93점), 복지행정 및 예산(51.82점)이며, 복지서비스 지원(58.72점),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40.97점)은 양호 등급으로 나타났다.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39.77점)은 보통 등급으로 나타났다. 대전은 교육과 복지 모든 영역이 우수 등급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지표별로 보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지표들이 많다. 개별 지표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2022년과 2024년 연속으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일곱째, 울산광역시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71.80점으로 양호 등급으로서,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3년 동안 연속하여 양호 등급으로 나타났다. 2024년 장애인 복지 분야는 55.40점으로 양호 등급으로서 2022년 양호 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분야 중에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영역은 없었으며,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56.66점으로 양호 등급이었다.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영역은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41.81점),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29.74점), 복지행정 및 예산(37.99점)으로 나타났다.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은 32.32점으로 분발 등급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 영역,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에서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여덟째, 세종시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78.41점으로 우수 등급으로 나타나 2022년, 2023년의 우수 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장애인 복지 분야는 53.90점으로 양호 등급으로 나타나 2022년 양호 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분야 중에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영역은 없었으며,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영역은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45.86점), 보건 및 자립지원(54.00점),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34.32점)으로 나타났다. 복지서비스 지원(45.98점), 복지행정 및 예산(35.45점)으로 평균 이하인 보통 등급이었고, 분발 등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은 상당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아홉째, 경기도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56.28점으로 분발 등급으로 나타나 2022년과 2023년의 분발 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장애인 복지 분야는 54.54점으로 양호 등급으로 나타나 2022년 보통 등급에서 상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분야 중에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영역은 없었으며, 양호 등급은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43.08점), 복지행정 및 예산(40.03점)으로 나타났다.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44.04점으로 평균 이하인 보통 등급이었고, 복지서비스 지원(41.83점),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23.73점)은 분발 등급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교육 영역 개선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고,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중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은 큰 개선 노력이 요구되고,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 중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은 3년 연속 분발 수준이어서 개선을 위한 큰 노력이 필요하다.

열 번째, 강원도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61.42점으로 보통 등급으로 나타나 2022년, 2023년의 보통 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장애인복지 분야는 50.48점으로 보통 등급으로 나타나

2022년 보통 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분야 중에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영역은 없었고,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영역은 복지행정 및 예산(46.27점)으로 나타났다. 복지서비스 지원(48.62점),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 영역은 30.39점으로 평균 이하인 보통 등급으로 나타났으며,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35.35점),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30.21점으로 분발 등급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교육 분야는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 수준으로서, 이 영역 중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특수학급 설치율,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3년 연속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 중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 중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은 상당한 개선이 필요하다.

열한 번째, 충북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62.45점으로 보통 등급으로 나타나 2022년과 2023년의 양호 등급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장애인 복지 분야는 36.90점으로 분발 등급으로 나타나 2022년 분발 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분야 중에 우수 등급과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영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복지서비스 지원(46.14점), 복지행정 및 예산(36.01점) 영역은 평균 이하인 보통 등급이었다.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33.93점), 보건 및 자립지원(33.00점),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24.31점) 영역은 분발 등급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충북 교육 분야는 개선 노력이 필요한데, 특히 분발 등급에 속하는 ‘특수교육보조인력 배치율’은 3년 동안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 수준으로 상당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 복지 영역 중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열두 번째, 충남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68.21점으로 양호 등급으로서, 2022년 우수 등급이었으며 2023년 양호 등급과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장애인 복지 분야는 50.29점으로 보통 등급으로 나타나 2022년 분발 등급에서 상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분야 중에 우수 등급에 해당되는 영역은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50.10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 복지서비스 지원(45.47점),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30.02점)은 평균 이하인 보통 등급이었고, 보건 및 자립지원(37.06점), 복지행정 및 예산(30.15점)은 분발 등급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 중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보조기기 지원 수준,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중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은 개선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열세 번째, 전북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64.43점으로 보통 등급으로 나타났다. 2022년과 2023년에는 양호 등급이었는데, 이에 비해 하락한 것이다. 2024년 장애인복지 분야는 51.05점으로 보통 등급으로 나타나 2022년 분발 등급에 비해 상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분야 중에 우수 등급에는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59.15점)이 포함되었고, 양호 등급에 속하는 영역은 없었다. 반면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39.24점),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39.54점)은 보통 등급,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42.23점),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 영역(21.61점)은 분발 등급으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 교육 수준 개선이 필요하고, 특히 특수학습 설치율,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율은 3년 연속 전국 평균 이하인 보통 등급에 속하였기 때문에 이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과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 영역은 전반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열네 번째, 전남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58.53점으로 분발 등급으로 나타났고, 이는 2022년과 동일하나, 2022년 양호 등급에 비해서는 하락하였다. 2024년 장애인복지 분야는 44.83점으로 보통 등급으로 나타나 2022년 분발 등급에 비해 상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분야 중 우수 등급에 속하는 영역은 없었고, 양호 등급에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49.00점)이 포함되었다. 반면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44.42점),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36.90점)은 보통 등급에 속하였고,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30.43점),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 영역(22.96점)은 분발 등급으로 나타나, 복지 분야 중 4영역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전남 교육 분야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은 2년 연속 분발 등급에 속하였고,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3년 연속 분발 등급에 속하였기 때문에 이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과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을 개선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열다섯 번째, 경북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58.40점으로 분발 등급으로 나타났다. 2022년과 2023년의 분발 등급과 동일하다. 2024년 장애인복지 분야는 46.37점으로 보통 등급으로 나타나 2022년 분발 등급에 비해 상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분야 중에 우수 등급에 속하는 영역은 없었고, 양호 등급에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42.12점)이 속하였다. 반면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35.45점),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36.38점),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40.26점),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 영역(23.78점)은 모두 분발 등급에 속하였다. 즉 5개 복지 영역 중 4개 영역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경북은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을 제외한 교육 및 복지의 모든 영역에서 개선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여야 한다. 특히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3년 연속 분발 등급에 속하였고, 특히 2024년 조사에서는 전국 최하위였기 때문에 이의 개선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고, ‘장애인 생상품 우선구매 비율’,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지역사회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저상버스 확보수준’,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열여섯 번째, 경남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67.28점으로 양호 등급으로 나타났다. 2023년의 양호 등급과 동일하고 2022년의 보통 등급에 비해서는 향상되었다. 장애인복지 분야는 45.91점으로 보통 등급으로 나타나 2022년 양호 등급에 비해 하락하였다. 복지 분야 중 우수 등급과 양호 등급에 포함된 영역은 없었고,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38.93점),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 영역

(29.11점)은 보통 등급에 속하였고,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36.63점),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42.15점),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34.05점)은 분발 등급에 속하여, 복지 분야의 5개 영역은 모두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교육 분야는 전국 평균 이상이기는 하지만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율 지표는 2023년에 이어 연속적으로 전국 평균 이하인 보통 등급에 속하기 때문에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복지 분야의 다섯 영역은 모두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열일곱 번째, 제주도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64.34점으로 보통 등급으로 나타나 2022년과 2023년의 분발 등급에서 상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장애인 복지 분야는 62.65점으로 우수 등급으로 나타나 2022년 우수 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분야 중에 우수 등급에 해당되는 영역은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51.14점), 복지서비스 지원(81.06점), 복지행정 및 예산(53.87점)으로 나타났다.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39.04점으로 평균 이하인 보통 등급이었고,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 영역은 25.95점으로 분발 등급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주도 교육 분야는 지속적으로 전국 평균 이하 수준이기 때문에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수’는 3년 연속 분발 수준이기 때문에 획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 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의 개선이 필요하고, 특히 이 영역 중 ‘저상버스 확보수준’,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교육부(2024). 2023년 특수교육연차보고서.

교육부(2024). 2023년 특수교육통계.

남궁은. 2019. “전국 장애인복지수준 비교를 통한 유형화와 영향 요인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종훈(2023). 공간 관점에서 재정자립도 지표를 활용한 지역 간 재정 격차에 관한 실증연구: 공간 계량모형과 해체기법의 혼합 적용. 공공사회연구, 13(3), 37-73.

보건복지부. 복지포 사회보장통계.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현황(2023년 12월 31일 기준).

이동석. 2018.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17개 시도별 교통수단정책 분석 - 보편주의 하에서의 표적화를 중심으로”. 『입법과 정책』, 10(3), 327-349.

이현정(2022). 지방자치단체 재정격차 측정지표의 평가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논집, 27(1), 67-101.

최영준. 2009. “사회과학에서 퍼지셋 활용의 모색: 퍼지셋 이상형 분석과 결합 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15(3), 307-336.

한국교육개발원. 2023년 교육통계서비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2023). 2023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2022). 2022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Kvist, J. . 2007. “Fuzzy set ideal type analysis” .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60(5). 474-481.

Ragin, C. C. 2000. Fuzzy-set Social Scienc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부록 1. 장애인복지·교육지표별 원점수

1. 교육영역

지표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교육 예산지원 비율	
	시·도 특수교육 예산	특수교육 대상자 수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시도 교육청 총교육 예산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산식 (단위)	A01(천원)	A02(명)	=A01/A02 (천원)	A03(천원)	=A01/A03*100(%)
서울	540,432	13,888	39	12,891,521	4.19
부산	215,670	7,135	30	5,751,288	3.75
대구	168,881	5,518	31	4,392,236	3.84
인천	197,614	7,648	26	5,393,503	3.66
광주	114,652	3,386	34	3,132,347	3.66
대전	128,174	3,541	36	3,073,565	4.17
울산	95,791	2,910	33	2,394,519	4.00
세종	44,727	1,025	44	1,061,528	4.21
경기	680,387	26,963	25	22,334,511	3.05
강원	142,816	3,134	46	4,394,620	3.25
충북	143,649	4,690	31	4,394,620	3.27
충남	244,366	5,583	44	5,590,073	4.37
전북	186,486	4,273	44	4,901,772	3.80
전남	132,625	4,336	31	5,007,700	2.65
경북	207,981	5,878	35	5,992,898	3.47
경남	309,495	7,734	40	7,186,591	4.31
제주	65,994	2,061	32	1,601,543	4.12

지표	특수학급 설치율			특수교육 법정정원 충원율		
	특수학급 수	일반학교 전체 학급수	특수학급 설치율	유치원 특수교육 담당교원 수	유치원 특수교육 대상자수	법정 정원 충원률
산식 (단위)	A04(개)	A05(개)	=A04/A05*100(%)	A06(명)	A07(명)	=A06/A07*4*100 (%)
서울	1,588	46,895	3.39	249	935	106.52
부산	640	15,214	4.21	109	693	62.91
대구	469	12,133	3.87	56	418	53.59
인천	793	15,188	5.22	121	613	78.96
광주	322	8,562	3.76	45	202	89.11
대전	390	8,264	4.72	79	320	98.75
울산	341	6,323	5.39	45	201	89.55
세종	153	3,254	4.70	50	189	105.82
경기	3,628	68,598	5.29	594	2,128	111.65
강원	407	8,332	4.88	43	175	98.29
충북	579	8,624	6.71	99	419	94.51
충남	818	12,416	6.59	121	482	100.41
전북	505	10,734	4.70	75	354	84.75
전남	728	10,765	6.76	75	252	119.05
경북	727	14,192	5.12	52	332	62.65
경남	1,034	18,845	5.49	104	439	94.76
제주	165	3,663	4.50	24	199	48.24

지표	특수교육 법정정원 총원율(계속)					
	초등특수 교육담당 교원수	초등 특수교육 대상자 수	법정 정원 총원율	중·고등 특수교육 담당교원 수	중·고등 특수교육 대상자 수	법정 정원 총원율
산식 (단위)	A08(개)	A09(개)	=A08/A09*6*100 (%)	A10(명)	A11(명)	=A10/A11*7*100 (%)
서울	1,308	6,443	121.81	1,469	5,893	174.50
부산	564	3,375	100.27	538	2,828	133.17
대구	457	2,487	110.25	547	2,176	175.97
인천	632	3,734	101.55	587	2,892	142.08
광주	297	1,546	115.27	374	1,474	177.61
대전	277	1,491	111.47	367	1,399	183.63
울산	246	1,306	113.02	286	1,164	171.99
세종	95	215	265.12	76	277	192.06
경기	2,478	13,214	112.52	2,707	10,763	176.06
강원	297	1,416	125.85	333	1,311	177.80
충북	457	2,084	131.57	445	1,860	167.47
충남	582	2,699	129.38	562	2,086	188.59
전북	365	1,978	110.72	411	1,672	172.07
전남	493	1,987	148.87	525	1,777	206.81
경북	525	2,688	117.19	571	2,329	171.62
경남	760	3,629	125.65	781	3,255	167.96
제주	165	995	99.50	165	760	151.97

지표	특수교육 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					
항목	특수교육 대상자 수	보조인력 (유급+무급) 인원 수	배치율	특수교육 대상자 수	보조인력 (유급) 인원 수	배치율
산식 (단위)	A12(명)	A13(명)	=A12/A13 *100(%)	A14(명)	A15(명)	=A14/A15 *100(%)
서울	2,356	13,845	17.02	1,416	13,845	10.23
부산	810	7,135	11.35	648	7,135	9.08
대구	825	5,512	14.97	562	5,512	10.20
인천	756	7,631	9.91	712	7,631	9.33
광주	433	3,386	12.79	397	3,386	11.72
대전	751	3,535	21.24	582	3,535	16.46
울산	662	2,906	22.78	343	2,906	11.80
세종	192	1,025	18.73	177	1,025	17.27
경기	2,666	26,884	9.92	1,144	26,884	4.26
강원	399	3,131	12.74	323	3,131	10.32
충북	469	4,780	9.81	419	4,780	8.77
충남	677	5,581	12.13	594	5,581	10.64
전북	524	4,273	12.26	414	4,273	9.69
전남	554	4,336	12.78	336	4,336	7.75
경북	820	5,848	14.02	504	5,848	8.62
경남	919	7,727	11.89	629	7,727	8.14
제주	245	1,974	12.41	205	1,974	10.39

지표	통합교육 학생 비율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특수학급 수					장애인 교원 고용률
	특수 학급 학생수	일반 학급장애 학생수	특수 교육대상자	통합교육 학생비율	특수 학급 학생수	특수 학교 학생수	특수 학급수	특수 학교 학급수	학생 10명당 특수학급 수(개)	
산식 (단위)	A16(명)	A17(명)	A18(명)	$=(A16+A17) / A18 * 100$ (%)	A19(명)	A20(명)	A21(개)	A22(명)	$=(A21+A22) / (A19+A20) * 10$ (개)	A26(%)
서울	7,167	2,195	13,888	67.41	7,167	4,483	1,588	856	2.10	2.20
부산	3,297	1,816	7,165	71.36	3,297	2,022	640	371	1.90	1.65
대구	2,205	1,399	5,518	65.31	2,205	1,908	469	334	1.95	1.80
인천	4,096	1,589	7,648	74.33	4,096	1,946	793	352	1.90	1.29
광주	1,582	634	3,386	65.45	1,582	1,170	322	228	2.00	1.89
대전	1,922	491	3,541	68.14	1,922	1,122	390	196	1.93	2.09
울산	1,621	510	2,910	73.23	1,621	775	341	151	2.05	1.80
세종	659	137	1,025	77.66	659	229	153	48	2.26	2.11
경기	17,535	3,930	26,963	79.61	17,535	5,419	3,628	953	2.00	1.18
강원	1,789	476	3,134	72.27	1,789	866	407	199	2.28	1.28
충북	2,584	812	4,690	72.41	2,584	1,384	579	289	2.19	1.36
충남	3,716	523	5,583	75.93	3,716	1,342	818	279	2.17	1.27
전북	2,220	934	4,273	73.81	2,220	1,119	505	216	2.16	1.51
전남	2,832	307	4,336	72.39	2,832	1,197	728	220	2.35	1.03
경북	3,159	1,188	5,878	73.95	3,159	1,501	727	254	2.11	0.98
경남	4,604	1,209	7,734	75.16	4,604	1,914	1,034	392	2.19	1.62
제주	1,005	424	2,061	69.34	1,005	545	165	105	1.74	1.41

2.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영역

지표	민간 부문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지자체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물품 구매액	지자체 물품 총구매액	지자체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산식 (단위)	B01(%)	B02(명)	B03(명)	B02/B03*100(%)	B04(원)	B05(원)	=B04/B05*100(%)
서울	3.16	3,931	48,434	8.12	35,274,419,449	2,605,675,622,662	1.35
부산	4.29	807	15,614	5.17	3,700,703,022	619,927,366,426	0.60
대구	3.94	857	11,945	7.17	3,110,153,640	448,196,856,493	0.69
인천	3.98	624	14,491	4.31	10,812,676,827	796,483,085,677	1.36
광주	4.52	381	7,903	4.82	3,211,553,942	235,413,393,948	1.36
대전	3.65	345	7,237	4.77	1,680,140,900	300,609,554,178	0.56
울산	3.32	296	6,201	4.77	4,387,017,510	364,504,172,157	1.20
세종	3.28	92	2,024	4.55	601,454,336	143,690,211,340	0.42
경기	3.36	2,312	56,353	4.10	45,087,150,898	3,762,640,716,183	1.20
강원	4.21	725	17,979	4.03	6,392,555,770	1,310,711,500,911	0.49
충북	3.62	544	13,753	3.96	5,697,773,740	804,611,374,783	0.71
충남	3.55	689	18,008	3.83	19,078,000,017	1,352,096,884,516	1.41
전북	4.75	676	16,914	4.00	7,679,582,486	1,004,226,936,662	0.76
전남	3.46	755	21,876	3.45	6,805,339,371	1,634,281,634,310	0.42
경북	3.77	1,292	25,255	5.12	8,756,838,146	,921,944,586,152	0.46
경남	3.73	921	23,547	3.91	9,167,894,020	1,545,546,305,754	0.59
제주	3.97	239	5,253	4.55	3,767,181,710	332,632,458,154	1.13

지표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장애아동 수당지급 총액	장애아동수당 전체지급대상자 수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산식 (단위)	B06(원)	B07(명)	=B06/B07(원)
서울	1,897,986,220	25,404	74,712
부산	2,221,890,000	17,039	130,400
대구	1,684,449,830	29,928	56,283
인천	1,935,605,000	12,021	161,019
광주	1,323,779,680	9,412	140,648
대전	1,076,590,000	7,992	134,708
울산	679,190,000	4,085	166,264
세종	95,770,000	632	151,535
경기	3,966,441,454	37,965	104,476
강원	962,865,650	6,821	141,162
충북	1,067,860,660	9,912	107,734
충남	1,813,908,600	9,005	201,433
전북	1,814,440,000	12,795	141,809
전남	1,460,496,000	10,572	138,148
경북	1,335,446,560	17,789	75,071
경남	1,913,820,000	10,863	176,178
제주	616,980,000	1,377	448,061

지표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1인당 장애수당 지급액			1인당 장애연금 지급액		
항목	장애수당 지급 총액	장애 수당 전체 지급 대상자수	1인당 장애수당 지급액	장애연금 지급 총액	장애 연금 전체 지급 대상자수	1인당 장애 연금 지급액
산식 (단위)	B08(원)	B09(명)	=B08/B09(원)	B10(원)	B11(명)	=B10/B11(원)
서울	54,848,056,670	735,336	74,589	107,997,808,970	600,600	179,817
부산	28,672,573,340	523,234	54,799	92,201,898,520	308,526	298,846
대구	19,776,478,510	575,328	34,374	64,697,055,410	296,352	218,312
인천	18,322,965,430	277,573	66,011	66,100,011,500	225,884	292,628
광주	9,027,850,320	148,684	60,718	40,308,328,380	124,301	324,280
대전	8,490,780,000	139,224	60,986	38,671,317,240	126,852	304,854
울산	4,265,690,000	72,371	58,942	21,797,904,050	76,497	284,951
세종	838,300,000	14,403	58,203	4,818,815,510	17,154	280,915
경기	70,482,474,060	797,764	88,350	243,840,611,360	854,023	285,520
강원	11,833,451,540	199,515	59,311	46,744,356,170	165,089	283,146
충북	8,220,450,340	173,652	47,339	15,329,109,000	177,060	86,576
충남	16,766,739,400	205,741	81,494	68,265,944,000	221,623	308,027
전북	19,443,316,000	292,543	66,463	71,892,616,000	232,778	308,846
전남	17,487,997,830	287,724	60,780	70,882,294,130	256,932	275,880
경북	20,175,378,016	380,472	53,027	69,608,752,126	282,883	246,069
경남	20,290,180,000	355,524	57,071	91,961,919,140	336,816	273,033
제주	3,457,680,000	22,161	156,025	17,333,168,400	60,455	286,712

지표	장애인자립 자금 대여비율		
항목	장애인자립 자금 대여 건 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수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비율
산식 (단위)	B12(건)	B13(명)	B12/B13*100(%)
서울	13	99,108	0.013
부산	4	54,962	0.007
대구	2	38,655	0.005
인천	2	44,706	0.004
광주	2	22,676	0.009
대전	1	20,082	0.005
울산	-	11,234	0.000
세종	-	1,156	0.000
경기	8	127,609	0.006
강원	1	27,763	0.004
충북	1	29,149	0.003
충남	5	31,145	0.016
전북	1	41,602	0.002
전남	1	42,766	0.002
경북	1	47,623	0.002
경남	4	50,110	0.008
제주	-	8,881	0.000

지표	직업재활시설 지원 예산 수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 총액	18~55세 미만 중증등록장 애인 수	직업재활시설지 원 예산 수준	직업재활시설이 용자 수	18~55세미만 중증등록장 애인수	직업재활시설이 용자 비율
산식 (단위)	B14(원)	B15(명)	=B15/B16(원)	B17(명)	B18(명)	=B17/B18*100(%)
서울	50,009,346,910	50,290	994,419	4,126	50,290	8.20
부산	15,102,441,500	21,612	698,799	1,319	21,612	6.10
대구	14,217,443,000	17,034	834,651	1,194	17,034	7.01
인천	14,211,671,000	19,445	730,865	1,046	19,445	5.38
광주	13,752,835,005	11,282	1,219,007	425	11,282	3.77
대전	9,590,910,269	10,737	893,258	863	10,737	8.04
울산	4,278,275,000	4,153	1,030,165	325	4,153	7.83
세종	3,302,005,140	1,072	3,080,229	207	1,072	19.31
경기	97,922,611,000	79,628	1,229,751	4,689	79,628	5.89
강원	13,757,962,896	19,472	706,551	782	19,472	4.02
충북	16,331,000,000	13,559	1,204,440	934	13,559	6.89
충남	13,263,791,000	16,752	791,774	785	16,752	4.69
전북	10,481,810,000	15,606	671,653	674	15,606	4.32
전남	8,960,126,361	15,444	580,169	548	15,444	3.55
경북	24,984,905,000	21,129	1,182,493	1,265	21,129	5.99
경남	20,904,370,691	23,077	905,853	1,349	23,077	5.85
제주	10,551,335,000	3,934	2,682,088	400	3,934	10.17

3. 보건 및 자립 지원영역 분석

지표	장애인 1인당 장애인의료비 지원액			보조기기 지원 수준						
	장애인 의료비 예산 (국고및자체사업)	국민기초수급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보장구 구입비용 의료급여 지급 건수	보조기구교부 건수	국민기초수급 장애인	보장구의료급여 보조기구교부 비율	보장구 구입비용 의료급여 지급예산	보조기구교부예산	1인당보장구 의료급여및보조기구교부예산
항목	C01 (원)	C02(명)	=C01/C02(원)	C03(건)	C04(건)	C05(명)	=(C03+C04)/C05*100(%)	C06 (원)	C07 (원)	=(C06+C07)/C05(원)
서울	4,653,208,000	89,846	51,791	617	543	89,846	1.29	440,500,000	341,351,300	8,702
부산	3,010,218,570	42,893	70,180	3,233	274	42,893	8.18	2,280,306,000	123,516,000	56,042
대구	4,241,629,620	33,074	128,247	3,074	231	33,074	9.99	2,077,861,000	100,574,200	65,865
인천	3,078,992,600	35,184	87,511	2,454	262	35,184	7.72	1,896,666,850	103,250,630	56,842
광주	3,456,301,770	18,331	188,550	1,043	130	18,331	6.40	808,542,000	83,498,000	48,663
대전	8,021,015,000	18,387	436,233	1,137	291	18,387	7.77	933,834,000	119,579,300	57,291
울산	893,248,000	9,779	91,343	407	92	9,779	5.10	26,922,000	52,658,000	8,138
세종	170,094,800	1,594	106,709	72	13	1,594	5.33	57,100,000	6,336,600	39,797
경기	5,984,839,000	100,122	59,775	5,639	653	100,122	6.28	4,590,316,570	503,683,000	50,878
강원	1,156,160,000	23,579	49,033	804	148	23,579	4.04	696,418,710	69,605,800	32,488
충북	1,116,286,000	22,916	48,712	793	267	22,916	4.63	668,750,000	92,016,820	33,198
충남	1,777,000,000	26,890	66,084	116	193	26,890	1.15	103,207,000	73,312,000	6,564
전북	12,122,350,000	35,248	343,916	2,167	245	35,248	6.84	1,813,676,400	152,295,000	55,775
전남	9,921,250,000	32,645	303,913	1,371	1,371	32,645	8.40	1,125,827,000	1,266,084,000	73,270
경북	4,130,658,000	36,032	114,639	1,954	538	36,032	6.92	1,542,015,580	103,624,000	45,672
경남	3,381,348,000	42,926	78,772	1,985	158	42,926	4.99	1,575,242,000	88,539,100	38,759
제주	688,912,610	7,542	91,343	290	221	7,542	6.78	275,894,000	62,208,700	44,829

지표	일반건강검진 수검 비율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 지원 수준				
항목	일반 건강 검진 수검 인원	일반 건강 검진 대상자수	일반 건강 검진 수검 비율	여성 장애인 산모도우미 파견 총 일수	출산 지원비 및 검진비를지원 받은 실인원 수	지원 일수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예산총액	여성장애인 1인당 출산 및 검진 지원비
산식 (단위)	C11 (명)	C12 (명)	C11/C12*1 00(%)	C13 (일)	C14 (명)	C13/C14 (일)	C15 (원)	=C15/C14 (원)
서울	106,703	174,587	61.12	1,175	130	9.04	130,000,000	1,000,000
부산	47,660	77,956	61.14	448	48	9.33	49,000,000	1,020,833
대구	35,106	57,243	61.33	326	39	8.36	39,000,000	1,000,000
인천	43,742	67,085	65.20	532	52	10.23	52,000,000	1,000,000
광주	20,365	31,582	64.48	161	33	4.88	33,000,000	1,000,000
대전	21,798	32,656	66.75	464	42	11.05	42,000,000	1,000,000
울산	16,569	24,623	67.29	213	60	3.55	80,500,000	1,341,667
세종	3,867	5,652	68.42	107	9	11.89	15,500,000	1,722,222
경기	167,950	262,055	64.09	2,087	225	9.28	257,000,000	1,142,222
강원	28,111	44,915	62.59	208	36	5.78	36,000,000	1,000,000
충북	29,054	45,116	64.40	333	42	7.93	13,500,000	321,429
충남	38,690	61,747	62.66	587	46	12.76	46,000,000	1,000,000
전북	38,040	58,971	64.51	235	45	5.22	56,000,000	1,244,444
전남	40,713	63,898	63.72	262	41	6.39	35,000,000	853,659
경북	49,769	82,311	60.46	556	51	10.90	38,100,000	747,059
경남	54,407	86,517	62.89	419	49	8.55	50,000,000	1,020,408
제주	9613	16,419	58.55	90	18	5.00	9,000,000	500,000

지표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64세 이하 활동 지원 서비스 이용 인원수 (실인원)	64세이하 활동지원 서비스 (급여) 총집행액	만6세 이상 64세 이하 중증등록 장애인 수	64세이하 서비스 이용 비율 (%)	64세 이하 평균 급여량 (원)	65세 이상 활동 지원 서비스 이용인원 수 (실인원)	65세이상 활동지원 서비스(급여) 총집행액	65세 이상 중증등록장애인 수	65세이상 서비스 이용 비율 (%)	65세 이상 서비스 평균 급여량 (원)
산식 (단위)	C16(명)	C17(원)	C18 (명)	=C17/C18*100 (%)	=C17/C16 (원)	C19 (명)	C20(원)	C21B (명)	=C20/C21*100 (%)	=C19/C20 (원)
서울	22,776	498,756,164,768	86,586	26.30	5,760,240	1,994	50,215,170,550	52,853	3.77	950,091
부산	9,521	223,032,618,793	39,224	24.27	5,686,126	714	18,000,801,360	26,619	2.68	676,239
대구	6,071	143,092,077,720	29,935	20.28	4,780,093	450	142,067,357,720	16,722	2.69	8,495,835
인천	6,102	171,964,575,700	33,701	18.11	5,102,655	543	15,605,860,300	20,087	2.70	776,913
광주	5,590	132,543,576,000	13,102	42.67	10,116,286	343	8,490,896,075	8,620	3.98	985,023
대전	4,493	105,054,293,800	18,782	23.92	5,593,350	270	6,367,841,720	9,300	2.90	684,714
울산	1,926	35,261,553,507	12,043	15.99	2,927,971	108	2,342,207,132	6,931	1.56	337,932
세종	837	13,494,237,038	3,215	26.03	4,197,274	16	289,373,810	1,648	0.97	175,591
경기	29,517	603,377,539,696	135,883	21.72	4,440,420	1,739	37,191,405,106	77,869	2.23	477,615
강원	2,910	59,987,704,400	21,369	13.62	2,807,230	260	5,774,029,860	15,879	1.64	363,627
충북	3,713	90,000,000,000	23,676	15.68	3,801,318	298	5,936,181,889	13,535	2.20	438,580
충남	7,788	120,920,625,273	29,624	26.29	4,081,847	865	13,435,625,031	19,047	4.54	705,393
전북	5,163	137,643,867,000	28,109	18.37	4,896,790	461	9,957,973,000	18,030	2.56	552,300
전남	6,261	117,291,317,571	29,438	21.27	3,984,351	466	8,991,474,982	19,375	2.41	464,076
경북	5,212	112,072,767,527	38,045	13.70	2,945,795	407	43,054,660,750	25,839	1.58	1,666,267
경남	9,291	174,683,388,230	41,958	22.14	4,163,292	552	10,378,347,900	25,220	2.19	411,513
제주	1,810	35,998,634,331	9,493	19.07	3,792,124	145	3,024,537,521	4,828	3.00	626,458

지표	장애인 1인당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예산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예산 총액	등록장애인 수	1인당 장애인자립 생활지원 예산액	장애인 주거 관련 지원사업 집행 예산	65세미만 등록장애인 수	장애인 주거권 지원 수준
산식 (단위)	C22(원)	C23(명)	=C22/C23(원)	C24(원)	C25(명)	=C24/C25(원)
서울	15,993,241,000	76,862	208,077	6,158,000,000	174,738	35,241
부산	4,137,640,000	34,988	118,259	228,000,000	76,832	2,968
대구	2,248,360,000	26,762	84,013	25,245,713,000	59,918	421,338
인천	1,286,787,000	29,713	43,307	342,000,000	72,708	4,704
광주	1,899,820,000	16,642	114,158	761,740,000	36,014	21,151
대전	790,094,000	16,394	48,194	11,400,000	36,213	315
울산	523,033,000	10,480	49,908	11,400,000	26,083	437
세종	318,151,839	1,521	209,173	41,800,000	6,906	6,053
경기	3,870,593,970	117,873	32,837	38,919,252,000	292,388	133,108
강원	360,322,510	19,472	18,505	252,211,000	42,788	5,894
충북	530,899,000	21,269	24,961	323,000,000	45,424	7,111
충남	897,560,000	26,453	33,930	665,871,000	59,123	11,262
전북	4,839,242,000	25,542	189,462	572,591,620	54,169	10,570
전남	643,222,000	26,044	24,698	916,394,000	54,830	16,713
경북	125,290,940	34,432	3,639	30,000,000	73,279	409
경남	1,016,912,990	37,334	27,238	78,090,000	87,274	895
제주	444,206,460	6,980	63,640	216,700,000	18,114	11,963

4. 복지서비스 지원영역

지표	장애인복지관 총족 수준			직업재활시설 이용 확충 수준		
	등록 장애인 수	장애인 복지관 수	등록장애인 1만명당 장애인복지관 수	만18세이상 55세미만 중증(장애정도가심한) 등록장애인 수	직업재활시설 수	만18세이상 55세미만 중증(장애정도가심한) 등록장애인 5천명 당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수
산식 (단위)	D01(명)	D02(개)	=D02/D01*10,000 (개)	D03(명)	D04(개)	=D04/D03*5,000(개)
서울	391,794	51	1.30	50,290	138	13.72
부산	175,467	32	1.82	21,612	47	10.87
대구	130,520	6	0.46	17,034	41	12.03
인천	152,226	10	0.66	19,445	39	10.03
광주	69,314	7	1.01	11,282	33	14.63
대전	71,440	8	1.12	10,737	34	15.83
울산	51,383	5	0.97	4,153	17	20.47
세종	12,944	1	0.77	1,072	8	37.31
경기	586,421	39	0.67	79,628	187	11.74
강원	100,520	11	1.09	19,472	40	10.27
충북	97,117	12	1.24	13,559	28	10.33
충남	134,004	17	1.27	16,752	23	6.86
전북	130,189	14	1.08	15,606	29	9.29
전남	136,472	18	1.32	15,444	22	7.12
경북	178,341	21	1.18	21,129	47	11.12
경남	188,825	18	0.95	23,077	62	13.43
제주	36,918	6	1.63	3,934	11	13.98

지표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항목	장애인 주간 보호 시설 수	장애인 체육 시설 수	장애인 수련 시설 수	장애인 생활 이동 지원 센터 수	수어 통역 센터 수	점자 도서관 수	점자 도서 및 녹음서 출판 시설 수	장애인 재활 치료 시설 수	장애인 의료 재활 시설 수	자립 생활 지원 센터 수	정신 보건 센터 수	지적 장애인 자립 생활 센터 수	장애인 재활 지원 센터 수	기타 장애인 이용 기관 수	등록장애인 1만명당 장애인 복지관, 직업재활시설외 장애인 이용기관수
산식 (단위)	D05 (개)	D06 (개)	D07 (개)	D08 (개)	D09 (개)	D10 (개)	D11 (개)	D12 (개)	D13 (개)	D14 (개)	D15 (개)	D16 (개)	D17 (개)	D18 (개)	= (D05-D18의 합)/D01*10,000 (개)
서울	135	7	1	1	26	9	-	-	6	60	1	1	1	-	6.33
부산	67	3	-	1	7	1	-	3	-	19	17	1	1	96	12.31
대구	53	2		2	6	3	1		1	7	10			1	6.59
인천	43	3	-	1	8	1	1	6	2	11	11	1	1	20	7.16
광주	39	7	-	1	-	1	-	-	-	10	6	4	1	14	11.97
대전	48	3	-	1	5	1	-	2	3	7	6	1	1	3	11.34
울산	42	2	-	1	1	1	1	-	-	6	-	2	-	47	20.05
세종	3	-	-	1	1	1	-	-	-	2	-	-	-	-	6.18
경기	158	4	-	31	32	5	-	-	1	60	1	1	-	20	5.34
강원	20	4	2	19	19	2	-	3	1	8	7	12	2	46	14.42
충북	26	1	-	11	12	1	-	-	1	9	15	-	-	11	8.96
충남	19	4	-	15	15	1	1	104	-	7	21	-	-	30	16.19
전북	35	5	-	15	15	1	1	13	1	8	15	4	2	28	10.98
전남	28	6	-	21	21	2	2	-	-	12	24	3	2	46	12.24
경북	43	6		23	22	1			1	4	26		1	5	7.40
경남	53	2	-	20	20	1	1	3	2	19	6	-	-	12	7.36
제주	31	1		1	1	1		11	1	2	3	1		12	17.61

지표	단기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항목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수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수	등록장애인 1만명당 기타거주시설 수
산식 (단위)	D19(개)	D20(개)	$=D19+D20/D1*10,000$ (개)
서울	40	164	5.21
부산	3	34	2.11
대구	2	30	2.45
인천	5	42	3.09
광주	4	51	7.93
대전	20	43	8.82
울산	7	10	3.31
세종	0	2	1.55
경기	28	150	3.04
강원	9	25	3.38
충북	6	46	5.35
충남	7	13	1.49
전북	2	21	1.77
전남	5	20	1.83
경북	11	19	1.68
경남	11	53	3.39
제주	7	19	7.04

지표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인 복지관 종사자 수	장애인 주간 보호 시설 종사자 수	장애인 체육 시설 종사자 수	장애인 수련 시설 종사자 수	장애인 생활 이동 지원 센터 종사자 수	수어 통역 센터 종사자 수	점자 도서 관종 사자 수	점자 도서 및 녹음 서출 판 시설 종사자 수	장애인재 활 치료 시설 종사자 수	장애인 의료 재활 시설 종사자 수	자립 생활 지원 센터 종사자 수	정신 보건 센터 종사자 수	지적 장애인 자립 생활 센터 종사자 수	장애인재 활 지원 센터 종사자 수	기타 센터 종사자 수	등록장애인 1만명 당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 시설 종사자 수
항목	D21 (명)	D22 (명)	D23 (명)	D24 (명)	D25 (명)	D26 (명)	D27 (명)	D28 (명)	D29 (명)	D30 (명)	D31 (명)	D32 (명)	D33 (명)	D34 (명)	D35 (명)	=(D21-D35의합)/D01*10,000(명)
서울	1,982	599	188	3	225	137	-	-	6,906	811	357	500	3	3	14	299.34
부산	441	245	79	-	20	37	10	10	16	-	7	413	4	164	454	108.28
대구	166	210	36	-	22	33	11	6		9	28	201	-	-	722	110.63
인천	311	548	60	-	23	34	9	9	34	164	44	296	3	3	82	106.42
광주	208	202	134	-	15	-	6	-			58	143	14	4	250	149.18
대전	307	166	45	-	12	31	5	-	69	309	69	128	3	3	14	162.51
울산	136	151	51	-	18	21	4	4	15	-	9	128	9	3	84	123.19
세종	33	26	-	-	8	7	5	-	-	-	5	-	-	-	-	64.89
경기	1,591	1,228	4			200	30		-	-	438	82	3	-	142	63.40
강원	235	118	8	9	76	90	8	-	7	216	23	57	27	9	114	99.18
충북	301	171	24	0	54	54	8	0	0	14	47	245	0	0	60	100.70
충남	430	77	10	-	84	77	4	1	-	-	28	267	-	-	121	82.01
전북	316	151	19	-	67	63	3	3	81	7	43	291	16	9	114	90.87
전남	437	151	6	-	87	85	5	9	-	-	48	218	9	7	134	87.64
경북	464	189	32		103	106	6		35	13		292	-	2	12	70.31
경남	388	211	28	-	53	74	6	2	-	136	79	44	-	-	26	55.45
제주	193	227	23		14	17	7		105	29	10	108	3	-	96	225.36

지표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수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수	이용자 10명당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수
산식 (단위)	D36(명)	D37(명)	=D36/D37*10(명)
서울	987	4,126	2.39
부산	262	1,319	1.99
대구	214	1,194	1.79
인천	278	1,046	2.66
광주	165	425	3.88
대전	203	863	2.35
울산	81	325	2.49
세종	53	207	2.56
경기	1,410	4,689	3.01
강원	217	782	2.77
충북	235	934	2.52
충남	190	785	2.42
전북	164	674	2.43
전남	137	548	2.50
경북	295	1,265	2.33
경남	335	1,349	2.48
제주	156	400	3.90

지표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항목	장애 유형별 거주 시설 거주 장애인 수	중증 장애인 거주 시설 거주 장애인 수	영유아 거주 시설 거주 장애인 수	장애인 단기 거주 시설 거주 장애인 수	장애인 공동 생활 가정 거주 장애인 수	거주 장애인 수 (합)	장애 유형별 거주 시설 종사자 수	중증 장애인 거주 시설 종사자 수	영유아 거주 시설 종사자 수	장애인 단기 거주 시설 종사자 수	장애인 공동 생활 가정 종사자 수	거주 시설종사자수 (합)	거주 장애인 10명당 종사자 수
산식 (단위)	D38 (명)	D39 (명)	D40 (명)	D41 (명)	D42 (명)	= D38-D42 의합 (명)	D43 (명)	D44 (명)	D45 (명)	D46 (명)	D47 (명)	= D43~D47의 합 (명)	= D38~D42의 합/D43~D47의 합*10 (명)
서울	623	1,036	75	382	245	2,361	718	1,156	65	405	597	2,941	8.03
부산	754	148	75	27	44	1,048	334	440	62	40	112	988	10.61
대구	461	355	34	12	42	904	676	477	45	22	120	1,340	6.75
인천	256	357	31	31	44	719	375	455	50	41	136	1,057	6.80
광주	472	136	-	38	107	753	510	157	-	58	198	923	8.16
대전	357	306	31	143	74	911	469	342	33	211	145	1,200	7.59
울산	59	363	-	78	10	510	65	447	-	94	37	643	7.93
세종	73	35	0	0	3	111	97	49	0	0	8	154	7.21
경기	1,757	1,767	51	215	253	4,043	2,468	2,103	63	234	596	5,464	7.40
강원	461	464	-	67	26	1,018	650	613	-	81	103	1,447	7.04
충북	482	485	-	54	57	1,078	786	676	-	80	172	1,714	6.29
충남	621	488	-	54	21	1,184	905	616	-	82	48	1,651	7.17
전북	800	326	27	17	23	1,193	1,055	368	32	24	79	1,558	7.66
전남	608	226	-	22	34	890	918	274	-	37	92	1,321	6.74
경북	739	1,003		121	22	1,885	1,044	1,235		150	68	2,497	7.55
경남	611	542	24	101	88	1,366	780	633	25	153	215	1,806	7.56
제주	269	270		60	21	620	309	286		64	67	726	8.54

지표	장애아 통합 및 전담어린이집 비율			
항목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수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수	전체 어린이집 수	장애아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산식 (단위)	D50 (개)	D51 (개)	D52 (개)	$=(D50+D51)/D52*100(\%)$
서울	423	8	4,431	9.73
부산	66	15	1447	5.60
대구	10	17	1079	2.50
인천	109	7	1652	7.02
광주	11	11	878	2.51
대전	36	4	916	4.37
울산	18	9	612	4.41
세종	8	1	314	2.87
경기	546	20	8903	6.36
강원	24	4	847	3.31
충북	11	6	921	1.85
충남	35	11	1421	3.24
전북	10	10	944	2.12
전남	25	13	952	3.99
경북	20	14	1310	2.60
경남	44	19	1904	3.31
제주	68	4	423	17.02

5.이동(편의)·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

지표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률					
	장애인 콜택시 수	장애인 전담임차택시 수	장애인, 비장애인 공용 임차택시 수	장애인생활이 동지원센터 차량 수	장애인 콜택시 의무 대수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확보 비율
항목 (단위)	E01 (대)	E02 (대)	E03 (대)	E04 (대)	E05 (대)	(E01~E04의합) /E05*100
서울	692	76	8,600	158	576	1,653.82
부산	208	-	1,000	15	211	579.62
대구	199	-	316	14	218	242.66
인천	215	-	-	14	255	89.80
광주	127	-	228	8	128	283.59
대전	101	90	160	8	134	267.91
울산	90	-	241	13	89.3	385.22
세종	29	-	-	3	22	145.45
경기	1,209	97	-	129	849	163.20
강원	218	-	21	36	195	141.03
충북	174	-	21	17	179	118.44
충남	204	-	-	49	236	107.20
전북	233	48	-	27	275	112.00
전남	207	-	14	51	241	112.86
경북	235	5	-	51	293	99.32
경남	391	-	-	20	344	119.48
제주	68	-	174	7	68	366.18

지표	저상버스 확보 수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 비율		
항목	저상버스 보급대 수	전체 등록 시내버스대 수	저상버스 확보 비율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시설 개수	전체 지자체 기관 수	지자체 및 공공기관배리어프 리 인증시설 비율
산식 (단위)	E06 (대)	E07 (대)	=E06/E07*100(%)	E08(개)	E09(개)	=08/E09*100(%)
서울	4,858	7,385	65.78	372	476	78.15
부산	908	2,517	36.07	166	201	82.59
대구	728	1,566	46.49	198	198	100.00
인천	412	2,204	18.69	259	259	100.00
광주	394	999	39.44	103	103	100.00
대전	410	1,015	40.39	131	139	94.24
울산	127	917	13.85	70	70	100.00
세종	124	299	41.47	93	491	18.94
경기	3,509	10,538	33.30	905	1,270	71.26
강원	219	690	31.74	342	342	100.00
충북	219	857	25.55	219	285	76.84
충남	195	1,163	16.77	345	377	91.51
전북	261	673	38.78	286	624	45.83
전남	150	675	22.22	320	320	100.00
경북	265	1,515	17.49	498	575	86.61
경남	694	2,105	32.97	404	404	100.00
제주	163	829	19.66	46	46	100.00

지표	장애인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 접근예산 지원액		
항목	문화바우처+스포츠바우처+여행바우처 지원받는 장애인 수	국민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계층 장애인 수	장애인문화·여가 활동지원 사업 비율	장애인 정보통신 접근 예산 총액 (광역)	65세미만 등록 장애인 수	1인당 정보통신 접근 예산 지원액
산식 (단위)	E10 (대)	E11 (대)	$=E10/E11*100$ (%)	E12(원)	E13(명)	$=E12/E13$ (원)
서울	84,543	9,262	912.79	8,309,000,000	174,738	47,551
부산	46,415	5,034	922.03	625,713,730	76,832	8,144
대구	33,610	3,726	902.04	380,521,340	59,918	6,351
인천	35,564	7,117	499.70	986,730,451	72,708	13,571
광주	18,837	4,345	433.53	445,347,000	36,014	12,366
대전	17,514	1,695	1,033.27	188,827,150	36,213	5,214
울산	9,012	1,455	619.38	324,113,000	26,083	12,426
세종	2,013	350	575.14	138,608,000	6,906	20,071
경기	108,101	27,487	393.28	992,315,000	292,388	3,394
강원	24,354	4,184	582.07	425,373,500	42,788	9,941
충북	21,794	5,117	425.91	444,316,000	45,424	9,782
충남	26,820	4,225	634.79	1,147,499,000	59,123	19,409
전북	37,659	41,602	90.52	520,907,000	54,169	9,616
전남	36,533	10,121	360.96	544,644,400	54,830	9,933
경북	42,573	10,945	388.97	1,154,342,950	73,279	15,753
경남	40,528	7,184	564.14	647,363,800	87,274	7,418
제주	7,627	6,617	115.26	410,904,000	18,114	22,684

6. 복지행정 및 예산영역

지표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자격소지자 가점)							
	65세미만 등록장애인 수	장애인 복지 전담공무원 수	장애인복지 전담공무원 수 중 자격증 소지자 수	65세미만 등록장애인 1만명당 장애인복지 전담공무원 확보 수준	장애인복지 전담공무원 수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수 중 자격증 소지자 수	65세미만 등록장애인 1만명 당 장애인복지 전담공무원 확보 수준	65세미만 등록장애인 1만명 당 장애인복지 전담 및 전담공무원 확보 수준
산식 (단위)	F01(명)	F02(명)	F03(명)	$F04 = \{(F02 - F03) + (F03 * 2)\} / F01 * 10,000$ (명)	F05(명)	F06(명)	$F07 = \{(F05 - F06) + (F06 * 2)\} / F01 * 10,000$ (명)	F05+F07 (명)
서울	174,738	499	356	48.93	720	605	75.83	124.76
부산	76,832	178	144	41.91	289	252	70.41	112.32
대구	59,918	84	60	24.03	203	181	64.09	88.12
인천	72,708	109	104	29.30	271	226	68.36	97.65
광주	36,014	75	58	36.93	181	128	85.80	122.73
대전	36,213	78	64	39.21	138	95	64.34	103.55
울산	26,083	38	22	23.00	64	49	43.32	66.33
세종	6,906	11	8	27.51	22	20	60.82	88.33
경기	292,388	383	290	23.02	1,021	770	61.25	84.27
강원	42,788	218	199	97.46	248	218	108.91	206.37
충북	45,424	77	55	29.06	196	134	72.65	101.71
충남	59,123	110	79	31.97	279	231	86.26	118.23
전북	54,169	84	67	27.88	291	258	101.35	129.23
전남	54,830	96	91	34.11	395	358	137.33	171.44
경북	73,279	112	101	29.07	624	475	149.97	179.04
경남	87,274	151	124	31.51	423	321	85.25	116.76
제주	18,114	35	27	34.23	44	31	41.40	75.63

지표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기관별 장애관련 조례 수		
항목	장애인 관련 위원회 회의 총 개최 횟수	장애인 관련 위원회 총 위원 수	장애인 관련 위원회 총 장애인 위원 수	장애인 위원 비율	장애 관련 조례 건수	지방자치단체(광역시+기초)수	지자체별 평균 조례 수
산식(단위)	F08(회)	F09(명)	F10(명)	=F10/F09*100(%)	F11(건)	F12(개)	=F11/F12(건)
서울	5	38	21	55.26	449	26	17.27
부산	76	203	43	21.18	97	17	5.71
대구	38	115	25	21.74	55	10	5.50
인천	36	134	33	24.63	86	11	7.82
광주	16	155	53	34.19	116	6	19.33
대전	77	144	36	25.00	109	6	18.17
울산	3	57	25	43.86	75	6	12.50
세종	1	21	10	47.62	20	1	20.00
경기	263	538	123	22.86	450	32	14.06
강원	64	305	93	30.49	174	19	9.16
충북	69	175	49	28.00	115	12	9.58
충남	35	153	39	25.49	102	16	6.38
전북	86	139	30	21.58	163	15	10.87
전남	1	25	8	32.00	243	23	10.57
경북	127	268	54	20.15	175	23	7.61
경남	79	298	85	28.52	134	19	7.05
제주	2	23	8	34.78	30	1	30.00

지표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					
	65세미만 등록 장애인 수	시도 전체 인구	광역 장애인복지 예산 총액 (광역)	지방자치단체 예산 총액 (광역)	장애인 1인당 장애인복지 예산	장애인구 대비 지자체 예산 중 장애인복지 예산 비율
산식 (단위)	F13(명)	F14(명)	F15(원)	F16(원)	=F15/F13(원)	=(F15/F16)/(F13/ F14)*100(%)
서울	174,738	9,386,034	1,510,135,584,000	47,190,512,274,000	8,642	171.89
부산	76,832	3,293,362	567,415,427,000	17,882,027,133,000	7,385	136.01
대구	59,918	2,374,960	672,785,848,000	10,158,465,000,000	11,228	262.51
인천	72,708	2,997,410	394,867,394,000	10,042,510,849,000	5,431	162.10
광주	36,014	1,419,237	317,709,532,000	7,110,179,032,000	8,822	176.09
대전	36,213	1,446,216	335,137,815,000	6,561,725,000,000	9,255	203.97
울산	26,083	1,103,661	160,949,651,000	4,605,899,320,000	6,171	147.86
세종	6,906	392,311	47,894,463,000	1,595,902,586,000	6,935	170.48
경기	292,388	13,630,821	1,291,080,000,000	33,766,986,228,000	4,416	178.25
강원	42,788	1,527,807	188,346,685,000	7,523,209,036,000	4,402	89.39
충북	45,424	1,593,469	207,368,407,000	6,657,634,998,000	4,565	109.26
충남	59,123	2,130,119	262,789,426,000	8,204,500,000,000	4,445	115.40
전북	54,169	1,754,757	424,432,698,000	7,844,338,018,000	7,835	175.27
전남	54,830	1,804,217	277,780,670,000	10,338,111,480,000	5,066	88.42
경북	73,279	2,554,324	351,029,865,000	12,607,800,000,000	4,790	97.05
경남	87,274	3,251,158	413,653,842,000	10,734,119,584,000	4,740	143.56
제주	18,114	675,252	215,431,087,000	7,063,922,036,000	11,893	113.69

지표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				
항목	2024년 지방자치단체(광역) 장애인복지 예산	2024년 지방자치단체 (광역) 예산 총액	2024년 지방자치단체(기초) 장애인복지 예산	2024년 지방자치단체 (기초) 예산 총액	장애인복지 예산 지방비 비율
산식 (단위)	F17(원)	F18(원)	F19(원)	F20(원)	$=\{(F17/F18)+(F19/F20)\} * 100 / 2(\%)$
서울	976,532,323,000	1,510,135,584,000	224,598,109,000	1,170,008,247,000	41.93
부산	248,577,349,000	567,415,427,000	17,424,186,000	415,214,834,000	24.00
대구	224,148,380,000	672,785,848,000	7,118,663,000	382,237,752,000	17.59
인천	151,321,927,000	394,867,394,000	73,296,934,000	451,959,680,000	27.27
광주	148,612,715,000	317,709,532,000	10,835,030,000	336,491,192,000	25.00
대전	161,871,060,000	335,137,815,000	5,972,527,000	288,933,171,000	25.18
울산	80,649,893,000	160,949,651,000	9,560,949,000	152,649,574,000	28.19
세종	11,312,782,000	47,894,463,000	-	-	11.81
경기	259,586,000,000	1,291,080,000,000	651,171,053,249	1,394,390,755,905	33.40
강원	32,784,447,000	188,346,685,000	129,705,619,000	312,399,713,000	29.46
충북	32,480,791,000	207,368,407,000	129,043,896,000	324,089,643,000	27.74
충남	53,962,530,000	262,789,426,000	112,628,143,000	516,844,114,000	21.16
전북	173,583,734,000	424,432,698,000	127,831,902,000	411,037,545,000	36.00
전남	57,580,800,000	277,780,670,000	133,490,347,000	518,750,603,900	23.23
경북	69,771,908,000	351,029,865,000	146,913,544,000	459,424,169,000	25.93
경남	76,694,369,000	413,653,842,000	213,849,847,000	634,181,088,000	26.13
제주	98,215,941,000	215,431,087,000	64,853,365,000	162,979,736,000	42.69

지표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				여성장애인 사업 예산			
항목	65세미만 등록 장애인 수*	광역자치단체 장애인단체 지원예산 총액	기초자치단체 장애인단체 지원예산 총액	장애인 1인당 장애인단체 지원 예산액	65세미만 여성등록 장애인 수*	광역자치단체 여성장애인 지원예산 총액	기초자치단체 여성장애인 지원예산 총액	여성장애인 1인당 장애인여성 장애인지원 예산액
산식 (단위)	F16(명)	F17(원)	F18(원)	$=((F17+F16)+F18/F16)/2$ (원)	F19(명)	F20(원)	F21(원)	$=((F20+F19)+F21/F19)/2$ (원)
서울	174,738	382,133,883,109	9,444,103,010	2,240,944	58,826	2,113,512,000	5,165,592,084	123,740
부산	76,832	640,420,669	2,031,087,669	34,771	25,520	158,871,000	61,813,000	8,647
대구	59,918	9,048,556,000	831,630,000	164,895	19,744	460,747,000	124,000,000	29,616
인천	72,708	1,203,927,000	390,283,796	21,926	25,036	264,690,000	21,910,000	11,448
광주	36,014	943,700,000	879,705,000	50,630	12,449	354,156,000	35,000,000	31,260
대전	36,213	81,685,194,000	1,108,899,120	2,286,309	12,101	1,529,713,000	3,000,000	126,660
울산	26,083	36,573,681,000	568,144,000	1,423,986	8,391	321,871,000	110,744,000	51,557
세종	6,906	6,041,096,000	-	874,760	5,093	57,141,000	-	11,220
경기	292,388	6,374,125,000	20,441,667,514	91,713	93,117	397,269,000	65,535,000	4,970
강원	42,788	41,929,926,000	12,049,880,518	1,261,564	14,077	314,686,000	64,189,000	26,914
충북	45,424	1,303,921,000	4,563,154,395	129,162	14,974	140,283,000	762,423,440	60,285
충남	59,123	1,301,250,000	8,509,411,550	165,936	18,998	543,824,000	61,469,000	31,861
전북	54,169	300,000,000	3,745,138,080	74,676	18,257	227,671,000	216,781,000	24,344
전남	54,830	3,734,113,000	6,656,798,810	189,511	17,959	469,629,000	611,537,440	60,202
경북	73,279	4,370,166,000	27,499,557,800	434,909	23,646	216,150,000	706,587,000	39,023
경남	87,274	4,743,356,000	8,300,206,955	149,455	27,751	570,690,520	372,250,000	33,979
제주	18,114	18,433,857,000	1,732,323,000	1,113,292	6,191	288,636,270	77,000,000	59,059

부록 2. 2024년 전국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 비교 지표 설명 자료

2024년 조사지표는 17개 시·도별로 교육과 복지의 두 분야에서 장애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상황과 여건을 전체 지방자치단체 수준에 대비하여 총체적·집약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며, 전체 지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구분	임기 1년(2023)	임기 2년(2024)	임기 3년(2025)	임기 3년(2026)
조사 방식	테마 분야 조사 (소득 및 이동중심)	지표 전체 조사 (지자체장 중간평가)	테마 분야 조사 (보건 및 서비스 중심)	지표 전체 조사 (지자체장 평가)

조사지표는 대부분 기존과 동일하게 이루어졌고 대분류에서 교육분야와 복지분야로 구성되었다. 교육분야는 ‘교육영역 1개, 8개 지표로 구성되고, 복지분야는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8개,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 7개,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8개, ‘이동(편의)·문화여가·정보접근 영역’ 5개,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7개, 43개 지표로 구성된다. 분야 및 영역별 지표 구성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장애인 복지·교육 지표 구성

장애인 복지·교육 지표 : 2개 분야 6개 영역 43개 지표 (23년 조사는 2개 분야 3개 영역 21개 지표)

분야 및 영역		지표수
1. 교육분야	1-1. 교육영역	8
2. 복지분야	2-1.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영역	8
	2-2. 보건 및 자립 지원영역*	7
	2-3. 복지서비스 지원영역*	8
	2-4. 이동(편의)·문화여가정보접근영역	5
	2-5. 복지행정 및 예산영역*	7

* 2023년에 조사하지 않아 2022년과 2024년을 비교분석함

1. 교육분야

교육분야의 조사는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교육 수준과 여건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수준에 대비하여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교육분야 하위 9개 지표들은 ‘①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② 특수교육예산 지원 비율, ③ 특수학급 설치율, ④ 특수교사 법적정원 충원율, ⑤ 특수학급 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 ⑥ 통합교육 학생 비율, ⑦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특수학급 수 ⑧ 장애인 교원 고용률’ 이다.

1-1. 교육영역

①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지 표 명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원)
지표 정의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특수교육 예산 총액 대비 특수교육 대상자 인원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연간 어느 정도 규모의 특수교육 예산이 책정되었는지를 의미
지표의 의의	UN장애인권리협약 제24조 교육, 아태장애인10년 인천선언 5.A 아동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산 출 방 법	시·도 특수교육 예산 / 특수교육대상자 수
자 료 출 처	교육부 연차보고서

② 특수교육예산 지원 비율

지 표 명	특수교육예산 지원 비율(%)
지표 정의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전체 예산 중에서 특수교육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연간 책정된 특수교육 예산이 전체 교육예산에 대비하여 어느 정도 비중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조사
지표의 의의	UN장애인권리협약 제24조 교육, 아태장애인10년 인천선언 5.A 아동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과 5.B 취학을 증가
산 출 방 법	시·도 특수교육 예산 / 시도교육청 총교육예산 × 100
자 료 출 처	교육부 연차보고서

③ 특수학급 설치율

지 표 명	특수학급 설치율(%)
지표 정의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 관내 일반학교 중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역 내 일반학교 통합교육 실시 가능 여건이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
지표의 의의	UN장애인권리협약 제24조 교육, 아태장애인10년 인천선언 5.A 아동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과 5.B 취학을 증가
산 출 방 법	전체 특수학급 수 / 일반학교 전체 학급수 × 100
자 료 출 처	교육부 연차보고서, 교육통계연보

④ 특수교사 법정정원 충원율

지 표 명	특수교사 법정정원 충원율(%)
지표 정의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 대상자에 비례하여 특수교육 담당 교원을 법정 정원에 따라 확보하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특수교육 대상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 수의 교원 배치가 필요
지표의 의의	UN장애인권리협약 제24조 교육, 아태장애인10년 인천선언 5.A 아동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과 5.B 취학을 증가
산 출 방 법	유치원 특수교육 담당교원 수 /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수(특수학교 학생 + 특수학급 학생 + 일반학급 장애학생 +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영아) × 4 × 100 (가중치의 33% 적용)
	초·중등 특수교육 담당교원 수 / 초·중등 특수교육대상자 수(특수학교 학생 + 특수학급 학생 + 일반학급 장애학생) × 6 × 100 (가중치의 33% 적용)
	고등학교 특수교육 담당교원 수 /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수(특수학교 학생 + 특수학급 학생 + 일반학급 장애학생) × 7 × 100 (가중치의 33% 적용)
자 료 출 처	교육부 특수교육통계, 교육부 연차보고서

⑤ 특수교육 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

지 표 명	특수교육 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
지표 정의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 중 하나로 학업 및 학습상의 인적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적절한 보조인력의 확보가 필요
지표의 의의	UN장애인권리협약 제24조 교육, 아태장애인10년 인천선언 5.A 아동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과 5.B 취학을 증가
산 출 방 법	보조인력 수(유급과 무급 포함 전체) / 특수교육대상자 수(특수학교 학생 + 특수학급 학생 + 일반학급 장애학생) × 100 (가중치의 50% 적용) 유급 보조인력 수 / 특수교육대상자 수(특수학교 학생 + 특수학급 학생 + 일반학급 장애학생) × 100 (가중치의 50% 적용)
자 료 출 처	교육부 연차보고서

⑥ 통합교육 학생 비율

지 표 명	통합교육 학생 비율(%)
지표 정의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들 중에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비율을 의미하며 분리교육을 최소화한 통합교육의 실시 수준을 조사하기 위함
지표의 의의	UN장애인권리협약 제24조 교육, 아태장애인10년 인천선언 5.A 아동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과 5.B 취학을 증가
산 출 방 법	(특수학급 학생 수 + 일반학급 장애학생 수) / 특수교육대상자 수 × 100
자 료 출 처	교육부 연차보고서

⑦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특수학급 수

지 표 명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특수학급 수(명)
지표 정의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학급 학생 과밀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관내 전체 특수학급에 배치되어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수에 비례한 학급수를 조사하여 학급 당 학습 인원을 파악
지표의 의의	UN장애인권리협약 제24조 교육, 아태장애인10년 인천선언 5.A 아동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과 5.B 취학을 증가
산 출 방 법	(특수학급+특수학교) 학급 수 / (특수학급+특수학교) 학생 수 × 10
자 료 출 처	교육부 연차보고서, 교육부 특수교육통계

⑧ 장애인 교원 고용률

지 표 명	장애인 교원 고용률(%)
지표 정의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소속 교원 중 장애를 가진 교원의 비율을 조사하는 지표로 장애인 당사자의 교육 분야 고등 교육과 취업 진로 확대 수준을 보여주는 동시에 교원으로서 적합한 역할모델을 보여줌으로 장애학생 및 비장애학생에게 인식 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지표의 의의	UN장애인권리협약 제24조 교육, 아태장애인10년 인천선언 5.B 취학을 증가
산 출 방 법	시도교육청 장애인 교원 고용률(2배수 고용제 적용) ※ 2배수 고용제 적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중증 장애인’에 대해 2배수 인원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3 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의 특례’에 따름)
자 료 출 처	강경숙 국회의원실, 교육부 교원정책과

2. 복지분야

2-1.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영역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장애인의 취업과 직업재활 등 경제활동 지원 여건과 장애인 연금, 각종 수당 등 소득보전 제도의 운용 수준 등을 조사한다.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 8개 지표들은 ‘①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②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③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④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⑤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⑥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 ⑦ 직업재활시설 지원 예산 수준, ⑧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 이다.

①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지 표 명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지표 정의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 내 민간 기업 중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니는 기업(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에 채용된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
지표의 의의	UN장애인권리협약 제27조 근로 및 고용, 아태장애인10년 인천선언 1.B 장애인 일자리 확대
산 출 방 법	민간 부문 의무고용 장애인(2배수 고용제 적용) 수 / 민간부문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적용대상인원×100 (소수점 셋째 반올림) ※ 2배수 고용제 적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대해 2배수 인원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3 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의 특례'에 따름) (2024년 12월 31일 기준)
자 료 출 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② 장애인 공무원 고용율

지 표 명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지표 정의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근무하는 전체 공무원 중 적용제외 공무원(소방직) 인원을 제외한 인원 중에 장애인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
지표의 의의	UN장애인권리협약 제27조 근로 및 고용, 아태장애인10년 인천선언 1.B 장애인 일자리 확대
산 출 방 법	장애인 공무원(2배수 고용제 적용) 수 / 적용대상 공무원 수 ×100 (소수점 셋째 반올림) ※ 2배수 고용제 적용 : ①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지표 설명 참조 ※ 적용대상 공무원 수 : 전체 공무원 수(본청 및 기초자치단체; 구시군, 읍면동 포함)에서 적용제외 대상 공무원(소방직) 수를 제외한 인원 ※ 계약직, 시간제 및 기간제 공무원 제외, 휴직 및 파견의 경우 지자체가 급여를 제공하는 인원 인정
자 료 출 처	지방자치단체 제출 자료

③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지 표 명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지표 정의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와 우선구매 공기업, 공공기관이 1년 간 구매한 총 물품 구매 금액 중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제도에 따라 구입한 장애인생산품 구매물품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지표의 의의	UN장애인권리협약 제27조 근로 및 고용, 아태장애인10년 인천선언 1.B 장애인 일자리 확대
산 출 방 법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물품 구매액 / 지자체 물품 총 구매액 ×100 (가중치의 50% 적용)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물품 구매액 / 우선구매 공기업, 공공기관 등의 총 구매액 ×100 (가중치의 50% 적용)
자 료 출 처	보건복지부 자료, 한국장애인개발원

④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지 표 명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원)
지표 정의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 내의 장애아동 수당 지급 장애아동(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아동) 수에 대비한 장애아동 수당(국비 및 지방자치단체 지급액,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지급액 포함)의 지급 총액을 조사하여 지급 장애아동 1인당 연 평균 장애아동수당 지급 금액을 파악

지표의 의의	UN장애인권리협약 제28조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아태장애인10년 인천선언 1.A 극심한 빈곤해소 및 4.B 사회보호 수혜 확대, 5.A 아동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산출 방법	장애아동수당 및 지자체 추가지급액 총액 / 장애아동수당 전체지급자 수 ※ 2023년 12월 31일 집행액 기준
자료 출처	지방자치단체 제출자료

⑤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지표명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원)
지표 정의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 내의 장애인 연금 및 경증 장애수당 지급자(산정기준에 의함) 수에 대비한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국비 및 지방자치단체 장애인연금지급액, 경증 장애수당,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부가 수당 지급액 포함)의 지급 총액을 조사하여 지급자1인당 연 평균 지급 금액을 파악
지표의 의의	UN장애인권리협약 제28조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아태장애인10년 인천선언 1.A 극심한 빈곤해소 및 4.B 사회보호 수혜 확대
산출 방법	장애수당 및 지자체 추가지급액 지급총액 / 장애수당 전체지급자 수 (가중치의 50% 적용) ※ 2023년 12월 31일 집행액, 연인원 기준 장애인연금·부가급여(중증장애인) 지급총액 / 장애인연금 전체지급자 수 (가중치의 50% 적용) ※ 2023년 12월 31일 집행액, 연인원 기준
자료 출처	지방자치단체 제출자료

⑥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

지표명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비율(%)
지표 정의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 내 국민기초수급대상 장애인과 차상위 계층 장애인 수에 대비한 장애인 자립자금(보건복지부) 대여 이용 실적의 비율
지표의 의의	UN장애인권리협약 제27조 근로 및 고용과 제28조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아태장애인10년 인천선언 1.A 극심한 빈곤해소 및 4.B 사회보호 수혜 확대
산출 방법	장애인자립자금 대여건 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 장애인 수+국민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장애인 수)× 100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자료, 지방자치단체 제출 자료
--------------	------------------------

⑦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

지표명	직업재활시설 지원 예산 수준(원)
지표 정의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근로 대상 연령층의 중증(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수에 대비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지원하는데 지원된 예산의 수준을 파악
지표의 의의	UN장애인권리협약 제27조 근로 및 고용, 아태장애인10년 인천선언 1.B 장애인 일자리 확대
산출 방법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 총 집행 금액 / 근로 대상 연령층의 중증(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수(18세 이상 55세 미만) ※ 2023년 12월 31일 집행액 기준
자료 출처	지방자치단체 제출 자료

⑧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이용자 비율

지표명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
지표 정의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근로 대상 연령층의 중증(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중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하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 인원의 비율
지표의 의의	UN장애인권리협약 제27조 근로 및 고용, 아태장애인10년 인천선언 1.B 장애인 일자리 확대
산출 방법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이용자 수(직업재활교사 등 종사자 제외) / 근로대상 연령층의 중증(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수(18세 이상 55세 미만) × 100
자료 출처	지방자치단체 제출 자료

2-2. 보건 및 자립 지원영역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장애인에 대한 보건의료 인프라 확보 수준과 각종 의료비와 보조기기의 지원 수준, 활동지원과 자립생활 지원의 수준 등을 조사한다. 보건 및 자립 지원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 7개 지표들은 ‘① 장애인 1인당 장애인의료비 지원액, ② 보조기기 지원 수준, ③ 일반건강검진 수검 비율, ④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 지원 수준, ⑤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⑥ 장애인 1인당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예산, ⑦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이다.

① 장애인 1인당 장애인의료비 지원액

지표 정의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수에 대비한 장애인 의료비(국비 및 시·도비,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 포함) 지원 예산 총액을 파악하는 것으로 장애인 수급자 1인당 연간 지급되는 의료비 평균액
지표의 의의	UN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 건강, 아태장애인10년 인천선언 4.A 재활 및 보건의료 접근 향상
산출 방법	장애인 의료비 지원예산(국고+시·도 자체사업)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장애인 수 ※ 2023년 12월 31일 집행액 기준 * 시·도 자체사업은 의료급여 및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 예산 외에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약제비(비급여, 입원식대 등)를 지원하거나 지자체 자체 사업(예, 저소득장애인 의료 지원 등), 지역재활병원(장애인·장애아동 전문병원) 건립·운영 예산총액을 폭 넓게 인정함(사업실적 및 예산 자료 제출 필요)
자료 출처	지방자치단체 제출 자료

② 보조기기 지원 수준

지표 정의	②-1.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수에 대비한 보조기기 지급 총 건수(보조기기 구입비용 의료급여 지원 건수 및 보조기기 교부사업 지급 건수)를 파악하는 것으로 장애인 수급자 1인당 교부된 보조기기 평균 건수를 조사 ②-2.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수에 대비한 보조기기 지급 예산 총액(보조기기 구입비용 의료급여 예산 총액 및 보조기기 교부사업 지급 예산 총액)을 파악하는 것으로 장애인 수급자 1인당 보조기기 지급 예산을 조사
지표의 의의	UN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자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통합과 제25조 건강, 아태장애인10년 인천선언 3.D 보조기구 보급 확대와 4.C 자립생활 지원 강화
산출 방법	②-1. (보조기기 구입비용 의료급여 지급 건수 + 보조기기 교부 건 수)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장애인 수 × 100 (가중치의 50% 반영) ※ 2023년 12월 31일 집행액 기준 ②-2. (보조기기 구입비용 의료급여 지급 총액 + 보조기기 교부 예산 총액)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장애인 수 (가중치의 50% 반영) ※ 2023년 12월 31일 집행액 기준

자료 출처	지방자치단체 제출 자료
--------------	--------------

③ 일반건강검진 수검비율

지표 정의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수에 대비한 실제 수검비율 수준을 조사
지표의 의의	UN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 건강, 아태장애인10년 인천선언 4.A 재활 및 보건의료 접근 향상
산출 방법	일반건강검진 수검인원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수 × 100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④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 지원 수준

지표 정의	④-1.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비 및 검진비 지원 실인원 수에 대비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총 일수를 조사 ④-2.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비 및 검진비 지원 실인원 수에 대비한 여성장애인 출산 및 검진비 지원 예산 총액을 조사
지표의 의의	UN장애인권리협약 제10조 생명권, 제23조 가정과 가족 존중, 아태장애인10년 인천선언 4.A 재활 및 보건의료 접근 향상, 6.C 장애여성 성, 여성 보건 서비스 접근 보장
산출 방법	④-1. 장애인 산모 도우미 파견 총 일수 / 2023년에 출산지원비 및 검진비를 지원 받은 실 인원수 (가중치의 50% 반영) ※ 삼태아 포함 ④-2.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 예산 총액 / 2023년에 출산지원비 및 검진비를 지원 받은 실 인원수 (가중치의 50% 반영) ※ 2023년 12월 31일 집행액 기준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자료

⑤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지표	⑤-1, ⑤-3.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대상 인원 중 실제로 활
-----------	---

정의	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한 실인원의 비율 ⑤-2, ⑤-4. 이용 대상 인원에 대비한 활동지원서비스(활동지원급여) 예산 총액을 파악한 대상자 1인당 평균 활동지원 예산액 지급 수준을 함께 조사
지표의 의의	UN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자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통합, 제23조 가정과 가족 존중, 아태장애인10년 인천선언 4.C 자립생활 지원 강화
산출 방법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활동지원서비스(활동지원급여) 이용 실인원수 /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수 × 100 =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활동지원 서비스(활동지원급여) 이용 비율 (%) (가중치의 40% 반영)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활동지원서비스(활동지원급여) 및 지자체 추가 지원사업 총 급여액(원) /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수 =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활동지원서비스(활동지원급여) 대상인원 1인당 평균 급여량 (원) (가중치의 40% 반영) ※ 2023년 12월 31일 집행액 기준
	만 65세 이상 활동지원서비스(활동지원급여) 이용 실인원수 / 만 65세 이상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수 × 100 = 만 65세 이상 활동지원서비스(활동지원급여) 이용 비율 (%) (가중치의 10% 반영)
	만 65세 이상 활동지원서비스(활동지원급여) 및 지자체 추가 지원사업 총급여액(원) / 만 65세 이상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수 = 만 65세 이상 활동지원서비스(활동 지원급여) 대상인원 1인당 평균 급여량 (원) (가중치의 10% 반영) ※ 2023년 12월 31일 집행액 기준
자료 출처	지방자치단체 제출 자료

⑥ 장애인 1인당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예산

지표 정의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등록 중증성인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인원수에 대비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예산(IL센터 지원, 자립생활정착금, 자립생활체험홈 등) 총액을 파악하는 것으로 1급 성인 장애인 1인당 평균 자립생활지원 예산액 수준을 조사
지표의 의의	UN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자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통합, 아태장애인10년 인천선언 4.C 자립생활 지원 강화
산출 방법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예산·자립생활정착금 지원 예산·체험홈 지원예산 / 18세 이상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수 ※ 2023년 12월 31일 집행액 기준
자료 출처	지방자치단체 제출 자료

⑦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지표 정의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등록장애인 인원수에 대비한 장애인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장애인 주택 개조(주거환경 개선사업), 장애인 가구 집수리, 장애인 주거비 지원 등) 총액을 파악하는 것으로 성인 장애인 1인당 평균 주거비지원 예산액 수준을 조사
지표의 의의	UN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자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통합, 아태장애인10년 인천선언 4.C 자립생활 지원 강화
산출 방법	광역자치단체 장애인 주거 지원 제공 사업(장애인 대상의 집수리, 주거환경 개선, 주거비 지원 등) 예산액 /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수 ※ 2023년 12월 31일 집행액 기준 * 장애인 주거비 지원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및 관련사업자에게 지원한 동법 ‘제12조 주거약자용 주택 임대사업자 지원’, ‘제15조 주택개조비용 지원’ 예산과, ‘장애인 대상의 지원주택 관련 예산(임대보증금, 임대료, 주거유지지원서비스 등)’, ‘장애인 대상 전월세 대출보증료 및 이자지원’ 등 관련 사업 실적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폭넓게 인정
자료 출처	지방자치단체 제출 자료

2-3.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장애인에 대한 복지 시설 및 관련 인력의 확보수준을 통해 복지서비스 지원 인프라의 수준을 비교 조사한다.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 8개 지표들은 ‘①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② 직업재활시설 이용 확충 수준, ③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④ 단기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⑤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⑥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⑦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⑧ 장애아 통합 및 전담어린이집 비율’이다.

①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지표 정의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등록장애인 수에 대비한 지역사회재활시설 I (장애인복지관)의 수를 파악하는 것으로 장애인 1만명 당 장애인복지관의 설치율을 조사
지표의 의의	UN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자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통합, 아태장애인10년 인천선언 4.A 재활 및 보건의료 접근 향상
산출 방법	장애인복지관 수 / 등록장애인 수 × 10,000(장애인 1만명 당 장애인복지관 수)
자료 출처	지방자치단체 제출 자료

② 직업재활시설 이용 확충 수준

지표 정의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근로대상 연령의 중증 등록장애인 수에 대비한 직업재활시설 수를 파악하는 것으로 장애인 5천 명 당 직업재활시설 설치율을 조사
지표의 의의	UN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자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통합, 제27조 근로 및 고용, 아태장애인10년 인천선언 1.B 장애인 일자리 확대
산출 방법	직업재활시설 수 / 18세 이상 55세 미만 중증(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수 × 5,000(취업연령대 성인장애인 5천명 당 직업재활시설 수)
자료 출처	지방자치단체 제출 자료

③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지표 정의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등록장애인 수에 대비한 지역사회재활시설Ⅱ (장애인복지관과 직업재활시설을 제외한 법정 재활시설 및 기타 장애인 이용시설)의 수를 파악하는 것으로 장애인 1만명 당 지역사회재활시설Ⅱ의 설치율을 조사
지표의 의의	UN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자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통합, 아태장애인10년 인천선언 4.A 재활 및 보건의료 접근 향상
산출 방법	장애인복지관 외 법정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수련시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수어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자도서 및 녹음서·출판시설, 장애인재활치료시설) 수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수 + 자립생활지원센터 수 + 기타 장애인이용기관(①,②,④)를 제외한 지자체 운영 장애인지원센터: 자립생활지원센터, 정신보건센터, 지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재활지원센터 등 기타 센터-지자체가 고정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독립사업에 한해 인정-) 수 / 등록장애인 수 × 10,000(장애인 1만명 당 장애인복지관 외 법정 지역사회재활시설 수)
자료 출처	지방자치단체 제출 자료

④ 단기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지표 정의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등록장애인 수에 대비하여 대규모 거주시설이 아닌 단기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의 수를 파악하는 것으로 장애인 1만명 당 대안적 거주시설의 설치율을 조사
지표의 의의	UN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자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통합, 아태장애인10년 인천선언 4.A 재활 및 보건의료 접근 향상
산출 방법	단기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 수 / 등록장애인 수 × 10,000 (장애인 1만명당 단기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수)
자료 출처	지방자치단체 제출 자료

⑤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지표 정의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등록장애인 수에 대비한 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복지관, 복지관 및 직업재활시설 외 법정지역사회재활시설, 기타 비법정지역사회재활시설)의 종사 인력 확보수준을 파악하는 것으로 장애인 1만명당 지역사회재활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수를 조사
지표의 의의	UN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자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통합, 아태장애인10년 인천선언 4.A 재활 및 보건의료 접근 향상
산출 방법	장애인복지관 외 법정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수련시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수어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자도서 및 녹음서·출판시설, 장애인재활치료시설) 수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수 + 자립생활지원센터 수 + 기타 장애인이용기관(①,②,④)를 제외한 지자체 운영 장애인지원센터: 자립생활지원센터, 정신보건센터, 지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재활지원센터 등 기타 센터-지자체가 고정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독립사업에 한해 인정-) 수 / 등록장애인 수 × 10,000(장애인 1만명 당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수) ※ 2023년 12월 31일 근무 종사자 현원 기준
자료 출처	지방자치단체 제출 자료

⑥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지표 정의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수에 대비한 직업재활시설의 종사 인력 확보수준을 파악하는 것으로 근로 연령 대상층 장애인 1만명 당 직업재활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수를 조사
--------------	--

지표의 의의	UN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자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통합, 제27조 근로 및 고용, 아태장애인10년 인천선언 1.B 장애인 일자리 확대
산출 방법	직업재활시설의 종사자 수 / 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훈련장애인+근로장애인) 수 × 10 (이용장애인 10명 당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수) ※ 2023년 12월 31일 근무 종사자 현원 기준
자료 출처	지방자치단체 제출 자료

⑦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지표 정의	조사대상 지역사회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수에 대비한 장애인 거주시설(유형별 장애인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포함)의 종사 인력 확보수준을 파악하는 것으로 이용 장애인 10명 당 장애인거주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수를 조사
지표의 의의	UN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자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통합, 아태장애인10년 인천선언 4.A 재활 및 보건의료 접근 향상
산출 방법	장애인거주시설(유형별 거주시설 + 단기거주시설 + 공동생활가정)의 종사자 수 /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장애인 수 × 10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 10명 당 종사자 수) ※ 2023년 12월 31일 근무 종사자 현원 기준
자료 출처	지방자치단체 제출 자료

⑧ 장애아 통합 및 전담어린이집 비율

지표 정의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어린이집 중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 및 장애아동 통합 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중을 조사
지표의 의의	UN장애인권리협약 제23조 가정과 가족 존중, 제19조 자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통합, 아태장애인10년 인천선언 5.A 아동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산출 방법	장애아 통합 및 전담어린이집 수 / 전체 어린이집 수 × 100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자료

2-4. 이동(편의)·문화여가정보접근 영역

이동(편의)·문화여가·정보접근 영역은 각 지방자치단체별 구축된 장애인 이동권 및 접근권 인프라와 문화, 체육, 여가활동, 정보 접근 지원 수준을 비교 조사한다. 이동(편의)·문화여가·정보접근 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 5개 지표들은 ‘①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률, ② 저상버스 확보 수준, ③ 지자체 및 공공기관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 비율, ④ 장애인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⑤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 접근예산 지원액, 이다.

①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률

지표명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운영 수준(%)
지표 정의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확보 의무 수준에 대비한 실제 특별운송수단(대안적 방법을 포함) 확보수준을 조사
지표의 의의	UN장애인권리협약 제20조 개인의 이동, 아태장애인10년 인천선언 3.B 대중교통 접근성
산출 방법	장애인콜택시, 임차택시(장애인 전담, 장애비장애 공용), 장애인심부름센터차량 수 / 장애인콜택시 의무대수 × 100
자료 출처	지방자치단체 제출 자료

② 저상버스 확보수준

지 표 명	저상버스 확보 수준(대)
지표 정의	조사대상 지역 등록장애인 수에 대비한 저상버스 확보 수준을 조사
지표의 의의	UN장애인권리협약 제20조 개인의 이동, 아태장애인10년 인천선언 3.B 대중교통 접근성
산 출 방 법	저상버스(※중저상버스 제외) 보급 대수 / 전체 등록 시내버스 대수 × 100
자 료 출 처	지방자치단체 제출 자료

③ 지자체 및 공공기관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 비율

지 표 명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 비율
지표 정의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 내 의 공공기관 건축물 중 배리어프리 인증(본인증에 한함)을 받은 누적 건축물의 현황을 파악
지표의 의의	UN장애인권리협약 제20조 개인의 이동, 아태장애인10년 인천선언 3.A 공공 물리적 환경 접근성
산 출 방 법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 받은 시설 수(누적수) / 전체 지자체기관 수 × 100 ※ 지자체기관 수 = 시도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시도/시군구가 직접 운영하는 기관(위탁 운영하는 복지서비스 기관 등은 제외)
자 료 출 처	한국장애인개발원, 지방자치단체 등의 제출자료

④ 장애인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율

지 표 명	장애인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비율(%)
지표 정의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 내 저소득 등록장애인 인구 수에 대비한 장애인 문화·여가활동(문화·스포츠·여행 바우처) 지원 장애인 연인원을 조사하여 장애인 문화·체육·여가활동 지원사업 참여 비율을 파악
지표의 의의	UN장애인권리협약 제30조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 및 스포츠에 대한 참여
산 출 방 법	문화·여가활동바우처(문화바우처+스포츠(관람)바우처+여행바우처)지원받은 장애인 수(연인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장애인 수 × 100
자 료 출 처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제출자료

⑤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 접근예산 지원액

지 표 명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원)
-------	-------------------------

지표 정의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 내 등록장애인 인구 수에 대비한 장애인 정보통신 접근 관련 지원 예산 총액을 조사하여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정보통신 접근 지원 예산액 수준을 파악
지표의 의의	UN장애인권리협약 제9조 접근성, 제21조 의견·표현 및 정보접근의 자유, 아태장애인10년 인천선언 3.C 정보 및 의사소통 접근성 <예시> 정보통신접근 관련 명목: 장애인의 정보 및 매체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예산으로 예를 들어 정보통신보조기기 지급, pc보급 및 수리, 정보화 교육, 장애인 정보 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 점자소식지 발간, 독서보조기기 지원 등이 포함. 단, 통신요금, tv수신료 등 공공요금 성격의 비용과 관련 기관 운영비 지원은 제외
산출 방법	광역자치단체 장애인 정보통신접근 관련 명목으로 지출된 예산총액 / 65세 이하 등록장애인 수 ※ 2023년 12월 31일 집행액 기준, 광역예산만 해당
자료 출처	지방자치단체 제출자료

2-5. 복지행정 및 예산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 행정 및 사업 수행을 위해 구축하여 운영 중인 조직과 인력 등의 인프라와 예산의 구성 수준을 비교 조사한다.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 7개 지표들은 ‘①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수준, ②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③ 기관별 장애관련 조례 수, ④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 ⑤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 ⑥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 ⑦ 여성장애인 사업 예산’ 이다.

①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지표 정의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등록장애인가 수에 대비한 장애인 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의 수를 조사하여 장애인 1만명 당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배치 수준을 파악
지표의 의의	UN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자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통합
산출 방법	①-1. 장애인복지 전담 공무원 수(광역+기초(읍·면·동 포함), 자격증 소지시 가정 부여) / 등록장애인 수 × 10,000 (가중치의 50% 적용) 장애인복지 전담 공무원=장애인복지 업무만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 ※ 자격증 소지 :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수어통역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보조공학사 등 장애인복지 관련 자격 또는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해당 공무원이 종사하는 전문

	분야 자격(편의시설 담당자의 건축사 자격 등)에 한함 ①-2.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수(광역+기초(읍·면·동 초함), 자격증 소지시 가점 부여) / 등록장애인 수 × 10,000 (가중치의 50% 적용) 장애인복지담당 공무원=장애인복지 외 업무와 함께 한 가지 이상의 장애인복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
자료 출처	지방자치단체 제출자료

②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지표 정의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을 해당 위원회(종합적인 정책 심의 및 결정 등을 위한 위원회에 한함) 개최 건수와 전체 구성위원 중 장애인 당사자 위원의 포함 비율을 조사하여 산출 * 장애인복지법 제13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에 근거하여 조례에 의해 설치·구성된 위원회로 해당 지자체의 장애인복지 정책(계획) 또는 예산을 논의하는 위원회에 한함
지표의 의의	UN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자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통합, 제29조 정치와 공적 생활 참여, 아태장애인10년 인천선언 2.A 정부 의결기구 장애인 참여 확대, 2.B 정치참여 편의제공
산출 방법	②-1. 장애인관련 위원회 회의 총 개최 횟수(건) (가중치의 50% 적용) ②-2. 장애인 관련 위원회 장애인 당사자 위원 수/장애인 관련 위원회 총 위원 수 = 장애인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건/명) (가중치의 50% 적용)
자료 출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제출자료

③ 기관별 장애관련 조례 수

지표 정의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의 총 수에 대비한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 장애인 관련 조례의 총수(시행령, 시행규칙 제외)를 조사하여 지방자치단체 당 평균 조례 제정 수 파악
지표의 의의	UN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자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통합, 제29조 정치와 공적 생활 참여, 아태장애인10년 인천선언 2.A 정부 의결기구 장애인 참여 확대, 2.B 정치참여 편의제공

산출 방법	장애관련 조례 수(광역+기초) / 지방자치단체 수 (광역+기초) - 기초단체의 경우 광역단체 조례의 영향을 받아 비슷한 내용으로 제정한 경우 조례 수에 편입하지 않음
자료 출처	지방자치단체 제출자료, 법제처사이트

④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

지표 정의	④-1.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인구 수에 대비한 장애인 복지 예산 총액을 조사하여 장애인 1인당 평균 장애인복지 예산액을 산출 ④-2.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인구 중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인구 비율에 대비한 2023년 전체 광역자치단체 예산 총액 중 장애인복지 예산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 ※ 예산액이란 추경예산을 제외한 본예산만을 의미함 (추후 동일)
지표의 의의	UN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자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통합
산출 방법	④-1. 2023년 지방자치단체(광역) 장애인복지 예산총액 /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수 (가중치의 50% 적용) ④-2. (2023년 지방자치단체(광역) 장애인복지 예산총액 / 2023년 지방자치단체(광역) 예산총액 / (지방자치단체 65세 미만 등록장애 인구 / 지방자치단체 전체 인구) × 100 (가중치의 50% 적용)
자료 출처	지방자치단체, 예산서(https://lofin.mois.go.kr)

⑤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

지표 정의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의 2016년 장애인복지 예산 총액 중 국비 지원 예산을 제외한 시·도비 자체 예산의 규모를 조사하여 전체 장애인 복지 예산 중 지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 ※ 예산액이란 추경예산을 제외한 본예산만을 의미함
지표의 의의	UN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자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통합
산출 방법	⑤-1 2023 지방자치단체(광역) 장애인복지 자체 예산(국비예산을 제외한 시·도비예산) / 2023 지방자치단체(광역) 장애인복지 예산총액 × 100 (가중치의 50% 적용) ⑤-2 2023 지방자치단체(기초) 장애인복지 자체 예산(국비와 시·도비예산을 제외한 기초자치단체 시·군·구비 예산) / 2023 지방자치단체(기초) 장애인복지 예산총액 × 100

	(가중치의 50% 적용)
자료 출처	지방자치단체, 예산서

⑥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

지표 정의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광역시 및 기초)의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수에 대비한 장애인단체 육성 및 지원 예산액을 조사하여 65세 미만 장애인 1인당 장애인단체 육성·지원 예산액 수준을 파악
지표의 의의	UN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자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통합, 제29조 정치와 공적 생활 참여, 아태장애인10년 인천선언 2.A 정부 의결기구 장애인 참여 확대, 2.B 정치참여 편의제공
산출 방법	⑥-1 지방자치단체(광역시)의 장애인단체 지원예산액 총액 / 광역자치단체의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수 ※ 예산지원이 된 장애인단체 모두 포함 (가중치의 50% 적용) (주1) 수탁(위탁)사업을 포함한 장애인단체 지원 ⑥-2 지방자치단체(기초)의 순수 장애인단체 지원예산액 총액 / 광역자치단체의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수 ※ 예산지원이 된 장애인단체 모두 포함 (가중치의 50% 적용) (주2) 수탁(위탁)사업을 포함한 장애인단체 지원
자료 출처	지방자치단체, 예산서

⑦ 여성장애인 사업 예산

지표 정의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광역시 및 기초)의 여성 등록장애인 인원수에 대비한 여성장애인 지원사업 예산 총액을 파악하는 것으로 여성 장애인 1인당 평균 여성장애인지원사업 예산액 수준을 조사 ※ 예산액이란 추경예산을 제외한 본예산만을 의미함
지표의 의의	UN장애인권리협약 제10조 생명권, 제16조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제23조 가정과 가족 존중, 아태장애인10년 인천선언 4.A 재활 및 보건 의료 접근 향상, 6.A 장애여성 개발기회 동등 접근, 6.B 장애여성 정부의결 기구 참여 보장, 6.C 장애여성 성, 여성 보건 서비스 접근 보장, 6.D 장애여성 폭력 학대 보호 조치
산출 방법	⑦-1 지방자치단체(광역시) 장애인여성 관련 지원예산액 / 광역자치단체의 65세 미만 등록여성장애인 수 (가중치의 50% 적용)

	⑦-2 지방자치단체(기초) 장애인여성 관련 지원예산액 총액 / 광역자치단체의 65세 미만 등록여성장애인 수 (가중치의 50% 적용)
자 료 출 처	지방자치단체, 예산서

발행일 : 2024년 11월 00일 발행

발행처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이룸센터 4층

전화 : 02-783-0067

팩스 : 02-783-0069

이메일 : mail@kodaf.kr

편집·인쇄 : 블루애드 02)6082-7076

ISBN 3022-036X